사회과학 론문집

1997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사회과학론문집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권 두 언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빛나는 승리로 장식한 1996년을 보내고 어버이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85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탄생 55돐의 민족적대경사로 뜻깊게 기념하게 되는 새해 1997년을 맞이하였다.

지난해 조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감으로써 온갖 시련을 과감히 이겨내고 주체사회주의보루를 더욱 굳건히 다지였다.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투쟁에 발맞추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서한을 구현한 총련 제17차 전체대회 결정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첫해에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특히 중등교육실시 50돐과 조선대학교창립 40돐을 장식하는 민족교육의 해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사업에서 새 바람을 일으켜나갔다.

내외반동들의 류례없이 악랄한 반공화국책동과 경제적시련속에서 조성된 일시적난국을 타개하시기 위하여 나라의 정사를 진두지휘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중등교육실시 50돐과 조선대학교창립 40돐에 즈음하여 재일조선과학자들과 교육자들을 친어버이심정으로 극진히 보살펴주시며 공화국의 학위학직을 수여하여주시는 크나큰 영예를 안겨주심으로써 우리모두를 무한히 고무하여주시였다.

사협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사협 제14차대회 결정관철에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사협은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선전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신념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고 연구부회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며 사협의 군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협일군들과 회원들은 위대성선전과 총련사업, 국내외정세를 해설선전하는 글을 그 어느때없이 많이 써냈으며 연 150여회에 걸쳐 각종 강연회에 출연하였다. 뿐만아니라 사협회원들의 생활마당인 연구부회활동을 활성화하고 교또, 오사까, 효고, 아이찌, 쥬시꼬꾸에 사협지부조직을 새로 내오고 반을 정비강화함으로써 자기의 조직적면모를 일신하였다.

실로 지난해는 사협에 있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사협 제14차

대회 결정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한 긍지높은 해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정치사상분야에서나 경제문화분야에서나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있는 조건에서 사회과학부문전문가들을 사회주의정치사상전선, 경제문화전선의 믿음직한 전초병으로 사회주의사상리론의 옹호자, 선전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제자답게 올해를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충성으로 더 높이 받들어모시는 행운의 해로 장식해나갈것이다.

우리들은 올해 애국사업의 요구에 맞게 총련의 사상리론전선의 초병으로서의 자체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며 새 시대 애국운동의 기수된 영예를 더 크게 떨쳐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올해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과 주체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신념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정치, 경제, 문화, 력사, 지리, 언어, 교육 등 사회과학의 다방면에 걸치는 연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높은 연구성과를 이룩해나갈것이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55돐을 기념하는 연구토론회를 높은 충성심과 자랑찬 연구성과로 빛내일것이다.

우리들은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응하여 주체의 정세관을 똑바로 세우고 과학리론수준을 한층 높이며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에 사상리론적으로 이바지하는 활동을 특색있게 진행할것이다.

올해 우리들은 새로 조직된 지부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높이고 도호꾸지방과 규슈지방에 지부조직을 새로 내올것이며 사협회원들의 생활마당인 연구부회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그 운영수준을 높여나갈것이다.

우리는 회원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재일조선인운동의 요구를 깊이 자각하여 수령과 조국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다듬고 불타는 열정으로 맡은바 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올해를 의의깊은 한해로 빛나게 장식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1997년 2월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차　　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최근시기 령도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리 영 수…(6)

후계자에 의한 령도의 계승은 해외교포운동승리의
학고한 담보 ……박 기 범…(15)

《이민위천》정치의 근본특징 ……김 화 효…(25)

주체의 도덕관 ……박　　룡…(38)

의식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주체적관점 ……성 기 진…(46)

작가 강경애의 미학적리상에 대하여 ……오 향 숙…(57)

근세일본의 침략적대외정책의 특징에 대하여 ……백 종 원…(68)

《유사립법》문제와 조선반도 ……한 계 옥…(78)

메모—《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건설에 대하여》……강 희 봉…(84)

공화국창건을 절대 지지하며 경축하기 위한 조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에 대하여 ……손 문 규…(94)

《새 세대 동포들의 의식조사》결과에 대하여……오 규 상…(117)

중세기 우리 나라 도시형성과 그 발전에 대하여 ……리 대 희…(151)

아메노히보꼬와 나니와의 히메꼬소사신 ……고 관 민…(163)

지방의 자연지리적조건과 공업기지의 창설(2) ……사 공 준…(17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최근시기 령도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리 영 수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서거하신지 벌써 2년유여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 기간 우리 나라는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주체사상의 기치,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주체위업완성의 한길로 드팀없이 전진하였으며 사회주의의 보루로서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였다.

그 비결을 우리는 최근시기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벌리고계시는 령도활동에서 찾게 된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여기에 우리 나라가 끄떡없이 나아가는 결정적 요인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남조선과 일본에서의 보도나 글들을 보면 우리의 견해와 너무나도 다를뿐아니라 허위와 날조로 가득차있다.

연구론문이란 성격을 띤 글들을 보더라도 《비판적견지》밑에 불신과 독선에 기초한 《연구》와 아무런 리론적인 안받침이 없는것들이 많아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최근시기 령도활동에 대한 리해에서 혼란과 편견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되고있다. 그 중요요인은 수령의 령도활동연구의 목적과 방법론에서의 차이에 있다.

이 글에서는 후계자의 령도활동연구에서 제기되는 방법론적인 문제와 그에 기초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이후에 벌리고계시는 령도활동의 특징을 밝히는데 중심을 두고 고찰하려고 한다.

1. 후계자의 령도활동연구에서 제기되는 방법론적문제

력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사료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평가와 함께 어떤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심중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어떤 목적밑에 어떤 방법론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력사》가 달리 서술되기때문이다.

그러면 후계자의 령도활동연구에서 견지하여야 할 연구방법론이란 무엇이며 특히 혁명위업을 개척한 첫 수령이 서거한후 후계자의 령도활동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1)수령사연구방법론 특히는 수령의 후계자의 력사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정확한 리해에 기초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후계자문제는 정치적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입니다. 수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은 그 후계자에 의하여 변함없이 계승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110페지)

후계자는 혁명의 새로운 단계의 수령인것만큼 그 령도활동연구에서는 필연적으로 수령사연구방법론(*①)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후계자의 력사는 첫 수령의 혁명력사와는 달리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과정에 따르는 고유한 활동내용을 가지게 된다는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첫째로, 혁명의 령도적지위에 추대되는 과정과 관련한 활동이다.

후계자는 선행수령이 생존해있고 그 령도가 실현되고있는 조건에서 활동을 개시하게 되는것만큼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령도자로서의 탁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있는가 어떤가가 검열되는 과정이 있게 된다.

이 과정은 후계자가 수령의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자기의 활동과정에 업적을 이룩하게 되며 그 업적으로 하여 후계자로서의 령도적권위를 지니게 되는 과정 다시말하여 후계자추대과정으로 된다.

첫 수령의 경우는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정치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한 그때로부터 수령으로서의 령도적지위에서 활동을 벌리게 되며 후계자와 같은 추대과정을 거치지 않다.

둘째로, 후계자로 추대된 이후 수령의 령도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좌하는 과정과 관련한 활동이다.

첫 수령의 경우는 보좌활동과정은 없으며 이것은 후계자에게만 있게 되는 고유한 활동내용이다.

후계자는 추대이후 수령을 전면적으로 보좌하게 되며 그 령도활동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 이르는 사회전반을 포괄하게 된다.

추대이후의 후계자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령도활동을 벌리게 되며 이 과정이 곧 후계자의 령도체계확립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으로 된다는것이다.

셋째로, 첫 수령의 서거와 관련한 활동이다.

첫 수령이 서거한 이후 후계자는 당대의 유일한 수령으로서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첫 수령인 경우는 이러한 활동과정은 제기되지 않으나 개척된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도록 하기 위한 담보를 마련하는 활동을 벌리게 된다.

이렇듯 후계자의 력사는 새 시대의 수령의 력사라는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첫 수령과 동일하나 대를 잇는 수령이라는 측면에서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리해에 기초하여야만 후계자의 령도활동을 옳게 연구하고 서술할수 있다.

2)첫 수령이 서거한 이후의 후계자의 령도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후계자의 령도활동에 일관되고있는 근본자세와 립장에 대한 고찰이 매우 중요하게 제기된다.

후계자의 령도활동에 일관된 문제에 대한 고찰이 첫 수령이 서거한 이후의 후계자의 령도활동연구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은 후계자가 《진짜 후계자》인가 어떤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되기때문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에는 수령의 《후계자》라고 하는 인물이 수령의 생존시에는 충실한 것처럼 행세하다가 수령이 서거한 이후 수령의 믿음을 저버리거나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망쳐먹은 불미스러운 력사가 수많이 기록되고있다.

그러므로 후계자가 견지하고있는 근본자세와 립장을 정확히 분석평가하는것은 후계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첫 수령의 대를 잇는 후계자인가 어떤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는것이다.

후계자의 령도활동에 일관된 문제에 대한 고찰에서는 후계자가 지닌 사명과 관련하여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어떻게 계승완성하려는가 하는 문제가 기본으로 된다.

수령의 혁명위업은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의 순결성이 옹호되고 수령이 창조한 혁명전통이 고수되며 수령이 창건한 당이 강화발전되여야 옳게 계승완성된다.

따라서 수령이 서거한후 후계자의 활동연구에서는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과 혁명전통, 수령이 마련한 혁명의 주체, 특히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순결성에 대한 후계자의 자세와 립장을 서거이전과의 련관속에서 연구분석하는것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3)첫 수령이 서거한 이후의 후계자의 령도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특색》과 《변화》를 주되게 론하는 오유를 범하지 말하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활동과 관련한 남조선이나 일본에서의 보도나 글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집중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김정일정권은 변화할것인가, 변화한다면 어떻게 변화할것인가?》하는 물

음밑에 정책전망 및 체제변화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주요관심이 돌려져있으며(*②) 일본에서도 《추대》가 언제 이루어지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데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이러한 론조들은 많은 경우 《체제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기초하고있으며 동구라파사회주의의 붕괴를 표본으로 하여 그에 맞추어 해석한것들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심중하게 대하여야 하며 《특색》이나 《변화》를 주되게 론하는 편향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말하여 자본주의적언론이나 연구의 관점, 시각에서 고찰하는 경향을 경계하여야 한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자본주의하에서의 정치지도자의 교체는 선대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실책을 범하거나 더 이상 정권을 지탱하기 어렵게 된 경우나 임기만료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부터 다음 대의 정치지도자는 자기의 《특색》이나 《변화》를 강조하고 내세우며 인민들로부터 인기와 지지를 얻자고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관련하여 자본주의하 정치지도자의 교체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그 《특색》이나 《변화》에 주되는 관심이 돌려지는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론의속에서 후계자의 령도활동 특히 서거이후의 령도활동을 고찰하게 되면 리론적으로는 후계자문제를 력사발전에서 노는 개인의 역할의 틀속에서 해석하거나 착취사회에서 진행되는 정치지도자의 교체나 《권력의 계승》과 동일시하는 오유를 범하게 된다.

물론 우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 후계자라는 의미에서는 첫 수령의 령도활동과 구별되는 고유한 령도활동내용이 있게 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변화된 환경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위업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이지 결코 자본주의하에서 있게 되는 그 어떤 《변화》와 《특색》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것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후계자의 령도활동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

2. 최근시기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령도활동은 수령의 혁명위업계승완성의 새 력사를 개척한 빛나는 모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이후에 벌리고계시는 령도활동에 대한 연구는 선대 수령이 서거한 이후 후계자가 수령의 혁명위업을 어떻게 계승완성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리론실천적해답을 도출하며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령도활동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타파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본래 서거이후의 령도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우에서 언급한 연구방법론에 의거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 이르는 모든 령도활동을 종합분석하고 그를 내용별로 리론화, 체

계화할것이 요구되나 여기서는 서거이후의 령도활동의 근본특징에 대하여서만 론하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이후에 벌리고계시는 령도활동의 근본특징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계승완성에서 새로운 력사를 개척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는데 있다.

그 근거는 첫 수령의 서거이후 후계자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리론실천적인 해답을 주고있기때문이다.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시작된지 150년의 력사를 헤아리게 되였으나 유감하게도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사상리론과 뚜렷한 경험을 남기지 못하고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으면 짧은 기간에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으리라고 예견하였기때문에 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리론적으로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레닌은 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로동계급이 전취한 혁명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는 문제로 보았으나 그 본질과 거기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특히 선행고전가들은 력사발전에서 개인일반과 로동계급의 수령을 동일한 범주에 놓고 보는 시각에서 고찰함으로써 수령문제를 전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였으며 이로부터 그 대를 잇는 후계자문제는 리론실천적으로 미해결문제로 남게 되였다.

일반적으로 맑스의 대를 레닌이 이었으며 레닌의 대는 쓰딸린이 이었다고 한다.

레닌의 경우는 맑스주의사상의 충실한 계승자라는 의미에서는 후계자로서의 경험을 남기였다고 할수 있으나 현시기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실천적인 경험을 남기지 못하였다.

쓰딸린은 레닌의 위업을 계승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간직하고 레닌주의를 정식화하고 그를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업적과 경험을 이룩하였다.

쓰딸린은 1924년 1월 21일에 레닌이 서거한후 쏘련쏘베트 제2차대회에서 당을 대표하여 레닌이 남긴 유훈을 수행할것을 맹세(＊③)하였으며 레닌선집의 출판, 베테르부르그를 레닌그라드로 개칭, 레닌묘의 건설, 레닌기념입당운동 등을 조직하였다. 그는 레닌서거이후 제국주의포위속에서 내외원쑤들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공업화와 농업집단화를 완성하고 쏘련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으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쓰딸린은 후계자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성, 일관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남기였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쓰딸린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계승에 관한 문제를 리론화하지 못하였으며 특히는 자기의 후계자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쏘련에서는 혁명위업의 명맥이 끊어지게 되였다.

이렇듯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계승에 관한 문제 특히는 수령이 서거한 이후 후계자가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까지 미해결문제로 남게 되였으며 우리 시대에 와서 새롭게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리론실천적인 해답을 주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자신의 령도활동과정을 통하여 수령이 서거한 이후 후계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리론실천적해답을 주시였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밝히신 수령의 영생론이다.

종래 수령의 영생에 대하여서는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의 보편적진리성에 기초하여 수령은 그가 창시한 혁명사상과 더불어 영생한다고 하였으나 수령의 영생의 본질과 내용 및 담보에 대해서는 전면적해명이 주어지지 않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참다운 인민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서거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으며 수령은 사회정치적집단의 존재와 더불어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 최고뇌수로서 영생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또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라는 력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시여 수령은 당과 함께 영생하게 되며 수령의 영생은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킴으로써만 확고히 담보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또한 자신의 령도활동과정을 통하여 탁월한 령도자, 후계자를 모시는것이 수령의 영생을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 진리를 보여주시였다.

이것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사상리론적담보를 마련하신것으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계승완성에 관한 사상리론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자신의 령도활동과정을 통하여 수령이 서거한후 후계자는 선대 수령을 어떻게 모시고 그 위업을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모범을 창조하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창조하신 실천적모범들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다.

첫째로, 후계자는 수령의 서거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수령의 전사라는 근본자세와 립장을 견지하여야 하며 가장 순결한 도덕관을 지니고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는것이다.

수령의 후계자의 첫째징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수령의 서거이후 후계자가 어떤 자세와 립장을 견지하는가 하는 문제는 혁명위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

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이후 나는 언제나 자신을 수령의 전사로 생각하여왔으며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나 서거하신 지금이나 변함없이 수령님의 전사로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에도 그전과 변함없이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것을 자신의 총적목표로 삼으시고 수령의 전사로서 모든 활동을 벌리시였으며 금수산기념궁전의 건설 등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받들어모시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통하여 후계자가 지녀야 할 근본자세와 립장, 도덕관의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또한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라는 력사적인 로작에서 혁명선배의 최고대표자인 수령에 대한 후계자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그대로 명문화하심으로써 후계자는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최고귀감으로 되여야 하며 그래야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시였다.

둘째로, 후계자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이 이룩한 모든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를 전면적으로 계승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하나도 덜지 말고 전면적으로 계승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1992년 4월17일말씀)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고수하지 못하면 혁명의 명맥이 끊어지게 되며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잃어버리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이후 발표하신 일련의 로작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집대성하고 리론화하심으로써 그를 영원히 빛내일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마련하시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김일성주의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 그 혁명적기치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데 대한 신념과 의지를 밝히시였으며 2년이란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하여 5편의 로작을 련이어 발표하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새롭게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또한 전당, 전국, 전민을 유훈관철에로 조직동원하시고 당창건 50돐 기념탑, 청류다리, 금강산발전소 건설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드팀없이 진행되도록 하시였으며 그 과정에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한층 강화하고 혁명의 주체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심으로써 주체혁

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자신의 령도활동을 통하여 후계자는 수령의 서거이후 수령이 이룩한 모든 령도업적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빛내여야 하며 거기서 기본은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을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 그를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이라는것 그리고 수령의 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간다는것은 곧 수령의 유훈을 심장으로 받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사업을 수령의 생전의 뜻대로 벌려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는것을 보여주시였다.

셋째로, 후계자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 사업을 철저히 전통화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선배들을 어떻게 대하며 그들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참다운 후계자와 배신자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그가 당과 혁명위업에 충실한 일군들을 더 많이 키워내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잘 교양하여 그들이 모두 혁명선배들을 존중하는 전통을 잘 지키도록 하면 우리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꿋꿋이 계승되여나가게 될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44권 118~119페지)

수령의 위업은 장기간에 걸치는 력사적위업이며 따라서 수령의 위업을 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과 령도업적을 계승하여야 하며 이 사업을 철저히 전통화하여야 한다.

첫 수령의 력사적사명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개척하고 그 대를 이어나갈수 있는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는데 있다면 후계자의 력사적사명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고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철저히 전통화함으로써 혁명위업승리의 영원한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해명을 주시고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을뿐아니라 그를 대를 이어 전통화하도록 령도하고계신다.

특히 새 세대교양에 특별한 관심과 힘을 넣으시고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 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자》라는 력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심으로써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하고 전통화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해명을 주시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벌리고계시는 최근시기의 령도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되며 앞으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생활력과 정당성이 더욱 력력히 확증되게 될것이다.

이상과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자신의 령도활동과정을 통하여 혁명위업계승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후계자의 력사의 귀감을 창조하고계신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서는 물론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도 일찌기 찾아볼수 없는 세기적인 사변으로 되며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력사에서 영원히 금문자로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21세기 우리 나라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계승완성하는 나라로, 인류력사를 새롭게 장식한 나라로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옳바른 자세와 연구방법론을 가지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령도활동을 연구하고 그 위대성을 적극 해설선전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

(주)

(*①)~수령사란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구체적사료를 가지고 서술한 력사를 말한다.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수행하며 그 지위와 역할은 혁명의 주체속에서 발현되게 된다.

따라서 수령사를 연구하는데 기본은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속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연구하는것이다.

수령사연구에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문제는 수령을 대중과 떨어진 고립적인 존재로 보고 그 활동을 《개인》의 활동으로 서술하는것이다.

(*②)~남조선에서의 연구동향에 대하여서는 잡지 《북한》, 1994년 9월호에서 류호렬이 3가지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리찬행은 자기의 저서 《인간 김정일, 수령 김정일》에서 국내외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주요관심사항은 《북의 지도자 김정일은 누구인가?》, 《김정일시대에 부각된 인물들은 누구인가?》, 《김주석이 없는 북의 체제를 그가 안정적으로 이끌어갈수 있을까?》, 《남북관계를 비롯한 로선과 정책은 어떻게 발전할것인가?》하는 점이라고 하였으며 남조선에서의 연구동향의 문제점을 주장의 론리나 근거의 빈약, 반공이데올로기와 불신에 기초한 일방적인 비판에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③)~쓰딸린이 다진 맹세의 내용은 ①당원이란 위대한 칭호를 높이 들고 순결하게 고수하는 문제 ②당의 통일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할데 대한 문제 ③프로독재를 고수강화할데 대한 문제 ④로농동맹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⑤쏘련련방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⑥적군(赤軍)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⑦국제공산당을 확대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이다.

후계자에 의한 령도의 계승은 해외 교포운동승리의 확고한 담보

박 기 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시고 빛내여오신 주체적인 재일조선인운동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해외교포운동의 새로운 경지를 계속 앞장서 개척해나가고있다.

격동되는 환경속에서도 힘있게 전진해나가고있는 재일조선인운동의 현실은 령도의 계승문제가 해결된 해외교포운동만이 오직 그 승리를 위하여 곧바로 추진되여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글에서는 해외교포운동승리의 확고한 담보인 후계자에 의한 령도의 계승문제를 주로 해외교포운동발전의 합법칙성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상의 견지에서 고찰해 보았다.

1. 후계자에 의한 령도의 계승은 해외교포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

인류의 발전력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다.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은 인류의 리상인것만큼 그 승리는 필연적이지만 그것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수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될것을 전제로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령도자가 결정적역할을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쟁취한 자주성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투쟁에서도 령도자가 결정적역할을 합니다. 력사적경험은 령도의 계승성이 옳게 보장될 때에는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혁명이 우여곡절을 겪게 되며 나아가서 이미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도 잃어버리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투쟁이 그러하지만 특히 자기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진행되는 해외교포운동은 그가 놓여진 조건과 환경, 수행하여야 할 임무로부터 어느 사회적운동보다도 시종일관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계승을 절실히 요구한다. 해외교포운동은 수령의 령도가 끊임없이 보장될 때 주체적인 성격이 철저히 고수된 해외교포운동으로

서 그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개되여나갈수가 있다.

후계자에 의한 령도의 계승이 해외교포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되는것은 첫째로, 후계자의 령도계승이 해외교포운동의 장래발전을 위한 필수적요구이기때문이다.

해외교포운동은 무엇보다도 대를 이어 진행하여야 할 장기적인 위업이다.

일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여러 단계의 투쟁과업을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종국적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이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해외교포는 본국민족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해외교포들이 벌리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복무함으로써만 그 승리를 이룩할수가 있다.

해외교포운동은 또한 남의 나라 땅에서 진행된다는 조건으로부터 사회제도기반을 같이하는 거주국인민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정형의 영향도 받게 된다.

원래 해외교포들자신에 고유한 자주성문제는 자기 나라 해외공민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남의 나라땅에서나마 인권과 생활권, 기업권을 비롯한 모든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 공인된 합법적권리를 완전히 행사하도록 하는 문제인것만큼 해외교포들자신이 주인이 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따라 그 실현정도가 좌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해외교포들자신에 고유한 이와 같은 문제들 특히 인권, 생활권, 기업권과 같은 문제들은 거주국인민들에게도 제기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에 그 실현을 위한 해외교포들의 투쟁이 결코 거주국인민들의 자주성문제와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문제라고 할수 없으며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해외교포들에 고유한 자주성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제반 조건들이 달라질수 있다고 볼수 있다.

해외교포운동은 또한 부단히 높아지는 해외교포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다.

해외교포운동은 교포사회의 구성상특징으로부터 각계각층 교포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해외교포운동의 심화발전과정은 각계각층 교포들의 다양한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공통된 투쟁목표를 설정하고 단합된 힘으로 그 달성을 위하여 투쟁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각계각층 교포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는 일정한 목표달성까지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다음단계에서는 다시 새로운 다양화된 요구와 리해관계로 나타나게 됨으로 해외교포운동은 부단히 높아지는 각계각층 교포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해외교포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일반적의미에서뿐만아니라 그가 놓여진 조건과 환경으로부터도 필연적으로 장기성을 띠게 되는 력사적위업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해외교포운동은 다음으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할 간고한 투쟁이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해외교포운동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현시대를

반영하여 새롭게 전개되게 된 운동이며 선조로부터 대대손손 살아온 자기 나라 강토가 아니라 남의 나라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객관적조건하에서 진행되는 운동이다. 이로부터 해외교포운동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의 장구한 투쟁력사를 놓고 볼 때는 새로운 분야의 사회적운동이라고 할수 있다.

인류의 끊임없는 사회변혁과정에서 당대의 선진사상들은 커다란 긍정적영향을 미치였다.

특히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인류의 마지막 착취제도인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큰 공적을 남기였다. 그러나 선행한 혁명리론을 비롯한 진보적사상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 땅에 고착되여 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여 문제를 전개하였기때문에 남의 나라에 나가 사는 해외교포들의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취급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부터 해외교포들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는 기성 리론이나 투쟁경험에 의거하여서는 옳바로 해명할수 없으며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나가야 할 미개척분야의 문제로 제기되게 되였다.

후계자에 의한 령도의 계승은 이러한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게 되는 해외교포운동을 승리에로 곧바로 전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후계자는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적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사상을 창시하고 그 력사적시원을 열어놓은 수령의 사상리론적업적을 전면적으로 계승하여 해외교포운동의 전진도상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나간다.

후계자는 우선 수령의 사상을 철저히 고수하고 그를 가일층 발전풍부화해나간다.

후계자는 수령이 창시한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시키며 해외교포들이 그를 운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대를 이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게 한다.

후계자는 또한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해외교포운동이 새로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과학적예견성과 심오한 통찰력으로 예리하게 분석판단하여 방침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움으로써 해외교포운동의 장래발전을 확고히 담보해나간다.

해외교포운동은 수령의 후계자에 의한 령도의 계승에 의해서만 언제나 주동적인 태세로 걸음마다 제기되는 난관과 시련을 승리적으로 극복해나갈수 있다.

후계자에 의한 령도의 계승이 해외교포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되는것은 둘째로, 후계자의 령도계승이 해외교포운동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요구이기때문이다.

해외교포운동의 주체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굳게 결속된 해외교포들이다. 해외교포들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이국땅에 있으나 자기 나라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애국애족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가는 해외교포조직의 두리에 굳게 결속될 때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있다.

해외교포운동의 성패는 주체가 튼튼히 마련되는가 어떤가에 달려있다. 그것은 해외교포

운동이 해외교포들자신을 위한 운동이며 해외교포들자신의 힘에 의거하여서만 전진될수 있는 운동이기때문이다.

후계자에 의한 령도의 계승은 해외교포운동의 주체를 가장 공고한 결합체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후계자는 무엇보다도 해외교포운동의 주체를 수령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일적인 통일체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게 한다.

주체의 공고성은 다름아닌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된 통일단결의 공고성이다. 후계자는 자신이 지닌 근본사명으로부터 해외교포들을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실천활동에 적극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감으로써 해외교포들을 사상의지적으로 결합된 강력한 주체로 되게 한다.

후계자는 또한 해외교포운동의 주체를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더욱 굳게 결속된 위력한 투쟁대오로 꾸리게 한다.

해외교포들은 조직적으로 결속되여야만 그들이 지닌 높은 의사와 요구, 창조적지혜와 능력이 실천활동에 구현될수 있다. 해외교포들을 조직적으로 결속시키는데서 중심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통일시키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수령이다.

후계자는 해외교포들을 수령이 창건한 해외교포조직에 적극 망라시킴으로써 수령의 의도대로만 움직이는 조직되고 동원된 투쟁력량으로 키우게 한다.

후계자는 다음으로 해외교포운동의 주체를 혈연적뉴대로 맺어진 생활력있는 운명공동체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게 한다.

이국땅의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는 해외교포운동은 그 어떤 일반적 질서나 규범만을 가지고서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없다. 해외교포운동은 령도자와 해외교포들사이에 사랑과 믿음, 충성과 효성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해외교포조직을 통하여 교포들사이에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서로 돕고 이끄는 동포애에 넘친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만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회적운동으로 될수 있다.

수령의 의도와 구상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체현하고있는 후계자는 해외교포들을 자기 조국의 어엿한 해외공민으로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을 수령의 령도따라 대를 이어 애국애족의 길에서 참된 삶을 누려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준다. 후계자는 또한 조국과 멀리 떨어져 사는 해외교포들을 늘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의 품에 안아 보살펴주며 수령이 바라는대로 해외교포들에게 온갖 배려를 다 돌려준다. 이와 함께 후계자는 교포들사이에 화목과 단합을 강화함으로써 해외교포사회에 언제나 건전한 민족문화정서가 차넘치게 하며 모든 교포들이 서로 돕고 믿고 사랑하며 서로 돕고 이끄는 교포애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한다.

후계자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교포들은 해외교포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바친 수령의 평생로고와 교포들에게 돌려진 뜨거운 은정을 언제나 잊지 않으며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후계자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을 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로 간직해나가게 된다.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갈 굳은 각오를 다지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철옹성같이 뭉친 해외교포들처럼 위력한 사회적집단은 없다.

이와 같이 후계자의 령도계승은 해외교포운동의 주체를 조직사상적인 결합이 혈연적뉴대로 안받침된 가장 공고한 결합체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근본요구이다.

해외교포운동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시종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운동이 심화될수록 더욱 튼튼한것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해외교포운동의 주체를 대를 이어 계승되는 공고한 결합체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만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해외교포운동의 주체를 대를 이어 계승되는 공고한 결합체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고리는 자라나는 새 세대 청년들을 전 세대들보다 더 잘 준비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의 전도와 재일조선인운동의 운명은 새 세대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격변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총련을 더욱 강화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려면 새 세대 청년들을 전 세대보다 더 잘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총련애국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

새 세대 청년들은 수령의 령도따라 전 세대들이 개척하고 발전시켜온 해외교포운동의 계승자들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새 세대 청년들이 전 세대들보다 더 잘 준비되여야만 해외교포운동의 주체가 대를 이어 계승되는 공고한 결합체로 더욱 튼튼히 꾸려질수 있으며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후계자에 의한 령도의 계승은 새 세대 청년들을 전 세대들보다 더 잘 준비시킴으로써 해외교포운동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후계자는 무엇보다도 새 세대 청년들이 전 세대들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하여놓은 애국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도록 이끈다.

전 세대들이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룩한 업적들은 해외교포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며 새 세대 교양의 산 교과서이다. 거기에는 이국땅의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을 계속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모든 사상정신적량식과 풍부한 투쟁경험이 깃들어있다.

후계자는 새 세대 청년들이 전 세대들을 존대하고 그들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것을 숭고한 도리,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도록 교양하며 실천활동에 옳바로 구현해나가게 한다.

후계자는 다음으로 새 세대 청년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배려를 돌림으로써 그들이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해외교포운동발전에 앞장서나가도록 이끈다.

수령의 후계자는 누구보다도 새 세대 청년들의 특질과 요구, 그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과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있다. 후계자는 생기발랄하고 용감하며,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희생적으로 투쟁하는 청년들의 특질에 맞게 대담하고 참신한 과업을 제시하며 그 수행과정을 통하여 새 세대 청년들을 해외교포운동의 주인공으로 키워나간다.

후계자는 또한 새 세대 청년들이 실천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내세워줌으로써 그들이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해외교포운동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이바지해나서게 한다.

해외교포운동의 주체는 이러한 후계자의 정력적인 령도로 하여 새 세대 청년들이 전 세대들보다 더 잘 준비되여나감으로써 그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보다 강화된 위력한 력량으로 발전되게 된다.

후계자에 의한 령도의 계승이 해외교포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되는것은 셋째로, 후계자의 령도계승이 세계해외교포운동에서 총련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부터 제기되는 절실한 요구이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총련은 애국애족의 선각자이고 애국충정의 모범이며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입니다.》

오늘 세계에는 1억을 헤아리는 해외교포들이 살고있고 자기 나름의 교포조직들도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 총련과 같이 주체적이며 애국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가고있는 해외교포조직은 어디에도 없다. 이로부터 총련앞에는 세계해외교포운동에서 선구적모범을 계속 빛내여나가야 할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후계자의 령도계승은 무엇보다도 총련이 애국애족의 선각자로서 해외교포운동의 새 력사를 계속 앞장서 개척해나가기 위한 요구이다.

총련이 애국애족의 선각자란 총련이 주체사상의 붉은기를 들고 해외교포운동의 새 력사를 개척한 선각자라는것을 의미한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그대로 실천한 첫 해외교포조직이다. 총련은 지난 기간 애국애족의 선각자로서 수령의 령도따라 자주시대 해외교포운동의 진로를 앞장서 개척하여왔다. 총련의 력사는 곧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이 력사이다.

현시기 랭전구조가 종식되고 자주성실현의 추세가 더욱 촉진되여가고있는 정황속에서 세계해외교포운동앞에는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을 새로운 발전단계에로 끌어올려야 할 높은 요구가 제기되고있다.

후계자의 령도계승은 총련이 자체의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킴으로써 주체

적인 해외교포운동의 선각자로서의 임무를 다해나갈수 있게 하는 절실한 요구이다.

후계자의 령도계승은 다음으로 총련의 애국충정의 모범을 계속 창조해나가기 위한 요구이다.

총련의 애국충정의 모범이란 총련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민족적자주성실현의 구호를 높이 들고 애국애족의 한길을 걸어온 해외교포운동의 빛나는 모범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총련은 지난 기간 재일동포들의 운명은 민족적자주성실현을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옳바로 개척될수 있다는 확고한 진리로부터 그를 전면에 내세우고 애국애족의 한길을 걸어왔다. 총련이 벌려온 재일동포들을 애국애족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수호하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는 사업들은 민족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해외교포들의 빛나는 모범으로 되고있다.

후계자의 령도계승은 총련이 지난 기간의 투쟁에서 이룩한 애국충정의 모범을 계속 꽃피워나가게 함으로써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정당성과 위력을 높이 떨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후계자에 의한 령도의 계승은 다음으로 총련이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서의 위용을 계속 떨쳐나가기 위한 요구이다.

총련이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란 총련이 해외교포조직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되는 자기 당과 자기 수령,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에 대한 충실성의 본보기조직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자기 당과 자기 수령,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에게 충실한 조직으로 꾸리는것은 해외교포조직건설의 근본원칙이다. 해외교포조직은 자기 당과 자기 수령에게 충실하여야만 당과 수령의 의도와 구상대로 해외교포운동을 조직전개해나갈수 있다. 해외교포운동의 전진도상에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 예견치 않는 사태들이 조성되게 된다. 그럴 때마다 해외교포운동을 우여곡절없이 곧바로 추진시키자면 해외교포조직이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활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해외교포조직은 또한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에게 충실하여야만 조국과 민족의 리익에 철저히 복무해나가는 참된 애국애족운동을 조직전개해나갈수 있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으며 그 사이에는 서로 다른 력사와 문화가 있다. 이로부터 매개 나라와 민족들앞에는 그의 륭성번영을 위한 자체의 고유한 임무가 나서게 된다. 해외교포조직이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의 리익에 맞는 참된 애국애족운동을 전개해나가자면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에 충실하여야 한다.

지난 기간 총련이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앞에 크나큰 업적을 쌓아올릴수 있었던것은 자기 당과 자기 수령,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에 충실하였기때문이다.

총련이 자기 당, 자기 수령을 지지하고 조국의 륭성번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모습은

세계해외교포들의 참된 본보기로 되고있다.

수령의 후계자에 의한 령도의 계승은 총련이 자기 당과 자기 수령,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주하고 그 전통을 빛나게 이어나감으로써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조직으로서의 위용을 계속 떨쳐나가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2. 후계자의 유일적령도체계는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대를 이어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령도 체계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령도의 계승문제는 수령의 대를 이어나가는 후계자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움으로써만 빛나게 해결될수 있다.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수령의 령도과정은 해외교포들이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단결을 이룩하며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되여나가는 과정이다. 해외교포운동에서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는 수령의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운동을 전개하며 수령의 교시와 명령, 지시에 따라 교포조직과 교포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하는 령도의 체계이다.

후계자는 다음대의 수령인것만큼 후계자의 유일적령도체계도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와 본질상 같으나 령도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

후계자의 유일적령도체계는 무엇보다도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을 개척한 수령을 영원히 받들어모시고나갈수 있게 하는 령도체계이다.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을 개척한 수령을 영원히 받들어모시고나가는것은 해외교포조직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사업방향이다.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그를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며 수령이 이룩한 업적은 그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부로 된다. 해외교포조직이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을 개척한 수령을 영원히 받들어모시고나가야만 해외교포들이 대를 이어 수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수령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이 해외교포운동에 쌓아올린 령도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수 있다.

후계자의 유일적령도체계에는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을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하나도 덜함이 없이 그대로 이어나갈수 있게 하는 모든 요구가 구현되여있다.

후계자의 유일적령도체계는 우선 후계자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요구한다.

수령의 위업을 계승한 후계자에 대한 충실성은 곧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을 개척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이라야 참답고 공고한 충실성으로 될수 있으며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여도 해외교포조직이 언제나 수령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나갈수 있다.

후계자의 유일적령도체계는 또한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후계자의 명령과

지시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어김없이 실천할것을 요구한다.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끝까지 실현하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는것은 후계자에게 쥐여진 중요한 사명이다. 해외교포운동을 이끌어나가는 후계자의 명령과 지시는 수령의 구상과 의도의 철저한 구현이며 그 실현을 위한 현행방침이다. 해외교포운동은 후계자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나감으로써만 수령이 제시한 모든 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을 과시하고 수령의 위업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다.

후계자의 유일적령도체계는 다음으로 해외교포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령도체계이다.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은 그 발전의 합법칙성으로부터 자체운동을 부단히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것을 절박하게 요구한다.

해외교포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이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령의 사상을 심화발전시킨 후계자의 사상과 리론의 전면적인 구현을 의미한다. 유일적령도체계는 후계자의 사상과 리론을 해외교포운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후계자의 유일적령도체계는 우선 해외교포조직과 교포들이 후계자의 사상과 리론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운동을 조직전개해나가게 한다.

해외교포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려면 변화된 환경에 맞게 운동의 면모를 일신하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어렵고 방대한 과업은 해외교포운동의 전망을 내다본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에 의거하여서만 원만하게 수행되여나갈수 있다.

후계자의 유일적령도체계는 해외교포조직과 교포들이 후계자의 사상과 리론을 유일정당한 지도적지침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게 함으로써 해외교포운동이 우여곡절없이 곧바로 전진하는 위력한 운동으로 되게 한다. 후계자의 유일적령도체계는 또한 해외교포조직과 교포들이 후계자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함으로써 해외교포운동을 끊임없이 전진시키게 한다.

해외교포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극복해나가야 할 간고한 투쟁과정이다. 해외교포운동에서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굳은 결속과 행동의 일치는 그 계승발전의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후계자의 유일적령도체계는 해외교포조직과 교포들이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후계자의 령도를 받들어나가게 함으로써 그를 조직되고 동원된 강력한 투쟁대오로 꾸리게 한다.

후계자의 유일적령도체계는 실무적으로가 아니라 꾸준하고 원칙적인 투쟁과정을 통하여서만 확고히 세울수가 있다.

후계자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해외교포들이 후계자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는것이다.

위대성에 대한 깊은 체득은 후계자의 령도가 확고히 실현되여나갈수 있게 하는 초석으로 된다.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해외교포들이 높은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후계자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굳은 마음을 간직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사업은 후계자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과정에서 선차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후계자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해외교포조직안에 후계자의 유일적령도밑에 모든 사업을 조직집행해나가는 혁명적기풍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후계자의 령도는 해외교포조직을 통한 체계적이며 정상적인 령도이다. 해외교포조직안에 후계자의 령도를 무조건적으로 받들어나가는 기풍과 질서가 세워질때에만 해외교포운동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후계자가 제시하는 로선과 방침이 신속정확히 현실운동에 구현되여나갈수 있다. 해외교포운동은 이러한 후계자의 령도체계에 의하여 수령의 령도가 대를 이어 확고히 실현되여나감으로써 끊임없이 발전해나가게 된다.

주체적인 재일조선인운동은 령도의 계승문제에 있어서도 력사상 처음으로 빛나는 해결을 이룩한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이다.

그것은 후계자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벌려온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꾸준한 투쟁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해외교포운동의 선구적모범을 빛내여나갈것이다.

《이민위천》정치의 근본특징

김 화 효

1989년 동독이 무너진것을 계기로 일본과 남조선의 일부에서는 그 무슨 〈북조선붕괴설〉이라는것이 나돌고있다.

그 근거로서

· 식량난과 경제부진

· 최근에 불어나고있다는 공화국에서의 〈망명자〉의 발언

· 김정일장군님의 건강문제와 당총서기, 국가주석에로의 취임이 늦어지고있다는 문제 등을 올리고있다.

〈북조선붕괴설〉을 의도적으로 흘리고있는 주된 기관은 남조선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와 주〈한〉 미군사령부이다.

그러나 미국의 클린턴행정부나 유엔기관들에서는 이른바 〈붕괴설〉이 근거없는것으로 부정하고있다.

남조선의 량심적인 학자들속에서는 〈북조선이 오늘 래일 망한다고 법석을 떨어온지 벌써 7년이 지나는데도 이북은 끄떡없이 나아가고있다. … 붕괴란 무엇인가 아직 그 개념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서 너무 쉽게 쓰고있다. …이북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하고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의 사회주의재건로선에 대하여 연구를 깊이는 싹들이 나오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련이어 붕괴되던 때 우리 나라만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휘날릴수 있은것은 무엇때문인가!

그 중요한 비결은 공화국에서 실시되고있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이민위천》의 정치에 있다고 보아진다.

이 글에서는 구 쏘련과 동구라파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역풍이 불어오는 속에서도,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반공화국〈고립〉, 〈압살〉책동을 악착하게 감행하는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끄떡없이 나아가고있는것은 주체

의 정치리념을 구현한데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이민위천》정치의 근본특징에 대하여 생각해보자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의 근본특징은 자주, 민주, 단결, 인덕의 정치라는데 있다.

1. 자주의 정치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이민위천》정치의 근본특징은 무엇보다도 자주의 정치라는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는 자주적인 정치입니다.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결합되여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자주적인 정치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단행본, 14페지)

사람은 일정한 사회관계속에서 생활하며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인민대중의 운명은 바로 사회관계를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의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된다.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회변혁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업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옳바른 정치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자주적인 정치란 자기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민족,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지기 민족,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뜻한다.

정권은 있어도 자주적인 정치를 하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고수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게 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지난날 리조봉건통치배들은 민족, 인민의 리익보다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우위에 놓고 사대주의적 매국배족적인 정치를 하여 종국에는 우리 민족, 우리 인민을 일제의 식민지노예로 전락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도 저들의 안일과 향락, 권세를 민족, 인민대중의 리익보다 우위에 놓고 사대매국행위로 권좌를 유지해보려 하면서 남녘땅을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정치에서의 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독립과 자주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도 직접 정치에 의존하는것만큼 인민대중의 운명은 정치적자주성에 의해 좌우된다.

자주적인 정치의 첫째 전제는 인민정권을 세우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는것만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인민정권을 세우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야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것이다.

정권이 자주성을 행사하자면 그것이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게 그들의 손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남녘땅에서는 8·15후 이른바 〈정부〉란것이 출현하고 〈정권〉이 여러번 교체되였지만 그것이 남조선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여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은 매번 짓밟히고 〈정권〉의 조작, 교체의 시나리오를 짜는것으로부터 〈대통령〉을 앉히고 갈아치우는것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미국이 제 마음대로 하였다.

미제가 로구 리승만을 군용비행기에 태워 미군병사들의 호위밑에 하와이로부터 서울로 끌어들여 〈정치교육〉을 시킨 다음 〈5·10단선〉을 조작하여 초대 〈대통령〉자리에 앉히였으며 4·19인민항쟁에 의해 쫓겨나자 다시 강제로 〈하야성명〉을 내게 하고 미국으로 실어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독재자 박정희를 내세운 〈5·16쿠데타〉와 쓸모없게 된 그를 쏴죽이게 하고 살인마 전두환을 내세운 〈10월사건〉이나 〈12·12숙군쿠데타〉도 미제의 배후지휘밑에 감행되였다. 그리고 6월항쟁의 파도에 밀려난 군사깡패 로태우에게 〈6·29민주화선언〉을 쥐여주어 〈대통령〉감투를 씌운것도, 손때묻은 정치간상배 김영삼에게 〈민정〉, 〈민주〉, 〈공화〉3당통합에 의한 정치쿠데타 시나리오를 짜주고 〈문민대통령〉의 감투를 씌워준것도 미제였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남녘땅에서의 정치적지배자는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자주적인 정치는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결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는 정치이다.

정치에서 남의 압력과 간섭을 받아들이거나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인다면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수 없으며 결국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잃고 자주성을 상실하게 된다.

구 동구라파나라들의 사회주의를 〈이식된 사회주의〉라 평하는것은 자기의 똑똑한 지도사상을 가지고있지 못하고 사대와 교조의 늪에 빠져 구 쏘련의 로선과 정책을 그대로 모방하였으며 구 쏘련의 대국주의자들의 압력과 간섭에 굴복하여 심지어 당과 정부의 〈인사정책〉까지도 쏘련의 대국주의 정치인들의 손에서 좌지우지되게 하였다.

자기의 지도사상이 없으면 옳고 그른것을 가려볼수 없게 되며 자기의 신념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규정할수 없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구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복귀에 따라 동구라파나라들에서도 련속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게 된것은 필연적인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다시말하여 자기의 지도사상이 없이 사대와 교조에 기초한 정책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것이다.

미제의 식민지정책의 하수인인 남조선의 통치배들에게 자기의 독자적인 정치철학이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것이다.

미국의 압력에 의한 〈쌀시장개방〉, 〈이북의 핵위협〉에 대한 〈국제공조체제〉의 운운 등

김영삼과 력대 통치배들이 내놓은 〈정책〉이란 뇌수없는 〈정치인〉이 배후조종자의 메가폰의 역할을 하는것이다.

남조선의 력대 집권자들은 미군의 남조선영구주둔과 〈핵우산보호〉를 구걸하며 별의별 쓸개빠진짓을 다 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반미기운이 앙양되자 미제는 인민대중의 반미감정을 무마시켜보려고 남조선주둔 미군을 끌어내갈것처럼 말하자 남조선의 집권배들은 큰 변이 난것처럼 떠들면서 〈내각총사퇴〉극까지 연출하여 미군의 장기주둔을 애걸하였다.

이전시기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클라크공군기지와 수비크해군기지 사용료로 년간 12~14억딸라를 받아냈는데 남조선의 통치배들은 오히려 시설과 부지를 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것은 물론 막대한 유지비와 인력 및 로무비까지 지불하고있다. 미국신문 『월스트리트져널』까지도 남조선은 〈미군의 계속주둔을 요구하고있고 심지어는 미군주둔비 부담을 증가시키겠다는 용의를 표명하고 있는 유일한 곳으로 되고있다〉고 하였다.

남조선의 통치배들은 저들의 비굴한 행위를 변명하기 위해 매번 〈핵우산에 의한 보호〉에 대해 떠들고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보호〉란 어떤것인가를 잠간 살펴보자.

미국은 한때 조선반도에서의 〈유사시〉를 가상하여 핵지뢰로 한강교와 김포비행장을 폭파시키는 계획을 비밀리에 세워둔적이 있다. 그리고 또 건물은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명만 살상하는 중성자탄을 〈유사시〉에 배비한다면서 이 땅에 끌어들였다. 만일 미군이 핵지뢰로 한강교를 폭파하는 경우 1,000만에 달하는 서울시민이 어떻게 빠져나가겠는가, 서울에 중성자탄을 쓴다면 서울사람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보호〉란 우리 민족, 남조선인민들을 살릴 방도는 전혀 배제된것이라는데 그 문제점이 있는것이다. 최근 전 뉴욕주립대학의 한 교수는 미국대통령 안전수석보좌관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손실〉과 〈리득〉에 대해 운운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거기에는 〈남조선인민들이 입게 될 희생은 계산되여있지 않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의 통치배들, 김영삼이 말끝마다 웨쳐대는 〈핵우산에 의한 보호〉란 바로 이런것이다.

공화국에서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이 인민대중의 리익과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워지고 자주적으로 집행되기때문에 대국주의자들의 압력과 간섭책동을 짓부시고 자주성을 견지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압살〉책동을 부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빛나게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고있는것이다.

2. 민주주의정치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이민위천》정치의 근본특징은 또한 민주주의정치라는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는 참다운 민주주의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정권의 진보성을 특징짓는 기본척도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의 기본방식입니다.》(《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단행본, 14페지)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를 말한다. 인민대중의 의사란 언제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는것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 민주주의정치는 반드시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로 되여야 한다.

민주주의가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인것으로 하여 그것은 정권의 진보성을 특징짓는 기본척도로 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정권활동의 사명으로 하는 인민정권의 정치의 기본방식으로 되는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자본주의나라들과 남조선만큼 많이 사용되고있는곳도 드물것이다. 〈민주주의〉의 개념은 이 사회에서 하나의 류행어로 되다싶이 되고 정계의 문을 드나드는 정치인의 〈통행증〉처럼 되여버려 〈정치인〉들은 말끝마다 〈민주주의〉에 대해 떠들어댄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주의〉의 개념도 똑똑히 정립하지 못한채 그것을 인민대중을 기만하며 자기들의 반인민적정치를 가리우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부르죠아정치론에서는 근대적인 민주주의의 본질적특징을 정당제도, 대의제도, 립헌정치의 존재에서 찾고있다. 영국의 할로웰교수는 민주주의를 〈설복과 심의에 의한 정치〉로 규정하고 그를 위해서는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와 같은 일련의 시민적자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제도,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 대의제기관, 립헌정치가 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본질에 있어서 부르죠아지의 정치적지배방식인 부르죠아민주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한데 불과하다.

소수 특권계급이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설복과 심의〉가 이루어질수 있으며 설사 〈설복과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답을 주어야 할것이다. 또한 력사상 어느 부르죠아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명실공히 정권에 참여하였으며 어느 부르죠아립헌기관이 인민대중자신에 의해 조직되였으며 어느 부르죠아정권이 참말로 헌법에 기초한 정치를 실시한적이 있는가 하는것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정치철학에 의해 비로소 민주주의에 대한 완성된 개념이 정립되였으며 그 본질적특징이 명시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입니다. 다시말하면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

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김일성저작집》32권, 532페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인 민주주의의 본질적특징은 첫째로 국가정권이 인민대중의 의사에 기초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것이다. 참말로 인민대중의 주권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가 국가의 통일적의사로 되여야 한다.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 과정이 곧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의 근본특징이다.

민주주의의 특징은 또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것이다.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세운 다음 그것을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집행하는가 하는 문제 역시 인민대중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대중과 유리된 개인 또는 그 어떤 특권층의 주관과 독단에 의해 처리하는것은 전제주의이며 관료주의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인민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정권에서는 허용될수 없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믿고 그에 의거해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정치방식만이 인민대중을 위한 정권의 활동방식으로 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며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의 근본특징이다.

민주주의는 또한 국가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의사에 기초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것만으로는 인민대중을 위한 정치의 목적 자체가 실현되지 못한다.

국가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때야만 진정한 인민대중의 정치가 실현된다고 볼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며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의 근본특징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하에서는 인권과 자유가 무시되고 유린된다고 떠벌린다.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한 사회주의하에서만 비로소 인권이 보장된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벌리는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인권옹호〉, 〈자유화〉소동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분렬, 와해시키려는 전략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사회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이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이며 근로인민대중 자신의 정치이다.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옹호하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침해하며 그에 악의를 품고있는것은 인민대중의 적들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국가가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적대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것은 인민대중의 권력기능으로서

응당한 조치인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옹호하는 〈인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인권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원쑤들의 〈인권〉이며 그들이 바라는 〈자유〉는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가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파괴활동의 〈자유〉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쏘련과 동구라파나라의 일부 정치가들은 부르죠아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에 포로되여 〈정치적다원화〉, 〈공개성〉을 운운하면서 적대분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허용하고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거부하였으며 인민정권의 정권기능을 거세하고 부르죠아정치체제를 복귀하였다.

남조선의 김영삼〈정권〉도 〈개혁정치〉를 떠들면서 〈민주주의〉의 나발을 불어댔으나 그것은 인민대중을 기만하기 위한것에 불과했다.

남조선에서는 김영삼의 〈개혁정치〉와 관련하여 〈법치〉냐, 〈인치〉냐 하는 론쟁이 한때 일어나는데 그것은 〈개혁〉노름이 제도적인 안받침이 되여있는 〈법치〉냐 아니면 인기를 끌기 위한 〈인치〉냐 하는것이다. 결론은 〈법치〉아닌 〈인치〉로 되였다가 불법무법의 〈김영삼의 독주〉라는것으로 락착되여 〈김치〉(金治)로 되였다.

남조선에서는 또한 〈인사는 만사〉가 〈인사는 망사〉(亡事)로 되였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김영삼취임당시 〈인사는 만사〉라고 하면서 〈진보성향〉과 〈실무능력〉을 고려하여 〈인재〉를 〈행정부〉에 등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가 추려냈다는 〈각료〉들이 〈법무부장관〉, 〈보사부장관〉, 〈서울시장〉 등이 부동산투기따위의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것이 드러나 몰려나게 된것을 풍자야유한것이다.

또한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김영삼의 편에 서서 권력싸움에 한몫했던 〈신민주〉계의 〈국회의원〉들이 〈재산공개〉바람에 크게 피해를 입었으니 〈토끼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는 말의 사냥개격이 되였다는 풍자야유이다. 여기에는 굉장한 재산을 그러쥐고 흥청거리던 구 정객들이 녹아나는것을 깨고소해하는 인민의 감정과 졸개들을 권력쟁탈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써먹다가 권력을 쥐니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김영삼의 저렬한 〈도덕성〉에 대한 비난의 뜻도 섞여있다.

이러한 〈정치인〉의 혀끝에서 나오는 〈민주주의〉나발이 아무런 리념적기초도 체계적기초도 없는 헛나발이라는것은 불을 보듯이 명백한것이다.

오히려 김영삼은 권좌에 틀고앉아 로동자들의 인권투쟁과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청년학도들의 투쟁, 쌀시장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 환경오염을 반대하는 시민투쟁을 폭력으로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며 미제와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를 상전으로 등에 업고 반공화국전쟁소동에 열을 올리고있으니 남조선의 력대 군부파쑈독재를 릉가하는 〈문민파쑈독재〉라고 〈평가〉받을만하다고 하겠다.

남조선의 한 언론인은 력대 통치자들의 이러한 기만적인 〈민주주의〉나발을 풍자하여 이렇게 썼다. 「…이 시대의 도덕군자들은 여전히 말한다. 〈약한자들도 죄인이다. 약한것 자체가 얼마 큰 죄냐? 그럼에도 그들은 강한자들이 잘못이라고 떠들며 덤벼든다. 하지만 강

한게 뭐가 잘못이란 말이냐? 약한자들은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하자는데 민주주의가 뭐야? 민주주의는 곧 자연법칙이고 자연법칙은 곧 적자생존이요 약육강식이다. 민주주의를 하겠다면서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말이 안된다. 토끼가 앞발을 세우고 이빨을 갈며 사자에게 덤비다니! 이건 정말 참을수 없는 폭력이다! 덤비려거든 앞발을 내리고 이빨을 뽑고 덤벼라. 사자도 사자답게 포옹하며 토끼를 잡아먹어야 위대한 사자이고 토끼는 토끼답게 다소곳이 사자에게 잡아먹혀야 민주적인 토끼이다.」(『창작과 비평』, 1992년 가을호 128페지)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반동적집권세력의 론리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리념에서 출발하여 그를 참답게 구현하는 곳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3. 단결의 정치

사랑과 믿음, 《이민위천》정치의 근본특징은 또한 단결의 정치라는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는 단결의 정치입니다. …인민대중은 단결하여야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할수 있습니다.》(《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단행본, 15페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인간의 창조력은 생산력이지만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인간의 창조력은 단결의 힘이다.

인민대중은 단결해야 사회를 개조변혁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창조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있다.

그런데 인민대중의 단결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인민대중의 단결을 이룩하려면 단결의 사상적기초가 있어야 하며 조직적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단결의 사상적기초가 옳바르게 제시되여야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결집시킬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방도를 명백히 제시한 사상이라야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결집시킬수 있다.

사상적기초가 불명한 〈대동단결〉이란 실제에 있어서 사상의지적단합이 아니며 그러한 단결은 사회를 변혁하며 난관과 시련을 이겨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아무런 힘도 발양하지 못하고 사분오렬되기 마련이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특정한 계급, 계층의 요구를 사회전반의 요구로 내세우는 사상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결속시킬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력한 힘으로 될수 없다.

주체의 정치철학, 《이민위천》의 정치철학은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정치의 근본원리로 제시하고 바로 인간애와 동지애, 민족애와 민중애를 단결의 사상적기초로 하여 민

족,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결집시켰다.

인민대중의 단결은 또한 조직적단합의 구심점이 있어야 불패의것으로 실현될수 있다. 인민대중의 조직적단합의 구심점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여 인민대중의 절대적신뢰를 받는 인민대중의 탁월한 수령만이 될수 있다. 바로 인민대중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 인민대중단결의 사상적기초도, 조직적결집의 구심점도 형성되며 수령의 령도에 의해 인민대중이 의식화, 조직화된 혁명의 자주적주체, 불패의 힘을 가진 위력한 존재로 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단결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뿐만아니라 사회주의사회의 공고발전을 위한 투쟁에서도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적 정권과 경제체제가 섰다고 해도 그 주체인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사회주의는 자기의 정치적지반을 상실한 사회, 사회주의 사회관계의 기본구조를 갖추지 못한 사회, 주인과 추동력을 잃은 사회로 된다. 주인과 추동력을 상실한 사회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침체와 곡절을 겪기 마련이며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정치, 경제, 사상, 군사적 공세와 내부의 반혁명분자들의 책동을 이겨낼수 없다. 이것은 구 쏘련과 동구라파나라들에서 사회주의좌절의 력사적교훈에 의해 반증되고 있다.

인민대중을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고발전을 위한 투쟁의 근본문제로 된다.

인민대중을 일심단결된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는것은 바로 사회주의정권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인간애와 동지애, 민족애와 민중애를 기초로 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민족의 자주성, 인민대중의 자주성, 인간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나서며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수령과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하는것이 바로 사회주의정권의 단결의 정치이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온 사회가 혁명적동지애로 단합된 대가정,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사회정치적생생명체를 이룩함으로써 이 위대한 불패의 힘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도 철저히 짓부시고 오늘의 경제적난국을 이겨내며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공고 발전시키고있다.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원리에 기초한 단결의 정치는 광폭정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는 그릇이 커야 하며 정치가는 도량이 넓어야 한다. 정치가 그릇이 크지 못하면 대중을 다 담지 못하며 정치가가 도량이 넓지 못하면 대중이 그 정치가를 외면해버린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2 권, 46페지)

《이민위천》의 정치철학은 《인간적향기》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로 단결시킬수 있으

며 또 단결시켜야 민족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명시해준 정치철학이다.

그 인간적향기란 착하고 고상한것을 추구하며 정의와 진리를 따르며 악하고 더러운것을 경멸하는 인간성과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다.

《이민위천》의 정치는 자애로운 광폭정치이다.

민족의 단결, 인민대중의 단결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랑과 믿음으로 로동자, 농민, 지식인뿐아니라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 지난 시기 민족, 인민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민족애, 민중애를 가지고 조국과 민족, 인민을 위해 봉사하려 한다면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너그럽게 한품에 안아 단결하는것이 바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원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믿음의 광폭정치이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광복후 새 사회 건설에서도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나서도록 하시였으며 남녘땅에서 미제의 「단선단정」음모로 민족앞에 영구분렬의 위험이 닥쳐온 준엄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민족단합의 훌륭한 전기를 마련하시였다. 남북련석회의는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민족공동의 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누구나 단결할수 있다는것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광폭정치의 기초에 대하여 《나는 어려서부터 재산의 유무나 대소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 사람을 평가하는 나의 기준은 그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며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데 있었다. 부자라고 하더라도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으로 보았고 무산자라 하더라도 조국애와 인간애를 지니지 못한 사람이라면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았다.》(회고록 《세기와 더불어》4 권, 396페지)

진실과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뜨겁게 대할 때 적들의 심장까지도 움직일수 있다는것이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원수님의 드팀없는 확신이였다.

지난날 테로의 왕초로 불리우던 김구나 반공일선에 섰던 최덕신과 같은 사람들이 반공분자로부터 련공, 친공 인사로 인생전환을 하게 된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간직하고있던 애국애족의 정신과 인간성이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원수님의 진실앞에서 고도로 계발된것이다.

4. 인덕의 정치

《이민위천》의 정치는 또한 인덕의 정치라는데 그 근본특징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는 인덕정치입니다.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게 모든 혜택을 베푸는 정치로 되여야 합니다.》(《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단행본, 16페지)

사랑과 믿음의 정치는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울 뿐 아니라 인민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것으로 결과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민위천》의 정치에서는 인민의 자주적 요구와 의사를 모든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인민의 복리증진을 정권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것이다.

인민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것을 떠나 《인덕정치》란 실제에 있어서 하나의 기만에 불과하다.

력사를 소급해보면 지난 시기 〈인덕정치론〉을 제창한 정치인과 과학자들도 있었다. 그들이 주장한 〈인덕정치〉란 봉건통치배들의 폭압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도덕적원칙을 준수하면서 인민을 통치해야 한다는 주장이였다. 봉건사회에서는 사회관계의 기본인 신분제도를 사회의 〈도덕〉적질서로 전환시키고 도덕적질서를 곧 정치적질서로 만들어놓았다. 봉건사회의 정치질서란 곧 신분적차이에 기초한 지배와 복종의 질서였다. 선행시기의 〈인덕정치론〉이란 곧 봉건적인 지배와 복종의 질서를 도덕적기준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으로 백성을 〈교화〉하여 봉건적통치질서를 합리화하고 맹목적인 굴종과 무저항에로 내몰기 위한 인민에 대한 통치론이였다.

참다운 인덕정치는 인민의 자주적본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믿고 변혁운동의 주인,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정치이며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정치이다.

《이민위천》의 정치는 바로 인민이 자기 운명의 주인,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며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정치이다. 민족, 인민대중의 영예와 행복을 자신의 삶의 전부로 여기는 정치인이 바로 《이민위천》의 정치가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기초하여 남을 도와주고 자신보다 벗과 이웃이 잘되는것을 더 기뻐하며 그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인덕은 김일성대원수님의 가정철학이기도 하였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인간적인 삶의 보람이 인덕에 있다는 삶의 철리를 배우고 새겨오시면서 마침내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철학을 창시하시고 공화국사회에 현실로 구현하신것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는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이 주인으로서의 정치적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정치이다. 이 인덕정치에 의해 공화국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최고립법기관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 로선과 정책을 립안하고 책정하며 집행한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는 인민을 사회의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 재부를 인민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에 복종시킨다. 무료의무교육, 무상치료제, 세금의 완전한 철폐와 같은 정책은 정녕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의 결과이다.

정권기관이 통치기관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며 인민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바로 여기에 인덕정치가 공화국사회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의 기능으로 되고있다는 확고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인덕정치는 인민의 생활에 대한 일시적인 배려와 동정이 아니라 정권의 기본기능으로 될때 비로소 실현되는것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는 온 사회를 화목한 대가정으로 결집시키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춘 참다운 인간으로 육성한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동지들을 위해서 모두가 또 각자가 피와 살,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여있으며 그러한 공산주의적미풍이 사회의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자기 한몸을 바쳐 전사가 지휘관을 보위하고 지휘관이 자기 목숨을 바쳐 전사들을 구원하며 희생된 전우를 대신하여 전사의 부모를 모시며 상이군인의 안해가 되고 남편이 되며 부모없는 아이들의 부모가 되고 자식없는 로인들의 자식이 되는 일은 공화국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고통분담이 고통전가〉, 〈민나 도로보데스〉, 〈실명(実名)이 실명(失命)〉이라는 말이 나돌아 김영삼의 정치가 〈악덕정치〉임을 야유하고있다.

김영삼의 〈신경론〉의 핵으로 되고있는 〈고통분담〉이 가진자와 못 가진자가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못가진자에 대한 일방적인 강요이며 〈고통전가〉라는것이다. 그것은 1993년 여름에 있은 현대그룹계렬회사 로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문민〉파쑈집단의 강경탄압을 통해서 확인되였다. 또한 김영삼이 벌려놓은 〈공무원재산공개〉라는 놀음때 항간에서는 〈민나 도로보데스〉라는 일본말이 퍼져 〈5공〉, 〈6공〉세력의 거물을 비롯하여 권력의 자리에 앉은자들은 모두 권력을 등에 업고 막대한 재산을 횡치한 도둑놈들이라고 야유하였다.

그리고 김영삼이 〈개혁중 개혁〉이라고 불어댄 〈금융실명제〉는 진짜 이름이라는 〈실명〉이 아니라 목숨을 잃었다는 〈실명제〉로 불리우고있다.

그것은 〈실명제〉로 돈줄이 막힌 중소기업들이 련이어 파산몰락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인민들은 김영삼이 떠들어대는 〈개혁정치〉는 개혁정치가 아니라 〈개악정치〉이며 인민을 고통과 불행속에 더 깊숙이 몰아넣는 반인민적인 악덕정치라고 평하고있는것이다.

5. 《이민위천》정치의 근본특징으로서의 자주, 민주, 단결, 인덕이 가지는 의의

△ 자주의 정치는 《이민위천》정치의 근본목적과 사명을 규정해준다.

인민대중의 정치란 인민대중과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정치의 근본목적과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자주의 정지란 바로 이것과 관련되는것이다.

△ 민주주의정치는 정치방식을 규정해준다.

지난 시기 정치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론의가 많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르죠아민주주의를 자기네들의 정치방식으로 삼고있다.

맑스주의는 이에 대항하여 사회주의민주주의정치방식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로 강조된것은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하는 정치의 계급성문제였지 사회주의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방식으로 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는 해명하지 못하였다.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이 어떻게 정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하는가, 또한 인민대중을 어떻게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비로소 해명되게 되였다.

△ 단결의 정치는 정치의 주체를 어떻게 마련하고 강화하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하나의 사상의식으로 단결해야 《이민위천》정치의 주체가 마련되기때문이다.

△ 인덕의 정치는 《이민위천》정치륜리의 특징을 밝혀준다.

《이민위천》의 정치는 인민대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정치이다.

인덕의 정치는 숭고한 인품을 지닌 정치지도자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정치지도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나 인덕이 없으면 인민을 배반하고 사회주의를 망하게 할 결과까지 초래할수 있다.

주체의 도덕관

박　　룡

막강한 군사력과 방대한 경제력을 가진 초대국인 쏘련이 와해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도덕적기풍을 확립하지 못한데 있었다.

온 사회에 고상한 도덕적기풍을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계승완성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근본문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이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도덕도 끊임없이 발전되고 완성되여야 합니다.》(《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단행본, 23페지)

이 론문에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도덕이 차지하는 위치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도덕의 기본원리, 3대생활에서의 도덕에 대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1. 사회주의사회에서 도덕이 차지하는 위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원래 도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보편적인 행동규범으로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계급적으로 대립됨에 따라 도덕도 계급적성격을 띠고 서로 대립되게 되였습니다. 착취사회에서는 계급적리해관계를 떠난 그 어떤 보편적인 도덕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단행본, 19페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사회속에서 진행된다. 사람들이 행동을 통하여 추구하는 요구와 리해관계에는 공통성이 있는 동시에 차이가 있다. 이런 조건에서 사람들이 아무런 규범도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면 혼란이 일어나 사회가 유지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에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은 해도 일없고 어떤 행동은 해서는 안되며 어떤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행동규범이 있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행동규범의 하나가 도덕이다.

도덕은 외적인 강제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사

회적행동규범이다. 도덕은 사회적집단의 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대한 자각에 기초하여 집단의 공동의 행동규범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지배계급들과 피지배계급으로 분렬되게 되면서 사회공동의 리익과 지배계급의 리익사이에 배리가 생기게 되였으며 지배계급이 저들의 계급적리익에 복종할것을 강요함으로써 전사회의 공동의 리익을 대표하는 도덕은 피착취근로대중속에서 유지되였으나 그것은 전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지위에 떨어지게 되였다.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이 비인간적일수록 사회의 도덕은 더욱더 무시되게 되였으며 반대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장성할수록 사회에서 도덕이 차지하는 지위는 더욱더 높아지게 되였다.

이런 점에서 도덕적인 사회일수록 인간의 사회적본성에 맞는 진보적인 사회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인민대중이 반동적지배계급의 비인간적인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전사회의 공동의 리익을 기준으로 하는 도덕이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갈수 있는 사회적조건이 마련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도덕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성격을 가지게 된다. 사회주의의 도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준수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것도 인민대중자신이다. 사회주의의 도덕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그 준수가 인민대중자신의 자각성에 의거하여 담보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는 아직 과도적사회인것만큼 사회주의적도덕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데는 일정한 제한성을 받게 된다. 그것은 주로 착취사회의 낡은 유물이 남아있고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개조하는 수준이 아직 낮은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착취사회의 낡은 유물이 남아있고 사회주의의 성숙정도가 미숙할수록 그만큼 사회주의적도덕이 자각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사회성원들의 행동규제에서 권력에 의한 법적규제가 가해진다.

3대개조사업이 발전하여 정치, 경제, 사상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화가 진척되고 사회주의가 더욱 성숙되여감에 따라 강제적방법에 의거한 행동규제의 범위는 점차 줄어들고 량심에 기초한 도덕규범에 따르는 행동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며 앞으로 리상사회에 가서는 폭력과 강제가 완전히 제거되고 인간의 모든 활동이 도덕적규범에 따라 규제되게 된다.

사회주의를 완성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사회의 주인인 인간자체의 완성이며 인간의 완성에서 도덕적완성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인류의 도덕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도덕은 공산주의도덕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도덕의 잔재를 극복하고 공산주의도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를 완성해나갈수 있다.

2.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도덕의 기본원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을 서로 배척하고 분렬시키게 하는 사회적요인이 제거되고 온 사회가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될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된다. 원래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재방식은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것이다. 인간이 이러한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지 못한것은 아직도 반사회적인 동물적잔재가 많이 남아있은 관계로 인간의 사회적본성이 충분히 발현될수 없었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의 사회적본성의 발현을 억제하는 반사회적요인이 제거됨으로써 인간은 비로서 자기의 사회적본성에 맞는 사회를 건설할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징은 그것이 인간의 사회적본성을 구현한 사회라는데 있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적특징은 인간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개척해나간다는데 있다. 사회적생명체가 가지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인간의 사회적본성이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특징이지 고립된 개인의 특징이 아니다. 고립된 개인으로서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질수 없다. 개인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한 성원으로서만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질수 있다.

인간이 자주성을 본성으로 가지고있다고 할 때 그것은 개인의 자주성만을 옹호하는 성질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개인의 자주성과 함께 집단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성질을 가지고있다. 만일 자주성이 개인의 자주성만을 옹호하는 성질이라면 사람의 본성은 개인주의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개체는 집단을 떠나서 살수 없기때문에 개체자체가 자기 개체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성질과 함께 집단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성질을 다같이 가지고있다.

동물단계에서도 매 개체는 개체보존의 본능과 함께 종보존의 본능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인간의 자주적본성은 자기자신에 대한 사랑과 집단에 대한 사랑을 다같이 포괄하고있다. 여기에 개체의 자주성을 보존하면서 동지적사랑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룩할수 있는 기초가 있는것이다.

인간의 창조성도 개인적인것으로가 아니라 사회적인것으로 보아야 한다. 창조성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것만큼 목적의 면에서 보아도 그것은 개인의 자주성과 집단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다같이 복무하여야 한다. 고립된 개인으로서는 창조성을 가질수 없을뿐아니라 개인이 지니고있는 창조성은 매우 제한되여있으며 그것은 사회적으로 결합되여서만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개인의 창조성은 집단의 창조성의 한부분이다.

의식성에서도 기본은 사회적의식, 집단의 공동의 의식이며 개인에게만 고유한 의식은 부차적인것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자신이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자각한 사회적의식을 가질 때에는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 만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량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여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될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의식수준을 응당한 수준으로 높이는 조건에서는 모든 행동이 도덕적량심에 따라 규제될수 있으며 폭력에 의한 강제는 필요없는것으로 된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사회는 가장 도덕적인 사회이며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면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도덕적량심이란 어떤 내용을 담고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량심은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리익보다 당과 인민의 리익, 혁명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회적의식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7페지)

사람들은 사회적집단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행동하였을 때에는 량심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이에 배치되게 행동하였을 때에는 량심의 가책을 받게 되며 사회정치적생명을 잃어버리는 불안과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량심은 곧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요구이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이 생명체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지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높아져 자주성과 창조성이 더 잘 실현될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요구와 리익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량심이다. 량심에 따라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것은 결국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행동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결합될것을 요구한다. 이것없이는 사회적집단이 생명을 가질수 없다. 이로부터 매개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고락을 같이할데 대한 도덕적요구가 제기된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매개 성원들이 집단의 요구와 리익을 개인의 요구와 리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집행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 매개 성원들이 집단의 요구를 헌신적으로 집행하는것이 동지적의리이다. 여기에 동지적의리에 기초한 수령, 당, 대중에 대한 충실성에 관한 도덕문제가 제기된다.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사람들의 관계는 동지적사랑과 의리의 관계라고 말할수 있으며 따라서 동지적사랑과 의리에 충실하게 행동하는것이 도덕의 기본요구이라고 볼수 있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그자체로서 하나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이지만 그것을 구성하고있는 개인들도 역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이다. 이 점에서 개인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단순한 세포가 아니다. 세포에는 자주성이 없으며 오직 유기체의 생명활동을 위하여 복무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 이와는 달리 개인은 집단의 부속물이나 집단의 생명의 수단인것이 아니라 집단의 공동의 주인이다. 개인은 집단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통하여 개인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간다. 개인은 집단의 운명에 대하여 공동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니고있다. 이 점에서 집단안에서의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자주적인 관계, 평등한 관계이며 매 개인은 집단의 공동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유를 가진다. 매 개인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원만히 실현되여야 사회적집단의 자주성과 창조성도 원만히 실현된다. 매 개인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양시키는것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또 하나의 기본요구이다. 그러므로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는 동지적사랑과 의리의 원리와 함께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원리가 도덕적원리로 될수 있다.

동지적사랑과 의리의 원리와 자유와 평등의 원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의 사회적집단을 단위로 하여볼 때 평등의 원리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개인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와는 달리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는 사람들을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고 사회적집단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힘있는 작용을 한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요구와 리익을 대표하는 당과 수령의 립장에서 이 두가지 원리를 고찰하면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것이 아니라 통일되여있다고 볼수 있으며 또 이것을 통일시키는데 참다운 사회주의도덕이 성립된다. 매 개인이 집단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자기자신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매 개인은 우선 자기자신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사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공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집단의 리익과 모순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리기주의적인것으로 하여 허용될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리타주의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불평등도 나쁘지만 평균주의도 나쁘다. 개인의 자주성과 집단의 자주성이 다같이 보장되도록 동지애와 의리의 원리를 관철하여야 한다. 동지애와 의리의 원리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포섭하도록 통일시켜야 한다. 동지애와 의리의 원리가 선의 원리이라면 자유와 평등의 원리는 정의의 원리라고 말할수 있다. 선과 정의를 통일시키는 기준은 사회적집단의 자주성, 집단의 리익이다. 동지란 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다같이 인정하는 사이라는 뜻이다. 동지적 사랑과 의리는 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원칙으로 하는 사랑과 의리라는 뜻이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의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포섭할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공산주의도덕은 개별적인 사람들의 자주성을 충분히 발양시키는 동시에 집단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집단의 통일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3.3 대생활에서 도덕

△ 정치생활에서 도덕

옛날부터 정치와 도덕을 통일시킬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였다. 그러나 지배계급의 리기주의적인 요구로 말미암아 정치적지배에 도덕이 복종됨으로써 그 통일이 제대로 실현될수 없었다. 특히 착취계급사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한 《덕치주의》도 지배계급의 강권정치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거기에 도덕적작용을 어느정도 배합함으로써 사회의 계급적모순을 일정하게 완화하자는데 그 진의도가 있는것으로 하여 정치와 도덕의 진정한 통일을 이룩할수는 없었다.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은 미래사회에 가서는 국가가 조락한다는 견지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고찰한것만큼 미래사회에 가서 국가권력의 작용이 조락하고 도덕작용이 지배하리라고 보았다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스-레닌주의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도덕의 계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것을 로동계급의 정치적요구에 기초한 계급관계를 조절하는데 복종시켰다. 이리하여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강조된데 비하여 사회주의도덕을 확립하는 사업에는 응당한 주의가 돌려지지 않았다. 이로부터 맑스-레닌주의는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는 도덕기풍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키려고 한것이 아니라 프로레타리아독재, 강제력에 기초하여 정치적관계를 공고화하는 방법으로써만 사회주의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는 사람들이 도덕적량심에 따라 도덕의리적으로 결합되여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도록 하는 문제를 바로 풀지 못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의 목적은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해주는데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일치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는 사람들이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사회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사회관리에서 사랑과 의리의 원리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구현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치적면에서의 요구와 도덕적면에서의 요구는 어떻게 다른가.

정치적요구는 강제력이 작용하지만 도덕적요구는 량심에 의하여 통제된다는데 차이가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정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통치권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정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견지에서 보면 인민대중자신의 통일적인 자주권이라고 볼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성,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의 생명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는 인민정권에 대하여 집단의 생명에 대하는 충성심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

수령은 정치적으로는 정권의 최고대표자이며 최고지휘관이지만 도덕적으로 볼 때에는 사회정치적생명의 중심이며 사회정치적생명의 어버이이다.

당을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적력량의 조직자이며 전략전술의 작성자이며 정치적참모부이며 핵심부대이다. 당을 도덕적으로 보면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추조직이며 사회적량심의 체현자이며 생명선이라고 볼수 있다. 당규약에 따라 상급당의 지시에 복종하는것은 정치적관계이지만 당과 운명을 같이할 각오를 가지고 당의 지시를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이는것은 도덕적관계이다. 령도하고 령도받는 관계는 정치적관계이지만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동지적관계는 도덕적관계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인민대중은 관리의 대상, 통치의 대상이지만 도덕적으로 볼 때에는 정치가 복무하여야 할 대상, 주인이다. 정치일군들은 대중의 심부름군이다.

정치생활을 통하여 인민대중이 실현하여야 할 자주성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성이다.

정치생활과 도덕을 통일시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옳게 해명되여야 할것이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공동의 주인으로서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서로 믿고 사랑하면서 살기 위하여서는 어떤 도덕을 지켜야 하겠는가, 정치가들이 지켜야 할 도덕에서 기본은 무엇인가, 동지적사랑과 명예가 가지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 민주주의와 독재의 호상관계는 무엇인가, 정치기구와 정치생활의 지위와 역할을 도덕적견지에서 어떻게 규정할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옳바로 해명되여야 정치생활과 도덕의 진정한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 경제생활에서의 도덕

경제생활은 인간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은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함으로써만 살며 발전할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활동,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로동의 도덕적가치를 응당하게 평가해주어야 한다.

경제생활을 통하여 인간이 충족시켜야 할 자주적요구는 자연의 주인으로서의 요구이다. 인간은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그 주인으로서 끝없이 발전하여야 하며 이것은 인간발전의 물질적원천으로 된다. 인간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의 견지에서 볼 때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지만 인간과 자연의 통일의 견지에서 볼 때 자연은 인간생활의 물질적원천이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으로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의 발전에 대하여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도덕적의무를 지니고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옳게 밝혀져야 할것이다.

물질적요구의 충족이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서 가지는 의의와 물질적요구충족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요구, 소유에 대한 도덕적요구, 생산로동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요구, 분배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요구, 교환, 류통분야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요구, 소비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요구, 경제관리일군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요구 등을 옳게 해명하는것은 경제생활에서 도덕을 확립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문화생활에서의 도덕

문화생활은 인간자신을 생산하는 생활이다. 인간은 육체적생명을 재생산할뿐아니라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 사회적생명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재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화생활을 통하여 인간은 보다 힘있는 존재로 발전하려는 물질적요구를 충족시킨다. 인간개조의 최종목표는 자기자신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는것이다. 우선 육체적생명의 주인으로 되는것이다. 불로장수하려는 육체적생명의 요구에는 끝이 없다. 우선 육체적욕망을 사회적생명의 요구에 맞게 마음대로 조절통제할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한 성원으로서의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되려는 요구에도 끝이 없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사회력사적으로 축적된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지혜를 다 가질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날을 따라 더욱 풍부해진다. 우선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옳바른 요구가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이에 맞게 자기의 창조적능력과 지혜를 써나가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옳바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확립하고 여기에 맞게 사회활동을 벌릴수 있게 되여야 한다. 이래야 자기의 사회적생명을 남에게 롱락당하지 않고 한생을 보람있게 살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문화생활에서도 도덕을 확립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은 교육과 학습에서의 도덕, 보건위생에서의 도덕, 문화적재부창조활동의 도덕적가치, 학자의 량심과 명예, 예술가의 량심과 명예, 대중보도사업의 가치와 보도일군들의 량심과 명예, 가정생활에서의 행복과 도덕 등을 옳게 해명하는것이다.

의식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주체적관점

성 기 진

세계사회주의운동은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으로 하여 의연히 곡절을 겪고있으나 어제날의 쓰라린 교훈을 찾고 점차 재생의 길에 들어서고있다.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이 남긴 가장 심각한 교훈은 사회주의의 변질이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며 사상전선이 와해되면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이 와해되며 종당에는 사회주의를 송두리채 말아먹게 된다는것이다.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 귀중한 진리를 보여주었으며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기본고리는 사상사업을 강화하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철학상에서는 사회주의위업의 수행과 사상의식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한다.

이 글에서는 의식의 본질과 역할문제에 대한 철학론쟁사를 개괄한데 기초하여 주체철학에 의한 의식의 본질과 역할문제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밝힘으로써 주체사상이 주장하는 사상론과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의 정당성을 론증하려고 한다.

1, 의식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선행철학들의 견해

1)근대철학들의 의식에 대한 견해와 제한성

의식의 본질과 역할문제는 력사적으로 철학의 연구문제의 하나로 취급되여왔으나 특히 철학연구의 초점이 인식론으로 전환된 근대철학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되여 많은 철학자들에 의하여 거듭 연구되여왔다.

근대철학에서 의식에 관한 문제는 주로 물질과의 관계속에서 연구되였으며 의식의 시원과 본질, 그 역할 문제를 놓고 관념론과 유물론의 두 진영사이에 첨예한 론쟁이 전개되였다.

근대철학에서 의식에 관한 문제를 처음으로 유물론적립장에서 취급한것은 《지식은 힘이다》라고 주장한 베콘과 그 계승자들인 홉스, 록크를 대표자로 하는 영국경험론철학이였다. 그들은 자연연구를 신학적인 스콜라철학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자연연구의 옳은 방법론을 확립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지식은 다 감각에서 얻어진다》는 유물론적립장을 확립하였으며 과학지식이 자연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된다는 합리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대륙합리론의 창시자인 데카르트도 의식에 관한 근대철학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데카르트는 심리현상을 고찰하면서 처음으로 반사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였으며 의식의 자기 반영의 원칙을 도입하여 의식의 내성개념의 기초를 쌓았다. 그러나 《나는 사유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고 한 데카르트는 물질적실체와 정신적실체를 동시에 인정하는 2원론자였다. 데카르트의 관념론적경향을 극복하고 유물론적경향을 발전시킨 스피노자는 실체개념을 확립함으로써 사유라는 속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유하는 존재를 끌어낸 데카르트와는 달리 전체 포괄적인 실체로부터 출발하여 사유를 고찰하여 사유를 속성으로 하는 물질적존재를 끌어내였다.

근대철학에서 처음으로 유물론을 공개적으로 들고 나와 관념론에 전면적으로 도전한것은 18세기 프랑스유물론이였다. 라멧트리, 디드로, 돌바크, 에베시우스들은 대륙합리론과 영국경험론의 성과에 기초하여 의식에 관한 견해에서도 유물론적립장을 관통시켰다. 그것은 첫째로 의식은 고도로 발전된 물질의 산물이라는것이며, 둘째로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에 대한 유물론적리해로부터 출발하여 유물론적반영론을 제기한것이며, 셋째로 사유를 리해관계와의 련관속에서 고찰하면서 그의 능동성을 일정하게 파악한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유물론자들은 그 기계적, 형이상학적성격과도 관련하여 의식의 본질을 수동적인 반영으로만 보았으며 인식문제를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보지 못하고있었다.

의식연구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은 칸트, 헤겔과 포이에르바흐를 대표자로 하는 독일고전철학이였다.

선험적관념론의 립장에 선 칸트철학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것은 인식론이였으며 그의 인식론에서 출발점은 인식능력과 그 가능성에 대한 연구였다. 칸트는 합리론이나 경험론을 다 인식능력을 과대평가한것으로 보고 그를 종합하여 인식의 두단계로서 감성적인식과 오성적인식(리성적인식)을 구별하였다. 또한 칸트는 인식의 선험적형식으로서 감성의 형식에는 시간과 공간, 오성의 형식에는 12개의 선험적범주가 있다는것을 밝혔다.

독일고전철학의 완성인 헤겔철학의 출발점은 사유가 그 주체인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여 절대화된 순수개념으로서의 절대리념이였다. 헤겔의 절대리념은 그 어떤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자체로 운동변화하는것이였다. 론리학, 자연철학, 정신철학으로 이루어진 헤겔철학은 절대리념의 자기인식과정, 절대리념이 자기자신으로 돌아가는 자기완결형의 환원운동과정으로서 극히 사변적성격을 띤 관념론적인 체계였다. 그러나 헤겔철학의 관념론적, 사변

적 외피를 벗겨버리면 거기에는 의식과 그 발전에 대한 리해에서 의의있는 합리적인 맹아가 있었다. 의식에 대한 헤겔의 견해에서 합리적인것으로서는 첫째로 의식을 발전적으로, 력사주의적으로 취급한것, 둘째로 의식을 로동과 결부하여 취급한것, 셋째로 의식, 사유를 물질, 존재와 뗄수 없는 관계에서 취급한것을 들수 있다.

독일고전철학을 유물론에로 전환하는데서 선도적역할을 한 포이에르바흐는 인간학적유물론에 립각하여 사유가 존재에 선행한다는 헤겔의 견해를 반대하여 존재, 물질이 사유, 의식에 선행한다는것을 주장하였다. 포이에르바흐는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를 유물론적으로 해석한데 기초하여 의식은 뇌수의 기능이며 물질세계를 반영한다는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포이에르바흐의 유물론적립장은 철저하지 못하였으며 그것은 프랑스유물론과 마찬가지로 형이상학적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의식문제를 둘러싼 근대철학의 론쟁과정은 의식문제를 주로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축으로 취급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의식의 본질과 역할 문제에 대한 견해는 철학류파마다 차이는 있으나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다.

근대관념론자들은 정신을 물질적존재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인것처럼 절대화하면서 신비화하였으며 인식이 객관세계를 반영한다는것을 옳바로 보지 못하고 의식자체의 능동적역할만을 강조하였다. 례컨대 헤겔은 인간의 의식이 사람의 활동을 관할한다는것을 일면적으로 과장하여 실천을 감성적, 물질적 활동으로 보지 못하고 관념적인것의 자체활동으로 보았던것이다.

맑스주의이전의 구유물론자들은 정신을 신비화하는 관념론을 반대하는 투쟁과정에서 의식에 관한 리론을 발전시켰다. 구유물론자들은 의식은 물질인 인간뇌수의 산물이며 정신은 물질세계의 반영이라는 반영론을 주장하였으나 인식에서 인간의 능동적인 역할을 보지 못하고 인식을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근대철학의 의식론은 구유물론에서는 유물론적립장이 철저하지 못하고 기계적, 형이상학적성격을 띠고있었으며 의식에 관한 변증법적견해에서는 관념론적으로 심히 외곡되여 해석되는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의식에 관한 유물변증법적견해를 확립하는것은 맑스주의창시자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제였다.

2)맑스주의철학의 의식에 대한 견해

맑스주의창시자들은 의식의 본질과 역할 문제를 주로 물질의 일차성을 유물론적으로 근거짓는 방향에서 다루었다.

의식을 물질로부터, 사유를 사유하는 물질부터 분리시킬수 없다는것은 의식, 사유에 대

한 맑스주의창시자들의 유물론적견해의 초석이며 출발점이였다.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통일에 관한 맑스주의자들의 유물론적견해는 의식을 원래 주어진것으로, 자연과 대립되는 그 어떤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설명하는 관념론적견해에 결정적타격을 주고 유물론적반영론의 기초를 쌓은것으로 된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의식에 대한 관념론적견해의 부당성을 립증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의식의 기원문제의 해명에 관심을 돌리면서 의식의 유일한 현실적기초는 물질세계라고 밝혔다. 엥겔스는 물질은 그 본성자체로부터 사유하는 존재로 발전하며 그 물질의 속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과 운동이라고 밝히면서 사유하는 존재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물질밖에서 찾는것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또한 의식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의식은 객관세계의 반영이라고 규정하였다. 의식의 유일한 원천은 객관적인 물질세계이며 객관세계의 사물현상이 사람의 감각기관에 반영된것이 바로 의식이다. 의식은 객관세계의 사물현상이 인간뇌수에 작용할 때 비로소 발생하며 인간뇌수에 발생한 관념적현상은 자극을 가한 객관세계의 사물현상과 일치한다. 의식을 객관세계의 반영으로 규정한 맑스주의적견해는 의식을 자연이전에 존재한것으로 보거나 객관세계를 감각의 복합으로 본 관념론적견해와 의식을 뇌수의 생리적과정, 물리적과정으로 본 속류유물론적견해를 타파하는데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였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또한 의식이 로동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것, 의식이 언어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는것을 밝히면서 로동과 언어의 발생이 의식의 발생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졌다고 지적하였다. 의식의 발생문제에 대한 유물변증법적해명에 기초하여 맑스주의창시자들은 로동과 언어가 사회적인것만큼 그 과정에서 발전한 정신, 의식도 사회적인것, 사회적정신, 사회적의식으로 된다고 규정하였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문제에 대한 유물론적원리를 사회력사령역에 적용하여 사회적존재와 사회적의식에 관한 문제, 즉 사회적의식의 원천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 그리고 사회적의식의 역할에 대하여 새롭게 해명하였다.

맑스는 사회적의식의 원천과 그 변화발전에 대하여 《경제학비판》서문에서 《인간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회적존재가 사회적의식을 규정한다.》(《맑스·엥겔스선집》제 2 권, 382페지)고 밝혔다. 사회적존재가 사회적의식을 규정한다는것은 유물사관의 근본원리이며 사회적의식에 관한 문제를 푸는 출발적원리이다. 이 원리에 기초하여 맑스주의창시자들은 물질적부의 생산방식에 의하여 해당사회의 정치, 과학, 예술, 종교 등 모든 사회적의식이 규정되며 사회적의식은 인간의 물질적생활과정의 필연적산물이라고 보았다. 물질적생활의 생산방식이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과정전반을 제약한다는 맑스주의의 견해는 력사발전의 궁극적원인을 력사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철학적이데올로기에서 찾은 관념론적력사관을 결정적으로 타파하였으며 사회력사관과 사회적의식에 대

한 리해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사회적의식의 본질과 특성을 규정한데 기초하여 사회적의식의 역할을 일정하게 해명하였다. 맑스는 《리론도 그것이 대중에게 파악되기만 하면 거대한 물질적 힘으로 된다.》(《맑스·엥겔스전집》제1권, 457페지)고 하였으며 사회적의식의 독자적인 발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데올로기의 반작용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의 의식의 본질과 역할에 관한 리론은 당시 의식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절대화하는 관념론을 타파하는것이 력사적과제로 제기된것과도 관련하여 의식일반과 사회적의식에 대한 유물론적원리들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력점이 돌려지고있는 반면에 인간활동에서 의식의 역할, 사회력사에서 사회적의식이 노는 역할을 밝히는 방향에서 연구를 덜 깊이고있다.

의식에 대한 유물변증법적견해는 레닌에 의하여 더욱 심화발전되였다.

레닌은 의식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는데서 의식을 물질로부터, 사유를 사유하는 기관으로부터 절대로 분리할수 없다는 립장을 고수하였다. 레닌은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서 물질에 대한 의식의 2차성을 인식론적으로, 반영론적으로 근거지운데 기초하여 의식은 객관세계의 반영이라고 정식화하였다. 레닌의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이 나온 다음에 맑스주의철학자들속에서는 의식에 대한 반영론적리해가 의식의 본질에 대한 맑스주의적리해의 진수로 인정되였으며 맑스주의인식론은 본질에 있어서 반영론이라는 견해가 공인되였다.

맑스주의철학은 철학론쟁의 초점이였던 의식의 본질문제를 객관적존재인 물질을 위주로 하여 유물론적으로 해명하였다. 물질과의 관계에서 의식의 2차성, 파생성을 철학적으로 근거지우면서 의식의 본질은 물질의 반영이라는데 있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의식에 대한 관념론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견해가 극복되고 유물변증법적인 견해가 확립되였다. 이것은 의식에 대한 리론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이였다.

그러나 의식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2차적이며 의식이 물질의 반영이라는것이 밝혀졌다고 하여 의식의 본질과 역할에 관한 문제가 모두 해명된것은 아니다. 의식은 사람에게만 고유한 속성이며 사람의 생명활동을 보장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의식문제는 응단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제기되고 해명되여야 한다.

2. 의식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주체적견해

1)주체의 의식론의 정립과 맑스주의의식론의 재검토

주체철학은 의식의 시원에 관한 문제가 유물변증법적으로 밝혀진 조건에서 세계의 주인

인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의식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을 위주로 하여 의식의 본질과 역할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해명한다.

주체철학은 사회적인간의 본질적특성은 자주성과 창조성이며 의식성이라고 밝힌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의식성은 사회적인간의 고유한 생명을 지휘하는 가장 고급한 속성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식의 본질과 역할은 마땅히 인간의 생명과 결부시켜 고찰하여야 합니다.》(발취집 철학편, 97페지)

의식의 시원문제가 유물변증법적으로 해명된 조건에서 인간의 생명과 의식을 결부시켜 그 본질을 해명하는것은 의식에 관한 리론발전에서 제기되는 중대한 철학적과제이다.

인간의 의식을 생명과 결부시켜 철학적으로 고찰하는데서 철저히 유물론적립장에 의거하여야 한다.

인간의 의식을 유물론적립장에서 생명과 결부시켜 고찰하려는 의도는 맑스주의창시자들의 초기로작에서 찾아볼수 있다. 맑스는 《경제철학수고》에서 의식현상을 하나의 정열이 자기의 대상을 향하여 정력적으로 매진하는 인간의 생명력이라고 하였으며 사유도 인간의 생명의 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맑스는 당시 의식에 대한 관념론적, 형이상학적 견해를 극복하는데 주된 력량을 돌려야 하였던 사정과도 관련하여 《경제철학수고》에서 제기한 철학적발상을 그후 더욱 전개하지 못하였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이 밝힌 의식론은 한마디로 의식은 고도로 조직된 뇌수의 속성, 기능이며 물질세계의 반영이라는것, 의식이 물질세계에 적극적으로 반작용한다는것이라고 요약할수 있다. 맑스주의철학의 의식론은 물질과 의식의 선후차관계를 푸는 데두리안에서 의식의 본질과 역할을 론한것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으며 그것은 결코 인간의 생명, 고유한 생명활동과 결부시켜 의식의 본질과 역할을 론한것이 아니다. 그 결과 맑스주의철학이 밝힌 의식의 본질과 역할에 관한 리론에는 일련의 사상리론적인 제한성이 내포되게 된것은 피할수가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의 의식은 객관세계를 반영하지만 거기에 의식의 본질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발취집 철학편, 111페지)

《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문제는 맑스-레닌주의철학이 밝힌 원리로써는 풀수 없습니다.》(발취집 철학편, 112페지)

그러면 의식의 본질과 역할에 관한 맑스주의철학의 견해가 안고있는 심중한 제한성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로, 인간의 의식일반을 물질세계의 반영으로 보는데 문제성이 있다.

맑스주의철학은 의식은 고도로 조직된 물질인 인간뇌수의 기능으로서 물질세계의 반영이라는데 그 본질이 있다고 밝혔다. 맑스주의철학은 인간의식의 반영기능은 물질일반이 가지고있는 반영이라는 속성의 발전의 산물이라고 한다.

의식은 인간뇌수라는 고도로 조직된 뇌수의 기능이지 물질적실체가 아니며 객관세계의 반영이지 반영의 원천으로 되는 객관세계자체가 아니라는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원래 반영은 의식에만 고유한것이 아니다. 거울도 다른 대상을 반영하며 동물의 뇌수도 외부세계를 반영하는것처럼 무생명물질에도 생명물질에도 반영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의식은 객관세계의 반영이라는것을 밝혔다고 하여 인간에게 고유한 의식의 본질에 대한 해명이 완성되였다고 할수 없다. 의식의 본질은 인간의 사회적생명활동에 대한 인간뇌수의 지휘기능이라는데 있다.

둘째로, 의식의 역할을 반영한것의 반작용으로 보는데 문제성이 있다.

맑스주의철학은 의식의 본질을 객관세계의 반영으로 본데 기초하여 의식의 역할은 사람을 통하여 객관세계에 반작용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맑스주의철학은 객관세계에 의식이 미치는 작용은 원작용으로서 결정적이라면 의식이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객관세계에 미치는 작용은 반작용으로서 능동적이라고 한다.

작용과 반작용은 물질들의 호상작용을 특징짓는 범주이다. 인간에게만 고유한 의식의 역할을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일반적범주에 환원해서는 의식의 역할을 제대로 밝힐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의식에 따라 능동적으로 활동한다고 하여도 의식을 규정하는것은 그것이 반영된 객관세계라고 보는 한 결국 객관세계를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라고 보게 된다. 인간이 객관적환경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변하는 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리는것을 객관세계를 반영한 의식의 반작용으로 보는것은 사실상 주객을 바꾸어놓은것으로 된다.

의식의 지휘밑에 활동하는 인간의 객관세계에 대한 작용은 원작용이지 반작용이 아니다. 인간은 의식에 객관세계가 반영되였기때문에 객관세계에 반작용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객관세계를 개조하는 활동을 주동적으로 벌리며 반영의 형태로 그에 필요한 객관세계의 실태를 장악하는것이다.

의식의 본질을 객관세계의 반영으로, 의식의 역할을 객관세계에 대한 능동적반작용으로만 보는 맑스주의철학의 의식론을 가지고서는 인간생명의 지휘기능으로서의 의식의 본질과 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에 대하여 해결할수 없다.

2)의식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주체적관점

유물론적립장에 기초하여 의식을 사회적인간의 생명과 결부하여 그 본질과 역할을 밝혀내는 력사적과제는 주체철학에 의하여 수행되였다.

의식의 본질

주체철학은 의식의 본질을 인간의 사회적생명활동에 대한 뇌수의 지휘기능이라고 밝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식은 사람의 육체적기관가운데서도 가장 발전된 기관인 뇌수의 고급한 기능입니다. 뇌수는 사람의 생명활동에서 중추의 역할을 하며 뇌수의 기능인 의식은 사람의 모든 행동을 지휘합니다.》(《주체사상의 기본에 대하여》, 문헌집, 99페지)

의식의 기관은 뇌수이며 의식의 주체는 뇌수를 가진 사회적인간이다. 인간의 뇌수는 인간생명의 중심이다. 의식은 인간의 사회적생명활동에 대한 뇌수의 지휘기능이다. 인간은 생물학적존재이면서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생물학적생명과 사회적생명을 가진다. 인간의 생물학적생명활동에 대한 지휘는 뇌수의 생리적기능이 담당수행한다면 인간의 사회적생명활동에 대한 지휘기능은 뇌수의 고급한 기능인 의식이 담당수행한다.

의식의 본질은 인간의 사회적생명활동에 대한 뇌수의 지휘기능이라는데 있으며 객관세계의 반영이라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의식은 객관세계를 반영할뿐아니라 인간의 생활적요구와 생활능력을 반영한며 그것을 조절통제한다.

주체철학은 또한 의식은 사람의 사회생활과정에서 발생발전하는 사회적속성이라고 밝힌다.

의식은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것도 아니며 자연계로부터 생물학적인 유전의 방법으로 물려받은것도 아니다. 사회적속성으로서의 의식은 사회가 인간에게 부여한것이며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한것이다.

의식은 로동, 사회적관계와 발생기원을 같이한다.

동물활동과 구별되는 인간로동의 본질적특징은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라는데 있다. 로동이 발생하려면 인간의 손발을 비롯한 육체적기관들이 로동기능을 수행할수 있는것만큼 발전할뿐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을 조절통제하는 기관인 뇌수가 발전하여 의식작용을 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의식은 처음부터 사회적인 의식으로 발전하였다. 인간이 추상적사유를 하며 의식을 가지게 되였다는 최초의 증거는 언어의 발생이다. 언어는 사람들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교제의 수단으로 발생하였다. 인간은 추상적사유의 결과를 언어라는 물질적외피에 담아 객관화된 형태로 보존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사회적인것으로 만든다.

사상의식과 과학지식

주체철학은 인간의 의식을 사상의식과 지식으로 구분한다.

의식의 중요한 형태의 하나는 사상의식이다. 사상의식은 인간자신의 요구와 관련된 의식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합니다.》(《주체사상의 기본에 대하여》, 문헌집, 100페지)

인간의 의식이 생활적요구를 조절통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객관적대상과의 관계에서 리익에 맞고 실현가능한 요구를 제기하도록 이끄는것이다. 생활적요구는 인간자신에 원천을 두고 제시되며 그 요구는 객관적대상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식은 자신의 생활적요구와 그와 관련된 객관적대상에 대한 리해관계를 자각한다. 인간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자각한 의식이 바로 사상의식이다.

리해관계에 대한 자각이 깊어져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인간은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살며 발전하는데 근본리익이 있다는것을 자각하게 된다. 이러한 자각을 주는 의식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고 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이다.

인간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려면 자주적요구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리해관계의 판단을 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사람의 생활적요구와 결부되여 축적된 리해관계에 대한 지식의 체계이자 곧 사람의 사상이다.

의식의 중요한 형태의 다른 하나는 지식이다.

인간의 의식이 생활적요구를 조절통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객관적대상의 특성과 그것을 개조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맞게 작용하도록 이끄는것이다. 인간의 생활력은 객관적대상과의 관계에서 작용하면서 인간의 요구의 실현을 보장한다. 인간이 자체의 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려면 자기의 생활력을 망탕 쓸것이 아니라 객관적대상의 특성과 그것을 개조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맞게 써야 한다. 객관적대상의 특성과 그것을 인간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방법을 담은 의식이 다름아닌 지식이다. 지식은 일반화정도에 따라 경험적지식과 과학지식으로 구분된다. 경험적지식은 사람들이 사회생활과정에서 현실과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 얻은 지식이다. 과학지식은 사물현상의 본질과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론리적사유를 통하여 파악한 지식이다. 과학지식은 인간의 창조적능력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의식의 역할, 사상론

주체철학은 의식의 본질을 인간생명과 결부시켜 철학적으로 정확히 해명한데 기초하여 의식의 역할을 새롭게 밝힌다.

인간의 고유한 생명활동에 대한 의식의 지휘는 세가지 기능을 통하여 수행된다.

첫째기능은 객관세계의 사물현상을 반영하는것이다. 인간의 생명활동은 생활능력을 객관적대상에 작용시켜 생활적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의식은 생활적요구를 반영하는것과 함께 객관적대상을 반영한다.

둘째기능은 행동을 계획하는것이다. 의식은 리해관계를 판단하여 인간의 리익에 맞는 요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대상이 무엇인가를 예견하며 그 대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행동의 계획을 세운다. 의식의 행동계획기능은 반영된 자료를 참작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의식의 기능이다.

셋째기능은 계획에 따라 행동이 진행되도록 조절통제하는것이다. 객관세계는 의식의 지휘밑에 물질적인 힘을 작용시켜야만 인간의 요구대로 개변될수 있다. 따라서 의식은 수립된 계획에 따라 행동이 진행되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식은 이처럼 객관세계의 사물현상을 반영하여 그것을 참작하여 행동을 계획하며 그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진행되도록 조절통제하는 작용을 한다. 의식의 이러한 작용에 의하여 인간의 고유한 활동에 대하여 지휘가 실현된다.

사람의 활동에서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며 그가운데서 어느것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의 발전과 사람의 운명개척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문화일반으로부터 사상을 분리해내고 사상의식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상론을 내놓았습니다. 사상의식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의 행동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 사상의식이라는 뜻입니다.》(《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단행본, 21～22페지)

사람의 활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사상의식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며 사람을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활동에로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된다.

물론 사람의 활동에서 객관세계의 합법칙성을 반영하고있는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은 과학적인 지식을 가져야 객관적법칙에 맞게 자기자신의 힘과 객관적조건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세계를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다. 과학기술지식은 사회의 생산력발전에서 날을 따라 더욱더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그러나 사람의 활동 목적과 방향을 규정하고 활동과정을 조절통제하는것은 사상의식이다. 사람이 지식을 어떻게 리용하고 창조적능력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어떤 사상의식을 가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주체철학은 물질적존재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것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그것을 변혁하는데서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가운데서 사상의식이 가장 결정적작용을 하며 다른 요인들의 작용을 규제한다고 본다. 물질세계를 변혁하는것은 인간의 실천활동이며 인간의 활동을 규제하는데서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주체의 의식론은 의식을 물질로부터 분리시켜 실체화하는 관념론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사람의 활동에서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원리는 주체사상의 사상론의 기초로

된다. 사상론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위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상론은 인간활동에서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원리로부터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갈데 대한 요구를 전일적으로 체계화, 리론화한 위대한 사회주의학설이다.

※ ※ ※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은 유물사관에 기초한 사회주의학설과 그 밑바닥에 놓여있는 맑스주의의 반영론적인 의식론의 력사적, 리론적 한계를 로정시켰다.

주체철학은 물질과 의식의 관계의 테두리속에서 전개된 맑스주의의 인식론적, 반영론적 의식론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사람과 세계의 관계속에서 전개한 생명론적 의식론을 완성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전략적리론인 사상론과 사회주의건설리론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사회주의재생운동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과 조직들에 있어서 유물사관과 반영론적의식론에 기초한 사회주의리론으로부터 주체사관과 주체적의식론에 기초한 사회주의리론에로 전환하는것은 필연적인 요청이라고 할수 있다.

참고문헌 : 《주체의 세계관과 사회주의론》(상), 박용곤, 단행본

작가 강경애의 미학적리상에 대하여

오 향 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을 재현하는것이 문학예술이지만 문학예술에서 생활은 단순히 복사되는것이 아니라 창작가의 정치적견해와 미학적리상에 따르는 일정한 창작원칙에 기초하여 그려지게 된다.》(《주체문학론》 94페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학예술은 현실생활을 재현하는것이지만 그것은 현실생활의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작가의 의식속에서 현실을 가공하는 매개적과정을 거쳐 다시말하여 작가의 정치적견해와 미학적리상에 따라 재현된다.

그러므로 작가는 현실과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그를 소재로하여 작품화하지만 작가가 그 현실을 어떤 견해와 립장에서 보고 대하며 어떤 방법으로 형상화하는가에 따라 다시말하여 무엇을 아름답고 숭고한것으로 보는가, 인간과 그 생활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하는 그 관점과 지향의 총체로서의 미학적리상이 어떠한가 하는데 따라 현실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의 정도가 달라지며 작품의 성과여부가 결정되여나가게 된다.

강경애는 짓밟힌 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고 시대가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참답게 풀어보려는 사상적지향밑에 근기있는 노력으로 창작활동을 벌리였다.

1. 강경애의 창작에서 보게 되는 사상정신적지향에서 주되는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무산계급들에 대한 뜨거운 동정과 사랑으로부터 그 사회적근원을 파헤치고 해결해보려는 열렬한 계급적립장이다. 작가는 처음으로 발표한 소설《파금》(《조선일보》 1931.1.27~2.3)에서부터 이러한 립장을 뚜렷이 하고있다.

주인공 형철이는 서울에서 대학공부를 할만큼 자기네 토지를 가진 대농가의 아들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생활에 만족을 느끼기보다 자신을《불쌍한 조선의 아들》로, 애인인 혜경을《가련한 조선의 딸》로 여기면서 번민속에 있다. 그 번민인즉 죽을 힘을 다하여 지은 농사지만 가을이 되면 다 빼앗기고 조밥 한술 먹기가 어려운 농민들의 기막힌 생활을 그냥

두고 대학공부나 하고 고등관이나 변호사가 된다고 혹은 갑부가 된다고 하여 무엇이 명예스럽고 기쁠것인가, 그것은 못사는 동족에게 미안한것이며 《의미있고 가치있고 아름다운 이 생의 꽃을 피워야》 하겠지만 《바른편길로 가야 되겠느냐? 왼편길로 걸어야 되겠느냐》 하는 번민에 싸우는 인물이다.

그는 자기 애인 혜경에게 《맑스니 레닌이니 다 무엇입니까? 벌써 지금은 그전 사람들의 리론으로 싸울 시대는 지났답니다. 대중은 창자를 쥐고 그들의 주린것을 참고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의 하나이겠지요. 어서 나도 그들과 같이 싸워야 될것을 요즘 와서 더욱더욱 느끼게 됩니다.》라고 한다.

그러한 형철이가 번민속에서 깨여나 싸움의 길에 나설 결심을 다지게 되는것은 집안이 파산하여 만주로 떠나게 되였다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게 되는 계기에서다. 그는 《잘되였다. 잘되였다. 이제야 바로 나의 길을 잡게 되였다. 벌써부터 잡아야 되였을것이지… 나는 반드시 약자이였으며 나의 힘으로 나의 길을 잡아 나아갈 용기가 없었던것이다.》고 오히려 기뻐한다.

《나는 반드시 약자》였다는 형철이의 말에서 우리는 식민지하 조선땅에서 자산계급출신도 결코 례외로 될수 없는 (언제 생활의 막다른 처지에 놓일지 모르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라는 작가의 사회적인식과 저력있는 웨침소리를 듣게 된다.

때문에 작가는 고향서 살지 못하고 간도로 떠날 때의 형철이의 심사를 다음과 같이 썼다.

《굴고 굴고 또 굴려가는 수레바퀴가 장연읍을 지나칠 때에 새벽닭은 재재 운다. 넓은 길 좌우로 늘어선 집은 죽은듯이 잠들었고 거리에는 한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세상이 넓다하여도 우리 네식구를 용납할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형철이의 가슴은 몹시도 아팠다.》

그러면서 그는 누이동생 은숙이가 《엄지손 피나도록 긁어모은 돈》도 《조밥에 된장 먹고 농사지은것》도 다 뺏어간다는 노래를 듣게 되는 계기에서 가지고오던 만돌린을 메치여 산산이 부서뜨리고만다.

형철이가 만주로 가면서까지 어루만지던 만돌린을 문득 깨치는 행동—바로 파금으로 상징되는 번민끝에 내린 그의 결론은 무엇인가?

《…나의 손은 지금 줄우에서 춤출 때가 아니다. 나에게 남은것은 오직 돌진뿐이다.》 바로 이러한 결론끝에 작가는 뒤이야기형식으로 《그후 형철이는 작년 여름 ××에서 총살을 당하였고 혜경이는 ××사건으로 지금 ××에서 복역중이다》라고 덧붙여놓았다.

이에서 분명한것은 형철이는 못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리론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도 무기를 들고 싸울 결심을 하며 그것이 바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길이라는것. 그 길은 반일독립운동의 기지였던 만주로 가는것이였다는것 따라서 생각만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있던 그가 집안이 파산하여 만주로 떠나게 되였다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오히려 잘된것으로 기뻐한것이다.

작가는 이와 같이 작품 《파금》에서 경제적파탄에 몰려 리농, 간도로 이주하는 한 가족의 비극을 통하여 조밥한술 먹기가 어려운 조선농민들에 대한 뜨거운 동정과 사랑의 정을 드러내보이고있으며 그 가난과 비극이 그 어떤 개인적인 무능력에서가 아니라 농민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지어놓은 농사를 다 뺏아가고마는 일제식민지라는 사회변화에 기인하는 문제임을 뚜렷이 하고있다. 그리고 이 근원을 해결할 길은 무산대중과 함께 싸우는 길임을 밝히고있다.

물론 이 작품은 소설로서는 아직 미숙한 점이 많다. 그러나 작가의 최초의 소설작품으로서 창작의 출발점으로서의 작가의 현실인식과 정치적견해를 생생하게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초기작품인 《채전》(《신가정》 1933. 9)에서도 작가는 사회최하층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부엌데기소녀 수방이의 눈물겨운 생활을 통하여 그런 불행을 강요하는 채전주와 같은자들에 대한 저주의 정신, 그리고 단결과 투쟁에로의 계급적지향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작가의 이러한 지향성은 채전주가족을 한편으로 하고 수방이를 비롯한 맹서방, 추서방, 리서방과 같은 고용로동자들을 한편으로 하는 계급적대립과 인간적대조형상을 통하여 두드러지게 드러내주고있다.

작품에서 채전주와 그의 안해는 철저하게 리해타산이 많은 탐욕한으로 그려지고있다.

이들은 수방이를 컴컴한 신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려먹으면서도 옷 한벌 제대로 해입히지 않았고 과수밭의 사과나 복숭아 한알도 맘놓고 먹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 랭대와 멸시를 주는 놈들이다.

이와는 반대로 채마전에서 일하는 맹서방, 추서방, 리서방은 학대받는 수방이를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자기들의 담배용돈을 떼여서 머리핀까지 사다주는 선량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다.

때문에 수방이는 맹서방, 추서방, 리서방과 같이 일만 부지런히 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기에 고추가 달리고 감자가 땅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며 잠결에 엿들은 채전주부부의 배추밭 부침때를 넘기고는 겨울이전으로 고용로동자들을 해고할 꿍꿍이질을 알려준다.

작품은 이와 같이 처음은 망설이던 수방이가 끝내 채전주의 편을 드는것이 아니라 탐욕한 채전주에게 대립하여 학대받는 로동자들의 편을 들어 그들로 하여금 정당한 요구조건을 내걸어 착취자와 단결하여 싸우게 할 때까지의 성격발전과정을 어린 소녀의 내면심리를 파고들어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그러면서 작품은 로동자들의 해고반대투쟁은 승리하나 며칠후에 어린 수방이가 소문없이 죽고마는것으로 끝맺고있다.

나어린 수방이의 죽음에서 우리는 옷 한벌 제대로 해입혔으면, 사과나 복숭아 한알 맘놓고 먹여봤으면 하는 주인공 소녀에게 쏠리는 작가의 뜨거운 사랑과 동정의 손길을 여운있게 감득하게 되며 수방이에게 이런 비극적운명을 강요한 채전주내외와 같은 착취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모두 힘을 합쳐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작가의 세찬 목소리를 듣게 된다.

작가의 계급적 립장과 관점은 장편소설 《인간문제》(《동아일보》 1934)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훌륭한 형상의 꽃으로 활짝 피여났다.

작품을 써나가는 작가의 현실에 대한 견해와 태도는 신련재소설 예고의 작가의 말(《동아일보》 1934. 7 .31)에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작가는 《인간사회에는 늘 새로운 문제가 생기며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발전될것입니다. 대개 인간문제라면 근본문제와 지엽적문제로 나누어볼수가 있을것이니 나는 이 작품에서 이 시대에 있어서의 인간의 근본문제를 포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요소와 힘을 구비한 인간이 누구며 또 인간으로서의 갈바를 지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라고 창작의도를 밝혔다.

그리고 그는 당대 현실의 인간생활에서 근본문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간의 계급적 모순과 대립에 관한 문제이며 피착취, 피압박 인민대중의 불행과 고통에 관한 문제라고 리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담당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예술적해답을 추구해나갔다.

작가의 이러한 정치적견해와 미학적리상은 첫째로 면밀하게 설계된 인간관계 설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작품에는 첫째와 선비를 비롯하여 정덕호, 유신철, 옥점, 간난이, 일포, 기호 등 여러 계급, 계층 출신인물들이 등장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작가의 미학적리상 실현의 직접적담당자들로서 작품에서 제기한 인간문제를 해명하는데서 뚜렷한 형상의 몫을 지니고있다.

장편소설 《인간문제》의 인간관계 설정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작품에서 제기한 인간문제 해명의 요구에 맞게 주인공을 남주인공과 녀주인공 복수로 설정한것이다.

작품에서 주인공은 종자가 제기한 문제성을 안고있는 기본인물이며 사상주제적과제를 해명해나가는데서 주역을 담당하게 된다.

남주인공 첫째와 녀주인공 선비는 둘 다 종자실현의 주역으로서 없어서는 안될 인물들로 설정되여있다.

그것은 우선 첫째와 선비의 생활과 운명을 통하여 당시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의 비참한 처지와 비극적운명을 폭넓게 일반화할수 있었다는것이다.

작가는 이를 위하여 작품의 무대를 1930년대 먼저 농촌마을 룡연동네로 설정하고 거기로부터 서울, 인천의 도시로 확대해나갔으며 농촌에서는 지주, 도시에서는 자본가계급과의 날카로운 대립속에서 이들의 생활을 그려내고있다.

첫째와 선비가 종자실현의 주역으로서 없어서는 안될 인물들이라는것은 또한 착취와 압박, 천대와 유린을 당하며 시달리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마는 선비와 같은 무산계급들의 운명을 해결할 담당자는 다름아닌 첫째와 같은 로동계급이라는것을 확증해내는데 전적으로 부합되기때문이다.

작가는 작품에서 농민들은 지주에 대한 원한과 저주에 사무쳐있으면서도 조직적으로 단

합되지 못하고 투쟁의식이 약한것으로 형상하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로동자들은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단합되여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파업투쟁을 벌려나가는것으로 형상하고있다.

특히 소부르죠아출신 인테리에 대하여서는 로동운동에 기여들었다가도 체포되자 경찰의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변절하고마는것으로 형상하였다. 이러한 형상은 작가가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인간문제를 해결할 담당자는 농민도 아니고 인테리도 아닌 바로 로동계급이라는 사상을 뚜렷이 한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청춘남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설정된 작품의 인물관계만 놓고보아도 작가가 당시의 주되는 사회계급적모순을 무엇으로 봤으며 그것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주인으로 되여야 할 계급을 어느 계급으로 보았는가를 명백히 알수 있다.

장편소설 《인간문제》의 인간관계 설정에서 보게 되는 특징은 다음으로 작품에서 제기한 인간문제해명의 요구에 맞게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심화발전시키고있는것이다.

그것은 우선 연약하고 어질기만 했던 선비가 자주적인 삶을 개척하기 위해 정덕호의 집을 뛰쳐나오는 계기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심화발전시키게 된것은 또한 작품의 마감부분에서 신철이의 변절과 거의 동시적으로 선비의 죽음을 설정한것이다.

그리하여 작품은 사람답게 살려는 지향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선비와 같은 순박한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통하여 일제식민지통치하의 모순된 사회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정신, 인민들의 원한과 항거정신을 형상하였으며 로동계급의 지위와 역할을 형상적으로 확인하였다.

장편소설 《인간문제》에서 추구한 작가의 정치적견해와 미학적리상은 둘째로 작품서두에 원소전설을 준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작품의 환경전개부분에서 제기된 룡연동네에 있는 《원소》의 전설은 장자첨지와 같은 착취자와 마을농민들과 같은 피착취계급간의 피맺힌 모순과 대립관계가 지난날의 전설적이야기로 그친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현실적문제로 나서고있다는것, 또 이러한 모순과 대립관계가 누구의 힘에 의하여 어떻게 해결될것인가 하는 작품의 주제적과제를 상징적으로 암시해주고있다.

작품 《인간문제》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당해 시대가 제기한 절박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탐구하려는 작가의 깊은 창작적사색과 옳바른 정치적식견, 풍부한 미적감수력은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 귀중한 원천으로 되고있다.

2. 강경애의 창작에서 보게 되는 사상정신적지향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2중3중의 무권리와 천대를 받는 조선녀성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 그들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열렬한 지향이다.

녀성문제에 대한 그의 견해와 립장에서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것은 녀성문제를 인간해방

의 한고리로 보았다는것이다.

작가는 1933년을 보내는 송년사(《신가정》1933.1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적으로 완전한 경제적개변을 보지 못하고는 완전한 녀성의 해방도 볼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해방은 고사하고 더욱더욱 녀성들을 상품화하며 따라서 인간적지위에서 점점 더 말살되고말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담도 근본적해결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극동의 풍운이 험악해오는 이해를 보내며 더욱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꾸준히 서로 노력합시다.》

이 말에서 우리는 녀성들이 떳떳한 한 인간으로, 당당한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상품처럼 취급되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깊은 우려와 그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듣게 된다.

강경애는 문예조직을 비롯한 다른 조직에는 거의 관계치 않았다. 그러나 녀성단체인 근우회(1927년 조선녀성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향상을 도모할것을 강령으로 내세운 조직) 장연지회 회원으로 된것(1929년)으로 보아 녀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향상 문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있었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조선녀성들의 밟을 길》(《조선일보》1930.11.28)의 다음 구절은 그를 잘 증명하여준다.

《사회라 하면 남성들이나 활동할 무대로 알고 녀성들은 가정에서 밥이나 짓고 아이나 기르는것으로 아나 아이 기르고 밥 잘 짓고 못하는것도 가정의 큰 문제인 동시에 적지 않은 사회의 문제도 될것이다. 그러면 가정과 사회는 한 큼직한 련합체요 따라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회문제라는 간격이 없다는 의미로 량방을 구별할것없이 모다 합치여 이 과정에 올라앉은 우리 조선녀성의 할 일과 사명이 대관절 무엇인가를 물어보고저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강경애는 이 시대에 있어서의 인간해방문제, 인간의 근본문제를 계급적 모순과 대립에 관한 문제, 무산대중의 계급적해방문제로 보았으며 녀성해방문제 역시 계급해방의 일환으로 보았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거의 모두가 녀성들이며 그들의 생활과 운명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고있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과 운명은 결코 녀성일반의 좁은 테두리에서 다루어지고있는것이 아니라 녀성을 포함한 인간사회전반의 절박하고 의의있는 사회적문제 해명에로 한결같이 지향되고있다.

단편소설 《원고료 200원》(《신가정》1935. 2)에 등장하는 주인공 《나》의 생활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작가는 작품의 첫머리에서 졸업기를 앞두고 기쁨보다도 괴롬이 앞서고 희망보다도 락망을 하게 된다는 사랑하는 동생의 편지를 받아보고 그 괴롬과 락망 가운데서 자연히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그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적과제를 제기하였다.

작가는 그 깨달음을 《ㄷ신문》에 장편소설을 련재하여 받은 원고료 200원을 둘러싸고 일

어난 주인공 《나》와 남편과의 충돌이라는 심각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사실주의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그 깨달음이란 자신과 가정이라는 개인생활의 좁은 테두리에서 리기와 안락을 추구하는 생활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거류속에 뛰여들어 사회와 집단을 위해 복무해나가는데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가 있다는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참다운 행복은 사회를 떠나 있을수 없다는 작가의 또렷한 사회인식에 기초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인간해방, 계급해방 없이 개인의 해방, 녀성들의 해방도 있을수 없다는것이다.

따라서 녀성이라고 하여 개인과 가정의 일시적인 안락과 행복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사회에 헌신하고 계급에 헌신하는 사회적가치 향상의 주인으로 떨쳐나설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것이다.

작가가 1933년 새해를 맞으며 발표한 론설 《커다란 문제 하나》(《신녀성》1933.1)의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고있다.

《이 땅 녀성동무들은 일대 각성이 있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녀성들은 일반적으로 래일의 폭풍우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밤의 고요한것에만 단꿈을 꾸려드는 느낌이 없지 않다.》

작가의 녀성문제에 대한 이러한 리해와 주장은 그의 작품들에서 운명에 순종하는 녀성들이 아니라 점차 각성하여 투쟁의 길로 나가는 녀성들로 형상되여 등장하고있다.

처녀작 《파금》에 등장하는 형철의 애인 혜경, 장편소설 《어머니와 딸》의 옥이, 《채전》의 수방이, 《인간문제》의 선비의 성장과정과 《원고료 200원》의 《나》의 형상, 련재소설 《젊은 어머니》의 우희의 형상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녀성문제를 인간해방, 계급해방의 일환으로 보려는 작가의 견해와 시점은 또한 그의 작품들에서 무산계급녀성들의 생활과 운명 문제를 일제와 지주, 자본가와 같은 착취계급들간의 심각한 사회계급적대립관계로 설정하고 해결하려는데서 표현되고있다.

《채전》의 수방이와 채전주와의 갈등관계, 《인간문제》에서의 선비와 덕호, 방적공장의 감독들간의 갈등관계, 《소금》에서의 봉염 어머니와 판둥간의 갈등관계를 작가는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사이의 심각한 사회계급적대립관계로 설정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모색하고있음을 잘 알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무산계급출신 녀성들과 적대계급들간의 대조를 통하여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될수 있었다.

《채전》의 수방이와 우방이의 대조, 《인간문제》의 녀주인공 선비와 옥점이와의 대조, 그리고 선비의 생활과 운명에 대한 첫째와 신철, 정덕호의 각이한 관점과 태도는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작가는 아름다운 외모와 성품을 지니고 근면하게 일하는 근로녀성들을 추악한 면모를 지닌 적대계급들간의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녀성들의 운명문제해결의 사회적절박성을 예술적으로 더욱 깊이있게 강조할수 있었다.

3. 강경애의 창작에서 보게 되는 사상정신적지향에서 다음으로 주목되는것은 조선인민의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전망을 항일무장투쟁에서 찾고 이에 대한 뜨거운 공감과 지지성원을 보낸데 있다.

이 지향은 강경애의 미학적리상가운데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며 중편소설 《소금》(《신가정》1934. 5 ~10)과 단편소설 《모자》(《개벽》1935. 1)에 집중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작가는 항일혁명투쟁의 영향이 강했던 간도땅에서 창작활동을 벌리면서 놈들이 《공비》라고 떠드는 공산주의혁명가들, 반일인민유격대원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바로 이 유격대야말로 피압박근로대중을 죽음에서 해방시켜주는 부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작가가 《간도에서 빨찌산의 진면목을 포촉하고저 유격대에 들어갈려고 한 일도 있었다.》는 친지들의 회상자료가 바로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련작소설집필문제와 그밖에 창작상문제로 여러가지 서신거래가 있었던 엄흥섭은 《인간문제》가 발표된 뒤 서울에서 강경애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였는데 그때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있다.

《그때 강경애는 왜색풍조와 양풍에 젖어 돌아치는 서울의 일부 부르죠아녀류작가들처럼 교만하고 경망한것이 아니라 너무도 소박하고 성실하고 침착한데다가 락천적인 랑만까지 지닌 고상한 작가적풍모를 갖추고있었다.》, 《자기가 〈인간문제〉를 그만큼 쓸수 있도록 작가적 정열과 용기를 가지게 된것은 그시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항일무장투쟁에 고무된때문이고 또한 항일무장투쟁에 고무되여 국내문단을 풍미하기 시작한 진보적작품들에서 영향을 받았기때문이라고 말했다.》(《문학통보》1985. 7 .30)

또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창작한 혁명시인 리찬은 간도에서 강경애를 만나 그를 통하여 항일유격대에서 낸 출판물쪽지를 보게 되였고 중편소설 〈소금〉작품에 접하게 되여 몹시 흥분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도 몇달 유격대를 찾아 헤매였으며 그 흥분을 안고 조국에 돌아와 〈눈내리는 보성의 밤〉을 비롯한 몇편의 시를 지었다.》(영화촬영단 단장으로 온 리춘구 작가의 말 1995.11.22)고 하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중편소설 《소금》에서 작가의 미학적리상은 새로운 높이에 이르고있다.

《이 시대에 있어서의 인간의 근본문제》를 늘 탐구하고 해결하는데 모든 정열을 쏟아부어온 작가가 작품에 구현한 미학적리상의 새로운 높이, 그것은 무엇인가?

당시 우리 문학앞에는 무엇보다도 인민들에게 반일의식을 고취하고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킬 문제가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되여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동만일대에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자 마을마다 《보위단》, 《자위단》들을 설치하고 항일무장투쟁의 영향을 막아보려고 날뛰는 한편 항일유격대원들, 공산주의혁명가들에 대한 비방중상을 들이대였다. 놈들의 이러한 악선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후과는 참으로 컸다.

작가는 바로 이러한 기만선전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항일유격대의 참모습을 보여줄 절박한 사명감에 불탔던것이다.

강경애는 작품 《소금》에서 바로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에 목숨걸고 싸우는 항일유격대원들, 공산주의혁명가들을 작품에 직접 등장시킴으로써 항일유격대에 대한 일제의 기만선전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가난과 죽음에서 구원해줄 조선혁명가들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기초한 원군사상을 구현하는데 성공하였다.

바로 이것이 그 어떤 다른 작가도 지향하지 못한 강경애자신의 미학적리상의 새로운 높이라고 할수 있다.

작가는 일제의 기만선전의 허위성을 폭로하기 위하여 첫째로 주인공 봉염 어머니가 공산주의자를 만날 때까지와 만난후 그에 대한 인식에서의 전환을 대조적으로 그려내고있다.

공산주의자를 직접 만나기전에 봉염 어머니에게는 공산당이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해치는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여있었다.

그러한 봉염 어머니가 소금짐을 이고오다가 밤중에 산마루에서 총멘 공산당을 만나게 되면서 공산당에 대한 그의 인식은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봉염 어머니는 그들의 《쇠소리같이 웅장한 음성》을 통하여 산두거우에 있을 때 봉염이를 따라 학교에 가서 듣던 그때의 선생의 음성을 듣는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학교선생의 음성—바로 그것은 작품의 첫부분인 《농가》에서 아무리 애를 써서 땅을 파고 농사지어도 닥치는것은 불행과 궁핍이라는 막다른 생활처지를 펼쳐보이면서 봉염의 시점을 통하여 작가가 제기한 작품의 주제, 왜 돈없고 왜 공부 못시키는가고 학교선생의 말을 되살리며 봉염이가 어머니에게 제기한 물음이다.

이 물음은 작품의 마감장인 《밀수입》에서 왜 이 밤중에 단잠을 못자고 소금짐을 지게 되였는가 하는 공산당원들의 물음을 통하여 반복 제기되여있다.

작가는 작품의 주제를 이처럼 반복하여 제기하면서 봉염 어머니를 비롯한 무산대중은 이것을 알아야만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다는것을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또 반복 제기된 이 물음은 첫부분의 물음과는 달리 주인공 봉염 어머니의 곡절많은 운명행로가 생활적으로 안받침된 조건에서 더욱 절박한 물음, 사회적문제로 제기되여있다.

봉염 어머니는 그때까지 항일유격대에 대한 증오로 버티고살았지만 그들을 직접 만난뒤에는 가난과 죽음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사람은 지주도, 자위단도, 보위단도 아닌 바로 공산당원들일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된다.

작품은 마감부분이 일제놈들의 검열에 의해 140여자나 삭제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일유

격대원들이야말로 가장 의로운 벗들이며 투사들이라는것, 따라서 사람답게 살아갈 길은 그들처럼 싸울 길이라는 사상을 깊이있게 암시해주고있다.

봉염 어머니로 대표되는 식민지하 조선인민의 운명문제를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항일혁명투쟁과 직접 결부시킨 바로 여기에 그 어떤 다른 작가도 오르지 못한 작가의 미학적리상의 새로운 높이가 있다.

작가는 작품 《모자》에서 《소금》에서 암시적으로만 제기하고 미리 해결하지 못한 문제, 다시말하여 주인공자신이 혁명을 하다가 《산》에서 죽어간 남편의 뒤를 따라 자주적으로 혁명의 길을 택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무산계급들속에서 숙명적인 관념을 깨뜨리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삶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새로운 사상을 구현하였다.

작가는 무산대중이 자주적인 혁명의 길을 걷게 되는 필연성을 해명하기 위하여 작품에서 먼저 친정에도, 시형네집에도 몸을 붙이지 못해서 신음하는 아들 승호를 둘러업고 눈오는 광야를 방황하는 과부의 절박한 정황을 펼쳐보이고있다.

혁명하다 죽은 사람의 가족을 반갑게 대한댔자 차례질것은 피해와 불행밖에 없다는 타산을 앞세우면서 의리도, 인정도 버리고 랭대하는 친척들, 이런 생활의 막다른 곤경속에서 승호 어머니는 잠시 남편을 원망하지만 곧 후회한다.

자기네 모자는 남편의 뒤를 따라 산으로 갈곳밖에 없으며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가야 하며 아들 승호도 아버지처럼 키우리라는 정신적높이까지 이르게 된다.

현실에 항쟁하면서 혁명을 하다가 산에서 죽어간 남편의 죽음과 눈구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다 죽어가는 자기네 모자의 죽음, 이 두 죽음의 차이를 뚜렷이 구별하여보게 되는 여기에 주인공의 각성이 있는것이며 무산대중은 인정을 바라거나 구걸하지 말고 남편처럼, 아버지처럼 자주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작가의 명확한 해답이 주어져있다.

작가는 이처럼 주인공녀성이 왜 갈곳 없는 사람으로 되였는가를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의 거세찬 불길, 이에 겁을 집어먹은 일제놈들의 칼부림속에 제 살 궁리만에 눈이 어둡던 시대속물들을 예리하게 밝혀내면서 이러한 역경앞에 굴복할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길로 꿋꿋이 나가야 한다는것을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작품에 반영된 이러한 주장은 항일혁명투쟁의 영향밑에 펼쳐지기 시작한 혁명적현실에 대한 작가의 예리한 안목과 긍정적립장을 잘 말하여준다.

끝으로 그의 작가적리념을 유고시 《산딸기》를 통하여 맺어보려고 한다.

시는 다음과 같다.

산딸기

딸기 딸기 산딸기

심심산촌의 산딸기
나는 산골 색시요
숫처녀였소
님께 한번 바쳤길래
변치 안했소
정말로 진정으로
변치 안했소

몸은 고치고치 댓가지요
잎은 쇠잔하여 반백이지만
님 향한 이 맘만은
붉게 타지요

송이송이 피텅이로
타고 남지요

이 시에서 가장 주목되는것은 《산딸기》에 대한 표상이다. 시인은 1련에서 《나》를 심심산촌의 산딸기에 비유하면서 나는 산골의 색시, 깨끗하고 순진한 처녀였다고 노래하였다.

그런 내가 《님》께 한번 바쳤길래 바친 그 마음, 곧은 절개는 진정 오늘도 변하지 않았음을 2련에서 강조하고있다.

3련에 가서는 그런 나이지만 몸은 이제 바싹 여위여 말라서 대나무가지와 같고 머리는 반백이 다 되였다고 썼다. 그러나 시들어가면서 그와는 대조적으로 타는듯이 붉게 익은 산딸기열매처럼 《님》향한 나의 마음만은 붉게 탄다고 노래하였다.

4련에서 그 마음은 내 죽어도 산딸기열매처럼 피덩이로 붉게 타고 남을것이라고 맺었다.

이 시에서 다음으로 주목하여야 할것은 《산딸기》로 비유된 《님》에 대한 파악이다.

그것은 작가가 생애를 통하여 가장 사랑한 조선녕들이였으며 무산계급들이였고 그들을 구원할 새 사회—사회주의에 대한 열렬한 지향이였다.

이와 같이 강경애의 미학적리상은 식민지하 조선시대를 산 작가로서의 더없이 고결한 인간적량심과 높은 계급적지조로하여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을 빛내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근세일본의 침략적대외정책의 특징에 대하여

백 종 원

1. 명치정부의 첫 침략대상책정

엄혹한 민족적위기가 안팎으로 박두한 19세기 후반기 우리 나라에서 련이어 일어난 임오군인폭동(1882년), 갑신정변(1884년), 갑오농민전쟁(1894년), 갑오개혁(1894년)은 그 시기에 조성된 정세와 동력, 구호와 수행방도에서 각이하고 또 일련의 력사적제한성을 극복하지 못함으로하여 봉건지배층의 사대매국책동과 외래침략세력의 무력간섭으로 피어린 희생속에서 좌절되였다.

그러나 이 투쟁들은 망국의 위기를 개탄만하고 좌시할수 없으며 적극적인 투쟁으로 자기운명을 개척하려는 민족적인 결의의 표명이였으며 그 근저에 반봉건, 반침략과 민족의 자주권을 요구하는 애국적지향을 공통적으로 갖고있었다.

특히 갑신정변은 지난 시기 봉건지배층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투쟁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사변이였다.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에 의한 이 정변은 조선에서의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발전을 반영하고 나라의 근대화를 시도한 첫 부르죠아개혁운동으로서 그 10년후에 진행된 갑오개혁과 더불어 근대조선의 걸음에서 중요한 력사적자리를 차지한다.

19세기 후반 자본주의렬강들의 침습이 시작되고 청일전쟁까지에 이르는 약 30년간에 과거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보지 못한 혁명적성격을 띠고 큰 규모로 벌어진 이 민족적투쟁들은 부패한 봉건제도를 근저로부터 뒤흔들고 외래침략세력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자주를 요구하는 우리 민족의 내부로부터 분출하는 거대한 에네르기를 보여주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임오군인폭동은 반봉건, 반일적성격을 띠고 봉건정부 군대내부에서 일어난 무장폭동이였다.

개화파는 갑신정변당시 매우 짧은 기간이였으나 권력을 장악하고 혁신적정강을 선포하며 개혁에 착수할려고 하였으며 갑오개혁에서도 개화파의 영향을 받은 혁신관료들은 일본군대의 강압하에서 일련의 개혁을 실시할려고 노력하였다.

정부군을 련속 격파하여 봉건통치배들로 하여금 〈전주화약〉을 맺고 페정개혁을 약속하지 않으면 안되는데로 몰아넣었으며 그 실시를 감시 통제하는 농민대표기관인 집강소를 각지에 조직한 갑오농민군의 노도와 같은 진출도 또한 거창하였다.

이러한 조선근대사의 추세는 외래침략세력의 무력간섭과 강압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민은 능히 부패한 봉건제도를 타도하고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며 자본주의에로의 정상적인 길에 올라설수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는 력사적으로 큰 제국주의세력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버릇되여온 아세아인민들의 철전지원쑤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97페지)

우리의 민족적투쟁을 무력으로 억누르고 조선사회의 합법칙적발전을 가로막은 가장 흉악한 적은 미영세력을 등에 업고 우리 나라에 침습해온 일본군국주의였다.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에로 이행하기 시작한 자본주의렬강들의 아세아침략과 식민지쟁탈전은 본격적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당시 조성된 국제정세에서 미국은 시민전쟁(1861~65년)의 전후문제로, 프랑스는 인도지나식민지화(1858~1869년)에 광분하였고 짜리로씨야는 크리미야전쟁패전(1853년)후의 심각한 국내혼란으로, 또한 영국은 인도에서 격화된 세포이 반란과 중국에서 장기간 벌어진 태평천국폭동진압(1850~64년) 등으로 일본침략에 힘을 집중할수 없었다.

존왕파(尊王派)의 지도자의 한사람인 久坂玄瑞는 《영국과 프랑스가 강대한 힘을 가지고도 황국(일본)에 처들어오지 않는것은 청국의 長髮賊(태평천국군)의 위세가 매우 강하기때문이다.》고 쓴바있거니와 일본은 렬강들의 모순과 대립—특히는 영국과 프랑스의 대립을 교묘하게 리용하며 그 틈을 타면서 렬강들에 의한 식민지화를 면하고 1868년에 명치유신을 실현하는데 이르렀다.

명치유신후 다른 아세아나라들에 앞서 자본주의의 길에 들어선 일본은 부국강병정책을 강화하면서 첫 침략대상을 조선으로 정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당시 동북아세아에서 아직 유일하게 분할되지 않고 남아있던 조선을 구미렬강들이 손대기전에 재빨리 침략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명치유신의 최고지도자의 한사람인 木戶孝允은 《속히 나라의 방향을 확정하고 사절을 조선에 파견하여 그들의 무례를 문책하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죄행을 널리 알리고 공격하여 일본의 위신을 크게 떨치도록 할것》이라고 〈정한론〉을 뇌깔렸다.(木戶孝允日記 1868년 12월 14일부)

바로 이때는 德川幕府軍과의 마지막 큰 전투인 戊辰戰役이 갖끝난 시기며 조선과의 외교관계에서 그 무슨 분쟁꺼리가 될 문제는 발생도 하지 않는 시기였다.

한 외무고관은 명치유신직후인 1890년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있다.

《…조선은 북은 만주와 련결되고 서방으로는 청국땅과 접하고있다. 조선을 힘들이지 않

고 굴복시키는것은 실로 황국을 보전하는 기초이며 장차 다른 많은 나라들은 經略奪取하는 원천으로 된다.》(朝鮮論稿 일본외교문서 제 3 권 149페지)

2.〈정한외교〉로부터 무력침략단계로

정권이 아직 기초조차 공고하지 못하던 시기부터 벌써 〈정한론〉과 조선강점을 들고나온 일본군국주의는 1875년 9월 20일에 〈운양호사건〉을 도발하였다.

국교도 없는 일본이 서울에 가까운 요충지인 강화도에 사전통고없이 침범한데 대하여 우리측이 경고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양호〉는 맹렬한 포격으로 대답하고 영종도 등을 공격하여 방화살인과 략탈을 감행하였다.

〈운양호〉는 음료수를 얻는다는 구실로 우리 령해를 침범했으나 9월 28일 나가사끼에 귀항할 때까지의 기간 음료수를 보급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수 없다.

《…이보다 앞선 8년(명치) 9월 운양호 함장 이노우에소좌는 한국서해안으로부터 청국우장에 이르는 해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암암리에 한국에 대한 시위운동에 종사하라는 내내적인 훈령을 해군성으로부터 받았다.》(公爵山県有朋伝 中巻 412~413페지)는 사실은 〈운양호사건〉이 우발적이 아니라 완전히 계획적으로 꾸며진 도발이였다는것을 폭로하고있다.

76년 2월 일본은 함대를 파견하여 무력으로 공갈하면서 리조봉건정부에 굴욕적인 〈朝日修好条規〉(강화도조약)을 강요하였으며 동 7월에는 〈朝日修好条規付録〉과 〈朝日通商章程〉을 또 덧붙였다.

조선침략의 서막을 연 〈강화도조약〉은 치외법권, 무관세무역, 일본화폐의 류통 등 조선의 자주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혹독한 불평등조약이였다.

德川幕府말기 구미렬강에 강요된 불평등조약에서 일본은 관세권의 제한은 받았으나 무관세는 아니였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국가재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바 강화도조약의 무관세조항은 기한도 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리조봉건정부의 재정에 치명적타격을 주게 된다.

무관세하에서 금과 은, 쌀과 두류를 주된 수탈대상으로 한 개항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경제침투는 조선경제를 고갈시키고 우리 나라에서 발생발전하던 자본주의요소들을 짓밟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명치유신후 근대일본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대한 국가적과제였으며 력대정권이 실패를 거듭해온것은 조약개정문제였다.

일본은 렬강들과의 불평등조약을 개정하지 못함으로하여 관세권을 제한당하고 자체의 자본주의발전에 큰 지장을 받고있었으며 치외법권으로 또한 민족적자주권을 구애당하고있었다.

굴욕적인 〈강화도조약〉의 가혹한 조항들은 바로 일본자신이 구미렬강들에 의하여 고초를 당하고있던 불평등조약을 더욱 악랄하게 증폭하여 부패무능한 리조봉건정부에 강요한것이였다.

이것은 렬강들에게는 비굴하게 아부굴종하면서 약소한 근린나라들에는 강압으로 대하며 렬강들에 의하여 손실당한 몫을 조선에 대한 침략과 략탈로서 보충한다는 그후 일본군국주의의 전통적이며 특징적인 대외침략정책의 원형으로 되였다.

〈강화도조약〉은 일본군국주의가 〈정한외교〉로부터 무력행사를 동반한 침략단계에로 이행한것을 의미한다.

70년대 〈강화도조약〉으로 조선에 첫 침략발판을 잡은 일본군국주의는 80년대에 이르러 임오군인폭동, 갑신정변으로 타격을 받고 조선에서 일시적 세력후퇴를 면치 못하게 되자 청국과의 정면충돌을 회피하면서 뒤에서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정책으로 넘어갔다.(1882년 11월 伊藤博文에 대한 井上馨의 서한)

일본은 임오군인폭동후의 〈제물포조약〉에서 처음으로 조선에 대한 〈군대주둔권〉을 얻었다. 이것은 청일간에 전쟁불씨를 만든것으로 되였다.

또한 갑신정변후에는 〈한성조약〉, 특히는 〈천진조약〉을 통하여 「行文知照」(출병호상통고)조항을 받아내는식으로 정세와 력량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외교·정치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침투를 앞세우면서 우리 나라에 잠식해들어왔다. 그러나 집요하게 군사적진출을 추구하는 정책은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

이 시기 일본군국주의가 대외적으로 〈조선은 독립국〉이라는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새삼스럽게 강조한것은 특징적이다.

이것은 봉건중국의 조선에 대한 소위 〈종주권〉을 부인하고 장차 자기가 대신하여 조선을 강점할 교활한 정치, 외교적책략이였다. 사실 이것은 그후 일본군국주의가 청일전쟁도발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리용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三国交渉 등 국제관계속에서 원래 노리고있던 단독적 조선강점을 실현할수는 없었다.

와신상담(臥薪嘗胆) 10년간 전쟁준비를 갖추고 로일전쟁을 도발한것은 조선반도를 끝끝내 독점적식민지로 지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로일전쟁발발직후인 1904년 2월 압도적군사력을 배경으로 작전행동과 군사기지설치의 자유를 허용한 〈한일의정서〉를 강요체결하면서도 일본은 〈한국의 독립과 령토보전을 확실히 보장한다.〉고 그 첫머리에 뻔뻔스롭게 내걸었다.

그러나 그 1년후인 1905년 11월 주한일본군사령관인 長谷川好道가 서울성문들에 대포를 배치하고 군대의 무장시중행진을 명령한 어마어마한 분위기속에서 특명대사로 기여든 伊藤博文은 리조봉건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정치〉를 실시하며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절락시키는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였다.

이때 参政 한규설이 조약체결을 반대하자 伊藤博文는《너무 고집을 부리는것 같으면 없애치우라…》고 지시하였다.(西四辻公尭「韓国外交密話」)

또한 高宗에 대해서도 伊藤는 로골적으로 협박하였다.

《…보호조약을 승인하건, 또는 거부하건 마음대로 할수 있으나 만약 거부한다면 제국정부는 이미 결심한바가 있다. …귀국의 위치는 이 조약을 체결하는것보다 더 곤난한 지경에 빠지고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것을 각오해야 한다.》(伊藤博文奉使記事摘要)

보호통치는 〈한일합병〉에로 이행하는 준비이며 일본의 조선단독강점을 (합법화)할 전제조건을 꾸려놓은것이다.

국제법에서는《한 나라의 동의의 표명은 해당나라대표자에 대한 행패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의 결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효력도 가질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조약법에 관한 윈나조약 제5조 1969년채택)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는 조약의 전형적실례의 하나가 바로 당시 황제인 고종의 서명도 국새날인도 없이 무력을 배경으로 강압체결한 〈을사보호조약〉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정부는 해방전 조선과 체결된 조약·협정들은 체결당시는 모두《대등한 립장에서 평화적으로 맺어진 합법적인것》이라고 강변하며 마치나 박정희괴뢰도당과의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된 1965년 6월 22일부터 비로소 효력을 상실한것 같이 작간을 부리고있다.

그러나 해방전 일제가 강요한 34개에 달하는 조약, 협정들은 국제법적으로 체결 그자체가 벌써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처음부터 무효한것이다.

3. 일본자본주의의 성격자체에서 나온 포악성

일본군국주의의 대조선정책이 항상 군사적폭력을 동반하고 류달리 악랄성과 포악성을 띠고있는것은 명치유신을 기점으로 하는 일본자본주의 성격과 그 구조자체에서 나온것이다.

명치정부는 서구라파나라 부르죠아혁명에서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바와 같은 신흥부르죠아지가 단독적으로 주동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생적대토지소유자를 지반으로 하고 천황, 귀족, 사무라이출신군벌들로 구성된 절대주의 권력이였다.

명치유신은 우로부터의 불완전한 부르죠아혁명이였다.

뒤늦게 출발한 일본자본주의에서 농촌과 도시에는 의연히 반봉건적요소들이 남아있었고 복잡한 사회·정치적 모순으로부터 江藤新平, 前原一誠의 반란, 西南役 등 士族들의 불평불만과 秩父農民暴動, 加波山, 群馬, 福島사건 등 소란이 각지에서 속발하였다. 또한 반정부적인 자유민권운동도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1869년 1일 木戸孝允은 동북지방진압에 출동하였던 各藩군대가 제지방에 돌아가 할거하면 명치정부의 중앙집권제를 위태롭게 할수 있으니 그 병력을 조선원정에 돌려 심각한 사

회정치적불안을 해결할것을 군사지도자인 大村益次郎와 론의한바 있었다.

중요하게는 당시 일본은 자본주의발전에서 필수적전제로 되는 시초적자본축적에서도 결정적으로 부족하였다.

구미렬강의 강압과 경쟁을 면할수 없었던 일본자본주의는 급속한 공업화를 위하여 처음부터 인민들의 희생우에 국가주도적이며 군수산업을 위주로 한 기형적인 자본주의로 발족하였다.

반봉건적농업과 로동자에 대한 가혹한 저인금정책으로 국내시장이 극도로 협소한 조건에서 일본군국주의는 해외시장획득에 피눈이 되였으며 그 강행을 위하여 폭력적군사력을 발동하였다. 일본은 해외침략에서 취약한 경제력을 포악한 군사력으로 보충한것이다.

구미렬강과 동렬에 서서 침략에 나설려는 일본지배층의 초조감은 류달리 극심하였으며 자본축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 농민과 로동자를 가혹하게 착취하는 한편 식민지획득과 약소국가들에 대한 략탈을 강화하는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시초적자본축적에서 금준비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바 1868~1893년간에 일본에 들어온 금총액의 68%에 해당하는 835만원은 조선에서 수탈한것이고 그외 밀수 등을 가산한다면 그 량은 훨씬 더 늘어난다. 조선의 재부를 송두리채 략탈해간 일본군국주의의 악랄성을 여기에서도 볼수 있다.

이러한 일본자본주의 발전자체의 후진성과 미숙성으로부터 또한 심각한 시회정치적위기의 폭발을 해외팽창에로 돌리려는 시도로부터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침략은 그 출발부터 구조적인 폭력성, 흉악성을 띠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면에 일본군국주의의 취약성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근세에 있어서 일본군국주의의 대조선침략정책, 외교정책을 규정한것은 1)조선인민의 투쟁과 봉건지배층내부의 모순 2)일본자체의 사회·정치적 정세 3)봉건중국(로씨야)에 대결할만한 군사력준비정도 4)일본자체가 〈조약개정〉을 해결 못한 조건에서 구미렬강들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것이다.

《江華島条約》이후 청일전쟁까지 집요하게 책동하면서도 일본이 곧 본격적인 조선침략으로 나서지 못한 주된 리유는 이러한 조건들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데 기인한다.

4. 미·영을 등에 업은 일제의 단독적조선강점

명치정부가 아직 자기 힘이 약한 조건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는 한편 영국, 미국 등 큰 나라들을 등에 업고 렬강간의 모순을 리용하면서 침략에 나선것은 근대일본외교의 특징이며 그후 일본의 전통적인 침략류형으로 되였다.

아편전쟁이후 중국시장을 거의 독점한 영국은 중근동에서 대립충돌하고있던 짜리로씨야가 씨비리철도건설에 착수하여 아세아침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조선반도에 세력을 뻗치는

데 큰 위협을 느끼고있었다.

1874년 〈대만원정〉 후처리교섭으로 베이징에 가있던 전권대사 大久保利通에게 《일본은 대만을 지향할것이 아니라 조선에 적극 진출하여 로씨야와 대항하여야 한다. 영국은 이를 지지할것이다.》고 사촉한것은 청국주재영국대사 웨드였다.

명치유신전후 주일공사로 있었던 라자포드·올콕은 《일본은 동양에서 영국의 중대한 권익을 위한 전초지다. …만일 렬강이 일본에서 후퇴하면 북태평양은 로씨야의 세력하에 들어간다.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영국은 반드시 일본을 확보해야 한다.》(日本滞在三年記)고 강조하였다.

일본을 중요시한 영국은 신식무기를 대량공급하며 각국에 통고하는 외교문서까지 작성해주는 등 명치유신을 실현하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놀았다. 오래 주일공사를 한 어네스트·사또는 〈한 외교관이 본 명치유신〉에서 명치유신이후에도 영국이 일본에 대하여 다른 렬강들에 비하여 월등한 영향력을 갖고있었다고 언급하고있다. 영국은 로씨야에 대항하기 위하여 아세아에서 쓸모있는 손아래동맹자로서 일본을 리용하였다.

조선을 자기세력권으로 만들려는 일본도 극동진출을 적극화하고 조선을 남하하는 로씨야에 대하여 큰 위협을 느끼고 렬강간의 대립을 리용하면서 조선침략준비에 전력을 다하였다.

유신후 명치정부는 版籍奉還, 廃藩置県, 地租改正, 徵兵制度 등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절대주의천황제의 중앙집권을 강화하였으며 국내적으로 최대의 위기였던 〈서남전쟁〉을 수습한후부터는 군대를 鎮台制로부터 해외침략체제(사단편성)로 개편하였다.

1880년대에 이르러 〈官業払下〉 등으로 三井, 三菱, 古河를 비롯한 재벌들을 키우고 병기생산을 중심으로 한 편파적인 중공업에 자본투하를 집중하면서 군사화를 기본특징으로 하는 산업자본주의, 일본자본주의가 확립된것은 이 시기다.

이러한 정치, 경제, 군사적준비를 강화하면서 일본군국주의는 조선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상선전사업을 벌렸다.

초기에 민주적요소와 반정부적색채를 띠고있던 자유민권운동은 탄압과 매수로 해외침략을 주장하는 국권확장운동속에 흡수되였다.

참모본부가 력사학자들을 동원하여 진행한 광개토왕릉비에 대한 외곡, 후꾸자와 유기찌가 〈脱亜論〉과 조선정부의 〈防穀令〉에 대한 강경책,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즉시 무력개입을 주장(時事新報)한것도 이 시기다.

1890년에 당시 총리 山県有朋는 제1차 국회에서 일본의 〈리익선〉인 조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륙해군비확장을 요구하는 시정연설을 하였다.

이것은 종래 청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해온 일본군국주의가 전쟁을 결심했으며 명치유신이후 집요하게 추구해온 조선침략의 제반준비가 마련되고 그 실행을 국책으로서 확정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근대일본에 있어서 부국강병, 국권확장을 위한 모든 국가적노력은 해외침략의 첫 대상인 조선에서 청·로세력을 배제하고 조선을 자기 세력권으로, 나아가서 단독적식민지로 강점하는데 집중되였다고 볼수 있다.

1894년 청일전쟁 도발직전에 일본은 짜리로씨야의 조선진출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대가로 부분적〈조약개정〉에 대한 영국의 동의를 얻을수 있었다.

이 조인식에서 영국외상 킨바레는《이 조약의 성격이야말로 일본에게는 청국의 대병력을 패주시킨것보다 훨씬 더 큰것이 있다.》라고 뇌깔리며 일본의 청일전쟁개시를 지지고무하였다.(일본외교문서 27권 제 2 분책 56호)

1848년 아세아에 직통하는 유리한 태평양횡단항로를 잡은 미국은 당시 음료수, 석탄공급기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에서 일본과 더불어 조선을 그 대상지로, 아세아대륙침략의 전략적기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광분하였다.

1866년 대동강에 침습한 무장침략선 〈샤만호〉가 조선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격침되고 1871년에 강화도에 친입한 미국극동함대가 재차 격퇴된후 조선에 대한 단독침략의 가능성이 살아지게 되자 미국은 일본을 앞잡이로 리용하는데로 정책을 바꾸어나갔다.

〈강화도조약〉을 강요하는 교섭에 부사로 파견되는 井上馨에게 주일미국공사 빙함은 페리의 〈일본원정소사〉를 넘겨주고 페리의 무력공갈수법 그대로 하면 성공한다고 고무격려하였다.(田保橋潔 〈近代日鮮関係研究〉상권 433~434페지)

봉건조선정부와의 〈한미조약〉제 1 조에는 조선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居中調停하여 조선을 돕겠다고 한 약정이 있는바 미국은 이를 배신하고 일본의 전쟁수행을 지지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결국 일본이 마음놓고 봉건중국과 전쟁할수 있는 국제적조건을 보장해주는데서 결정적역할을 놀았다.

미영의 지지를 받으면서 일본군국주의는 1890년대초까지에는 이미 군대동원계획 등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1894년 6월 갑오농민전쟁 〈진압〉을 구실로 조선에 출병하였다.

이때 일본은 8월 1일의 선전포고전에 중국기선을 격침하고(7월 25일) 7월 29일에는 아산에서 청국군대를 선제공격하였다. 로일전쟁때도 일본함대는 인천항의 로씨야군함을 선전포고없이 격침하였다. 그후 중일전쟁, 진주만기습 등 일본이 언제나 선전포고없이 불의의 공격으로 전쟁을 도발한 비렬한 상투적수법은 벌써 이때부터 시작된것이다.

1884년 6월 10일 당시의 정세를 보면 〈전주화약〉으로 농민군과 봉건정부간의 화의는 이미 성립되고있었다. 이리하여 일본공사 大鳥圭介자신도 정세가 안정되였으니 출병은 필요없다고 외상 陸奥에게 요청까지 하고있다.(日韓外交資料 4, 32페지)

일본이 출병구실로 내세운 〈민란집압〉이란 그 근거가 없어진것이다.

당시 동시철병을 제기한 청국과의 교섭을 고의로 중단한 일본은 도리여 군대를 증강하며 이번에는 〈조선내정개혁〉을 청일공동으로 하자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내놓았다.

이것은 응당 청국에 거부당할것을 예견하고 그가 반대하는 경우는 일본단독으로 강행할 것을 계획한것이다.

사실 〈내정개혁〉운운은 어떻게하나 전쟁도발의 구실을 찾으려고 발악한것에 불과하였다. 그것은 당시 외교를 지도한 陸奥宗光자신이 《나는 처음부터 조선의 내정개혁 그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데서도 폭로되고있다.(蹇々録 中央公論社版 83페지)

미영의 지지하에 청일전쟁을 도발하는 직전에 일본은 조선왕궁을 점령하고(1894년 7월) 95년 10월에는 일본공사의 직접적지휘하에 민비를 참살하는 전대미문의 만행을 감행하였다.

근대에 있어서 일본은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의 2차례의 본격적인 큰 대외전쟁을 통하여 침략을 확대하였는바 미영의 정치, 경제, 군사적 뒤받침없이 일본단독으로는 도저히 전쟁을 수행할수도 승리할수도 없었다.

三国干渉으로 타격을 받은 井上馨에게 주일영국공사 사또는 《한국을 그 발전과정에서 지도하는것은 청국보다 일본이 더 적임이라는것은 나의 지론이다.》고 고무격려하였다.(어네스트·사또공사일기 Ⅰ. 53페지 1895년 10월 4일부)

이리하여 로골적인 무력으로 강요된 1905년 〈보호조약〉과 조선이 일제의 독점적식민지로 전락되는 1910년 〈한일합병〉은 미영의 완전한 지지승인밑에서 진행되였다.

1905년 8월 12일 조인된 제2차 영일동맹협약에서는 인도에 대한 짜리로씨야의 위협을 막고 영국의 지배를 돕는 대가로 영국은 일본의 조선단독강점을 승인한다는것을 다음과 같이 확약하고있다.

《일본국은 한국에 있어서 정치상 군사상 경제상 탁월한 리익을 갖고있으므로 대영제국은 일본국이 그 리익을 옹호증진하기 위하여 적당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도, 감리 및 보호조치를 한국에서 취할수 있는 권리를 승인한다.》

또한 柱·타프트비밀협정(1905년 7월 29일)에서 미국의 필리핀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는것을 승인하였다.

강화도조약으로부터 〈한일합병〉에 이르는 전과정은 일본군국주의의 로골적인 무력적공갈과 침략의 력사이며 이를 정치적, 군사적, 재정적으로 안받침해준것은 다름아닌 미영제국주의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오늘 재생된 일본군국주의는 〈미일안보공동선언〉에 빙자하여 〈미일방위협력지침〉재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극동유사립법〉을 들고나왔다.

그리하여 종래 〈전수방위〉를 표명하던 일본은 〈안보〉적용범위를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세아, 태평양지역에로 확대하고 〈유사시〉에는 〈자위권〉을 발동하여 미국을 지원한다는것이다.

〈자위권〉발동이란 곧 무력행사를 의미하며 〈유사시〉 일본이 미군지원을 담당한다는것은 자위대의 전쟁참가에 련결된다.

일본반동들은 지난시기 가상적으로 하던 쏘련이 붕괴되자 이번에는 조선을 첫째가는 〈가상적〉으로 내세우고 일본사회에 조선에 대한 적대의식을 선동하면서 유엔간판아래 일본자위대의 조선출병과 해외원정을 꾀하는데 이르고있다.

근대조선의 력사는 일본군국주의자가 조선을 최초의 침략대상으로 책정하고 이른바 〈동양평화〉, 〈조선의 독립과 안녕〉, 〈거류민보호〉 등을 내걸고 침략을 정당화하여왔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다시 〈아세아정세의 안정〉,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요 〈조선유사시 일본인구출〉 등을 들고나와 여론을 기만하고 사회를 우익화에로 이끄는 위험한 책동을 감행하고있다.

근대, 현대에 걸치는 기간 우리 민족에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가져오고 아세아에서 전쟁온상으로 된것은 일본군국주의이다.

일본군국주의는 초대국 미국을 등에 업고 조선을 공격대상으로 설정하며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재침기도를 감추지 않고있다.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의 날로 증대되는 현실적위험성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환상도 가질수 없고 경각성을 높이지 않을수 없다.

근대의 피어린 민족력사에서 우리들은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할것이다.

《유사립법》문제와 조선반도

한 계 옥

일본정부와 방위청·자위대는 《조선반도 유사》상황이 일본에 파급하여 일본이 위기에 처한다느니 《방인(일본인)구출》이니 하는 구실밑에 미일공동작전연습, 자위대의 조선반도출동을 위한 《유사립법》소동을 벌리고있다. 그를 위해 들고 다니는것이 이른바 《북조선의 위협》론이다. 즉 지난 시기 떠들어대던 《쏘련의 위협》이 랭전종식으로 못써먹게되자 새로 고안해낸것이 《북조선의 위협》론이다. 그의 기만성을 지적하는 소리는 많다. 례컨대 고도다 마사하루 전 일본내각부총리·법상은 《쏘련이 붕괴하니 대신 나온것이 북조선의 위협론이다》라고 신랄하게 지적하고있다(《류뀨심뽀》 1996년 8월 10일부).

《가지야마 발언》의 엄중성

허구의 《북조선의 위협》을 내걸어 《유사립법》을 다그치려는 엄중한 책동은 가지야마 세이로꾸 일본내각관방장관의 망언에서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그는 96년 8월 8일,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에서 개최된 경영자단체련합(경단련)간부세미나에서 《조선반도 유사→위장난민을 포함한 대량난민의 도래→대립하고있는 재일동포들에게 무기공급→내분으로 시가전 발생》이란 도저히 있을수 없는 비현실적인 상정밑에 일미안보체제에 의거한 공동군사행동과 유사립법의 긴요성을 강조하였다. 뿐만아니라 가지야마씨는 조선반도의 남북이 통일되는 경우 일본에 대해 또다시 《배상을 요구》할것이라고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그의 발언내용은 조선반도와 대량난민, 시가전 등의 허구를 날조하여 일본국민의 불안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유사립법촉진세론을 조성하려는 실로 엄중한 처사이다. 그 근저에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조선재침략의 의도가 숨어있으며 △유사시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시도하는것이며 △나아가서 조선반도의 남북통일을 반대하며 통일조선을 적대시하는 등 우리 인민에 대한 모욕과 배타주의적이며 침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다.

더우기 이 발언이 지나가는 말이나 실언이란 성질이 아니라 일본경제계간부들앞에서 행

해진 정식강연일뿐만아니라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내각관방장관이자 자민당의 최고간부인 가지야마씨의 발언이란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 발언은 당면 일본정부와 방위청이 구상하고 추구하고있는 자위대의 해외파병, 유사립법의 현단계를 말해주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미일안보공동선언》의 선상에서

《가지야마발언》은 지난 4월에 발표된 미일안보공동선언에 따라 나온것이다. 클린턴 미대통령과 하시모또 일본수상의 회담끝에 발표된 이 공동선언에서는 종전의 《극동유사》의 범위를 일본《주변지역》과 《아세아 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한 중대사태에 대하여 미일협력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 라인)을 조절하여 《일본주변에서의 중대사태》 — 즉 조선반도사태를 초점으로 하여 미일공동군사행동을 구체화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이른바 《대량난민의 도래》에 대해서는 이미 95년 12월에 일본방위청이 책정한 《신방위대강》에서 《일미안보체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여 대처한다고 규정해놓았다. 《가지야마발언》은 이것을 조선반도 및 재일조선인에 직결시켜 위기감을 부채질하면서 《유사립법》을 강조한 셈이다.

언제나 조선반도를 초점으로

조선전쟁으로부터 현재의 《유사립법》책동에 이르기까지 미일의 대조선군사책동의 모든것은 《북조선의 위협》론을 초점으로 하여 진행되여왔다.

조선전쟁시에는 일본전토가 미군의 발진, 공격, 병참, 후방지원의 역할을 놀았으며 구일본군인들은 조선전선에서 소해활동과 미군의 길안내, 수송사업 등에 참가하였다. 일본의 공장들에서 만들어진 폭탄, 포탄, 나빰탄 등이 공화국의 산야와 도시를 초토화하였으며 일본은 《조선특수》로 전후경제복구의 조약대에 뛰여올라 오늘의 경제대국의 토대를 마련했다.

1977~8년, 후꾸다내각 당시에 고조된 일본의 유사법제연구에서는 자위대의 긴급출동만이 아니라 인적 물적자원을 미일공동작전수행에 총동원할 대책을 수립했다. 이것은 당시의 일본방위청 이또방위국장이 언명한바와 같이 《일본의 령토에 근접한 지역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즉 조선반도를 초점으로 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작전계획이였다. 그러나 세론의 강한 규탄을 받아 중단되였다.

다음은 《북조선의 핵개발의혹》을 내세운 미일의 군사적압력, 포위행동과 병행한 《시한립법의 형태로 진행된 유사립법준비》(당시의 하다 쯔도무수상)였다. 보도들에 의하면 미국이

일본방위청에 대하여 1천 100항목의 《유사시의 일본의 대미지원책》을 제시한데 대하여 일본이 이것을 약 100항으로 구체화한것이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미군의 대조선작전에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형태의 《유사립법》으로서 미군의 조선상륙작전에 앞선 소해, 방위출동 등 일본헌법에서 금지하는 《집단적자위권의 행사》까지 포함한 대미군사협력방안이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1993년초경부터 시작되여 94년 7월에는 그 연구성과가 《극비지정·K반도사태대처계획》으로 되였다(《아사히신붕》 1996년 9월 15일부).《K반도》란 다름아닌 조선반도의 뜻이다. 그속에는 △《대미작전지원》 △《대미후방지원》 △《방인 긴급수송》 《난민대책》 △《원자력발전소경비》 등이 구체화되고있다. 이것을 일본방위청통합막료회의(통막)가 지난 2월에 재정비했다는 보도도 있다.

《극동유사》《일본주변사태》를 초점으로 하는 미일공동작전계획, 그에 따르는 유사체제확립연구들은 일찍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여왔다. 1981년에는 《쏘련의 혹가이도 침공》을 상정한 미일공동작전기획 《5051》를, 95년에는 《중동사태의 일본파급》을 상정한 《5053》이 각각 비밀리에 완성되여 미일간에서 조인되였다.

한편 미·남조선간에서는 1994년 봄에 로출된 《조선반도신작전계획(US Forces operation)5027》이 있다. 이것은 《조선반도 유사시 미·남조선군은 군사분계선을 돌파하여 북침전쟁을 벌려 제압한후 일정한 기간 군정을 실시한후에 남조선주도의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북침무력통일계획인것이다.

최근 미군, 남조선 등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군부는 이른바 《북의 대량난민의 월남》을 상정하여 제3군과 제1군을 군사분계선을 넘어 그 후방에 침투시켜 차단선을 형성한다는 북침계획까지 꾸미고있다는것이다.

미일쌍방이 당면하여 《조선반도유사대비 공동작전계획》이니 《유사체제확립》이니 하면서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말하자면 미·남조선의 북침공동작전과 련동하여 미일공동작전을 벌려 실질적인 미·일·남조선 공동작전체제의 발동을 의미하는것이다.

자위대의 대조선침공계획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대조선《제재》와 군사적위협책동에는 일본도 전면적으로 협력하였으며 미일공동작전체제는 실질적으로 발동, 전개되고있다. 1992년이후 조선동해(니홍까이)를 주무대로 일본전역에서 매해 전개되고있는 미일공동통합연습(륙해공의 종합적연습)에는 조선반도에 대한 공동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되고있다.

올해 5~6월에 걸쳐 하와이에서 전개된 《환태평양연습 (Rim Pac) 96》에는 미, 일, 남조선 등 6개국 해군이 참가하여 대조선작전연습을 벌렸다. 즉 《정세불안》한 모국(공화국을 가상)에 대한 미특수부대의 잠입과 정보활동, 거류외국인의 철퇴(구출)작전, 미일합동군에 의한 해상, 공중, 상륙, 침공작전, 제압후의 정전처리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다국적군에 의한 집중침공작전이 현출되였다.

주역은 미해군의 2척의 항공모함과 일본해상자위대의 함정과 항공력이였으며 일본측은 미국함정과 항공기에 연료와 장비들을 보급하는 등 《미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ＡＣＳＡ)》를 적용했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자위대는 1993년말부터 94년 봄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이 전투상태에 들어간 경우의 대응연구를 극비리에 실시, 자위대기의 북조선령토에 대한 직접공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있었다》(오쯔까 도모히꼬 《아세아속의 자위대》).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자위대 륙해공 각막료감부 운용과 등이 중심이 되여 진행한 대응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미·일·남조선공동작전문제가 검토되였다.

△륙상자위대의 북조선본토에 대한 상륙은 장비부족과 직접전투에 말려들어갈 위험성이 크기때문에 보류로 하고 그대신 재일미군기지나 중요방호대상의 경비, 일본해연안에 밀려오리라고 예측되는 난민, 망명자, 북조선 특수부대 등에 대한 경계활동에 대처한다.

△해상자위대는 잠수함대, 수상함정부대를 총동원하여 미해군, 남조선해군과 협력하여 동해(일본해)의 봉쇄활동, 대잠초계기에 의한 북조선군함정 수색해동의 실시를 검토. 일본해상자위대는 북조선의 령해까지 진출, 필요에 따라서 남조선해군기지에 기항하는 문제도 연구과제로 되였다.

△항공자위대는 북조선군의 레이더망 등 방공능력이 약하며 항공전투력도 위협이 아닌데서 가장 유효한 대조선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미군과 협력하여 북조선본토의 전략거점에 대한 공격작전참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미공군은 북조선의 미사일기지 등을 공격, 제공권을 확보한후 일본항공자위대의 Ｆ１지원전투기부대는 미 Ｆ15전투기의 호위밑에 북조선령공에 침입, 군사기지, 탄약고 등 전략거점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는 문제까지 면밀히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Ｆ１의 발진기지는 고마쯔기지(이시가와현), 미호기지(돗도리현), 쯔이끼기지(후꾸오까현)이며 북조선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한후에는 항속거리의 관계로 일본기지에로의 귀환은 무리하므로 남조선기지에 착륙하는 문제까지 연구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조선침공 미·일·남조선 공동작전계획 구상들은 그 모든것이 일본의 해외파병과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고있는 일본헌법에 위반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방위청은 95년 12월에 새로 책정한 《신방위대강》에서 《조선유사시의 대량난민도래》를 성문화했다. 또한 일본당국은 올해 1996년도 《방위백서》에서 《북조선의 동향이 동아세아전역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한 불안정요소》라고 지적하면서 《조선유사시》의 미일공동작전기획을 다르어나가고있다. 지난 4월의 미일안보공동선언이후 쌍방간에서는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의 재검토를 추진하여왔다. 10월 단계에서의 《일본주변유사시》의 협력에 관한 합의내용은 ①재외방인(일본인)과 미국인의 구출 ②일본에 도래하는 대량난민대책 ③미군에 대한 자위대기지 및 민간비행장, 항만 등의 추가제공 ④후방지

원 ⑤미군과 자위대에 의한 부대운용(직접적인 공동작전) 등 5개 분야라고 한다.

때를 같이하여 미·일·남조선간의 조선반도를 둘러싼 공동작전연습이 벌어지고있다. 10월 17일~23일기간에는 태평양의 괌도근해에서 미·남조선대잠수함합동훈련이, 10월 28일~11월 7일 기간에는 남조선전역에서 《독수리(폴 이글)》 미·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여 동해안에서는 북침을 가상한 상륙전연습도 벌어졌다.

지어는 같은 기간인 11월 4일부터 14일간에 걸쳐 일본전역과 조선동해(일본해)에서 조선반도유사시에 대처하는 미일공동통합실동연습 《킨 소드》(날카로운 칼)이 전개되였다. 공화국의 앞바다인 동해에서 미일공동연습이 감행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미일쌍방에서 인원 2만 6천명, 미제7함대의 항공모함 《인디펜덴스》를 비롯한 함정 20여척, 항공기 380여대가 참가하여 상륙전을 벌리는 등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륙, 해, 공의 통합연습이 전개되였다. 시간차를 두고 실질적인 미·일·남조선공동작전연습이 전개되였다.

《유사립법》과 재일동포 탄압계획

일본의 《유사립법》책동에서 가장 엄중한 문제점은 자민당의 야마자끼 다꾸정책조사회장이 강조하듯이 《일본에 대한 침범은 없다. 지역분쟁에서 일본이 어떻게 미군과 협력하느냐는 문제》(《니홍게이자이신붕》 1996년 7월 2일부)라는데 있다. 침략에 대한 방비가 아닌 《지역분쟁》에 대처하여 일본이 미군과 함께 침공작전을 벌리기 위한 《합법적》인 구실을 만들기 위해 들고나선것이 《쏘련의 위협》대신의 《북조선의 위협》이며 《핵문제》《미싸일문제》《북조선의 정치체제문제》인것이다. 이 허구의 론리는 드디어 《북조선의 대량난민 도래》《내란》설까지 꾸며내였으며 그에 대응하기 위한 《유사립법》을 고창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이 《유사립법》문제도 이제부터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와 대책을 강구해왔다. 94년에 《핵문제》로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력이 강화되여 긴장이 조성된 시기 당시의 구마가야 내각관방장관은 《군사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의 필요한 립법정비는 이미 끝마쳤다》고 공언한바 있다. 또한 하시모또 류따로수상은 96년 5월에 《유사립법》과 관련하여 ①방인구출 ②대량난민대책 ③연안경비 및 테로대책 ④대미지원의 4개 항목의 검토추진을 각 부서에 지시했다. 《가지야마발언》은 바로 이러한 일본당국의 자세가 반영된것이다.

미·일에 의한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립법》연구와 탄압은 일찍부터 감행되여왔다. 1948년 4월에는 재일조선인학교폐쇄령에 반대하여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오사까·고베 교육투쟁에 대해 미군과 일본정부는 계엄령까지 선포하였으며 동포소년이 총격으로 숨졌다. 1949년에는 재일본조선인련맹을 비롯한 재일조선인단체들이 강제해산당하고 간부들이 공직추방당했다.

방위청산하의 방위연수소는 1958년에 작성한 《폭동진압연구의 참고》에서 60만 재일조선인은 《폭동발기의 유력한 공급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랑설을 라렬하면서 《군의 행동하의 폭동진압에 관한 기본문제》를 제기했다.

륙상자위대막료감부(륙막) 제3부에서 1960년 3월에 작성한 《간또대진재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자료에서는 《대규모의 파괴활동에 관한 대처》를 강조하고있다. 이것은 1923년 9월의 간또대진재시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투입하고있다》는 등의 류언비어를 류포시켜 6천여명의 조선인을 학살한 력사적사실을 《교훈》삼아 대처하자는것이다.

1963년 2월에 극비리에 미군과 자위대의 고급간부사이에서 작성된 《미쯔야연구》(《소화38년도 통합도상연구》)라는 조선반도유사를 상정한 미일공동작전계획(실적으로는 미·일·남조선공동작전계획)에서는 87건의 유사법제를 일거에 국회에서 가결하고 총련을 《대상세력》이라 하여 경찰력과 군사력으로 전면탄압하는 내용이 설정되였다.

또한 내각조사실(현재의 내각정보조사실)이 1965년 11월에 작성한 《1970년대에 초점을 맞춘 국내소동에 관한 예상과 제분석－폭동, 도시게릴라의 실상》 역시 재일조선인에 대한 탄압연구이다.

이 시기에 경찰과 자위대에서는 재일조선인을 치안대상, 유사시의 탄압대상으로 삼아 《진압연구》를 하는 《경비지지》 등에 관한 보도들이 있었다. 즉 이것은 조선인의 밀집거주지역, 학교, 사무소와 일본로동조합, 좌익단체 등의 배치, 분포 상태 등을 조사, 지도화하여 《유사시》의 《게릴라전》《시가전》에 대처하는 도시작전계획인것이다.

1966년 1월에는 아마가사끼경찰서(효고현)가 작성한 《외국인가정에 대한 특별순회조사》란 비밀훈령이 재일조선인을 감시, 탄압하기 위한 배타주의적조치라고 문제가 되였다. 그속에는 총련간부들과 재일조선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30수항목의 《조사요강》이 있어 내외로부터 규탄을 받았다. 95년 1월의 한신(오사까, 고베)대진재시에는 참의원 나까무라 에이이찌의원(신진당)이 《고베시 나가다구에서 불이 난것은 재일한국인이 방화한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질문하여 큰 정치, 사회적문제로 되였다. 물론 이것은 터무니없는 허위였다.

이상 보는바와 같이 최근시기 일본의 《조선유사》를 구실로 하는 대조선미일공동작전계획, 그의 일환인 《유사립법》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그러나 아세아의 여러 나라와 세계여론이 지적하고있는바와 같이 일본은 과거와 같은 침략국이 되여서는 안되며 아세아인민들에게 고통을 들씌우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조선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한다면 하루빨리 과거에 대한 청산을 마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실현시켜 자주적립장에서 호상 친선교류와 호상지원을 통하여 공생, 공영의 길을 걸어나가야 할것이다.

메모－《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에 대하여》

강 희 봉

오늘 조국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계시는 한 필승불패라는 확고한 신념과 신심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조성된 경제적난관을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정면으로부터 맞받아 극복해나가고있다.

그 경이적인 힘의 원천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이를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에 있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든든한 토대와 경제적잠재력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있다는것도 역시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의 거대한 잠재력과 그 위력한 토대는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라－선지대)개발건설방침에도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필자는 올해 7월말부터 8월초에 직접 라－선지대와 복수의 지대당국관계자들을 취재하였으며 또한 9월에는 현지에서 개최된 투자토론회를 다른 기자가 취재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은 취재와 관련된 몇가지 자료들을 리용하여 작성한 메모이다.

*필자는 이미 조선신보에 《라－선지대를 가다》라는 고정표제로 현지루뽀의 형태로 15번에 걸쳐 취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바 있다.

1. 라－선지대개발이란 무엇인가.

1)지대개발의 전략적목표

라－선지대개발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나라 최동북부에 위치하는 라진과 선봉지구를 라진－선봉시(직할시)로 하여(총면적 749평방키로메터) 이 넓은 지역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제활동이 진행되는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발하며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하는 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꾸리는데서 기본은 려관업과 운반업, 중계업을 잘할수 있도록 꾸리는것입니다.》

라－선지대개발구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를 둘러싼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대한 명철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가일층의 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 구상하신 웅대한 계획이다.

공화국정부는 이 지대를 중계수송기지로 꾸리는것을 중심축으로 하여 거기에 수출가공기지, 관광 및 금융봉사기지를 배합하는 말하자면 3대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인 자유경제지대로 건설하는것을 지대건설의 전략적목표로 제시하고있다.

*라－선지대개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유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0년 12월 18, 19일에 걸쳐 5명의 관계성원들을 묘향산에 부르시고 직접 라－선지대건설을 발기하시였으며 그후도 수차례에 걸쳐 지대개발의 방향과 원칙들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1993년 3월 12일에는 몸소 국토건설총계획안을 보아주시였다.

또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1995년 3월 30일과 1996년 2월 14일을 비롯하여 여러번에 걸쳐 지대개발계획을 보아주시는 등 세심한 령도로 지대개발을 이끌어주시였다.

2)지대개발의 기본원칙

라－선지대가 어떤 원칙에 따라 개발되가는 지대개발건설전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이 문제에 따라 지대의 성격이 좌우되기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에 우리 나라의 자유경제무역지대창설의 독자적인 성격이 나타나기때문이다.

라－선지대개발건설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있다.

첫째로 철저하게 자주적인 판단과 구상, 그리고 결심에 따라 진행되는 개발이다. 즉 독자개발의 원칙으로 관통되여있다.

현재 라－선지대개발은 ＵＮＤＰ가 주관하는 동북아세아－두만강지역개발구상과 밀접한 관련속에서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라－선지대개발구상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 주권하에서 공화국정부의 결심과 판단에 따라 추진되고있다.

*두만강지역개발이 처음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모은것은 1990년 7월에 중국의 장춘에서 개최된《제1차 북동아세아경제발전국제회의》에서였다.

이 회의에서 중국대표는《두만강하구-황금의 3각지대구상》을 발표하였던것이다. 그후 UNDP는 1991년 3월에 두만강지역개발을 UNDP의 제5차사업계획(1992~1996년)의 중점사업으로 할것을 결정하고 10월에는《두만강지역개발구상》을 발표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라-선지대개발구상을 피력하신것은 이미 본바와 같이 제1차 북동아세아경제발전국제회의부터 불과 5개월후인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전부터 가지고계셨던 개발구상을 새로운 정세에 맞게 구체화하신것이였음을 말해주고있다.

또한《두만강지역개발조정위원회》와《동북아세아 및 두만강지역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등 해당 국제기관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유관국가간의 통신, 통행, 통상 그리고 자금문제 등 개발과 관련하여 조정, 협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을 취급하는데 극한된다.(표1참조)

라-선지대개발건설은 다음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면서 개발을 촉진하는것을 원칙적요구로 내세우고있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우리 나라에 대한 봉쇄와 경제제재가 계속되고있으며 일촉즉발의 군사적위기가 항시적으로 조성되여있다. 이것이 기본요인이 되여 많은 외국기업들이 라-선지대진출의 최종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다. 이런 속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하부구조 등을 건설해놓아도 투자가 순조로이 실현되는가 어떤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투자가들이 안심해서 지대에 진출할수 있는 국제적환경이 조성되여야 공화국은 외국투자의 확대에 발맞추어 본격적인 투자를 실현할수 있다.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면서 개발을 촉진하는 원칙은 외화사정이 긴장되여있다는 사정으로 보나, 우리 나라를 둘러싼 국제적환경으로 보나 현실적감각에 발붙인 합리적인 개발원칙이라고 말할수 있다.

2. 라-선지대개발건설의 현황과 전망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라진-선봉지구 건설에도 큰 힘을 놓어야 합니다. 나는 라진-선봉지구를 현대적으로 잘 꾸릴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잘하면 앞으로 10년어간에 라진-선봉지구를 잘 꾸릴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라-선지대는 이 지대를 국제적인 무역중계지대, 수출가공기지, 국제적인 금융 및 관광기지로 꾸리는것을 중심축으로 하여 개발되고있다.

라-선지대개발구상은 1992년 12월의 정무원결정을 통하여 발표되였으나 지대건설이 구체적으로 시작된것은 1995년도 하반기부터라고 말할수 있다. 그렇게 된 기본적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할수 있다.

첫째로 지대개발건설의 법률적환경을 마련하는데 긴 시간을 요했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적지식을 가지지 못했으며 특히 시장경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표상, 지식과 경험을 가지지 못해왔다.

뿐만아니라 지대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면서 투자가에 매우 유리한 일련의 법규를 제정해야 했다.

둘째로 지대건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기업경영, 재무관리, 로동행정, 금융거래, 가격경쟁, 분규 및 분쟁의 처리 및 조정 등 문제들에 대한 대응, 처리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것은 지대관리운영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셋째로 지대건설에 대한 공화국정부의 결심을 자본주의세계가 리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넷째로 이른바 《공화국의 핵개발의혹》을 구실로 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책동에 의하여 오랜 시일에 걸쳐 전쟁위험이 계속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건설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외국투자가들의 위기의식을 자극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대진출의 결심을 내리기 어렵게 했다.

일부에서는 지대건설이 초기의 계획보다 늦어지고있는것을 두고 마치나 공화국의 경제저력이 약화되고있으며 지대건설의 전망이 어두운것처럼 묘사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우와 같은 현실적요인들에 대하여 리해하지 못하고있는데 기인한것으로 볼수 있다.

1)라-선지대개발건설의 현황

지난 7월하순부터 8월초순에 걸쳐 《총련경제시찰단》이 라-선지대와 그와 밀접한 경제적련관을 가지는 중국의 연길과 훈춘 지구를 직접 현지에서 조사, 료해하였다. 또한 10월에 있었던 라-선지대투자 및 기업토론회에 참가한 일군과 동포상공인도 있다. 시찰단의 보고와 투자토론회 참가자들의 보고는 비교적 현지상황을 잘 반영하였다고 볼수 있다. 이들의 보고에 기초하여 지대건설의 현황을 보기로 한다.

《총련경제시찰단》이 직접 현지에서 료해한 대상은 항만과 기업, 공업단지의 부지 등 약 20개대상에 이른다. 그중에는 이미 토지임대계약을 맺어 그것을 실현하였거나 건설중인 대

상, 임대계약을 맺은 토지들도 포함되고있다. 또 그중 중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투자토론회 참가자들도 참관하고있다.

구체적개발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미 투자계약을 맺은 49개 대상(3억 5천만딸라) 중 계약리행단계에 들어선 투자대상은 22건(약 3천 4백만딸라)에 이른다. 그중에는 국제석유독점체의 하나인 로이얄다취 쉘의 석유저장고용 부지의 임대, 아이엔지은행과 페레그린은행(대성은행과 합영)의 현지사무소개설 등 큼직한 대상들이 있다.

투자 건수와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지만 실질적인 투자유치활동이 시작한것이 1995년 하반기부터라는것을 고려할 때 결코 적은 수자는 아니다.

사실 UNDP의 아세아태평양담당 차석총재대리인 하세가와(長谷川 祐弘)는 9월의 투자토론회에서 올해말까지는 투자총액이 5,000만딸라에 달할것이라고 말하고있다. 또한 29개국에서 169개 기업(그중 조선기업이 59사), 439명이 참가한 이 투자토론회에서는 110건의 투자안건이 개별토론되였으며 38건의 대상에 대하여 총 11억 1,950만딸라의 계약 및 합의가 이루어졌다(표2). 그것은 UNDP는 물론 지대당국의 예상까지도 웃도는 성과였다.

투자토론회에 참가한 페레그린-대성개발은행 리사장인 알란마써는 토론회에서 《이제는 지대개발을 위하여 은행봉사를 항구적으로 제공해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제기된 단계》가 왔다고 하면서 지대의 성공적개발은 다만 시간적문제라고 전망을 내다보고있다. 이와 같은 몇가지 사실들을 보아도 지대개발이 급속히 진전되리라는것을 예견시켜준다.

둘째로 인플라정비의 핵으로 되는 통신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였다.

타이의 록크스리회사가 라-선지대의 통신분야에 3천만딸라를 투자할 계약을 맺었으며 투자토론회때에는 이동통신 500회선, 교환통신 1만 5천회선이 설치되고 실지로 카드식전화기에 의한 통신써비스가 시작되였다. 이것으로 라-선지대와 조선국외통신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였다.

셋째로 지대안의 도로망정비사업이 추진되고있었다.

시찰단이 현지에 갔을 때는 라진-원정간 도로의 확장공사가 추진되고있었으며(고속도로화를 예견하고있다) 그외 기본도로들도 폭의 확장과 로반강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었다.

그러나 투자토론회때에는 라진-선봉간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가 완공되여있었다. 매우 빠른 속도라고 말할수 있다.

넷째로 지대출입을 위한 교통망의 정비를 다그치고있었다.

우선 라진시 안주지구에 20명용 직승비행기 2대가 동시에 리착륙할수 있는 직승비행장이 완공되였으며 세관건물건설도 거의 완공된 상태이다. 이로서 라진-연길, 라진-어랑(청진)간의 직승비행로가 개설되게 되였다.

다음으로 조국의 원정과 중국의 권하간의 교도가 9월 4일에 개통되였는바 올해 6월 1

4일에는 조중간에서 제 3 국인의 무사증제도도입에 대하여 합의를 보고 그 개통준비가 마무리되여나가고있다.

*지금까지 중국측으로부터 지대에로의 출입은 주로 도문(중국)－남양(조선)을 통하여 들어갔는데 그 시간은 6～7시간이나 걸렸다. 그러나 원정－권하의 행로로 가면 3시간정도로 단축할수 있다.

또한 라진－원정간 고속도로화가 완공되면 중국측의 권하－훈춘－연길－장춘간의 고속도로(중국 제 9 차 5 개년계획기간에 건설예정)와 련결된다.

다섯째로 라진항을 중심으로 한 중계화물수송기지화가 일정하게 진전을 보이고있다. 현재 길림성의 화물을 청진항을 통하여 일본에로 수송하는 청진통로를 보면 1995년 6월부터 시작한 중국외운길림집단공사(장춘)와 미나미 프로젝트(교또), 삼해진흥(평양)에 의한 화물수송은 1만톤의 산적화물수송실적을 보이고있는바 올해는 10만 5천톤의 실적을 예견하고있다.

라진－부산간의 정기항로도 공고히 다져지고있다. 라진－부산간 짐함정기항로를 리용하는 물동량이 부단히 늘어나고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1만톤급의 선박을 리용한다고 한다. 현재 중국측에서는 도문에 짐함집산기지를 통하여 집하지역을 연변자치주부터 길림시, 흑룡강성까지 확대해나갈 의향을 보이고있으며, 한편 자동차수송과 함께 올해 1월부터는 도문－라진간의 철도수송을 개시하는 등 륙로수송을 강화하고있다. 연변부터 대령항까지는 철도로 가면 빨라서 10일, 자동차로는 4～5일 걸리는바 라진항에는 자동차로 하루만 있으면 간다. 또 철도수송은 자동차수송보다 20～30%나되는 코스트삭감을 실현할수 있다.

한편 동해에 림하는 일본의 항들과의 정기항로개설을 다그치고있다. 당면 니이가다항과의 정기화객선항로개설을 계획하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있다.

2)라－선지대개발건설의 전망에 대하여

라－선지대개발건설의 전망을 볼 때 몇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첫째로 라－선지대의 지리적위치이다.

지도를 펼쳐보면 알수 있는바와 같이 이 지대는 동아세아와 중국, 로씨야 그리고 구라파를 련결하는 대륙교의 관문적위치에 있다. 특히 라진항은 동아세아와 구라파를 련결하는 해륙교차분기점으로서의 유리성을 가지고있다.

례컨대 일본 니이가다부터 훈춘에 물자를 수송할 경우 라진통로를 사용했을 때 해상으로 485마일, 륙로로 130키로임으로 4일도 안걸린다. 이것은 기존의 니이가다－대련항－훈춘

통로에 비하여 륙로로 10분의 1, 해상거리와 수송시간은 절반으로 된다.

또한 니이가다－롯데르담(화란), 혹은 니이가다－함부르구(독일)의 통로는 현재 스에즈운하 혹은 케이프타운을 거쳐 가는 통로와 미국의 서해안－동해안을 거쳐서 가는 통로가 있는데 수송기간은 약 25일～약 40일간 걸리고있다. 이것을 니이가다－라진－씨비리철도를 리용하면 수송거리는 절반, 운행시간은 약 4분의 1로 단축할수 있다.(지도 1, 2)

둘째로 라－선지대의 후배지와 관련한 문제이다.

라－선지대는 인구 약 1억을 넘는 중국 동북3성과 로씨야 원동지방의 넓고 유망한 후배지를 가지고있다. 이 후배지들은 21세기의 세계적인 개발대상지역으로 지목되고있으며 그에 상응한 정치경제적잠재력과 소비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다음의 몇가지 사실들로 일목료연할것이다.

첫째로 1994년의 동북아세아의 무역액은 수출 5,052억딸라, 수입 3,850억딸라로서 각각 세계의 12%, 9%를 차지하는바 북동아세아의 역내무역은 479억딸라로서 북동아세아의 무역총액의 11%를 차지하고있다. 이제 중국 동북3성을 비롯한 두만강지대개발관련국들의 역내무역의존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3－1～3)

둘째로 공화국의 일차적인 중계무역대상인 중국 동북3성의 무역액이 급속한 증대를 보이고있다. 1995년의 동북3성의 수출입총액은 173억딸라로 1978년의 10배를 넘어섰다. 1978년부터 1994년까지의 년평균신장률은 료녕성 12%, 길림성 35%, 흑룡강성 29%이며 료녕성의 경우 대일무역액은 무역전체의 41%, 길림성은 대일수출이 총수출액의 22%에 달하고 있다.

셋째로 동북3성의 실질 GDP성장률이 높다.

동북3성의 1인당 GDP는 723딸라(95년)으로 전국평균을 27% 웃도는 수준에 있다. 성별로 보면 전국을 100으로 한 경우 료녕성이 156, 흑룡강성이 115로 평균지수를 넘고있으며 길림성은 98로 거의 평균수준에 있다.(표4)

중국정부는 제9차 5개년계획기간에 동북3성을 중화학공업 및 농업기지로서 발전시키기로 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동북3성은 계획기간중의 년평균 GDP성장률을 전국평균보다 1～2포인트 높은 9～10%로 정하고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수자들은 라－선지대를 통과하는 물통량이 급속히 확대되여 경제적배경이 더욱 유리하게 형성되여갈것이라는 예감을 준다.

공화국정부가 발표한 라－선지대개발총계획이 밝힌 전망적목표에 의하면 라진, 선봉, 청진항의 년간 처리능력은 최종적으로는 1억3천만톤 규모에로 확대되고, 현대적인 경공업을 비롯한 중화학공업의 10개 공업단지가 조성되며, 조중로를 련결하는 도로 및 철길의 정비 등을 통하여 라－선지대를 통과하는 방대한 물통량을 소화할것이 예견되고있다.

다음으로 세계경제발전의 추세이다.

오늘 세계경제는 지역간, 국가간의 간격이 매우 빠를 속도로 가까와지고있으며 그것이

주로 지역간 협력구조의 등장과 확대의 형태로 발전하고있는것을 특징으로 하고있다. 여기서 자유경제지대는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는바 현재 각이한 명칭으로 불리우고있는 그러한 자유경제지대는 세계에 약 500개가 가동하고있거나 계획되여있다고 한다.

아세아만 보아도 확대 아세안(9개국), 메콩강델타지대개발기구(5개국), 남아세아경제개발기구(7개국) 등 국제적인 지역경제개발기구들이 있다.

두만강지역개발구상과 동북아세아개발구상은 바로 이러한 국제적흐름의 반영인바 여기서 특히 고려할 점은 동북아세아가 21세기의 세계경제쎈터의 중심의 하나로 부각될것이 전망되고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동북아세아개발의 중심적위치에 놓여있는 두만강지역개발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것은 어느 지대를 축으로 하여 개발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라-선지대는 그 지리적위치와 잠재력으로 하여 어느 지대보다도 최유력지로 지목되고있다.

맺음

라-선지대개발은 말하자면 하나의 《국제공약》이다.

라-선지대개발이 크게는 동북아세아개발, 작게는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국제적지역경제개발과 직결되여있다. 지대개발은 이 지역경제개발의 주요부분을 공화국이 맡아 독자적판단에 따라 책임적으로 실천한다는 국제적공약이기도 하다.

라-선지대개발은 제국주의경제봉쇄를 분쇄하고 나라의 자주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비약적인 발전을 약속하는 거대한 구상이다.

이 방대한 구상의 실현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경애하는 원수님 두리에 일심단결한 혁명의 주체가 발휘하는 강력한 힘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표1. 조정위원회와 협의위원회의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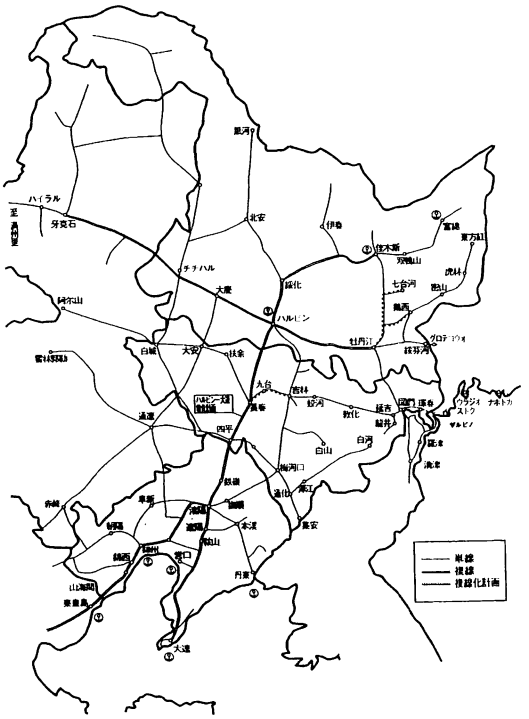
사회, 법률, 경제면의 문제대 대하여 토의	동북아세아와 두만강경제개발지역의 개발을 방조
성원국의 주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조정	동북아세아와 두만강경제개발지역에 있어서의 협의, 상호리해, 공통의 리익 등을 촉진
두만강경제개발지역의 개발을 위한 조정	동북아세아와 두만강경제개발지역에 있어서의 경제, 환경, 기술과 관련한 협력추진
두만강경제개발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조언	공통의 리익 및 협력 등 지속적인 개발기회의 확인
두만강경제개발지역의 개발활동을 전개하는 다른 정부간기관과의 조정	동북아세아와 두만강경제개발지역에 대한 투자의 촉진

표 2. 성립된 계약 및 합의

계약	6 기업,기업가	8 건	2 억8,500만딸라
투자합의서	21기업,기업가	30건	8 억3,450만딸라
합계	27기업,기업가	38건	11억1,950만딸라

(조선중앙통신1996년 9 월19일)

지도 1　東北三省鉄道路線図



지도 2　東北三省道路路線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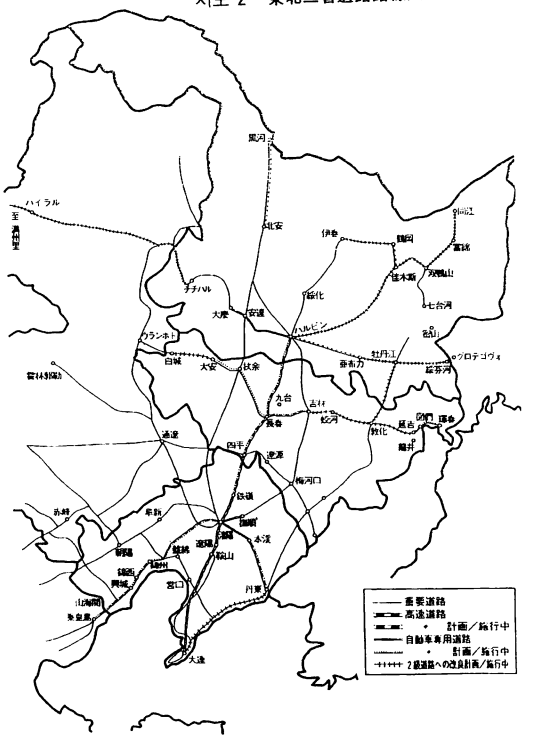


표 3－1　域内貿易依存度の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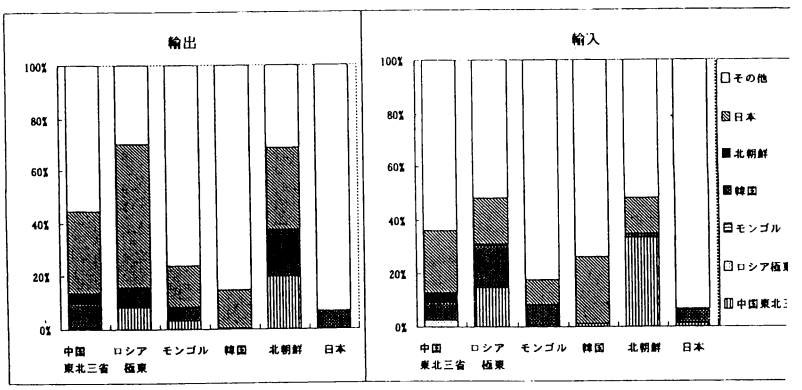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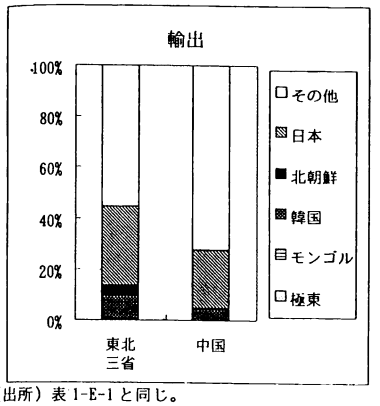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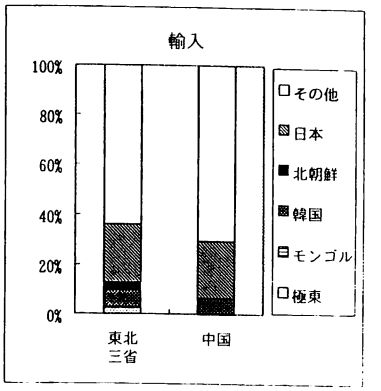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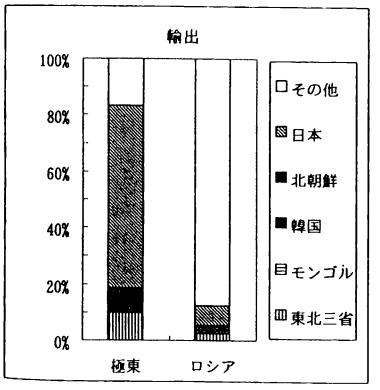
図 3－2　中国と東北三省の域内貿易依存度の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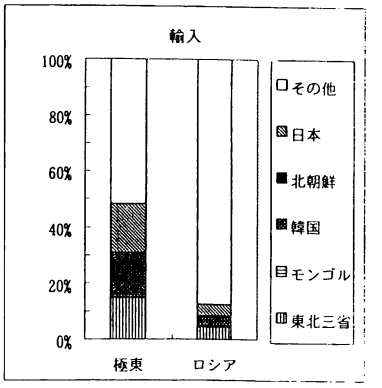




（出所）表 1-E-1 と同じ。

図 3－3　ロシアと極東地域の域内貿易依存度の比較





（出所）表 1-E-1 と同じ。

図 4　全国30省・市・自治区の一人当たりGDP（1994年）とGDP平均成長率

省・市 自治区	一人当たりGDP (1994年)	GDP成長率 (1990-94年)
	ドル	%
全国	436	10.5
北京	1,118	10.0
天津	900	9.3
河北	390	12.0
山西	325	8.5
内蒙古	350	9.5
遼寧	737	8.7
吉林	437	9.7
黒龍江	511	6.2
上海	1,687	10.9
江蘇	671	14.9
浙江	721	16.1
安徽	290	11.5
福建	614	17.9
江西	298	11.9
山東	518	14.7

省・市 自治区	一人当たりGDP (1994年)	GDP成長率 (1990-94年)
	ドル	%
河南	283	11.0
湖北	381	9.7
湖南	309	9.6
広東	736	18.4
広西	321	15.0
海南	540	15.6
四川	287	9.8
貴州	175	8.3
雲南	287	9.7
チベット	225	8.3
陝西	282	9.2
甘粛	220	8.8
青海	338	6.7
寧夏	308	6.9
新疆	479	11.5

（出所）『中国統計年鑑 1995』より作成。

공화국창건을 절대 지지하며 경축하기 위한 조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에 대하여

손 문 규

앞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1948년 9월 9일 세계인민들의 주시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정부의 수립을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적국가이며 우리 나라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

공화국의 창건은 자주독립국가의 새로운 출현, 주체조선의 장엄한 탄생으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서 국제무대에 떳떳이 나서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8권, 154페지)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으며 자기 손에 새 사회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또한 공화국의 창건에 의하여 조선인민은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자기 나라 기발을 높이 들고 국제무대에 떳떳이 나설수 있게 되였다.

진정한 인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특히 모든 재일조선동포들의 정치생활과 사회력사적지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일제시기 재일동포들의 뼈에 사무치는 수난의 력사는 나라 없는 해외동포들의 처지와 운명이 얼마나 참담한가를 피의 교훈으로 뚜렷이 보여주었다.

8.15해방을 맞이하여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벗어난후에도 재일조선동포들은 자기의 진정한 국가주권을 가지지 못하였기때문에 미일반동들에게 초보적인 민족적 존엄과 권리마저

계속 짓밟혀왔다.

그렇기때문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온갖 설음과 비참한 생활에 허덕이던 재일조선동포들은 해방된 첫날부터 나라의 자주독립과 해외동포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줄 인민정권의 수립을 절실히 념원하였으며 그 실현을 최대의 민족적과업으로 내세우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던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의 빛나는 예지로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재일동포들의 처지를 깊이 통찰하시고 몸소 1946년 12월 13일 공개서한 《재일 100만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시여 재일도포들이 무엇보다도 조국에서의 자주독립국가건설위업실현을 위하여 투쟁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동포들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해외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국에서의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권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이 시기 공화국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은 공화국창건을 절대 지지하는 대중적인 경축운동으로부터 시작되였으며 공화국국기를 높이 게양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졌다.

원래 해방된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 자기 조국의 기발을 마음대로 게양하는것은 가장 초보적인 기본권리에 속하는 문제이며 너무나도 자연스로운 일이다. 그러나 미일반동들은 저들의 침략적목적으로부터 남조선괴뢰정권에 대한 지지를 강요하면서 이 가장 초보적인 정치적권리마저 탄압해나섰다. 이것은 공화국주권옹호를 위한 국기게양투쟁의 발단으로 되였으며 전동포적 공화국국기사수투쟁의 형태로 발양되였다.

이 글에서는 1948년 9월 9일 공화국중앙정부수립을 열렬히 지지하고 경축하며 조국에 경축대표단을 파견하는 운동 등을 중심으로 당시의 조련과 재일동포들의 활동을 분석서술하였다.

1. 공화국창건을 절대 지지하고 경축하는 조련과 재일동포들

공화국창건을 절대 지지하는 조련과 산하조직들

통일적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위하여 한결같이 투쟁해온 재일동포들은 1948년 8월 25일 북과 남에서 진행된 총선거의 결과에 따라 9월에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였다.

《해방신문》과 《민청시보》(일문판)는 조국의 북과 남에서 각이하게 진행된 총선거의 결과

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였다.

1948년 9월 1일부 《민청시보》는 제1면에 《감격에 넘친 선거장면, 투표률 99%이상, 중앙선거위 중간발표》이란 제목을 달고 북조선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중간발표를 소개하였다. 이 신문은 평양방송을 인용하여 난생처음으로 조국의 독립과 공화국중앙정부수립을 위한 신성한 한표를 넣기 위하여 새벽 3시경부터 선거장에 모여 기다렸으며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의 선거장에서 선거자들이 감격에 넘쳐 경축무용으로 흥성거린 모습을 소개하였다.

9월 3일부 《해방신문》은 8월 27일부 평양발—신아통신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23호선거구에서 100%의 찬성투표로 당선되시였다고 보도하였으며 북조선중앙선거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의원선거의 최종자료를 전하였다.

이 선거에는 등록자(유권자)의 99.97%가 투표에 참가하여 212개의 선거구에서 212명(등록자—227)의 대의원들이 당선되였으며 이 선거가 완전히 민주주의적인 선거규정에 기초하여 진행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직접선거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남조선선거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2중선거의 형식으로 진행되였다.

8월 5일까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파쑈폭압속에서도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적극적 활동에 의하여 유권자의 77.84%가 참가하여 인민대표 1,080명을 선출하였다.

그리하여 8월 21~26일에 해주시 주촌공회당에서 《남조선인민대표회의》(1,002명이 참가)가 진행되고 25일에는 비밀투표로 대의원선거를 진행하여 남조선지역에서 360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선출하였다.(《해방신문》 1948. 9. 3)

남북 전체 인민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서 진행된 8.25총선거의 소식은 재일조선동포들에게 인민의 정권으로서의 공화국주권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으며 앞으로 소집될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주권, 통일적중앙정부의 수립에로 이목을 집중하게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와 공화국정부수립에 대한 소식은 《해방신문》을 비롯한 《조련중앙시보》(일문), 《민청시보》, 《녀맹시보》, 중앙조직의 기관지들과 지방의 출판물을 통하여 재일동포들속에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날마다 전해졌다.

《해방신문》 9월 6일호는 론설에서 《최고인민회의개회에 제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론설에서는 《이 회의는 조선의 력사가 또는 조선인민이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광휘에 넘치는 의의심대한 회의》로 될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금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우리 3천만조선인민에게 커다란 감격을 주는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중국 등 린접제국 및 이여의 세계각국 더구나 식민지, 반식

민지 제지역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될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일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회의는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인민의 손으로 인민을 위한 인민정치의 기초를 확립하는 제1차회의》이며 《우리 인민자력으로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중대한 실천단계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론설에서는 또한 《특히 우리로서 일반대중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야 할것은 최고인민회의의 본질과 사명을 남조선정권의 소위 국회와 대등시하는 착각과 오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견해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재일동포는 이 최고인민회의의 모든 결정에 대하야 충실한 실천으로써 금번 수립될 인민중앙정부의 육성에 전력량을 집중》할것을 호소하였다. 미점령군당국의 검열, 통제하에 있는 일본의 각 신문과 방송들도 9월 3～4일 평양방송이 전한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의 소집과 회의진행에 관한 소식을 보도하였다.

9월 4일 교도통신은 《신아통신(新亜通信—중립계 조선인이 경영하는 통신보도기관—필자)이 청취한 평양방송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2일 평양에서 개최되였다. 지난 8월 25일의 총선거로 선출된 북조선측 212명과 남조선측 360명의 대의원이 출석하고 회의는 먼저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각각 선출한 다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47명의 헌법심사위원회를 조직》했다고 보도하였다.

9월 10일에는 일본의 신문, 방송을 비롯한 모든 보도기관들이 일제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공화국의 내각수상으로 추대되였다는 사실을 사진과 함께 전하였다.

9월 10일부 《아사히신붕》은 다음과 같은 평양방송을 전하였다.

《평양에서 개최중이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8일 회의에서 헌법을 채택》하고 헌법에 따라 《수상으로 김일성장군(현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크게 보도하였다.

9월 9일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진정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내각수상으로, 국가수위로 추대되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은 재일동포들로 하여금 한없는 환희와 기쁨에 휩싸이게 하였다.

9월 12일부 《해방신문》은 제1면의 표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정부수립만세!》라고 대서특필하고 공화국정부수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새 조국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확고한 결의를 담은 조련, 민청, 녀맹 등 중앙단체들의 성명들과 담화를 보도하였다.

9월 10일 60만 재일동포들의 절대다수를 망라하는 조련중앙총본부는 공화국중앙정부만이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한 진정한 정권임을 강조하면서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전체 재일동포들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수립에 대하여》라는 조련중앙본부 의장단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조련은《일체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인민의 자유의사와 진정한 민주주의적 남북총선거에 의하여 공화국정부를 보게 되였다》고 지적하고《이 공화국정부는 해방후 3천만 인민이 고대갈망하던 정권이며 또한 그 수립을 위하여 3개년동안 남북조선 및 해외의 전동포가 피와 땀과 죽음으로써 구축해놓은 확고한 기초우에 조직된 인민정부》이라고 하면서 이 정권이 조선인민의 총의를 반영하고 인민의 힘으로 쟁취한 정권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이 성명은《우리 련맹은 이 정부만을 조선인민의 진정한 정권으로 확인하고 이의 육성과 강화에 전맹원의 정력을 결집하는 동시에 이여의 어떠한 형태의 정권 또는 그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일지라도 그는 자주독립을 방해하고 국토와 민족을 팔아먹으려는 반민족적행위, 반인민적인 존재물로 인정하고 이를 철저히 배제할것을 다시 언명한다》고 조련의 원칙적립장을 밝혔다.

성명은 끝으로 각계각층 재일동포들에 대하여《각급기관소속의 전맹원은 정당한 자신의 정부를 더욱 깊이 인식하고 그를 절대 사수하기에 한층 더 굳은 결의와 실천을 요망한다》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재일조선민주녀성동맹은 9월 12일에 발표한 성명에서《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정부가 이제야 수립되였다.

이 정부는 민주주의적 모든 혁명과업을 실현하여 우리 조선의 완전한 통일과 독립을 완성확보해주는 정부이며 더우기 남녀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전조선인민이 평화속에서 누구든지 다 잘살수 있고 자손들의 영원한 번영을 줄것이다》라는 공화국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표시하면서《20만녀성의 집결체인 재일조선민주녀성동맹은 감격과 기쁨으로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더한층 열렬한 투지밑에 우리 전조직을 들어 인민정부를 절대 지지하며 최선의 힘으로써 이 정부의 강대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것을 맹세하여 이에 성명하는 바이다》라고 공화국을 절대 지지한다는 재일녀성들의 의사를 밝혔다.

재일조선청년조직인 민청도 즉시 성명을 발표하여 공화국중앙정부만이 자기 동맹의 기본강령속에 밝혀져있는 진정한 인민정부이며 재일조선청년들이 이 정부수립을 위해서 싸워왔다고 하면서 전체동맹원들에게《정당한 자신의 정부를 깊이 인식하고 그 절대적사수를 위하여 새로운 결의와 실천을 요망한다》라는 공화국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로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또한《해방신문》은《진정한 우리 인민정부의 탄생》(9월 15일),《새로운 인민정강과 우리의 임무》(9월 18일)등의 일련의 사론설들을 발표하여 공화국창건의 력사적의의와 공화국정부수립의 합법칙성, 그리고 민주개혁의 성과에 토대한 인민정권의 정치사상적, 물질적 공고성과 재일조선동포들의 생활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무한한 감격과 긍지를 가지고 력설하였으며 공화국정부를 명실공히 인민정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인과 단체를 막론하고 전력을 다할것을 재일동포들에게 호소하는 보도선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공화국정부가 수립되였다는 기쁜 소식에 접한 각계의 재일동포들은 환희에 넘쳐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싸워나갈 결심을 표명하였다.

《해방신문》 9월 15일호에는 《유일한 정부를 절대 지지하자》라는 글을 비롯하여 동포들의 기쁨과 결의들을 담은 수많은 담화들을 특집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정부수립의 력사적시기에 당시 동포들이 가지고있던 인식과 사상감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언으로 된다. 여기에 그가운데서 《해방신문》에 발표된 동포들의 담화에서 몇가지만을 소개한다.

도꾜조선중학교 학부형리사회대표는 《우리 조선중학교의 교육방침은 인민공화국의 기초우에서 실시해나가야 할것이며 학부형으로서 공화국정부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

…앞으로 교육자로서 특히 재일조선 아동교육에 대하여 중책을 인식하게 되며 우리 투쟁은 본격적단계에 들어가게 될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한 동포상공인은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할것을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감을 말하였다.

《3천만동포가 갈망하여오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였다는 길보를 듣고 기쁨을 금할수 없으며 감개무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오날의 축일을 위하여 많은 애국렬사와 지금 조국에서 피투성이 싸움을 하시는 제선배, 선생님들에게 무한히 감사를 드리는바이올시다.

오늘에 있어서 지나간 암흑시대를 회고하여보면 나도 실업(기업)방면에서 살아왔습니다만 특히 실업가로서 나라 없은 민족이란 가장 불쌍한 존재이라는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이제야 독립국가의 민족으로서 기업가로서 조국의 체면에 오욕이 없도록 명심해야 할것이며 불원간 귀국을 앞두고 많은 기술을 조국에 선물로 가지고가서 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사명 달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토목로동자는 《나는 5년전에 고향에서 농사를 하며 살았는데 징용으로 북해도 탄광에 와서 죽을 지경에 있다가 겨우 해방되여 조선에 가자니 일자리도 없고 토지도 없고 할수 없어 그날그날 일본에서 품팔이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조선에 토지없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주고 로동자에게는 일터를 주고 인민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공화국이란 나라가 세워졌다 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나는 이 정부를 절대 찬성하며 하루속히 조선에 가서 일하고저 합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재일조선인과학자, 기술자들과 연구자들도 과학과 기술로 공화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할것을 맹세다졌으며 재일본조선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조국을 세워주신 고마움과 기쁨, 애국선렬들에 대한 뜨거운 감사를 올리며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도 이름난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국가수반으로 높이 모신 공화국의 창건소식에 접한 재일조선동포들은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감격으로 들끓었으며 공화국을 사수하고 그 강화발전에 전력을 다할 굳은 결의에 차넘쳤다.

조국땅에서 자주독립국가, 공화국의 창건이 장엄하게 선포된 이 거창한 력사의 날을 해외에서 맞이한 재일조선동포들이 자기 조국에 대하여 이처럼 고상한 애국적 사상감정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가지게 된것은 다른 나라의 해외교포운동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며 이는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을 위한 귀중한 정치사상적 담보가 마련되였음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창건소식에 접한 동포들의 기쁨과 경축모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수위에 높이 모신 자기의 진정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소식에 접하여 자주독립국가의 공민된 감격과 기쁨, 흥분된 격정을 누를길 없었던 재일조선동포들은 스스로 공화국창건을 축하하는 여러가지 형식의 경축모임들을 가지였다.

이러한 경축모임들은 동포들이 모여사는 모든곳, 일본의 전국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였다. 조련산하 도꾜의 여러 분회들에서는 9월 16~17일경부터 련일 기쁨과 감격에 넘친 동포들의 경축모임들이 벌어졌다.

재일조선동포들은 경축행사장들에 태극기대신에 새롭게 제정된 람홍색의 공화국국기를 만들어 걸었으며 또한 전국의 조련사무소와 학교들에도 새 국기를 게양하였다.

조련 도꾜도 중부지부관하에 있는 신쥬꾸(新宿)분회동포들은 1948년 9월 16일 공화국중앙정부수립을 기념하여 선참으로 축하모임과 조일친선간담회를 가졌다. 축하모임에서는 이 분회 분회장으로부터 공화국창건의 의의와 새 국기에 대한 해설이 있은 다음 공화국창건을 축하하여 축배를 들고 하루를 즐겁게 지냈다.

이날 진행된 조일간담회에는 재일조선인들과 련계가 깊었던 일본인사들이 참가하여 공화국창건을 축하해줌으로서 조일친선의 의의깊은 마당으로 되였다고 한다.(《해방신문》 1948. 9.21)

다음으로 지부규모에서 처음으로 경축행사를 조직한것은 1948년 9월 17일에 있은 조련 도꾜본부관하인 고오또(江東)지부축하회였는바 이 지부축하회는 전국적으로 동포들의 큰 주목을 끌었다.

회장은 람홍색 공화국기발들로 찬란히 장식되였는데 나붓기는 기폭은 참가한 전체 동포들의 눈을 한층 빛나게 하였다. 회의장의 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정부수립 만세》, 《리승만매국정권을 분쇄하자》 등의 구호들과 함께 북반부에서 이룩된 민주개혁의 빛나는 성과들이 도표로서 게시되여있었다.

이 축하모임에 참가한 80세의 한 로인은 《경축회가 추석날에 진행되였다는것도 의의가 깊지만 우리 동포들이 40년만에 이 감격의 광경을 처음으로 맛보게 되였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한다.

축하모임에서는 지부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련각기관대표들의 축하인사가 있었으며 새롭게 게양하게 된 국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 공화국국기를 우러러보는 동포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

국기해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남조선망국정부를 분쇄하고 공화국을 강화발전시키자》라는 구호들이 터져나왔다.

축하모임 제2부에 들어가서 동포들은 먼저 공화국정부수립을 축하하여 축배잔을 든 다음 어깨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공화국의 창건을 열렬히 축하하였다.(《해방신문》 1948. 9 .21)

9월 17일 조련도꾜 아라까와지부 오구(尾久)분회에서 진행된 축하모임의 경우를 본다면 50여명의 분회동포들이 참가하여 공화국 새 국기앞에서 엄숙하게 축하의식을 진행하였는데 분회장은 자기 인사에서 《최후의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는 이 국기를 사수한다》라는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고 《어머니회》책임자는 《남북을 통한 이 중앙정부만이 우리 정부이다》라고 하면서 단독선거로 조작된 리승만괴뢰정부를 반대하고 공화국정부를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해방신문》 1948. 9 .24~27)

그 이후 도꾜관하의 여러곳에서 조련, 녀맹, 민청이 합동하여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동포들의 모임들이 9월 17일~21일사이에 걸쳐 집중적으로 더욱 활발하고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이 시기 동포들의 경축모임은 도꾜지방에서뿐아니라 가나가와, 오사까, 효고, 후꾸오까 등 동포들이 사는 일본의 방방곡곡에서 진행되였다.

이 경축모임들은 처음으로 자기 나라를 가지게 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한 재일동포들 스스로가 벌린 자발적인 활동이였으며 재일조선동포들의 가슴속에서 우러나온 애국감정의 발현이였다.

2 .조련의 조직적인 경축준비와 경축활동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려는 각계각층동포들의 애국적열의가 날을 따라 높아가는 속에서 9월 20일 조선인련맹은 제136차중앙상임위원회를 열고 공화국중앙정부수립을 경축하는 행사를 조직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다.(《해방신문》 1948. 9 .24)

이 회의에서 조련중앙본부는 공화국의 창건이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재일조선인운동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며 일본에서 벌리는 공화국창건경축행사가 국제적으로 커다란 정치적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인식에서 공화국창건경축행사를 중요한 정치투쟁으로 전개할 방침을 세웠다.

미제는 지난 8월 15일 서울에서 벌린 리승만의 《대통령취임식》에 맥아더를 직접 참가시키고 련합국군최고사령관이라는 맥아더의 지위를 리용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반대와 규탄속에서 테로와 사기협잡으로 조작된 리승만괴뢰정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정권인것

처럼 인민들을 기만하려고 흉책하였다.

한편 일본당국은 조선민족을 해방민족이라고 규정한 국제협약에 따라 련합국국민에 준한 외국인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재일조선동포들에 대하여 조선에 수립된 정부와의 합의가 없다는 부당한 구실밑에 계속 일본국적을 강요하였으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짓밟고 심한 민족적차별로 초보적인 생활권마저 유린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미점령군당국의 비호를 받는 《거류민단》과 《건국청년동맹》 등의 반동분자들은 남조선에 리승만괴뢰정권이 조작된이후 미일반동들의 주구로서의 정체를 로골적으로 들어내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조련조직을 분렬와해시키며 동포대중을 자기편에 끌어당기려고 악랄한 책동을 감행해나섰다.

이러한 정황속에서 조련중앙상임위원회는 해외에 사는 조련과 재일동포들도 공화국의 기초를 반석같이 굳게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하며 조국인민들의 힘찬 투쟁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오는 10월 10일(双十節)을 기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현단위의 공화국창건경축대회를 성대히 개최할것을 결정하고 조련각지방본부에 긴급 통첩을 보내였다.(《해방신문》 1948. 9 .24)

조련 136차중앙상임위원회가 공화국창건경축행사조직과 관련하여 각 조련현본부들에 내려보낸 통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지적되여있었다.

①지금 각지역에서 생활권옹호문제와 결부하여 경축행사사업이 왕성하게 진행되고있다. 일본당국과 교섭하여 기발을 만드는데 필요한 천을 비롯하여 각종 물자들을 벌써 입수한 지방도 몇군데나 나와있다고 한다.

②공화국의 공고한 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하여 중앙상임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 일본 전국에서 경축행사를 개최할것을 결정하였다.

다음과 같은 요강에 준하여 경축행사를 조직해줄것을 요망한다.

—날자 : 1948년 10월 10일

—장소 : 옥내 혹은 야외

—가능한데서는 경축시위행진을 조직할것이다.

—경축행사에는 외국인사, 일본인사와 민주단체대표들이 참가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것이다.

—대회에서는 공화국국기게양식을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진행할것이다.

—조련중앙본부는 각계각층 동포 유력자들과 단체대표들속에서 나온 발기인들로써 중앙경축준비위원회를 구성할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귀 현본부들에서도 각 단체,본부,지부의 대표들로 경축준비위원회를 무어서 잘 토의하고 진행할것을 요망한다.

(《미점령군문서》 총사령부, 민간첩보국 《1948년 9월 27일부 朝聯中総부터 朝聯対馬本部宛 通牒》) *①

공화국창건경축행사조직에 관한 조련의 방침은 조련 산하조직과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환영을 받았으며 10월 10일을 앞두고 일본의 각지에서는 동포들의 앙양된 열의속에서 조직적인 경축대회준비사업이 전개되여나갔다.

각지에서 벌어진 경축대회준비활동들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우선 중앙에서는 9월 25일 조련도꾜본부강당에서 《공화국중앙정부축하중앙경축준비위원회》가 소집되고 여기에서는 역원선거, 준비활동방침 등이 토의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발기인측이 소집한 각 단체대표,각계 유지들 80여명의 참가밑에 일부 보수적경향을 가진 인사들도 망라한 중앙경축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중앙경축준비위원회에서는 중앙경축대회의 날자를 10월 17일로 정하였으며 대회장소는 제1후보로 일본에서도 이름난 극장으로 정하고 교섭을 진행하되 적당한 옥내시설을 확보할수 없는 경우 궁성앞광장,혹은 히비야야외음악당으로 하며 제경비를 약 50만원으로 계산하고 이날 식장을 화려하게 장식할것이며 경축대회명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정부수립경축대회》로 한다는것 등 경축행사와 관련한 전반내용들이 결정되였다.(《해방신문》 1948. 9 .30)

조련가나가와현본부에서는 9월 24~25일에 진행된 조련현본부정기대회에서 경축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다른 지방보다 하루전인 10월 9일에 성대한 경축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해방신문》 1948. 9 .29~30)

국제도시인 요꼬하마시내에서 개최되는 가나가와현경축대회는 간또지방에서 동원수와 규모에서 최대의 경축행사로 될것이 예견되였으며 전국에서 맨 첫번째로 진행되는 대규모의 경축행사라는데서 내외의 큰 주목을 받게 되였다. 특히 요꼬하마시에 미군사령부를 두고있는 미제8군당국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조련의 활동을 주시하였다.

미점령군당국의 현지통보자료에는 9월말경 《미군의 정보원인 한 민단간부가 가나가와미군정부에 찾아와서 조련이 10월 9일에 대대적인 공화국경축행사를 가지고 공화국국기를 게양하며 자동차시위행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라는 비밀정보가 들어있었다.(《미점령군문서》 총사령부, 참모제2부 《조선인들의 시위행진》 1948. 9 .29) *②

조련 도꾜도관하 각지부들을 비롯하여 모든 지부 조직들에서는 9월말부터 10월초순에 걸쳐 지부정기대회를 앞두고 조련중앙의 방침대로 조직적인 경축대회를 성대히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준비위원들을 선거하였다.(《조련중앙시보》 1948. 9 .24)

이와 같이 동포대중의 들끓은 경축열의속에 중앙과 지방들에서는 《공화국정부수립경축준비위원회》가 모두 무어졌으며 온 조직과 동포들이 떨쳐나선 가운데 10월 10일까지의 2~3주일이란 매우 짧은 기간에 해방후 최대의 규모로 되는 경축행사준비사업이 급속히 추진되여갔다.

10월 8일부 《조련중앙시보》의 보도에 의하면 도꾜에 있는 중앙경축대회준비위원회에서

는 련일 그 준비사업으로 분망한 나날을 보냈는바 대회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물자를 구하여 대회장을 꾸리며 한편 초대장을 발급하고 선전사업을 벌리는 등 여러 부문에 걸쳐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나갔다. 또한 사이따마지방에서는 경축대회를 성대하고 뜻깊게 거행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행사준비를 진행하는 한편 일본지방행정당국과 교섭하여 경축용물자로서 찹쌀 5가마니(俵), 밀가루 7가마니(俵), 맥주 10지함과 그외 사탕 등의 특별배급을 받을수 있도록 활동하였다. 그리고 아끼따현의 한 지부에서는 경축대회에 쓸 공화국국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특별배급을 요구하여 시행정당국과 교섭한 결과 끝끝내 경축행사에 필요한 물자문제를 해결하였다.(《조련중앙시보》 1948.10.12)

전국적으로 10월 10일을 앞두고 각 지방현본부단위의 경축행사준비를 다그치던 시기(9월말~10월초순)에 조련 지부단위들에서는 중소규모의 경축대회들이 여러곳에서 쉴새 없이 진행되였다.

10월 2일 조련도꾜 세따가야(世田谷)지부가 조직한 공화국정부수립경축대회는 전례가 없이 가장 성대하고 잘 준비된 경축모임으로서 동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대회장인 조련세따가야초등학원 운동장입구에는 꽃으로 장식한 아치문이 세워졌는데 아치문의 중심에 공화국기발을 달고 그 량쪽에는 《쏘미량군철퇴》, 《포츠담선언완전실시》라는 구호들이 붙어있었다. 운동장 한복판 국기게양대에는 자주독립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징하는 붉은 별이 빛나는 람홍색 국기가 펄펄 휘날리고있었으며 경축식장에서는 환희에 넘친 동포들의 경축대회와 축하연 그리고 문예공연과 운동경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였다.(《해방신문》 1948.10.8)

조련은 이러한 공화국중앙정부수립경축행사의 준비과정을 통하여 동포대중을 위대한 수령님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웠으며 공화국주권을 옹호하고 그의 국제적 위신을 제고시킬 동포들의 자각과 의지를 더욱 높여나갔다.

바로 공화국중앙정부수립경축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한 행사준비사업이 아니라 재일동포들을 공화국정부두리에 더욱 튼튼히 결집하고 보다 확고한 애국력량으로 꾸리는 투쟁과정으로 진행되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사상적도태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되였다.

3. 공화국의 새 기발을 높이 든 조련과 재일동포들

공화국이 창건된 이후 조련과 재일동포들의 모든 활동은 공화국의 새 기발밑에 전개되였다.

조련과 재일동포들은 공화국만이 진정한 자기의 조국이며 공화국의 새 국기만이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자기의 주권을 상징하는 국기라는 인식밑에 지금까지 사용하던 구조선국기(태극기)대신 오각별 빛나는 람홍색의 공화국국기를 하늘 높이 휘날리기 위한 국기보급사

업을 벌렸다.

공화국창건과 함께 시작된 공화국국기보급사업은 재일동포들이 벌린 국기게양투쟁의 개시를 의미하였다.

이 사업은 결코 쉽게 이루어질수 없었으며 조련과 동포들이 전개한 다양하고 그리고 즐기찬 애국운동을 통하여 특히 미일반동들과 첨예한 투쟁속에서 이루어진것이였다.

조련은 《해방신문》, 《조련중앙시보》, 《민청시보》 등의 보도수단을 리용하여 재일동포들에게 새로 제정된 국기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꾸준히 벌려 공화국국기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동포들속에서 국기보급사업을 적극 짜고들었다.

《해방신문》은 공화국창건과 때를 같이하여 새 조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해설기사를 9월 1일, 3일, 6일의 3회에 걸쳐 련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발표된 새 국기에 대하여 — 특히 색갈을 통하여》란 글에서는 우리 국기의 문양과 색갈에는 《우리 인민의 진로와 력사적방향을 바로 찾아 전체 인민들의 들끓는 력량으로 부강한 민주국가를 건립보위하며 세계의 강대한 민주력량과 단결하여 평화를 확보하여서 광명발전하는 행복을 같이 누리자는 의지가 표현》되여있다고 강조하면서 공화국의 새 국기를 그려서 하늘 높이 휘날리자고 동포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였다.(《해방신문》 1948. 9 . 6)

《조련중앙시보》(9월 6일)와 《민청시보》(9월 3일)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에 대한 해설과 함께 국기의 제작방법을 알려주는 기사를 실어 동포들속에서 새 국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적극 벌려나갈수 있게 하였다.

또한 조련조직에서는 《재일조선인해방구원위원회》를 통하여 국기빠찌를 제작판매하여 조련활동가들과 동포들이 그것을 일상적으로 가슴에 달고 활동하도록 하였다.

조련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게 새 국기의 그림을 그리게 하여 학교와 자기 집에 전시하는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새 국기보급과 게양운동이 진행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동포들속에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기쁨, 새 조국을 절대 지지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조련의 각급 정기대회와 각종 모임들은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된 동포들의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새 나라를 받들어나가려는 숭고한 애국정신에 떠받들리여 언제나 공화국국기를 높이 게양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게 되였다.

조련산하조직들에서는 10월에 예정된 조련 제5차전체대회(조련5전대회)를 앞두고 각 지방과 하부기관들에서 9월중순부터 10월초에 걸쳐 일제히 정기대회들이 개최되였다.

정기대회들은 공화국중앙정부가 수립된 새로운 조건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에 의하여 새 전쟁의 위기가 날로 격화되는 속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방향과 대책을 토의해야 할 중대한 력사적사명을 지니고있었다.

《해방신문》의 사설은 이번 대회는 국제적으로 미제의 세계침략정책을 반대하고 남조선괴

퇴정권을 분쇄하며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강화발전시킬 정책방침을 세우는것》을 중요한 임무로 제기하고있다고 하였다.(《해방신문》 1948. 9.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공화국의 내각수상으로, 국가수위로 높이 모신 커다란 기쁨과 감격 속에서 9월중순부터 시작된 조련, 민청, 녀맹 조직의 대회들은 참가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화국의 새 국기를 대회장 정면에 게양하고 방침토의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9월 24~25일에 진행된 조련이바라기현본부대회는 미또(水戸)회관에서 200여명의 대의원들과 많은 방청자들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다.

대회가 시작되자 한 대의원이 긴급동의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 국기를 게양하자》고 제안하였다. 그 제안은 만장의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로 채택되였으며 즉시 국기게양식을 거행한후 사업토의에 들어갔다.(《해방신문》 1948.10.18)

9월 26일 조련오사까본부 제6기정기대회가 마이니찌(毎日)회관에서 2,000여명의 대의원, 방청자들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다.

이날 개회벽두에 한 대의원이 《우리 중앙정부가 수립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화국국기를 게양하지 못한채 이 대회가 진행되고있다》고 지적하자 대회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정식 국기게양식을 진행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9월 27일에는 국기게양식을 엄숙히 진행하고 계속 대회토의사업을 진행하였다.(《조련중앙시보》 1948. 9. 30)

《해방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9월 27일에는 조련히로시마현본부 제5차정기대회, 조련오까야마본부 제6차정기대회, 9월 29~30일에는 조련가나가와현본부정기대회, 10월 7~8일에는 조련도꾜도본부 제7차정기대회들이 진행되였는데 이 대회들에서는 대의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공화국국기가 게양되고 앙양된 정치적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였다고 전하였다.(《해방신문》 1948. 9~10월초)

공화국국기를 게양하고 대회를 진행한것은 조련조직만이 아니였다.

민청, 녀맹, 교육자동맹들에서도 공화국국기밑에서 자기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중에서 주목되는것은 9월 22~23일에 진행된 민청 아이찌현본부 제5차정기대회였다.

이 대회는 처음 태극기를 회장에 걸어놓은채 진행되고있었다. 이것을 본 한 대의원에 의하여 대회진행중에 긴급동의로서 《태극기를 내리고 공화국의 새 국기를 걸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자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공화국기를 게양하여 대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앞으로 모든 모임들에서 새 국기를 게양할것을 결정하였다.

이때 새 공화국국기를 우러르며 대회를 진행하게 된 무한한 감동과 충격을 받은 한 대의원은 즉흥시 《새 국기를 휘날리며》를 발표하여 참가자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즉흥시 《새 국기를 휘날리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저 기발이 올라갈 때
동무들이여
우렁찬 해방의 노래를 부르고
저 새 기발이 올라갈 때
기쁜 눈물이 그 얼마나
마음속에서 쏟아지더냐
너도 나도
앞에 서있는 저 처녀의
아름다운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그 얼마나 쏟아지더냐

용감하게 꾸준히 싸우는
젊은 투사들이여
조선의 자유와 빛나는
인민의 새 기발을
조국의 영원한 행복과 발전을
새로운 우리 력사의 첫페지에 걸려고
수많은 선배들이
그 얼마나
오래오래 고생했겠습니까
이름도 없는 무명선배들의 귀중한 투쟁
고귀한 피
그 모두가
오늘의 성과의 초석이며
인민의 새 기쁨의 원동력이련만

아 오늘
이 일본땅 한 복판에서
우리 회장에 처음으로
성스로운 새 기발 걸어놓고
나는 분함을 참지 못한다
이 영광의 날을 보지 못하고
건국도상에서 쓰러진
수많은 투사들이여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저 새 기발밑에 튼튼히 모여
정의와 자유를 짓밟는
파쑈의 무리
산산히 부셔버립시다
조국의 방방곡곡에
인민의 기발
새 기발이
하늘 높이 휘날릴 때까지
힘차게
앞으로 앞으로 전진합시다

(민청아이찌현본부정기대회 석상에서《해방신문》1948. 9 .22)

일본각지에 있는 민족교육의 마당인 우리 학교들에서도 공화국국기게양식은 감격에 넘친 교직원 학생들에 의하여 엄숙히 진행되였으며 교정안의 국기게양대에는 람홍색 기발이 하늘높이 휘날리였다.

자료에 의하면 10월 4일 도꾜조선중학교의 제1기졸업식과 도꾜조선고등학교의 입학식에도 공화국국기를 게양하고 진행하였다.

특히 도꾜조선중학교는 학교창립 2주년기념식과 함께 공화국중앙정부수립경축식을 성대히 가지기 위한 경축행사의 일환으로서 축하운동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만국기로 화려하게 장식된 학교운동장의 국기게양대에는 공화국국기가 창공높이 휘날리였다. (자료《도꾜조선중학교 제2회졸업생사진첩》1949년,《실정보고와 금후활동》도꾜조선중학교관리조합 제3회정기총회, 1949.10.24)

공화국창건이후 조련과 재일동포들은 자기의 주권국가의 새기발을 높이 휘날리면서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간직하게 되였으며 자기들의 애국운동을 조국의 강화발전과 확고히 결합시켜 보다 높은 단계에서 벌려나가게 되였다.

특히 조련과 재일동포들은 일본에서 공화국국기를 높이 게양하여 공화국만을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세워진 유일한 합법적국가라는것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였으며 리승만《정권》을 매국적괴뢰정부로 반대배격해나섰다.

이것은 미제의 침략적대조선정책에 치명적타격을 주는것으로 되였다.

사실상 미제강점하에 있는 일본땅에서 공화국국기를 게양하고 미제와 직접 대결하여 벌려나가는 재일조선인운동은 반제반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각지에서 싸우는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일익을 담당하는 투쟁이였다.

참으로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조련과 재일동포들의 활동은 재일조선인운동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전환점으로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이리하여 공화국기발은 재일조선동포들의 희망과 승리를 상징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3. 공화국창건경축대표단을 조국에 파견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활동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열의가 급속히 고조되는 가운데 동포들속에서는 공화국주권을 창건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공화국을 절대 지지한다는 결의와 함께 재일조선인운동의 실태를 보고드리기 위하여 재일동포경축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자는 한결같은 요구가 조련중앙에 제기되였다.

조련중앙총본부는 동포들의 이 절절한 요망을 반영하여 1948년 9월 20일 중앙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축대표단파견과 관련한 결정을 채택하고 이를 내외에 공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방신문》은 《공화국경축과 아울러 현재 각방면에서 본국에 경축대표단파견의 요망이 많음으로 20일 중앙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10일 전국각지에서 열리는 경축대회에서 100명내외의 대표를 선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경축 재일동포대표단을 본국에 파견할것을 결정하였다》고 전했다.(《해방신문》 1948. 9 .24)

이리하여 공화국중앙정부수립을 경축하는 조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은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준비하는 사업과 함께 평양에 재일동포경축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사업이 밀접히 결합되여 보다 적극적형태를 띠고 전개되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48년 9월 20일 조련중앙선전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축대표단파견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조국에서의 민주주의적민족통일정부수립을 위하여 해방후부터 힘차게 투쟁해왔으며 오늘도 일본반동들의 《횡포한 파쑈적민족탄압정책에 항거하여 견결하고 강력한 투쟁을 계속하고있는 재일 60만 조선동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정부수립에 대하여 깊은 감격과 환희로 들끓고있는 동시에 더욱 위대한 투쟁을 벌릴 결의를 새로히 하고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창건경축대표단을 조국에 파견하려고 하게 된 경위와 목적, 대표단선발을 위한 절차와 이번 경축대표단 파견이 가지는 정치적의의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성명에서는 《공화국탄생의 기쁨과 국제적권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본전국적으로 《반, 분회, 지부, 지방본부 등 조련의 하부조직들에서 대중자신의 의식적인 궐기에 의하여 인민공화국경축대회가 개최되여 일본전국 각지에서 공화국의 국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이 기쁨과 새로운 투쟁결의를 조국에 보고드리기 위하여 《경축대회에서 선거되고 확인된 재일동포경축대표단의 본국파견을 열광적으로 요망하게 된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표단구성문제에 관하여 《지방본부들에서 앞으로 5,000명에 한사람의 비률로 경축대표단을 민주주의적방법으로 선출》하게 되며 10월 17일 도꾜에서 열리는 중앙

경축대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성명에서는 경축대표단의 파견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공화국창건경축대회와 재일조선인대표의 본국파견은 극동에서의 국제무대로 되는 일본에서 조선인민 자신의 힘에 의하여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실질적으로 발양시키는것으로 되며 그것은 또한 재일조선인운동이 본국의 건설사업과 구체적으로 결합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조련중앙시보》 1948.10.8)

조련중앙선전부가 발표한 성명에 뚜렷이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공화국경축행사와 경축대표단의 파견은 동포들의 자발적이며 의식적인 요구에 의하여 전개된 애국애족활동으로서 일본이라는 립지조건에서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고 자기들의 애국운동을 조국의 강화발전, 조국의 운명과 결합시켜나가려는 재일조선동포들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투쟁이였다.

여기에서는 공화국경축대표단을 보내기 위하여 벌린 조련과 재일동포들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개괄해보기로 한다.

먼저 경축대표를 선발하기 위하여 각지에서 벌린 활동정형을 본다면 조련 이시가와현본부에서는 10월 4일에 개최한 조련본부제5차정기대회에서 이 문제를 토의하고 대표를 선출하였으며 (《해방신문》 1948.10.8)

야마구찌지방에서는 현안의 동포들이 직접적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야마구찌현안의 동포들은 《우리가 전부 가고싶지만 그런 사정이 못되니 우리의 기쁨과 심정을 대표하는 파견원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하자》고 하면서 현안의 조련지부단위로 일제히 선거를 실시하였다.

조련조직에서는 경축파견원선출을 위한 선거사업을 동포들속에 공화국이 창건된 경위와 조련의 활동을 해설침투하는 선전사업과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선거사업과정이 동포들에게 공화국공민의 자각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치교양사업으로 되게 하였으며 18세이상 유권자의 76%가 투표에 참가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였다. (《해방신문》 1948.11.11)

경축파견원을 선출하는 사업은 조련 각 기관의 토의를 거쳐 지방본부단위들에서 진행되는 경축대회마당에서 동포들의 찬동을 받아 선출하는 등 지방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동포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서 선출된 각 지방의 파견대표명단들은 조련중앙본부에 련이어 보고집계되였다.

이와 같이 공화국창건을 경축하기 위한 제반사업이 동포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을 때인 1948년 10월 8일 오후 3시의 평양방송은 공화국 국가수반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인련맹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한다는 전보서한을 보내주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전하였다.

10월 9일부 《건설통신》(조련산하의 통신기관—조선통신의 전신)은 《(평양방송 8일발=건설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서는 1948년 10월 8일 조국의 민주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 대하여 조선정세를 전하기 위하여 재일조선인대표들을 평양특별시에 초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하였다.

평양방송이 있은 다음날인 10월 9일 아침 9시 30분 조국에서 보내온 초청전보가 조련중앙본부회관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재일조선인련맹앞으로 보내주신 전보서한은 아래와 같다.

《재일본조선인련맹 중앙총본부 앞

재일동포들이 민주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분투하고있는 사실은 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인정하고있는바이다.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조선의 정세를 숙지시키기 위하여 여기에 귀련맹대표자들을 북조선 평양에 초청하는바이다.

1948년 10월 8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건설통신》 1948년 10월 9일, 《조련중앙시보》 1948년 10월 1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초청전보를 받아안게 된 조련일군들은 서로 얼싸안고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중앙본부회관안은 삽시에 감격의 도가니로 들끓었다.

이 감격적인 소식은 즉시 조련중앙을 통하여 경축행사를 목전에 둔 각지의 조련조직들과 동포들에게 전해졌으며 온 일본땅의 동포들은 경축대표를 조국에 파견하려는 절절한 요구가 곧 실현될수 있게 되였다는 기쁨으로 하여 설레였다.

그들은 진정한 인민의 주권국가인 공화국을 자기 조국으로 가지게 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온몸으로 느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초청전보는 조련일군들과 동포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붙돋아주었으며 그들의 애국운동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조련중앙본부는 10월 10일 조련중앙의장의 이름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극친한 배려에 감사를 드리는 답전을 조국에 보내였다.

조련중앙본부의 답전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8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신 수상님의 정중한 초청서한을 여기에 받았습니다.

온갖 탄압에 항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화에 모든 힘을 다하고있는 재일60만 동포들에 대하여 수상님의 초청서한은 무한한 용기와 감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는 10월 17일 도꾜에서 개최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수립경축중앙대회에서 선출하기로 되여있는 본국파견경축대표단의 려권교부를 신청준비중에 있으며 이 경축대표단의 본국파견을 통하여 수상님과 공화국인민들의 초청에 보답하겠습니다》(《해방신문》 1948.10.14)

1948년 10월 9일에 조련가나가와현본부가 개최한 공화국창건경축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초청전보가 소개되자 온 장내가 감격으로 들끓었다.

이 경축대회에 조련중앙을 대표하여 참가한 한덕수조련의장이 축하인사말을 하면서 《어제 오후 3시에 평양에서 재일동포들의 대표단을 조국에 초청한다는 방송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9시 30분 조련중총 의장단실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장군님의 초청전보가 날아왔습니다》라고 하자 대회장에서는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으며 우뢰와 같은 박수가 그칠줄 몰랐다. (《조련중앙시보》 1948.10.18~20)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10월 8일의 초청전보는 조련일군들과 동포들에게 커다란 정치사상적인 고무을 안겨주었으며 재일동포들을 매국과 반동의 길로 끌어가려는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에게는 결정적타격으로 되였다.

조련이 공화국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경축파견단초청전보를 받고 이에 대하여 감사의 답전을 보낸 사실이 내외에 크게 보도되자 맥아더총사령부는 저들의 정보기관이 이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고 놓쳐버린데 대하여 당황망조하면서 당장 전보입수경로를 알아내기 위하여 도꾜국제전보국 등에 대한 긴급조사소동을 벌렸다. (《미점령군문서》 총사령부 참모제2부, 《현지통보》 1948.10.14) *③

뿐만아니라 그 이후 미점령군당국은 조련의 경축대표단파견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음흉한 책동을 다 감행하였으며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에 직결하여 애국운동을 벌려나가는것을 한사코 가로막으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초청서한에 크게 고무된 조련과 재일동포들은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충천한 기세로 경축행사와 경축대표단파견준비사업, 그리고 조련 제5차전국대회준비사업 등 방대한 사업을 동시에 힘있게 밀고나아갔다.

드디여 1948년 10월 17일 도꾜교리쯔(共立)공회당에서 열린 공화국정부수립중앙경축대회에서는 각 지방에서 선출된 대표들과 조련중앙 및 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재일조선인경축파견단 120명의 명단이 정식으로 내외에 발표되였다.

또한 이 중앙대회에서는 만장의 찬동을 받아서 결성된 축하단의 결단식이 진행되였으며 축하단을 대표하여 조련중앙 신홍식의장이 결의표명을 하였다. (《해방신문》 1948.10.18~20)

조련은 경축파견단의 조국에로의 출발준비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에 출발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0월 25일 조련중앙에서 경축파견단 출발준비위원회를 열고 려권획득사업, 재일조선인운

동실태에 관한 보고서작성, 조국에 보내는 기념품준비, 재정사업 등의 사업분담을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준비사업을 추진하여나갔다.

10월 26일 조련중총 외무부장은 맥아더총사령부 참모제 2 부를 찾아가서 공화국정부의 초청을 받은 재일조선인경축파견단의 평양방문과 관련하여 38선의 통과와 일본재입국에 대한 편의를 보장해줄것을 요구하였다.

10월 27일에는 다시 맥아더총사령부 외교국(ＤＳ)려권국장을 만나 평양에로 가는 동포경축대표단에게 속히 려권을 발급하여 려행을 보장할것을 요구하였고 11월 4 일에는 조련중앙위원장 윤근단장의 이름으로 120명의 경축대표단의 《려권하부신청서》를 일괄 제출하였다. (《미점령군문서》 총사령부 고위부관부, 1948년 11월 17일부 《북조선을 방문하는 조선인들의 신청서》) *④

11월 4 일 조련은 제출한 《려권하부신청서》에서 맥아더총사령부에 ①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한 재일조선인대표 120명에 대한 출국허가, ②대표들이 약 2 개월동안 체류하는데 필요한 려권의 발행, ③사업이 다 완료한후 일본으로 재입국허가의 보장, ④려행을 위한 수송수단의 확보 등을 요청하였다. (《미점령군문서》 총사령부 고위부관부, 1948.11.4) *⑤

이런 속에서 출발준비위원회는 각 조련지방현본부들에 긴급전보를 쳐서 지방경축파견단대표자들을 소집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조련중앙은 11월 10일 도꾜에서 경축파견단전국대표자회를 소집하고 경축파견단출발준비사업정형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려권획득대책과 파견단의 예산 400만엔을 지방별로 할당하는 문제 등을 토의하였으며 계속 파견단사업을 추진해나갔다. *⑥

그러나 맥아더총사령부당국은 처음 조련이 정식으로 신청서를 내면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려권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라느니 뭐니 하면서 방해해나섰다.

놈들은 이 기회에 조련조직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경축대표단성원들의 출국만 허가하고 재입국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려권발급을 질질 끌다가 끝끝내 공화국경축재일동포파견단의 공식 공화국방문을 파탄시키는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⑩

맥아더총사령부 참모제 2 부장(웨로비소장)은 조련에게 120명의 대표명단을 제출시킬것과 재입국허가를 내주지 말것을 참모제 1 부의 담당자에게 지시하였다. *⑦

특히 미점령군당국은 조련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련맹은 미승인국인 북조선정부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들이 통솔하는 조직이며 치안상 위험성을 띨수 있음으로 려권신청을 허가하지 말것이다. 다만 경축대표단의 개별적명단이 제출될 경우는 출국만 인정할것이다》라고 하면서 재일조선동포들이 자기 민족국가의 창건을 경축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하려는 초보적권리마저 란폭하게 짓밟았다. (《미점령군문서》 총사령부 고위부관부, AG(c) 00374, 1948.11.19) *⑧

그러나 재일동포들이 자기의 새 조국을 경축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가려는 굳은 결심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었다. 1948년 11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중동북지방조선인경축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은 재일동포들에게 큰 고무를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재일동포들은 자기의 경축대표단을 조국에 파견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조련중앙시보》 1948.11.16)

조련경축대표단의 공화국방문활동을 비밀히 조사해온 일본경찰당국은 1948년 10월 28일 교또미군정부에 《조선인련맹의 북조선정부수립축하대표단파견의 건》이라는 문건을 제출하였다.

이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여있다.

《북조선민주인민공화국 김수상으부터의 초청장에 응답하여 재일조선인련맹에서는 북조선정부수립경축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5,000명마다 1명의 비률로 각 지부에서 대표를 선출하였다. 교또에서는 조련 교또부본부 림위원장이 대표로 결정된것 같다.

대표단은 비행기로 방선(訪鮮)하기 위하여 대일리사회와 공작중에 있으나 만일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 소수의 인원으로 밀항의 방법을 써서라도 방선을 강행할 우려가 있다》 (《집무반월보》(제17호) 1948년 10월 하순호)*⑨

미점령군당국은 경축대표단파견을 위한 재입국허가를 요구하는 재일동포들의 거듭되는 제의에 대하여 끝끝내 묵살하는 부당한 행위를 감행하였다.*⑩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초청을 받아안은 재일조선동포들은 이 기쁨을 하루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미일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이 심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경축대표단사업을 기어이 성공시킬 굳은 결의를 다지며 사업을 밀고나갔다.

재일동포경축단의 조국방문경위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 경축대표단이 어떤 형태로 언제 일본을 출발하고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를 보여준 구체적인 자료들이 아직 없음으로 자세히 알수 없다.

그리나 《주체의 해외교포운동의 사상과 실천》에는 《당초에는 100여명으로 무어졌으나 일본당국이 허가를 내지 않았기때문에 다른 형태로 조국에 떠나갔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1948년 12월 23일 재일동포경축단은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과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는 영광을 지니였고 이 교시가 재일조선인운동을 옳바로 전개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게 되였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주체의 해외교포운동의 사상과 실천》 한덕수, p. 88~89, 구월서방, 1986. 9 .24)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기사를 자료로 묶은 《해방10년사》에는 《1948년 12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을 경축하여 재일조선인대표 일행 래조, 1949년 1월 10일 내각수상 김일성장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을 경축하기 위하여 래조중인 재일조선인대표 일행을 접견》이라고 경축단의 소식을 전하고있다. (《해방10년사》 p. 59, 조선중앙통신사, 평양 1955년 10월)

또한 《수령님과 해외교포》(1992년, 조국사)에는 사선을 넘어서 재일동포경축파견단이

평양에 도착하였는 사실을 밝히면서 1948년 12월 하순 절세의 애국자이며 민족의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장군님께서 재일동포경축파견단을 접견하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앞길을 밝혀주신 력사적인 교시를 주시였다는 내용을 생동하게 소개하고있다. (《수령님과 해외교포》 p. 5～9,《첫 대표단을 만나주신 날》, 1992년, 조국사)

이와 같이 미일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을 물리치고 공화국중앙정부수립을 경축하는 첫 재일동포파견단은 1948년 12월 23일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아안는 끝없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맺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공화국정권과 재일동포들 사이에는 공화국창건소식에 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견고한 정치사상적결합이 튼튼히 맺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공화국창건을 절대 지지하고 경축하는 즐기찬 투쟁을 통하여 날을 따라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확고한것으로 강화발전하였다.

특히 공화국창건을 맞이하여 환희와 기쁨에 넘친 재일동포들이 경축투쟁속에서 제기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실현된 재일동포들의 경축대표단파견사업은 공화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공화국국기사수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놀았으며 재일조선인운동발전에 귀중한 기여를 하였다.

【주】

①GHQ/SCAP	RECORDS	CIS -01962	Korean in Japan to Cerebrate Estabalish of Korean Democratic Republic in October. 1948.9.27.
②GHQ/SCAP	RECORDS	CAS(A)00226	Demonstoration by Koreans. 1948.9.29.
③GHQ/SCAP	RECORDS	G2-02659	Exchenge messages between League of Korean in Japan and North Korean Government. 1948.10.14.
④GHQ/SCAP	RECORD	AG(C)03087	Application for issuance of passports KEUN YUN . 1948.11.4.
⑤GHQ/SCAP	RECORD	G1-00374	Application for Korean nationals to visit North Korea. 1948.11.5.
⑥GHQ/SCAP	RECORD	CIS -04928	Korean League Delegate to Korea on Goodwill Trip to Meeting 10. November 1948.
⑦GHQ/SCAP	RECORD	AG(C)03087	Application for Korean nationals to visit North Korea. 1948.11.17.
⑧GHQ/SCAP	RECORD	AG(C)03087	Application for Korean nationals to

visit North Korea. 1948.11.19.
（国会図書館　憲政資料室）

⑨『執務半月報』（第１７号）（昭和２３．１０．１６～３１）　p.14
『朝鮮人連盟の北鮮政府祝賀代表団派遣の件』　京都連絡調整事務局，１９４８．１１．４．

⑩『執務半月報』（第１８号）（昭和２３．１１．１～１５）　p.3
『北鮮国旗掲揚の件』　京都連絡調整事務局，１９４８．１１．２０．　（外務省外交資料館）

《새 세대동포들의 의식조사》결과에 대하여

오 규 상

사협연구회의 하나인 《동포동태연구회》는 조선대학교창립40돐기념 학술보고회를 앞두고 1996년 5월 15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새 세대동포 의식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과정과 결과의 몇가지 내용에 대하여 여기에 보고한다. 본 보고는 오규상, 김재일, 김덕룡, 김철수, 김진영의 공동연구결과이다.

1.《새 세대동포 의식조사》의 목적과 대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을 재일조선인운동과 총련애국사업에 구현하는데서 초점적인 문제로 나서는것은 새 세대문제이다.

새 세대문제를 옳게 푸는가 어떤가 하는 문제는 력사적전환기의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는가 어떤가 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의식조사를 진행한것은 총련중앙위원회 제17기 제2차확대회의결정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동포의 실태를 정확히 아는것이 애국사업의 첫 공정이기때문이다.

의식조사를 진행한것은 또한 새 세대동포문제를 기존지식이나 선입견으로 보는 경향을 극복하고 객관적실태에 기초하여 풀어나가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자는데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연구보고자들이 시도한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서한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새 세대동포들의 사상의식, 정신세계에 대한 파악, 료해를 기본으로 하여 그들이 애국운동의 주역을 담당할수 있게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주자는데 있었다.

의식조사의 주된 내용은 새 세대동포들의 민족자주정신과 애국애족정신에 대한 료해에 두었으며 총련조직에 대한 관점과 요구, 지방참정권문제 등도 담았다.

조사대상은 조선대학교학생, 고급부학생, 조청의 비전임일군 및 맹원, 류학동맹원, 청상회회원 등 새 세대에 속하는 청년남녀이다.

이번 조사는 조사기간과 분석시간이 짧았다는 조건에서 비교적으로 조직화된 대상을 조

사대상으로 하였다.

배포수는 1559명, 회수는 1287명이며 유효회답수는 1028명이다.

조사표를 배포한 각 기관과 학교들에서는 이번 조사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리해하고 협력해주었다.

특히 이러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것, 귀중한 자료이기때문에 분석결과를 반드시 통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지면을 통하여 협력해주신 각 기관과 일군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유효대상 1028명의 남녀별, 5살별, 구성별실태는 다음과 같다.

(**도표 1**)

국적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도표 2**)

일반대상청년들의 4분의 1이 《한국》국적이였다.

부모들의 세대별구성은 다음과 같다.

(**도표 3**, **도표 4**)

여기에서 볼수있는것처럼 조사자 1028명중 3세가 88.4%된다. 이것은 15~29살까지 년령층의 대부분이 3세란것을 말하여준다.

새 세대동포들의 정신의식형성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민족학교취학정도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중 조선대학생과 조선고급학교 학생은 민족학교취학중이며 그 이외의 대상중에서는 43명을 제외한 모든 대상이 민족학교체험자이다. 즉 유효회답자의 95.8%가 민족학교에 다니고있거나 다녔다는것이다.

2. 조사결과

이번 재일동포 새 세대 1028명의 의식조사결과는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애국운동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를 시사하여주었다.

이번 조사결과의 분석을

첫째로, 지난시기의 동포생활과 운동에서 이룩한 성과와 재부를 앞으로 계승발전시킬수

있는 담보나 요소가 무엇인가

둘째로, 앞으로 동포 새 세대들의 의식수준과 지향성, 희망 그리고 총련조직과 애국운동에 대한 요구 등을 집계분석하고 새 세대문제, 새 세대와의 사업에서 고려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은 무엇인가

하는 각도에서 하였다.

1) 조사결과는 무엇보다도 조선민족의 정신, 애국운동의 대를 이어나갈수있는 민족의식을 지닌 새 세대들이 수많이 자라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새 세대동포들의 민족의식을 료해하는데서 참고가 된다고 볼수 있는 5가지 내용에 대한 결과를 고찰한다.

즉 (1)우리 말과 글의 리해정도 (2)과거력사 (3)결혼대상 (4)귀화문제 (5)통일문제이다.

물론 이러한 통계결과만이 새 세대동포들의 민족의식을 리해하는데서 규정적요소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재일동포 새 세대들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서 필수적요소란것은 론의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1)~(5)부문의 의식조사결과를 리해하는데서 아무래도 《새 세대동포의식조사》(이 론문에서는 《우리 조사》로 생략한다)와 다른 조사결과와 대비하는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부문에서는 민단의 청년회인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가 1993년 6월~9월에 실시하여 800명으로부터 회수(유효)하여 펴낸 《제3차 재일한국인청년의식조사 중간보고서》의 통계결과(이 론문에서는 《민단조사》로 생략한다)와 대비하자고 한다. 《민단조사》의 800명의 대상은 모두가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며 년령은 18~30살이고 《민족학교》에 다녀본적이 없는 사람이 89.1%이다. 즉 학교에서 민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우리 조사》와 《민단조사》의 통계결과들은 백분률(%수)을 내는 방법이 다르다. 《우리 조사》는 무회답까지 포함한 비률이며 《민단조사》는 무회답을 제외한 백분률이다. 따라서 통계를 그대로 대비하는데서는 무리가 있다. 단 《민단조사》의 무회답이 최고 2.2%이기때문에 이 글에서는 각 통계를 그대로 사용한다.

(1)우리 말과 글의 리해정도

Q7A. 말하기

〈우리조사〉

1. 충분히 말할수 있다 367 (35.7%)

2. 대체로 말할수 있다	564	(54.9%)
3. 약간 말할수 있다	76	(7.4%)
4. 전혀 말못한다	18	(1.8%)
5. 무회답	3	(0.3%)

(도표 5)

〈민단조사〉

—모국어력(회화)

충분히 거론할수 있다	15	(1.9)
간단한 일상회화를 할수 있다	53	(6.7)
경우에 따른 인사	48	(6.0)
몇가지 인사를 할수 있다	116	(14.6)
몇가지 단어만	242	(30.4)
전혀 못한다	321	(40.4)
무회답	5	(—)

Q7B. 쓰기

〈우리조사〉

1. 충분히 쓸수 있다	417	(40.6%)
2. 대체로 쓸수 있다	521	(50.7%)
3. 약간 쓸수 있다	71	(6.9%)
4. 전혀 쓰지 못한다	17	(1.7%)
5. 무회답	2	(0.2%)

(도표 6)

〈민단조사〉

—모국어력(독해)

사전없이 리해된다	39	(4.9)
사전을 쓰면 리해된다	55	(6.9)
사전을 써도 조금만	33	(4.2)
한글은 읽을수 있다	33	(4.2)
한글도 조금만	88	(11.1)

전혀 리해 못한다	546	(68.8)
무회답	6	(—)

Q7C. 듣기

〈우리 조사〉

1. 충분히 알아들을수 있다
2. 대체로 알아들을수 있다
3. 약간 알아들을수 있다
4. 전혀 알아들을수 있다

(도표 7)

《우리 조사》의 결과를 보면 《충분히 말할수 있다》와 《대체로 말할수 있다》를 합하면 90.6%로 된다. 《민단조사》의 결과《전혀 못한다》가 40.4%나 된다. 또한 《충분히 거론할수 있다》는것은 1.9%에 지나지 않다. 우리 글을 쓸수 있다는것과 독해력은 같은것은 아니지만 《우리 조사》에서는 《충분히 쓸수 있다》와 《대체로 쓸수 있다》를 합하면 91.3%인데 《민단조사》에 의하면 《사전없이 리해된다》는것이 4.9%밖에 안된다.

말은 민족을 특징짓는 기본징표의 하나이며 우리 말을 배우고 쓰는 문제는 민족성을 고수하고 민족적운동을 벌리는데서 근본적문제이다.

두가지 실태조사는 우리 말 리해정도에서 판이한 결과를 말하여준다. 《우리 조사》의 대상자중 4.2%에 해당되는 조사대상이 민족학교에 다녀본바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전혀 말 못한다》가 1.8%, 《전혀 쓰지 못한다》가 1.7%,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가 1.4%에 지나지 않다. 민족학교에 다닌 사람들중에 전혀 못한다는것은 보통 있을수 없기때문에 4.2%에 해당하는 사람들중에서 조청이나 류학동의 영향, 혹은 우리 신용조합에서 사업하는 과정에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쓰게 된 새 세대들이 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2)과거 력사

〈우리 조사〉

Q8. 조부모(혹은 가족중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온 사람)가 일본에 건너온 경위를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1. 구체적으로 들어본적이 있다
2. 들어본적이 없다

3. 거의 들어본적이 없다
4. 전혀 들어본적이 없다

(도표 8)

〈민단조사〉
당신의 조부모(혹은 가족중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온 사람)가 일본에 건너온 경위를 가족이나 육친으로부터 들은바가 있습니까

1. 구체적으로 들어본적이 있다	113(14.2)
2. 어느정도 들어본적이 있다	248(35.6)
3. 애매하게밖에 들어본적이 없다	218(27.4)
4. 전혀 들어본적이 없다	182(22.8)
무회답	3

Q9A. 해방후 재일조선인들이 걸어온 력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있습니까?
1. 잘 안다
2. 어느정도 안다
3. 거의 모른다
4. 전혀 모른다

(도표 9)

새 세대동포들에게 있어서 자기 조국과 민족, 해외동포들이 걸어온 력사에 대하여 잘 알고 지내는것은 가치관, 인생관형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조사》를 보면 조부모들이 일본에 건너온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어본적이 있다》, 《들어본적이 있다》가 도합 58.3%이다. 태여났을 때 조부모들이 없는 경우까지 념두에 둔다면 어느 정도 타당한 수라고 본다.

《민단조사》는 《구체적으로 들어본적이 있다》, 《어느정도 들어본적이 있다》가 도합 49.8%로 된다.

두 조사결과는 대차가 없는것을 볼 때 재일동포들 새 세대들의 50%정도가 조부모들이 일본에 건너온데 대하여서 들은적이 있거나 알고있다고 볼수 있다.

재일동포들이 걸어온 력사에 대하여 《우리 조사》는 《잘 안다》, 《어느정도 안다》가 87.2%로 된다. 《우리 조사》대상자의 약 9할의 새 세대들이 재일조선인의 력사적과정을 알고

있다는것은 그들의 정신세계에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자각과 책무를 부과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보여줄것이다.

그런데 《민단조사》를 보면 우려되는 점이 많다. 《재일동포들의 력사와 형황》에 대하여 《많이 학습했다》와 《조금은 학습했다》가 도합 23.9%밖에 안된다.

물론 여기에는 《민족학교에서 배운것을 제외한다》고 전제가 붙어있고 《재일조선인들이 걸어온 력사를 아는가》하는 물음과 《공부했다》는것이 기계적으로 대비할수 없다.

그러나 공부해야 아는것이며 공부했는가 어떤가의 그 과정(《민단조사》에서 민족학교에서 배운것은 절대수와 비률이 낮으므로 고려할만하지도 않다)에 대한 여부보다 아는가 어떤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민단조사》의 《그다지 공부안하고 있다》, 《전혀 공부안하고 있다》가 도합 76%나 되는것은 참으로 심각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3)결혼문제

〈우리 조사〉

1. 꼭 동포하고 결혼하고싶다	596(59.7%)
2. 될수록 동포하고 결혼하고싶다	257(25.8%)
3. 동포인가 어떤가에 그리 구애되지 않다	100(10.0%)
4. 동포인가 어떤가에 전혀 구애되지 않다	41(4.1%)
5. 무회답	9(0.9%)

〈민단조사〉

꼭 동포하고 결혼하고싶다	117(15.0)
될수록 동포하고 결혼하고싶다	156(20.0)
동포인가 어떤가에 그리 구애되지 않다	245(31.4)
동포인가 어떤가에 전혀 구애되지 않다	263(33.7)
무회답	19(—)

※결혼 안하고 있는 998명의 견해

(도표10)

결혼문제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장기화되고 세대가 교체되고있는 현시기 인생의 동반자를 옳게 정하는것은 민족의 혈통을 계승하고 민족성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조사》는 《꼭 동포하고 결혼하고싶다》와 《될수록 동포하고 결혼하고싶다》를 합하면 85.5%이다. 그런데 《민단조사》는 같은 설문에 대하여 35%이며 《전혀 구애되지 않다》가 33.7%나 된다.

물론 이 통계는 희망적측면이기때문에 단정적으로 규정하여 볼수 없으나 망국노의 시기, 일제시기도 아니며 재일동포사회가 형성되고있는 시점에서 볼 때 《민단조사》의 결과는 심히 우려된다.

(4)귀화문제

〈우리 조사〉

Q13A. 현재 귀화하고싶습니까?

1. 꼭 귀화하고싶다	6(0.6%)
2. 가능하면 귀화하고싶다	18(1.8%)
3. 어느쪽이라도 좋다	122(11.9%)
4. 그리 귀화하고싶지 않다	177(17.2%)
5. 절대로 귀화화고싶지 않다	697(67.8%)
6. 무회답	8(0.8%)

(도표11)

〈민단조사〉

—현재 귀화를 하고싶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귀화하고싶다	94(12.0)
가능하면 귀화하고싶다	118(15.0)
어느쪽이라도 좋다	231(29.4)
그리 귀화하고싶지 않다	125(15.9)
절대로 귀화하고싶지 않다	218(27.7)
무회답	14(—)

귀화에 대한 태도문제는 주권국가의 해외공민으로 살아나가는데서나 민족성을 지켜나가는데서 현시기 초점적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조사》는 《꼭 귀화하고싶다》, 《가능하면 귀화하고싶다》를 합해도 2.4%밖에 안되는데 《민단조사》는 27%나 된다. 또한 《절대로 귀화하고싶지 않다》가 《우리 조사》에서나 6

7.8%인데 《민단조사》는 27.7%에 지나지 않다.

재일동포들의 귀화는 동화의 길이며 일본의 소수민족화될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되는데 《민단조사》의 귀화희망자의 비률이 높은것은 간과할수 없는 문제이다.

(5)조국통일에 기여할 문제

〈우리 조사〉

Q18B. 조국통일에 기여하여야 한다.

1. 꼭 그렇게 생각한다	550(53.5)
2. 어느쪽인가하면 그렇게 생각한다	303(29.5)
3.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131(12.7)
4. 어느쪽인가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1(2.0)
5.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9(0.9)
6. 무회답	14(1.4)

(도표12)

〈민단조사〉

—조국이 통일되는것이 좋다고는 느끼지만 자기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	124(15.8)
어느쪽인가 하면 그렇게 생각한다	163(20.8)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379(48.4)
어느쪽인가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56(7.2)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61(7.8)
무회답	17(—)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의 과업이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실현되여야 한다.

동포사회의 주역을 담당할 3세, 4세들의 조국통일에 대한 자세와 립장은 민족의 사활적요구실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할 생각이 없다는 대상이 《민단조사》는 36.6%나 된다. 그리고 부정하는것 즉 무엇을 해야겠다 혹은 어느쪽인가 하면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은 15%에 지나지 않다.

《우리 조사》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기여해야 한다는 대상이 83%나 된다.

이번 조사결과는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첫째로, 이국의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말과 과거력사를 잘 알고 민족성을 앞으로 고수해나갈수 있는 바탕을 가진 새 세대들이 떳떳이 자라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둘째로, 또한 일본당국의 탄압과 귀화, 동화 정책이 악랄하게 감행되는속에서도 해방후 반세기가 넘도록 민족교육사업과 애국운동을 벌려온 정당성과 생활력이 력력히 증명되였다.

특히 《민단조사》결과와의 대비를 통하여 재일동포속에서 민족의 넋을 지키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사업을 조직전개하고있는것은 오직 민족교육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사업하고있는 총련만이란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가 나온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나라의 광복을 찾아주시고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시기에 재일동포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으며 일관하게 민주주의민족교육사업과 재일조선청년사업에 크나큰 배려와 사랑을 돌려주신 결과이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교육사업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으로 애국운동의 출발점으로 보시고 새 세대동포들을 재일조선인운동의 계승자로, 앞날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신 결과 이룩된것이다.

*내외반동들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성이 이어지는것도 3세까지이다, 완전히 동화된다고 하면서 재일동포들에 대한 귀화, 동화 정책을 강요해왔으며 남조선당국도 기민정책을 실시해왔다. 이러한 매우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새 세대동포들이 민족성을 꿋꿋이 이어나가고있는것은 세계해외교포운동에서 대단히 희한 현실이라고 말할수 있다.

둘째로, 해방직후로부터 애국적활동가들과 동포들이 민족교육사업발전에 커다란 관심과 력량을 돌려왔고 총련결성이후에는 총련이 민족교육사업을 자기사업의 중심사업의 하나로 일관하게 틀어쥐고 사업해왔으며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새 세대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벌려온 결과이다.

총련은 세대교체가 급격히 진행되고있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제때에 방침과 대책을 세워서

활동하여왔다.

2)새 세대동포의식조사가 시사하는 몇가지 문제

1)부문에서는 새 세대동포들의 사상의식속에서 긍정적측면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새 세대문제를 옳바르게 풀어나가기 위한 참고적인 조사결과도 나왔다.

여기에서는 3가지측면에서 분석한다.

즉 (1)민족의식(identity문제), 민족교육문제 (2)조국 (3)조직에 대한 생각과 요구이다.

(1)민족의식(identity문제), 민족교육에 대하여

①조선사람으로 태여난데 대한 자부심

(도표13)

조선사람으로 태여난데 대한 자부심은 새 세대동포들의 민족의식을 보존하고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이다.

《아주 느낀다》, 《어느쪽인가하면 느낀다》로 도합 80%로써 전반적경향은 좋다고 볼수 있으나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가 15.1%나 있는것은 주목해야 할것이다. 특히 조고생들의 경향에서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어느쪽인가 하면 안느낀다》, 《전혀 안느낀다》가 도합 28.1%로 된다. 물론 조고생이란 년령적제한성, 심리적동요성이 있는 년령기이기는 하나 약 3분의 1이나 된다는것은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

②결혼문제

(도표14)

일본사람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하여 《절대로 안된다》, 《어느쪽인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가 56.1%이다. 이것은 조사대상자중 미혼자 996명의 《꼭 동포하고 결혼하고싶다》와 《될수록 동포하고 결혼하고 싶다》가 85.8%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이다.

또한 《꼭 동포하고 결혼하고싶다》(Q12B)가 59.7%인데 일본사람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하

여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Q12C)가 37.5%나 된다.

③귀화에 대한 생각

Q13A. 현재 귀화하고싶습니까?

(도표15)

Q13B—a. 귀화를 해도 민족성을 고수해나갈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면 귀화해도 좋다.

(도표16)

귀화에 대한 생각은 전반적으로 안하겠다는 경향이 농후하다.

단 《절대로 귀화하고싶지 않다》(Q13A)가 남녀간에 약 10%의 차이가 있는데 이목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귀화를 해도 민족성을 고수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면 귀화해도 좋은가하는데 대하여 《어느쪽인가 하면 그렇게 생각안한다》와 《절대로 그렇게 생각안한다》(Q13B—a)는 도합 60.1%이다. 이것은 귀화하는데 대하여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85%(Q13A)의 수보다 훨씬 적다.

《민족성을 고수할수 있는 조건》의 의미파악에서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조건》이 마련되면 귀화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고민하는 층이 약 25%정도 있다는것이다.

내외반동들의 교묘한 귀화강요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할것이다.

Q13B—c. 귀화하는 사람은 자부심을 버린 사람이다.

(도표17)

귀화한 사람을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버린 사람이라고 보겠는가하는데 대하여 《절대로 그렇게 생각안한다》, 《어느쪽인가 하면 그렇게 생각안한다》가 도합 27.5%나 된다. 《절대로 귀화하고싶지 않다》, 《그리 귀화하고싶지 않다》는것이 85%나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귀화문제와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문제를 딴 문제로 보고있는 경향이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④민족교육에 대한 견해들

Q15A. 자기 아들딸들에게 민족교육을 시킬 생각이 있는가.

(도표18)

Q15B. 어떤 형태의 민족교육을 시키겠는가.

(도표19)

Q15D. 조선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육권리획득에서의 요구(단수회답)

(도표20)

Q15D.(복수회답)

(도표21)

Q15E. 민족교육을 안시키는 리유(복수회답)
※《어느쪽인가하면 시킬 생각은 없다》,《전혀 시킬 생각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의 리유.

(도표22)

민족교육을 자기 아들딸들에게 시킬 생각에 대한 물음에《시킬 생각》과《어느쪽인가 하면 시킬 생각이다》까지 포함하면 94.6%나 된다.

조고생속에서《꼭 시킬 생각이다》가 44.4%란것은 당사자자신의 인식정도와 관련하여 분석해보아야 할것이다. 민족교육의 형태는 거의다 조선학교로 보고있다(Q15B). 그러면서 가정교육에도 관심이 높다.(복수회답 42.6%)

민족교육을 안시키는 리유에 대하여(Q15E)에서는 지금 현재의 생각이란것으로 본인(조사대상자)의 요구의 면도 반영되고있을것이다.

안시키겠다는 45명의 적은 수의 견해만으로는 경향성을 낸다는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복수회답의 순위를 보면 첫째리유는《입시, 자격습득, 취직에서 불리하기때문》(66.7%)이고 둘째리유는《일본에 살기때문에 일본교육을 시키는것이 좋다》(57.8%)는것이다. 교육내용적인 리유는 3번째리유로 되여있다.

조선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육권리획득에서의 요구(Q15D)에 대한 결과는 첫째《수험, 취직의 권리획득해달라》20.1%, 둘째《교육내용을 일본의 실정에 맞게 해달라》17.4%, 셋째《소질을 찾고 키우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개선해달라》12.6%이다.

조사결과로 놓고 볼때 우리 학교의 법적처우개선문제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높다는것을 말하여준다.

(2)조국에 대하여

①자기가 나서자란 지역, 일본, 재일동포사회, 공화국, 남조선에 각각 어느정도 애착을 느끼고있는가.

Q16A. 지역애착

(도표23)

Q16B. 일본애착

(도표24)

Q16C. 동포사회에 대한 애착

(도표25)

Q16D. 공화국에 대한 애착

(도표26)

Q16E. 남조선애착

(도표27)

《민단조사》

(도표28)

《매우 느낀다》, 《어느쪽인가 하면 느낀다》의 순서는 자기 지역, 동포사회, 일본이다. 새 세대동포들의 3가지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도는 비슷하다고 볼수있다.

일본에 대하여서는 비록 나서자란 곳이지만 과거 식민지종주국의 땅이고 선조들이 망국노의 설음을 강요당한 곳이란 느낌은 새 세대동포들속에는 약하다고 볼수 있다.

《민단조사》에서 볼수 있는것은 자란 곳과 일본에 대한 애착도가 높으며 반면에 자기 조국에 대한 애착도는 낮다. 이것은 《조국과 거리를 멀리하는 현상》이 그들속에서 현저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

③조국통일에 대하여

Q18A. 조국은 통일되여야 한다.

(도표29)

Q18B. 조국통일에 기여하여야 한다.

(도표30)

Q18C. 통일되면 동포사회는 좋아진다.

(도표31)

새 세대동포들의 통일욕망은 높다고 말할수 있다(Q18A). 91.6%가 《꼭 그렇게 생각한다》, 《어느쪽인가 하면 생각한다》이다. 이와 함께 통일에 기여할데 대하여서도 83%가 긍정적인 립장이다(Q18B).

통일되면 동포사회가 좋아진다고 보는 수는 71.5%로 동포사회와 조국통일문제를 련관속에서 보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민단조사》는 조국이 통일되여도 재일동포들의 생활은 변화가 없다고 보는 수가 49.7%나 된다.

(3)조직에 대한 생각과 요구

①총련조직과 애국운동

(도표32)

Q19B. 역할평가

(도표33)

Q19D. 총련의 애국운동에서 더 힘을 넣고 벌려줄것을 요구하는것은 무엇인가?(복수회답)

(도표34)

총련조직의 필요성(Q19A)에 대한 인식정도는 92.1%로 높다. 또한 그 역할에 대한 평가(Q19B)도 85.8%로 긍정적반응이라고 할수 있다.

총련애국운동에 대한 요구(Q19D)는 복수회답으로 그 순위를 보면 조국통일실현(27.1%), 민족교육사업발전(26.2%), 제반 민족적권리획득(23.2%)의 순서이다.

새 세대동포이기는 하나 민족적리해관계를 기본으로 총련애국운동이 전개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②새 세대동포들이 알고싶은것, 배우고싶은것

Q21A. 다음 정보들속에서 가장 알고싶은것을 하나만 골라주시오.

(도표35)

Q21B. 다음 사항들속에서 배우고싶은것을 3가지만 골라주시오.(학생들은 사회인이 된후를 포함해서 생각해주시오)

(도표36)

Q21C. 문화, 예술, 체육(복수회답)

(도표37)

배우고싶은것의 순위(Q21B)는 1위가 파소콘지식(56.6%) 2위가 경제, 경영지식(49.9%) 3위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48.2%)이다.

새 세대동포들이 알고싶고 배우고싶은것은 일본사회의 풍조와 비슷한 면이 있으며 현실적이고 생활적요구라고 볼수 있다.

1986년 10~11월달에 총련효고관하에서 진행한《재일동포들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동포강좌를 개설한다면 무슨 강좌가 희망인가 하는데 대한 복수회답순위는 조선어강좌(29.1%), 기업경영강좌(20.0%)였고 콤퓨터강좌는 6.6%였다. 물론 조사대상이 일반동포이기때문에 극단한 대비는 못하나 10년사이에 동포들의 배움의 요구가 달라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화, 예술, 체육 등에서 배우고싶은것(Q21C)의 순위는 1위가 료리(51.1%) 2위 구기(45.8%) 3위 노래(39.3%)로 된다. 조선노래를 배우고싶다는 비률이 높다는것은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앞으로 새 세대동포들과의 사업에서 고려하여야 할 측면은

첫째로 새 세대동포들속에서 민족성상실과정이 현저화되여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특히 년령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려되는 요소가 강하다는것이다.

둘째로 출생지, 일본, 동포사회에 대한 애착정도에 비하여 공화국이나 남반부를 멀리하는 영주경향이 의식령역에까지 미치고있다고 볼수 있다.

셋째로 총련조직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역할에 대하여서는 인정하면서도 사업에서 동포들의 의견, 실정에 맞게 해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나와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결국 일본땅에서 조선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할 새로운 세대들, 애국애족대렬을 이어갈 새 세대속에서 민족적정신이 희박화되여있는면이 있다는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요인은 다음과 같이 볼수 있다.

첫째로 일본의 동화정책, 남조선당국의 기민정책의 영향을 새 세대동포들이 심히 받고있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일본당국의 대조선정책, 대재일조선인정책의 근본시정이 이룩되지 못하고있으며 일본당국의 귀화, 동화 정책이 계속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데 있다. 또한 남조선당국과 민단악질간부들의 기민책동과 민족리간책동이 교묘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감행되고있는데 있다.

둘째로 운동발전의 요구와 변화된 환경에 맞게 민족교육사업과 새 세대동포들과의 사업에서 결정적개선을 가져오지 못하고있는데 있다고 볼수 있다.

(도표 1)

	합계		남자		녀자		무회답	
전체	1028	100.0%	566	55.1%	461	44.8%	1	0.1%
남	566	100.0%	566	100.0%	0	0.0%	0	0.0%
녀	461	100.0%	0	0.0%	461	100.0%	0	0.0%
無	1	100.0%	0	0.0%	0	0.0%	1	100.0%
15-19	413	100.0%	181	43.8%	232	56.2%	0	0.0%
20-24	488	100.0%	293	60.0%	194	39.8%	1	0.2%
25-29	122	100.0%	88	72.1%	34	27.9%	0	0.0%
30-34	5	100.0%	4	80.0%	1	20.0%	0	0.0%
조고	270	100.0%	123	45.6%	147	54.4%	0	0.0%
조대	281	100.0%	168	59.8%	113	40.2%	0	0.0%
일반	477	100.0%	275	57.7%	201	42.1%	1	0.2%

(도표 2)

			1		2		3		4	
	합계		조선		《한국》		일본		무회답	
전체	1028	100.0%	835	81.2%	183	17.8%	9	0.9%	1	0.1%
남	566	100.0%	468	82.7%	91	16.1%	6	1.1%	1	0.2%
녀	461	100.0%	367	79.6%	91	19.7%	3	0.7%	0	0.0%
無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15-19	413	100.0%	329	79.7%	79	19.1%	5	1.2%	0	0.0%
20-24	488	100.0%	403	82.6%	81	16.6%	3	0.6%	1	0.2%
25-29	122	100.0%	99	81.1%	22	18.0%	1	0.8%	0	0.0%
30-34	5	100.0%	4	80.0%	1	20.0%	0	0.0%	0	0.0%
조고	270	100.0%	226	83.7%	42	15.6%	2	0.7%	0	0.0%
조대	281	100.0%	256	91.1%	23	8.2%	2	0.7%	0	0.0%
일반	477	100.0%	353	74.0%	118	24.7%	5	1.0%	1	0.2%

(도표 3)

	합계		1 1세		2 2세		3 3세		4 일본사람		5 기타		6 무회답	
전체	1028	100.0%	66	6.4%	909	88.4%	29	2.8%	4	0.4%	2	0.2%	18	1.8%
남	566	100.0%	44	7.8%	496	87.6%	13	2.3%	4	0.7%	0	0.0%	9	1.6%
녀	461	100.0%	21	4.6%	413	89.6%	16	3.5%	0	0.0%	2	0.4%	9	2.0%
無	1	10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14	3.4%	372	90.1%	10	2.4%	3	0.7%	2	0.5%	12	2.9%
20-24	488	100.0%	34	7.0%	431	88.3%	17	3.5%	1	0.2%	0	0.0%	5	1.0%
25-29	122	100.0%	17	13.9%	102	83.6%	2	1.6%	0	0.0%	0	0.0%	1	0.8%
30-34	5	100.0%	1	20.0%	4	80.0%	0	0.0%	0	0.0%	0	0.0%	0	0.0%
조고	270	100.0%	6	2.2%	251	93.0%	5	1.9%	2	0.7%	1	0.4%	5	1.9%
조대	281	100.0%	9	3.2%	264	94.0%	5	1.8%	0	0.0%	1	0.4%	2	0.7%
일반	477	100.0%	51	10.7%	394	82.6%	19	4.0%	2	0.4%	0	0.0%	11	2.3%

(도표 4)

	합계		1 1세		2 2세		3 3세		4 일본사람		5 무회답	
전체	1028	100.0%	36	3.5%	885	86.1%	40	3.9%	35	3.4%	32	3.1%
남	566	100.0%	22	3.9%	491	86.7%	14	2.5%	21	3.7%	18	3.2%
녀	461	100.0%	14	3.0%	393	85.2%	26	5.6%	14	3.0%	14	3.0%
無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12	2.9%	356	86.2%	23	5.6%	14	3.4%	8	1.9%
20-24	488	100.0%	15	3.1%	425	87.1%	16	3.3%	14	2.9%	18	3.7%
25-29	122	100.0%	9	7.4%	100	82.0%	1	0.8%	6	4.9%	6	4.9%
30-34	5	100.0%	0	0.0%	4	80.0%	0	0.0%	1	20.0%	0	0.0%
조고	270	100.0%	6	2.2%	234	86.7%	16	5.9%	10	3.7%	4	1.5%
조대	281	100.0%	3	1.1%	262	93.2%	5	1.8%	6	2.1%	5	1.8%
일반	477	100.0%	27	5.7%	389	81.6%	19	4.0%	19	4.0%	23	4.8%

(도표 5)

	합계		1 충분히		2 대체로		3 약간		4 전혀		5 무회답	
전체	1028	100.0%	367	35.7%	564	54.9%	76	7.4%	18	1.8%	3	0.3%
남	566	100.0%	203	35.9%	297	52.5%	55	9.7%	9	1.6%	2	0.4%
녀	461	100.0%	164	35.6%	266	57.7%	21	4.6%	9	2.0%	1	0.2%
無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122	29.5%	255	61.7%	30	7.3%	6	1.5%	0	0.0%
20-24	488	100.0%	182	37.3%	265	54.3%	31	6.4%	8	1.6%	2	0.4%
25-29	122	100.0%	59	48.4%	43	35.2%	15	12.3%	4	3.3%	1	0.8%
30-34	5	100.0%	4	80.0%	1	20.0%	0	0.0%	0	0.0%	0	0.0%
조고	270	100.0%	68	25.2%	180	66.7%	22	8.1%	0	0.0%	0	0.0%
조대	281	100.0%	101	35.9%	162	57.7%	16	5.7%	0	0.0%	2	0.7%
일반	477	100.0%	198	41.5%	222	46.5%	38	8.0%	18	3.8%	1	0.2%

(도표 6)

	합계		1 충분히		2 대체로		3 약간		4 전혀		5 무회답	
전체	1028	100.0%	417	40.6%	521	50.7%	71	6.9%	17	1.7%	2	0.2%
남	566	100.0%	219	38.7%	283	50.0%	52	9.2%	10	1.8%	2	0.4%
녀	461	100.0%	198	43.0%	237	51.4%	19	4.1%	7	1.5%	0	0.0%
無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141	34.1%	233	56.4%	34	8.2%	4	1.0%	1	0.2%
20-24	488	100.0%	212	43.4%	241	49.4%	27	5.5%	8	1.6%	0	0.0%
25-29	122	100.0%	61	50.0%	45	36.9%	10	8.2%	5	4.1%	1	0.8%
30-34	5	100.0%	3	60.0%	2	40.0%	0	0.0%	0	0.0%	0	0.0%
조고	270	100.0%	78	28.9%	165	61.1%	26	9.6%	0	0.0%	1	0.4%
조대	281	100.0%	115	40.9%	158	56.2%	8	2.8%	0	0.0%	0	0.0%
일반	477	100.0%	224	47.0%	198	41.5%	37	7.8%	17	3.6%	1	0.2%

(도표 7)

	합계		1 충분히		2 대체로		3 약간		4 전혀		5 무회답	
전체	1028	100.0%	357	34.7%	573	55.7%	83	8.1%	14	1.4%	1	0.1%
남	566	100.0%	191	33.7%	312	55.1%	52	9.2%	10	1.8%	1	0.2%
녀	461	100.0%	166	36.0%	260	56.4%	31	6.7%	4	0.9%	0	0.0%
無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109	26.4%	259	62.7%	40	9.7%	5	1.2%	0	0.0%
20-24	488	100.0%	186	38.1%	268	54.9%	28	5.7%	6	1.2%	0	0.0%
25-29	122	100.0%	58	47.5%	45	36.9%	15	12.3%	3	2.5%	1	0.8%
30-34	5	100.0%	4	80.0%	1	20.0%	0	0.0%	0	0.0%	0	0.0%
조고	270	100.0%	55	20.4%	185	68.5%	29	10.7%	1	0.4%	0	0.0%
조대	281	100.0%	103	36.7%	166	59.1%	12	4.3%	0	0.0%	0	0.0%
일반	477	100.0%	199	41.7%	222	46.5%	42	8.8%	13	2.7%	1	0.2%

(도표 8)

	합계		1 구체적으로		2 들은적		3 거의 없다		4 전혀 없다		5 무회답	
전체	1028	100.0%	112	10.9%	487	47.4%	283	27.5%	135	13.1%	11	1.1%
남	566	100.0%	61	10.8%	255	45.1%	159	28.1%	85	15.0%	6	1.1%
녀	461	100.0%	51	11.1%	231	50.1%	124	26.9%	50	10.8%	5	1.1%
無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55	13.3%	193	46.7%	106	25.7%	55	13.3%	4	1.0%
20-24	488	100.0%	44	9.0%	239	49.0%	140	28.7%	62	12.7%	3	0.6%
25-29	122	100.0%	12	9.8%	52	42.6%	36	29.5%	18	14.8%	4	3.3%
30-34	7	100.0%	1	14.3%	3	42.9%	3	42.9%	0	0.0%	0	0.0%
조고	270	100.0%	31	11.5%	134	49.6%	68	25.2%	34	12.6%	3	1.1%
조대	281	100.0%	38	13.5%	141	50.2%	68	24.2%	33	11.7%	1	0.4%
일반	477	100.0%	43	9.0%	212	44.4%	147	30.8%	68	14.3%	7	1.5%

(도표 9)

	합계		1 잘 안다		2 어느정도안다		3 거의 모른다		4 전혀 모른다		5 무회답	
전체	1028	100.0%	203	19.7%	694	67.5%	105	10.2%	20	1.9%	6	0.6%
남	566	100.0%	144	25.4%	353	62.4%	54	9.5%	10	1.8%	5	0.9%
녀	461	100.0%	59	12.8%	340	73.8%	51	11.1%	10	2.2%	1	0.2%
無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50	12.1%	297	71.9%	56	13.6%	8	1.9%	2	0.5%
20-24	488	100.0%	115	23.6%	323	66.2%	39	8.0%	9	1.8%	2	0.4%
25-29	122	100.0%	36	29.5%	71	58.2%	10	8.2%	3	2.5%	2	1.6%
30-34	5	100.0%	2	40.0%	3	60.0%	0	0.0%	0	0.0%	0	0.0%
조고	270	100.0%	31	11.5%	201	74.4%	33	12.2%	5	1.9%	0	0.0%
조대	281	100.0%	76	27.0%	195	69.4%	7	2.5%	2	0.7%	1	0.4%
일반	477	100.0%	96	20.1%	298	62.5%	65	13.6%	13	2.7%	5	1.0%

(도표10)

	5 안하고있다		6 꼭 동포		7 될수록동포		8 그리구애않다		9 전혀구애않다		10 무회답	
전체	998	97.1%	596	59.7%	257	25.8%	100	10.0%	41	4.1%	7	0.7%
남	540	95.4%	330	61.1%	131	24.3%	51	9.4%	26	4.8%	5	0.9%
녀	457	99.1%	266	58.2%	126	27.6%	48	10.5%	15	3.3%	2	0.4%
無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15-19	410	99.3%	192	46.8%	132	32.2%	56	13.7%	29	7.1%	2	0.5%
20-24	481	98.6%	320	66.5%	110	22.9%	38	7.9%	12	2.5%	3	0.6%
25-29	105	86.1%	82	78.1%	15	14.3%	6	5.7%	0	0.0%	2	1.6%
30-34	2	40.0%	2	100.0%	0	0.0%	0	0.0%	0	0.0%	0	0.0%
조고	270	100.0%	101	37.4%	103	38.1%	40	14.8%	25	9.3%	0	0.0%
조대	281	100.0%	226	80.4%	38	13.5%	14	5.0%	2	0.7%	0	0.0%
일반	447	93.7%	269	60.2%	116	26.0%	46	10.3%	14	3.1%	7	1.5%

(도표11) (도표15)

	합계		1 꼭 싶다		2 가능하면싶다		3 어느쪽이라도		4 그리 않다		5 절대로 않다		6 무회답	
전체	1028	100.0%	6	0.6%	18	1.8%	122	11.9%	177	17.2%	697	67.8%	8	0.8%
남	566	100.0%	3	0.5%	7	1.2%	54	9.5%	89	15.7%	409	72.3%	4	0.7%
녀	461	100.0%	3	0.7%	11	2.4%	67	14.5%	88	19.1%	288	62.5%	4	0.9%
無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4	1.0%	10	2.4%	72	17.4%	80	19.4%	247	59.8%	0	0.0%
20-24	488	100.0%	1	0.2%	6	1.2%	44	9.0%	80	16.4%	352	72.1%	5	1.0%
25-29	122	100.0%	1	0.8%	2	1.6%	6	4.9%	17	13.9%	93	76.2%	3	2.5%
30-34	5	100.0%	0	0.0%	0	0.0%	0	0.0%	0	0.0%	5	100.0%	0	0.0%
조고	270	100.0%	4	1.5%	8	3.0%	56	20.7%	56	20.7%	146	54.1%	0	0.0%
조대	281	100.0%	0	0.0%	4	1.4%	5	1.8%	27	9.6%	244	86.8%	1	0.4%
일반	477	100.0%	2	0.4%	6	1.3%	61	12.8%	94	19.7%	307	64.4%	7	1.5%

(도표12) (도표30)

	합계		1 꼭 생각한다		2 어느 생각한		3 말할수없다		4 어느 생각안		5 절대 생각안		6 무회답	
전체	1028	100.0%	550	53.5%	303	29.5%	131	12.7%	21	2.0%	9	0.9%	14	1.4%
남	566	100.0%	330	58.3%	161	28.4%	57	10.1%	8	1.4%	5	0.9%	5	0.9%
녀	461	100.0%	220	47.7%	142	30.8%	73	15.8%	13	2.8%	4	0.9%	9	2.0%
無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190	46.0%	132	32.0%	65	15.7%	14	3.4%	7	1.7%	5	1.2%
20-24	488	100.0%	274	56.1%	144	29.5%	56	11.5%	6	1.2%	2	0.4%	6	1.2%
25-29	122	100.0%	81	66.4%	27	22.1%	10	8.2%	1	0.8%	0	0.0%	3	2.5%
30-34	5	100.0%	5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고	270	100.0%	110	40.7%	96	35.6%	47	17.4%	12	4.4%	4	1.5%	1	0.4%
조대	281	100.0%	204	72.6%	64	22.8%	11	3.9%	1	0.4%	0	0.0%	1	0.4%
일반	477	100.0%	236	49.5%	143	30.0%	73	15.3%	8	1.7%	5	1.0%	12	2.5%

(도표13)

	합계		1 아주 느낀다		2 어느 느낀다		3 말할수 없다		4 어느안느낀다		5 전혀안느낀다		6 무회답	
전체	1028	100.0%	553	53.8%	269	26.2%	155	15.1%	31	3.0%	13	1.3%	7	0.7%
남	566	100.0%	342	60.4%	125	22.1%	72	12.7%	15	2.7%	8	1.4%	4	0.7%
녀	461	100.0%	210	45.6%	144	31.2%	83	18.0%	16	3.5%	5	1.1%	3	0.7%
無	1	10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197	47.7%	115	27.8%	68	16.5%	23	5.6%	8	1.9%	2	0.5%
20-24	488	100.0%	274	56.1%	130	26.6%	69	14.1%	7	1.4%	5	1.0%	3	0.6%
25-29	122	100.0%	79	64.8%	23	18.9%	17	13.9%	1	0.8%	0	0.0%	2	1.6%
30-34	5	100.0%	3	60.0%	1	20.0%	1	20.0%	0	0.0%	0	0.0%	0	0.0%
조고	270	100.0%	108	40.0%	85	31.5%	49	18.1%	20	7.4%	7	2.6%	1	0.4%
조대	281	100.0%	207	73.7%	52	18.5%	18	6.4%	3	1.1%	1	0.4%	0	0.0%
일반	477	100.0%	238	49.9%	132	27.7%	88	18.4%	8	1.7%	5	1.0%	6	1.3%

(도표14)

	합계		1 절대 안된다		2 어느 안된다		3 말할수없다		4 어느 좋다		5 매우 좋다		6 무회답	
전체	1028	100.0%	268	26.1%	308	30.0%	386	37.5%	39	3.8%	19	1.8%	8	0.8%
남	566	100.0%	152	26.9%	180	31.8%	195	34.5%	22	3.9%	12	2.1%	5	0.9%
녀	461	100.0%	116	25.2%	128	27.8%	191	41.4%	17	3.7%	6	1.3%	3	0.7%
無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15-19	413	100.0%	81	19.6%	104	25.2%	193	46.7%	23	5.6%	9	2.2%	3	0.7%
20-24	488	100.0%	134	27.5%	170	34.8%	158	32.4%	15	3.1%	8	1.6%	3	0.6%
25-29	122	100.0%	51	41.8%	33	27.0%	33	27.0%	1	0.8%	2	1.6%	2	1.6%
30-34	5	100.0%	2	40.0%	1	20.0%	2	40.0%	0	0.0%	0	0.0%	0	0.0%
조고	270	100.0%	37	13.7%	66	24.4%	142	52.6%	16	5.9%	7	2.6%	2	0.7%
조대	281	100.0%	117	41.6%	103	36.7%	53	18.9%	6	2.1%	2	0.7%	0	0.0%
일반	477	100.0%	114	23.9%	139	29.1%	191	40.0%	17	3.6%	10	2.1%	6	1.3%

(도표16)

	합계		1 꼭그렇게		2 어느그렇게		3 말할수없다		4 그렇게안한다		5 절대안한다		6 무회답	
전체	1028	100.0%	51	5.0%	112	10.9%	233	22.7%	200	19.5%	417	40.6%	15	1.5%
남	566	100.0%	24	4.2%	54	9.5%	116	20.5%	104	18.4%	260	45.9%	8	1.4%
녀	461	100.0%	27	5.9%	58	12.6%	117	25.4%	96	20.8%	156	33.8%	7	1.5%
無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15-19	413	100.0%	28	6.8%	55	13.3%	98	23.7%	90	21.8%	136	32.9%	6	1.5%
20-24	488	100.0%	17	3.5%	46	9.4%	115	23.6%	91	18.6%	214	43.9%	5	1.0%
25-29	122	100.0%	6	4.9%	11	9.0%	20	16.4%	18	14.8%	63	51.6%	4	3.3%
30-34	5	100.0%	0	0.0%	0	0.0%	0	0.0%	1	20.0%	4	80.0%	0	0.0%
조고	270	100.0%	20	7.4%	44	16.3%	67	24.8%	61	22.6%	73	27.0%	5	1.9%
조대	281	100.0%	4	1.4%	12	4.3%	40	14.2%	54	19.2%	170	60.5%	1	0.4%
일반	477	100.0%	27	5.7%	56	11.7%	126	26.4%	85	17.8%	174	36.5%	9	1.9%

(도표17)

	합계		1 꼭그렇게		2 어느그렇게		3 말할수없다		4 그렇게안한다		5 절대안한다		6 무회답	
전체	1028	100.0%	138	13.4%	227	22.1%	372	36.2%	174	16.9%	109	10.6%	8	0.8%
남	566	100.0%	86	15.2%	123	21.7%	200	35.3%	87	15.4%	65	11.5%	5	0.9%
녀	461	100.0%	52	11.3%	104	22.6%	171	37.1%	87	18.9%	44	9.5%	3	0.7%
無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53	12.8%	85	20.6%	151	36.6%	77	18.6%	45	10.9%	2	0.5%
20-24	488	100.0%	66	13.5%	108	22.1%	178	36.5%	80	16.4%	52	10.7%	4	0.8%
25-29	122	100.0%	18	14.8%	32	26.2%	42	34.4%	16	13.1%	12	9.8%	2	1.6%
30-34	5	100.0%	1	20.0%	2	40.0%	1	20.0%	1	20.0%	0	0.0%	0	0.0%
조고	270	100.0%	34	12.6%	55	20.4%	90	33.3%	55	20.4%	35	13.0%	1	0.4%
조대	281	100.0%	47	16.7%	81	28.8%	106	37.7%	29	10.3%	18	6.4%	0	0.0%
일반	477	100.0%	57	11.9%	91	19.1%	176	36.9%	90	18.9%	56	11.7%	7	1.5%

(도표18)

	합계		1 꼭시킬생각		2 될수록시킨다		3 어느시킬생각		4 어느생각없다		5 전혀생각없다		6 무회답	
전체	1028	100.0%	599	58.3%	268	26.1%	105	10.2%	38	3.7%	7	0.7%	11	1.1%
남	566	100.0%	363	64.1%	129	22.8%	50	8.8%	15	2.7%	2	0.4%	7	1.2%
녀	461	100.0%	235	51.0%	139	30.2%	55	11.9%	23	5.0%	5	1.1%	4	0.9%
無	1	10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210	50.8%	115	27.8%	51	12.3%	28	6.8%	6	1.5%	3	0.7%
20-24	488	100.0%	307	62.9%	126	25.8%	43	8.8%	6	1.2%	0	0.0%	6	1.2%
25-29	122	100.0%	77	63.1%	27	22.1%	11	9.0%	4	3.3%	1	0.8%	2	1.6%
30-34	5	100.0%	5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고	270	100.0%	120	44.4%	82	30.4%	40	14.8%	24	8.9%	4	1.5%	0	0.0%
조대	281	100.0%	213	75.8%	48	17.1%	19	6.8%	0	0.0%	0	0.0%	1	0.4%
일반	477	100.0%	266	55.8%	138	28.9%	46	9.6%	14	2.9%	3	0.6%	10	2.1%

(도표19)

	합계		1 조선학교에서		2 민단계 학교		3 공화국 류학		4 남조선 류학	
전체	972	100.0%	556	57.2%	2	0.2%	3	0.3%	4	0.4%
남	542	100.0%	300	55.4%	2	0.4%	1	0.2%	2	0.4%
녀	429	100.0%	256	59.7%	0	0.0%	2	0.5%	2	0.5%
無	1	100.0%	0	0.0%	0	0.0%	0	0.0%	0	0.0%
15-19	376	100.0%	245	65.2%	0	0.0%	1	0.3%	3	0.8%
20-24	476	100.0%	273	57.4%	2	0.4%	2	0.4%	1	0.2%
25-29	115	100.0%	35	30.4%	0	0.0%	0	0.0%	0	0.0%
30-34	5	100.0%	3	60.0%	0	0.0%	0	0.0%	0	0.0%
조고	242	100.0%	173	71.5%	0	0.0%	0	0.0%	3	1.2%
조대	280	100.0%	214	76.4%	0	0.0%	2	0.7%	1	0.4%
일반	450	100.0%	169	37.6%	2	0.4%	1	0.2%	0	0.0%

5 일교민족학급		6 가정교육		7 하기청년학교		8 기타		무회답	
5	0.5%	32	3.3%	3	0.3%	0	0.0%	367	37.8%
1	0.2%	16	3.0%	1	0.2%	0	0.0%	219	40.4%
4	0.9%	16	3.7%	2	0.5%	0	0.0%	147	34.3%
0	0.0%	0	0.0%	0	0.0%	0	0.0%	1	100.0%
2	0.5%	14	3.7%	1	0.3%	0	0.0%	110	29.3%
1	0.2%	15	3.2%	2	0.4%	0	0.0%	180	37.8%
2	1.7%	3	2.6%	0	0.0%	0	0.0%	75	65.2%
0	0.0%	0	0.0%	0	0.0%	0	0.0%	2	40.0%
2	0.8%	13	5.4%	0	0.0%	0	0.0%	51	21.1%
0	0.0%	10	3.6%	2	0.7%	0	0.0%	51	18.2%
3	0.7%	9	2.0%	1	0.2%	0	0.0%	265	58.9%

(도표20)

	합계		1 실정맞게개선		2 정서도덕개선		3 소질을 찾고	
전체	972	100.0%	169	17.4%	58	6.0%	122	12.6%
남	542	100.0%	110	20.3%	55	10.1%	71	13.1%
녀	429	100.0%	59	13.8%	3	0.7%	51	11.9%
無	1	100.0%	0	0.0%	0	0.0%	0	0.0%
15-19	376	100.0%	45	12.0%	18	4.8%	46	12.2%
20-24	476	100.0%	99	20.8%	33	6.9%	68	14.3%
25-29	115	100.0%	24	20.9%	7	6.1%	8	7.0%
30-34	5	100.0%	1	20.0%	0	0.0%	0	0.0%
조고	242	100.0%	24	9.9%	12	5.0%	33	13.6%
조대	280	100.0%	55	19.6%	25	8.9%	56	20.0%
일반	450	100.0%	90	20.0%	21	4.7%	33	7.3%

4		5		6		7		8	
괴외활동개선		재정적부담		교육시설설비		수험취직권리		무회답	
11	1.1%	114	11.7%	76	7.8%	195	20.1%	227	23.4%
7	1.3%	60	11.1%	48	8.9%	79	14.6%	112	20.7%
4	0.9%	54	12.6%	28	6.5%	116	27.0%	114	26.6%
0	0.0%	0	0.0%	0	0.0%	0	0.0%	1	100.0%
6	1.6%	47	12.5%	36	9.6%	109	29.0%	69	18.4%
5	1.1%	50	10.5%	34	7.1%	70	14.7%	117	24.6%
0	0.0%	16	13.9%	4	3.5%	16	13.9%	40	34.8%
0	0.0%	1	20.0%	2	40.0%	0	0.0%	1	20.0%
5	2.1%	32	13.2%	28	11.6%	84	34.7%	24	9.9%
3	1.1%	41	14.6%	30	10.7%	42	15.0%	28	10.0%
3	0.7%	41	9.1%	18	4.0%	69	15.3%	175	38.9%

(도표21)

			1		2		3		4		5		6		7	
	합계		실정맞게개선		정서도덕개선		소질을 찾고		괴외활동개선		재정적부담		교육시설설비		수험취직권리	
전체	972	100.0%	493	50.7%	242	24.9%	389	40.0%	130	13.4%	402	41.4%	396	40.7%	527	54.2%
남	542	100.0%	283	52.2%	175	32.3%	234	43.2%	78	14.4%	210	38.7%	222	41.0%	260	48.0%
녀	429	100.0%	210	49.0%	66	15.4%	155	36.1%	52	12.1%	192	44.8%	174	40.6%	266	62.0%
無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15-19	376	100.0%	167	44.4%	84	22.3%	136	36.2%	68	18.1%	165	43.9%	179	47.6%	227	60.4%
20-24	476	100.0%	255	53.6%	134	28.2%	204	42.9%	53	11.1%	179	37.6%	178	37.4%	243	51.1%
25-29	115	100.0%	68	59.1%	24	20.9%	46	40.0%	9	7.8%	55	47.8%	36	31.3%	55	47.8%
30-34	5	100.0%	3	60.0%	0	0.0%	3	60.0%	0	0.0%	3	60.0%	3	60.0%	2	40.0%
조고	242	100.0%	105	43.4%	53	21.9%	88	36.4%	55	22.7%	111	45.9%	127	52.5%	156	64.5%
조대	280	100.0%	136	48.6%	85	30.4%	142	50.7%	29	10.4%	133	47.5%	134	47.9%	140	50.0%
일반	450	100.0%	252	56.0%	104	23.1%	159	35.3%	46	10.2%	158	35.1%	135	30.0%	231	51.3%

(도표22)

			1		2		3		4		5		6	
	합계		일본교육좋다		교육내용의견		민족교육불리		재정부담크다		통학거리멀다		기타	
전체	45	100.0%	26	57.8%	23	51.1%	30	66.7%	21	46.7%	6	13.3%	12	26.7%
남	17	100.0%	9	52.9%	8	47.1%	12	70.6%	10	58.8%	2	11.8%	4	23.5%
녀	28	100.0%	17	60.7%	15	53.6%	18	64.3%	11	39.3%	4	14.3%	8	28.6%
無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5-19	34	100.0%	19	55.9%	17	50.0%	22	64.7%	14	41.2%	5	14.7%	11	32.4%
20-24	6	100.0%	4	66.7%	3	50.0%	6	100.0%	4	66.7%	0	0.0%	1	16.7%
25-29	5	100.0%	3	60.0%	3	60.0%	2	40.0%	3	60.0%	1	20.0%	0	0.0%
30-34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고	28	100.0%	17	60.7%	14	50.0%	19	67.9%	13	46.4%	5	17.9%	9	32.1%
조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반	17	100.0%	9	52.9%	9	52.9%	11	64.7%	8	47.1%	1	5.9%	3	17.6%

(도표23)

	합계		1 매우느낀다		2 어느느낀다		3 말할수없다		4 어느느끼지않		5 느끼지않다		6 무회답	
전체	1028	100.0%	564	54.9%	298	29.0%	109	10.6%	31	3.0%	15	1.5%	11	1.1%
남	566	100.0%	320	56.5%	162	28.6%	49	8.7%	20	3.5%	10	1.8%	5	0.9%
녀	461	100.0%	243	52.7%	136	29.5%	60	13.0%	11	2.4%	5	1.1%	6	1.3%
無	1	10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235	56.9%	112	27.1%	50	12.1%	11	2.7%	3	0.7%	2	0.5%
20-24	488	100.0%	264	54.1%	148	30.3%	45	9.2%	15	3.1%	10	2.0%	6	1.2%
25-29	122	100.0%	63	51.6%	37	30.3%	13	10.7%	5	4.1%	1	0.8%	3	2.5%
30-34	5	100.0%	2	40.0%	1	20.0%	1	20.0%	0	0.0%	1	20.0%	0	0.0%
조고	270	100.0%	145	53.7%	77	28.5%	35	13.0%	10	3.7%	3	1.1%	0	0.0%
조대	281	100.0%	179	63.7%	77	27.4%	14	5.0%	6	2.1%	4	1.4%	1	0.4%
일반	477	100.0%	240	50.3%	144	30.2%	60	12.6%	15	3.1%	8	1.7%	10	2.1%

(도표24)

	합계		1 매우느낀다		2 어느느낀다		3 말할수없다		4 어느느끼지않		5 느끼지않다		6 무회답	
전체	1028	100.0%	400	38.9%	407	39.6%	177	17.2%	18	1.8%	15	1.5%	11	1.1%
남	566	100.0%	217	38.3%	225	39.8%	96	17.0%	11	1.9%	12	2.1%	5	0.9%
녀	461	100.0%	182	39.5%	182	39.5%	81	17.6%	7	1.5%	3	0.7%	6	1.3%
無	1	10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163	39.5%	164	39.7%	75	18.2%	5	1.2%	4	1.0%	2	0.5%
20-24	488	100.0%	195	40.0%	193	39.5%	75	15.4%	11	2.3%	8	1.6%	6	1.2%
25-29	122	100.0%	40	32.8%	50	41.0%	25	20.5%	2	1.6%	2	1.6%	3	2.5%
30-34	5	100.0%	2	40.0%	0	0.0%	2	40.0%	0	0.0%	1	20.0%	0	0.0%
조고	270	100.0%	104	38.5%	105	38.9%	52	19.3%	5	1.9%	4	1.5%	0	0.0%
조대	281	100.0%	104	37.0%	124	44.1%	42	14.9%	7	2.5%	3	1.1%	1	0.4%
일반	477	100.0%	192	40.3%	178	37.3%	83	17.4%	6	1.3%	8	1.7%	10	2.1%

(도표25)

	합계		1 매우느낀다		2 어느느낀다		3 말할수없다		4 어느느끼지않		5 느끼지않다		6 무회답	
전체	1028	100.0%	486	47.3%	335	32.6%	164	16.0%	29	2.8%	3	0.3%	11	1.1%
남	566	100.0%	296	52.3%	171	30.2%	78	13.8%	14	2.5%	2	0.4%	5	0.9%
녀	461	100.0%	190	41.2%	163	35.4%	86	18.7%	15	3.3%	1	0.2%	6	1.3%
無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149	36.1%	158	38.3%	80	19.4%	21	5.1%	3	0.7%	2	0.5%
20-24	488	100.0%	258	52.9%	147	30.1%	71	14.5%	6	1.2%	0	0.0%	6	1.2%
25-29	122	100.0%	74	60.7%	30	24.6%	13	10.7%	2	1.6%	0	0.0%	3	2.5%
30-34	5	100.0%	5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고	270	100.0%	76	28.1%	114	42.2%	60	22.2%	18	6.7%	2	0.7%	0	0.0%
조대	281	100.0%	184	65.5%	72	25.6%	22	7.8%	2	0.7%	0	0.0%	1	0.4%
일반	477	100.0%	226	47.4%	149	31.2%	82	17.2%	9	1.9%	1	0.2%	10	2.1%

(도표26)

	합계		1 매우느낀다		2 어느느낀다		3 말할수없다		4 어느안느낀다		5 안느낀다		6 무회답	
전체	1029	100.0%	274	26.6%	400	38.9%	247	24.0%	69	6.7%	26	2.5%	13	1.3%
남	566	100.0%	173	30.6%	221	39.0%	124	21.9%	28	4.9%	15	2.7%	5	0.9%
녀	461	100.0%	100	21.7%	179	38.8%	122	26.5%	41	8.9%	11	2.4%	8	1.7%
無	2	100.0%	1	50.0%	0	0.0%	1	5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90	21.8%	160	38.7%	108	26.2%	37	9.0%	15	3.6%	3	0.7%
20-24	488	100.0%	133	27.3%	198	40.6%	117	24.0%	25	5.1%	9	1.8%	6	1.2%
25-29	122	100.0%	47	38.5%	40	32.8%	22	18.0%	7	5.7%	2	1.6%	4	3.3%
30-34	5	100.0%	3	60.0%	2	40.0%	0	0.0%	0	0.0%	0	0.0%	0	0.0%
조고	270	100.0%	51	18.9%	107	39.6%	78	28.9%	26	9.6%	8	3.0%	0	0.0%
조대	281	100.0%	92	32.7%	131	46.6%	44	15.7%	12	4.3%	1	0.4%	1	0.4%
일반	477	100.0%	130	27.3%	162	34.0%	125	26.2%	31	6.5%	17	3.6%	12	2.5%

(도표27)

	합계		1 매우느낀다		2 어느느낀다		3 말할수없다		4 어느안느낀다		5 안느낀다		6 무회답	
전체	1028	100.0%	97	9.4%	288	28.0%	386	37.5%	153	14.9%	89	8.7%	15	1.5%
남	566	100.0%	67	11.8%	182	32.2%	198	35.0%	69	12.2%	45	8.0%	5	0.9%
녀	461	100.0%	30	6.5%	106	23.0%	187	40.6%	84	18.2%	44	9.5%	10	2.2%
無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29	7.0%	91	22.0%	171	41.4%	74	17.9%	46	11.1%	2	0.5%
20-24	488	100.0%	49	10.0%	151	30.9%	174	35.7%	69	14.1%	35	7.2%	10	2.0%
25-29	122	100.0%	18	14.8%	45	36.9%	38	31.1%	10	8.2%	8	6.6%	3	2.5%
30-34	5	100.0%	1	20.0%	1	20.0%	3	60.0%	0	0.0%	0	0.0%	0	0.0%
조고	270	100.0%	14	5.2%	65	24.1%	124	45.9%	45	16.7%	22	8.1%	0	0.0%
조대	281	100.0%	34	12.1%	87	31.0%	87	31.0%	45	16.0%	25	8.9%	3	1.1%
일반	477	100.0%	49	10.3%	136	28.5%	175	36.7%	63	13.2%	42	8.8%	12	2.5%

(도표28)

	지역	일본	《재일한국조선인》	공화국	《대한민국》
매우 느낀다	41.0	32.6	21.2	1.8	11.5
어느쪽인가하면 느낀다	35.8	40.6	30.6	7.4	26.7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있다	15.3	20.1	31.4	34.3	37.5
어느쪽인가하면 느끼지않다	4.6	3.9	9.8	21.1	11.7
전혀 느끼지않다	3.4	2.8	7.0	35.4	12.6
무회답	(9)	(14)	(16)	(15)	(16)

( )괄호안은 인원수

(도표29)

	합계		1 꼭 생각한다		2 어느 생각한		3 말할수없다		4 어느 생각안		5 절대 생각안		6 무회답	
전체	1028	100.0%	778	75.7%	163	15.9%	61	5.9%	14	1.4%	2	0.2%	10	1.0%
남	566	100.0%	455	80.4%	73	12.9%	26	4.6%	6	1.1%	2	0.4%	4	0.7%
녀	461	100.0%	323	70.1%	90	19.5%	34	7.4%	8	1.7%	0	0.0%	6	1.3%
無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309	74.8%	67	16.2%	24	5.8%	10	2.4%	1	0.2%	2	0.5%
20-24	488	100.0%	368	75.4%	80	16.4%	30	6.1%	4	0.8%	1	0.2%	5	1.0%
25-29	122	100.0%	96	78.7%	16	13.1%	7	5.7%	0	0.0%	0	0.0%	3	2.5%
30-34	5	100.0%	5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고	270	100.0%	211	78.1%	41	15.2%	9	3.3%	9	3.3%	0	0.0%	0	0.0%
조대	281	100.0%	246	87.5%	26	9.3%	7	2.5%	1	0.4%	0	0.0%	1	0.4%
일반	477	100.0%	321	67.3%	96	20.1%	45	9.4%	4	0.8%	2	0.4%	9	1.9%

(도표31)

	합계		1 꼭 생각		2 어느 생각		3 말할수 없다		4 어느생각않는		5 절대않는다		6 무회답	
전체	1028	100.0%	508	49.4%	227	22.1%	214	20.8%	49	4.8%	18	1.8%	12	1.2%
남	566	100.0%	325	57.4%	104	18.4%	99	17.5%	21	3.7%	11	1.9%	6	1.1%
녀	461	100.0%	183	39.7%	123	26.7%	114	24.7%	28	6.1%	7	1.5%	6	1.3%
無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203	49.2%	85	20.6%	94	22.8%	21	5.1%	7	1.7%	3	0.7%
20-24	488	100.0%	226	46.3%	121	24.8%	103	21.1%	24	4.9%	8	1.6%	6	1.2%
25-29	122	100.0%	75	61.5%	21	17.2%	16	13.1%	4	3.3%	3	2.5%	3	2.5%
30-34	5	100.0%	4	80.0%	0	0.0%	1	20.0%	0	0.0%	0	0.0%	0	0.0%
조고	270	100.0%	136	50.4%	58	21.5%	56	20.7%	16	5.9%	4	1.5%	0	0.0%
조대	281	100.0%	176	62.6%	60	21.4%	35	12.5%	6	2.1%	2	0.7%	2	0.7%
일반	477	100.0%	196	41.1%	109	22.9%	123	25.8%	27	5.7%	12	2.5%	10	2.1%

(도표32)

	합계		1 꼭 생각한다		2 어느 생각한		3 말할수없다		4 어느 안생각		5 안생각한다		6 무회답	
전체	1028	100.0%	784	76.3%	162	15.8%	48	4.7%	18	1.8%	6	0.6%	10	1.0%
남	566	100.0%	446	78.8%	78	13.8%	24	4.2%	10	1.8%	4	0.7%	4	0.7%
녀	461	100.0%	338	73.3%	84	18.2%	23	5.0%	8	1.7%	2	0.4%	6	1.3%
無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303	73.4%	73	17.7%	24	5.8%	7	1.7%	4	1.0%	2	0.5%
20-24	488	100.0%	380	77.9%	76	15.6%	19	3.9%	7	1.4%	1	0.2%	5	1.0%
25-29	122	100.0%	96	78.7%	13	10.7%	5	4.1%	4	3.3%	1	0.8%	3	2.5%
30-34	5	100.0%	5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고	270	100.0%	196	72.6%	53	19.6%	13	4.8%	6	2.2%	2	0.7%	0	0.0%
조대	281	100.0%	260	92.5%	17	6.0%	1	0.4%	2	0.7%	0	0.0%	1	0.4%
일반	477	100.0%	328	68.8%	92	19.3%	34	7.1%	10	2.1%	4	0.8%	9	1.9%

(도표33)

	합계		1 꼭 생각한다		2 조금 생각한		3 말할수없다		4 너무 안생각		5 안생각한다		6 무회답	
전체	1028	100.0%	672	65.4%	210	20.4%	91	8.9%	32	3.1%	12	1.2%	11	1.1%
남	566	100.0%	386	68.2%	107	18.9%	44	7.8%	13	2.3%	11	1.9%	5	0.9%
녀	461	100.0%	286	62.0%	102	22.1%	47	10.2%	19	4.1%	1	0.2%	6	1.3%
無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261	63.2%	92	22.3%	40	9.7%	12	2.9%	5	1.2%	3	0.7%
20-24	488	100.0%	318	65.2%	100	20.5%	42	8.6%	18	3.7%	5	1.0%	5	1.0%
25-29	122	100.0%	88	72.1%	18	14.8%	9	7.4%	2	1.6%	2	1.6%	3	2.5%
30-34	5	100.0%	5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고	270	100.0%	170	63.0%	64	23.7%	26	9.6%	8	3.0%	1	0.4%	1	0.4%
조대	281	100.0%	215	76.5%	43	15.3%	13	4.6%	8	2.8%	1	0.4%	1	0.4%
일반	477	100.0%	287	60.2%	103	21.6%	52	10.9%	16	3.4%	10	2.1%	9	1.9%

(도표34)

	합계		1 조국통성번영		2 조국통일		3 조일국교정상		4 민족교육사업		5 민족권리		6 동포단합		7 별로없다		8 기타	
전체	1028	100.0%	102	9.9%	279	27.1%	223	21.7%	269	26.2%	239	23.2%	154	15.0%	69	6.7%	11	1.1%
남	566	100.0%	61	10.8%	166	29.3%	127	22.4%	141	24.9%	121	21.4%	93	16.4%	27	4.8%	9	1.6%
녀	461	100.0%	41	8.9%	113	24.5%	96	20.8%	128	27.8%	117	25.4%	61	13.2%	42	9.1%	2	0.4%
無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34	8.2%	128	31.0%	72	17.4%	98	23.7%	98	23.7%	37	9.0%	37	9.0%	3	0.7%
20-24	488	100.0%	52	10.7%	113	23.2%	124	25.4%	140	28.7%	104	21.3%	98	20.1%	27	5.5%	5	1.0%
25-29	122	100.0%	15	12.3%	37	30.3%	25	20.5%	29	23.8%	37	30.3%	18	14.8%	5	4.1%	3	2.5%
30-34	5	100.0%	1	20.0%	1	20.0%	2	40.0%	2	40.0%	0	0.0%	1	20.0%	0	0.0%	0	0.0%
조고	270	100.0%	18	6.7%	93	34.4%	43	15.9%	56	20.7%	71	26.3%	17	6.3%	20	7.4%	2	0.7%
조대	281	100.0%	33	11.7%	72	25.6%	73	26.0%	89	31.7%	64	22.8%	77	27.4%	0	0.0%	4	1.4%
일반	477	100.0%	51	10.7%	114	23.9%	107	22.4%	124	26.0%	104	21.8%	60	12.6%	49	10.3%	5	1.0%

(도표35)

	합계		1 공화국모습		2 남조선모습		3 공화국외교		4 조국통일		5 총련재일동포		6 일본경제생활		7 무회답	
전체	1028	100.0%	443	43.1%	63	6.1%	117	11.4%	101	9.8%	165	16.1%	114	11.1%	25	2.4%
남	566	100.0%	244	43.1%	37	6.5%	72	12.7%	65	11.5%	85	15.0%	50	8.8%	13	2.3%
녀	461	100.0%	199	43.2%	26	5.6%	45	9.8%	36	7.8%	79	17.1%	64	13.9%	12	2.6%
無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15-19	413	100.0%	179	43.3%	27	6.5%	31	7.5%	47	11.4%	64	15.5%	55	13.3%	10	2.4%
20-24	488	100.0%	218	44.7%	30	6.1%	68	13.9%	41	8.4%	75	15.4%	46	9.4%	10	2.0%
25-29	122	100.0%	43	35.2%	6	4.9%	18	14.8%	13	10.7%	24	19.7%	13	10.7%	5	4.1%
30-34	5	100.0%	3	60.0%	0	0.0%	0	0.0%	0	0.0%	2	40.0%	0	0.0%	0	0.0%
조고	270	100.0%	114	42.2%	18	6.7%	23	8.5%	35	13.0%	38	14.1%	40	14.8%	2	0.7%
조대	281	100.0%	131	46.6%	20	7.1%	38	13.5%	25	8.9%	49	17.4%	18	6.4%	0	0.0%
일반	477	100.0%	198	41.5%	25	5.2%	56	11.7%	41	8.6%	78	16.4%	56	11.7%	23	4.8%

(도표36)

	합계		1 력사		2 시리		3 말글		4 동포력사		5 동포권리		6 외국어		7 파소콘		8 경제경영	
전체	1028	100.0%	166	16.1%	34	3.3%	257	25.0%	142	13.8%	351	34.1%	496	48.2%	582	56.6%	513	49.9%
남	566	100.0%	106	18.7%	19	3.4%	142	25.1%	81	14.3%	200	35.3%	260	45.9%	304	53.7%	315	55.7%
녀	461	100.0%	60	13.0%	15	3.3%	115	24.9%	61	13.2%	150	32.5%	235	51.0%	278	60.3%	197	42.7%
無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15-19	413	100.0%	70	16.9%	16	3.9%	125	30.3%	55	13.3%	122	29.5%	215	52.1%	244	59.1%	198	47.9%
20-24	488	100.0%	71	14.5%	16	3.3%	107	21.9%	64	13.1%	188	38.5%	230	47.1%	280	57.4%	243	49.8%
25-29	122	100.0%	25	20.5%	2	1.6%	24	19.7%	21	17.2%	39	32.0%	50	41.0%	57	46.7%	69	56.6%
30-34	5	100.0%	0	0.0%	0	0.0%	1	20.0%	2	40.0%	2	40.0%	1	20.0%	1	20.0%	3	60.0%
조고	270	100.0%	42	15.6%	10	3.7%	91	33.7%	26	9.6%	65	24.1%	157	58.1%	169	62.6%	140	51.9%
조대	281	100.0%	49	17.4%	7	2.5%	78	27.8%	48	17.1%	150	53.4%	123	43.8%	183	65.1%	143	50.9%
일반	477	100.0%	75	15.7%	17	3.6%	88	18.4%	68	14.3%	136	28.5%	216	45.3%	230	48.2%	230	48.2%

(도표37)

	합계		1 조선노래		2 조선춤		3 민족악기		4 서양춤		5 바둑	
전체	1028	100.0%	404	39.3%	170	16.5%	225	21.9%	50	4.9%	57	5.5%
남	566	100.0%	238	42.0%	56	9.9%	103	18.2%	16	2.8%	51	9.0%
녀	461	100.0%	166	36.0%	114	24.7%	122	26.5%	34	7.4%	6	1.3%
無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5-19	413	100.0%	169	40.9%	85	20.6%	99	24.0%	34	8.2%	13	3.1%
20-24	488	100.0%	178	36.5%	73	15.0%	103	21.1%	15	3.1%	34	7.0%
25-29	122	100.0%	53	43.4%	11	9.0%	22	18.0%	1	0.8%	10	8.2%
30-34	5	100.0%	4	80.0%	1	20.0%	1	20.0%	0	0.0%	0	0.0%
조고	270	100.0%	112	41.5%	41	15.2%	64	23.7%	25	9.3%	9	3.3%
조대	281	100.0%	141	50.2%	72	25.6%	89	31.7%	13	4.6%	28	10.0%
일반	477	100.0%	151	31.7%	57	11.9%	72	15.1%	12	2.5%	20	4.2%

6 구기		7 에아로빅크스		8 료리		9 서예		10 골프		11 기타	
471	45.8%	76	7.4%	525	51.1%	92	8.9%	290	28.2%	93	9.0%
347	61.3%	14	2.5%	181	32.0%	28	4.9%	231	40.8%	53	9.4%
123	26.7%	62	13.4%	344	74.6%	64	13.9%	59	12.8%	40	8.7%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4	49.4%	32	7.7%	242	58.6%	39	9.4%	81	19.6%	48	11.6%
213	43.6%	40	8.2%	241	49.4%	39	8.0%	154	31.6%	36	7.4%
53	43.4%	4	3.3%	40	32.8%	14	11.5%	52	42.6%	9	7.4%
1	20.0%	0	0.0%	2	40.0%	0	0.0%	3	60.0%	0	0.0%
146	54.1%	17	6.3%	168	62.2%	30	11.1%	54	20.0%	38	14.1%
119	42.3%	19	6.8%	157	55.9%	29	10.3%	67	23.8%	21	7.5%
206	43.2%	40	8.4%	200	41.9%	33	6.9%	169	35.4%	34	7.1%

새 세대동포 의식조사표

재일동포사회에서 새 세대동포들이 주목되여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의식조사에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5월

Q1. 성별은?

1. 남 2. 녀

Q2. 년령은?

1. 15~19살
2. 20~24살
3. 25~29살
4. 30~34살
5. 35~39살

Q3. 국적은 무엇입니까?

1. 조선
2. 《한국》
3. 일본
4. 기타 ( )

Q4. 일본에 건너온 세대를 1세로 보면 부모는 몇세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1. 1세	1. 1세
2. 2세	2. 2세
3. 3세	3. 3세
4. 일본사람	4. 일본사람
5. 기타 ( )	5. 기타 ( )

Q5.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1. 학생
2. 상공인
3. 회사원, 종업원
4. 전임일군
5. 專業主婦
6. 기타 ( )

Q6. 학교취학년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a. 해당되는 조선학교취학년한에 대하여 각각 기입해주시오.

1. 유치원 ( ) 년
2. 초급학교 ( ) 년년
3. 중급학교 ( ) 년년
4. 고급학교 ( ) 년
5. 조선대학교 4년제 ( ) 년
   3년제 ( ) 년
   2년제 ( ) 년

b. 민단계학교에 다닌경우 그 년한을 수자로 기입해주시오.

_____년

c. 일본학교취학년한에 대하여 각각 기입해주시오.

1. 유치원 ( ) 년년
2. 소학교 ( ) 년년
3. 중학교 ( ) 년년
4. 고등학교 ( ) 년년
5. 전문학교 ( ) 년년
6. 2년제대학 ( ) 년년
7. 4년제대학 ( ) 년
8. 대학원 修士과정 ( ) 년
   博士과정 ( ) 년

d. 기타 류학 나라 ( ), ( ) 년

Q7. 우리 말소양정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각 해당되는것에 ○을 쳐주시오.

Q7A. 말하기

1. 충분히 말할수 있다
2. 대체로 말할수 있다
3. 약간 말할수 있다
4. 전혀 말못한다

Q7B. 쓰기

1. 충분히 쓸수 있다
2. 대체로 쓸수 있다
3. 약간 쓸수 있다
4. 전혀 쓰지 못한다

Q7C. 듣기

1. 충분히 알아들을수 있다
2. 대체로 알아들을수 있다
3. 약간 알아들을수 있다
4.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Q8. 조부모 (혹은 가족중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온 사람) 가 일본에 건너온 경위를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1. 구체적으로 들어본적이 있다
2. 들어본적이 있다
3. 기의 들어본적이 없다
4. 전혀 들어본적이 없다

Q9A. 해방후 재일동포들이 걸어온 력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있습니까?

1. 잘 안다
2. 어느정도 안다
3. 거의 모른다
4. 전혀 모른다

Q9B. 안다고 대답한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였습니까? (3가지만 골라주시오.)

1. 체험자로부터 직접 들었다
2. 총련의 활동가한테서 들었다
3. 학교에서 배웠다
4. 출판물을 읽고 공부했다
5. 강연회 등을 통해서 들었다
6. 텔레비나 라지오를 통해서 알았다
7. 관련되는 영화를 보았다
8. 기타 ( )

Q10. 다음 사항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때 어디에 가장 의거합니까? 해당되는것을 하나만 골라주시오.

Q10A. 공화국과 관련한 문제

1. 가족, 친척
2. 친우, 선배
3. 학교
4. 총련의 활동가
5. 총련의 출판물 (신문, 잡지, 서적)
6. 일본의 출판물
7. 일본 텔레비, 라지오
8. 기타 ( )
9. 관심없다

Q10B. 남조선과 관련한 문제

1. 가족, 친척
2. 친우, 선배
3. 학교
4 총련의 활동가
5. 총련의 출판물 (신문, 잡지, 서적)
6. 일본의 출판물
7. 일본 텔레비, 라지오
8. 기타 ( )
9. 관심없다

Q10C. 재일동포와 관련한 문제

1. 가족, 친척
2. 친우, 선배

3. 학교
4. 총련의 활동가
5. 총련의 출판물 (신문, 잡지, 서적)
6. 일본의 출판물
7. 일본 텔레비, 라시오
8. 기타 (　　)
9. 관심없다

Q 1 1 A. 이제까지 공화국, 혹은 남조선을 방문해본적이 있습니까?

1. 있다
　a. 공화국
　b. 남조선
　c. 량쪽
2. 없다
(Q 1 1 D로)

Q 1 1 B. 각각 몇번 방문했습니까?

1. 공화국
a. 1번
b. 2번이상

2. 남조선
a. 1번
b. 2번이상

(Q 1 1 C로)

Q 1 1 C. 조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인상을 가졌습니까?

1. 공화국
a. 아주 애착을 느꼈다
b. 비교적 애착을 느꼈다
c. 복잡한 심정이였다
d. 좀 소외감을 느꼈다
e. 아주 소외감을 느꼈다

2. 남조선
a. 아주 애착을 느꼈다
b. 비교적 애착을 느꼈다
c. 복잡한 심정이였다
d. 좀 소외감을 느꼈다
e. 아주 소외감을 느꼈다

Q 1 1 D. (방문해본적이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것에 ○을 쳐주시오.

1. 가본적은 없으나 반드시 가보고싶다.
　a. 공화국
　b. 남조선
　c. 량 쪽
2. 특별히 가보고싶지 않다.

Q 1 2 A. 결혼했습니까?

1. 했다 ——— (배우자는?)
　a. 조선인
　b. 일본인
　c. 기 타
2. 안하고있다

Q 1 2 B. 금후 결혼문제에 대하여 듣겠습니다. 가장 알맞는것을 골라주시오.

1. 꼭 동포하고 결혼하고싶다
2. 될수록 동포하고 결혼하고싶다
3. 동포인가 어떤가에 그리 구애되지 않다
4. 동포인가 어떤가에 전혀 구애되지 않다

Q 1 2 C. 당신은 일본사람하고 결혼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1.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한다
2. 어느쪽인가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3.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4. 어느쪽인가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5.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Q 1 3 A. 현재 귀화하고싶습니까?

1. 꼭 귀화하고싶다
2. 가능하면 귀화하고싶다
3. 어느쪽이라도 좋다
4. 그리 귀화하고싶지 않다
5. 절대로 귀화하고싶지 않다

Q 1 3 B. 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a. 귀화를 해도 민족성을 고수해나갈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면 귀화해도 좋다.

1. 꼭 그렇게 생각한다
2. 어느쪽인가하면 그렇게 생각한다
3.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4. 어느쪽인가하면 그렇게 생각 안한다
5.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한다

b. 일본에서 살아가기때문에 귀화하는것은 할수 없다.

1. 꼭 그렇게 생각한다
2. 어느쪽인가하면 그렇게 생각한다
3.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4. 어느쪽인가하면 그렇게 생각 안한다
5.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한다

c. 귀화하는 사람은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버린 사람이다.

1. 꼭 그렇게 생각한다
2. 어느쪽인가하면 그렇게 생각한다
3.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4. 어느쪽인가하면 그렇게 생각 안한다
5.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한다

Q 1 4 A. 조선사람으로 태여난데 대하여 자부심을 느낍니까?

1. 아주 느낀다
2. 어느쪽인가하면 느낀다
3.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4. 어느쪽인가하면 안느낀다
5. 전혀 안느낀다

Q 1 4 B. 재일동포들이 민족의 자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3가지만 골라주시오.) 또한 그속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것을 하나만 골라 2중동그라미 (◎) 를 쳐주시오.

1. 우리 말을 이야기할수 있는것
2. 국적을 계속 소유하는것
3. 동포끼리 결혼해서 혈통을 이어나가는것
4. 조선이름을 쓰고 살아나가는것
5. 민족문화를 습득하는것
6. 민족의 력사를 배워나가는것
7. 민족적인 생활양식 (음식, 의상 등) 을 소중히 하는것
8. 민족차별과 투쟁하는것
9. 조국과 일체감을 가시는것
10. 민족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Q 1 5 A. 자기 아들딸에게 민족교육을 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1. 꼭 시킬 생각이다
2. 될수록 시킬 생각이다
3. 어느쪽인가 하면 시킬 생각이다
4. 어느쪽인가 하면 시킬 생각은 없다.
5. 전혀 시킬 생각은 없다

(Q 1 5 E에로)

(Q 1 5 B, C, D에로)

Q 1 5 B. 어떤 형태의 민족교육을 시킬 생각입니까? (3가지만 골라주시오.) 또한 우의 항목중에서 가장 시키고싶은 형태의 교육을 하나만 골라 2중동그라미 (◎) 를 쳐주시오.

1. 조선학교에서
2. 민단계의 학교에서
3. 공화국에 류학
4. 남조선에 류학
5. 일본학교의 민족학급에서
6. 가정교육
7. 하기학교, 청년학교 등에서
8. 기타 (　　)

Q 1 5 C. 민족교육의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것은 무엇입니까? (3가지만 골라주시오.) 또한 그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것을 하나만 골라 2중동그라미 (◎) 를 쳐주시오.

1. 조선말과 글
2. 조선의 력사와 지리
3. 조선의 문화
4. 조선의 생활풍습
5. 조국의 정치와 경제
6. 재일동포들의 력사
7. 기타 (　　)

Q15D. 조선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육권리획득에서 요구하고싶은것은 무엇입니까? (3가지만 골라주시오.) 또한 그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것을 하나만 골라 2중동그라미 (◎) 를 쳐주시오.

1. 교육내용을 일본의 실정에 맞게 더욱 개선해달라
2. 정서 및 도덕교양을 개선해달라
3. 소질을 찾고 키우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개선해달라
4. 과외활동을 개선해달라
5. 재정적부담을 덜어달라
6. 교육시설 및 설비를 더 충분히 갖추어달라
7. 수험, 취직의 권리를 획득해달라

Q15E. 그 리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또한 그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것을 하나만 골라 2중동그라미 (◎) 를 쳐주시오.

1. 일본에 살기에 일본교육을 시키는것이 좋다
2. 조선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다
3. 입시, 자격습득, 취직에서 불리하기때문이다
4. 재정적부담이 많기때문이다
5. 통학거리가 멀기때문이다
6. 기타 ( )

Q16A. 자기가 나서자란 지역에 어느정도 애착을 느낍니까?

1. 매우 느낀다
2. 어느쪽인가하면 느낀다
3.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4. 어느쪽인가하면 느끼지 않는다
5. 전혀 느끼지 않는다

Q16B. 일본에 어느정도 애착을 느낍니까?

1. 매우 느낀다
2. 어느쪽인가하면 느낀다
3.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4. 어느쪽인가하면 느끼지 않는다
5. 전혀 느끼지 않는다

Q16C. 재일동포사회에 어느정도 애착을 느낍니까?

1. 매우 느낀다
2. 어느쪽인가하면 느낀다
3.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4. 어느쪽인가하면 느끼지 않는다
5. 전혀 느끼지 않는다

Q16D. 공화국에 어느정도 애착을 느낍니까?

1. 매우 느낀다
2. 어느쪽인가하면 느낀다
3.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4. 어느쪽인가하면 느끼지 않는다
5. 전혀 느끼지 않는다

Q16E. 남조선에 어느정도 애착을 느낍니까?

1. 매우 느낀다
2. 어느쪽인가하면 느낀다
3.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4. 어느쪽인가하면 느끼지 않는다
5. 전혀 느끼지 않는다

Q17A. 지금 일본에서는 공화국의 경제가 파탄되고 붕괴된다고 일부에서 보도되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겠습니다.

1. 전적으로 맞고있다
2. 대체로 맞고있다
3.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4. 대체로 틀리고있다
5. 전적으로 틀리고있다

Q17B. 지금 일본에서는 남조선의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여있다고 일부에서 보도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겠습니다.

1. 전적으로 맞고있다
2. 대체로 맞고있다
3.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4. 대체로 틀리고있다
5. 전적으로 틀리고있다

Q18. 조국통일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Q18A. 조국은 통일되여야 한다.

1. 꼭 그렇게 생각한다
2. 어느쪽인가하면 그렇게 생각한다
3.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4. 어느쪽인가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5.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Q18B. 조국통일에 기여하여야 한다.

1. 꼭 그렇게 생각한다
2. 어느쪽인가하면 그렇게 생각한다
3.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4. 어느쪽인가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5.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Q18C. 조국이 통일되면 동포사회는 좋아진다.

1. 꼭 그렇게 생각한다
2. 어느쪽인가하면 그렇게 생각한다
3.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4. 어느쪽인가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5.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Q19. 총련조직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Q19A. 총련조직은 재일동포들의 권리옹호와 생활향상에 필요한 조직이다.

1. 꼭 그렇게 생각한다
2. 조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3.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4.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5.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Q19B. 재일동포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놀고있다.

1. 꼭 그렇게 생각한다
2. 조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3. 어느쪽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4.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5.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Q19C. 총련조직은 지금 새 세대를 비롯한 광범한 동포들의 조직이 되려고 사업하고있습니다. 총련조직강화를 위하여 요구하고싶은것을 3가지만 골라주시오. 또한 그속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것에 2중동그라미 (◎) 를 쳐주시오.

1. 새 세대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달라
2. 새 세대들이 주인이 되도록 책임과 의무를 달라
3. 새 세대들의 감각에 맞는 사업을 해달라
4. 새 세대들의 련계를 맺을수 있는 사업을 해달라
5. 새 세대들의 미래상을 더 잘 알려달라
6. 새 세대들에게 총련의 정책을 더 잘 알려달라
7. 별로 없다

Q19D. 총련의 애국운동에서 더 힘을 넣고 벌려줄것을 요구하는것은 무엇입니까?

1. 공화국의 륭성번영에 이바지하는 운동
2.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운동
3. 조일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
4. 민족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
5. 제반 민족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
6. 동포들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
7. 별로 없다
8. 기타 ( )

Q20. 재일동포들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몇개라도 골라주시오.) 또한 그속에서 가장 적합한것을 하나만 골라 2중동그라미 (◎) 를 쳐주시오.

1. 조국의 통일과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나가는것
2. 재일동포들의 안정된 생활조건을 마련해나가는것
3. 일본사람과 공생(共生)해나갈수있는 사회를 꾸려나가는것
4. 일본사회에서 자기실현(自己實現)을 이룩하는것
5. 일본에서 나서사란 사람으로써 일본사람과 같은 식으로 살아나가는것
6. 깊이 생각하지 않고 락관적으로 살아나가는것
7. 어떻게 살아나가면 좋을지 잘 모른다

Q21A. 다음 정보들속에서 가장 알고싶은것을 하나만 골라주시오.

1. 공화국의 모습과 관련된 정보
2. 남조선의 모습과 관련된 정보
3. 공화국의 외교활동과 관련된 정보
4. 조국통일과 관련된 정보
5. 총련, 재일동포들과 관련된 정보
6. 일본의 경제형편과 생활문제와 관련된 정보

Q21B. 다음 사항들속에서 배우고싶은것을 3가지만 골라주시오. (학생들은 사회인이 된후를 포함해서 생각해주십시오.)

1. 조선의 력사
2. 조선의 지리
3. 조선말과 글
4. 재일동포들의 력사
5. 재일동포들의 권리
6.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7. 파소콘지식
8. 경제, 경영지식

Q21C. 다음 문학예술, 체육과 관련한 사항들속에서 습득하고싶은것은 무엇입니까? (3가지만 골라주시오.)

1. 조선노래
2. 조선춤
3. 민족악기
4. 서양춤
5. 바둑
6. 구기(축구, 배구, 롱구, 탁구 등)
7. 에아로빅크스
8. 로리
9. 서예
10. 골프
11. 기타 (　　)

Q22. 최근 재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에 관한 론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Q22A. 《참정권》이란 무엇인가를 알고있습니까?

1. 알고있다
2. 대체로 알고있다
3. 말만 들은바 있다
4. 전혀 모른다

Q22B. 재일동포들에게 《참정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 필요하다 → Q22C에
2. 앞으로는 필요하다 → Q22C에
3. 있어도 없어도 좋다
4. 필요없다
5. 모른다

Q22C.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 인간의 응당한 권리이기때문이다
2. 주민으로서의 응당한 의무(납세등)를 다하고있기때문이다
3. 일본사람과 조선사람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4. 장사, 생활, 지역의 활동에서 유리하기때문이다
5. 일본의 정당에 의거해서 살아가고싶기때문이다
6. 언제인가 쓸 때가 있을것이기때문이다
7. 국적을 지키면서 일본사람처럼 살기 위해서이다
8. 기타 (　　)

—협력 고맙습니다—

동 포 동 태 연 구 회
0423(41)1331(내선400, 403, 461)

중세기 우리 나라 도시형성과 그 발전에 대하여

리 대 희

15~16세기는 우리 나라 중세도시력사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특징적인 시기이다.

임진조국전쟁 이전시기와 그 이후시기에 도시의 성격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그 전시기에는 행정군사적도시가 전일적인것이였다면 후기시기에는 행정군사적도시의 경제적기능이 점차 강화되여가기 시작하였을뿐아니라 전날의 도시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경제도시들이 발생발전하였다.

그런데 전시기의 경우나 후기의 경우를 막론하고 도시가 상당한 정도로 발전한것이 특징적이다.

임진조국전쟁 이전시지의 군현(郡県)은 행정군사적인 도시였으며 후시기의것에 비하면 발전측면에서 제한성이 많았으나 중세도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전시기도시가 당시로서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므로 그것은 나라의 중앙집권강화에 적극 복무하였을뿐아니라 도로망의 발전을 급속히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리조시기에 행정군사도시가 강화발전됨으로써 당시 우리 나라의 도로망은 북남방향은 물론, 동서방향의 것까지 골고루 발전하여 전국적도로망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1. 중앙집권의 강화와 속현의 승격으로 인한 행정군사적도시의 증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거의 력사를 잘 알고 거기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을 때 현 시대의 력사를 더 깊이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길을 바로 개척할수 있습니다.》[1]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 고대시기부터 행정군사적도시가 형성발전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세기의 도시형성문제를 론하게 되는것은 리조시기에 들어와서 고려시기에 그처럼 많이 분포되여있었던 행정군사도시들이 출현한것을 념두에 둔것이다.

속현(属県)이 주현(主県)으로 승격된것과 관련하여 전날의 속현소재지들이 행정군사도시

로 전화되였다. 그러나 속현들은 현의 명칭은 가지고 넓은 면적을 차지한것도 있었으나 그 어는 경우에도 인구수가 도시를 이룰만큼 많지 못하였다.

우선 도시로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비농업인구가 한곳에 일정한 정도로 많이 집중되여 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리조시기의 속현소재지들의 규모는 모두 매우 작았다.

례를 들면 경주관내에는 안강, 기계, 신광, 자인의 4개의 속현이 있었다. 그런데 안강의 호수는 271, 인구는 1450, 기계의 호수는 177, 인구는 491, 신광의 호수는 95, 인구는 448, 자인의 호수는 237, 인구는 1006이였다.[2]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의 기사에 의하면 강원도양구(楊口)의 속현인 방산(方山)현은 호수 20에 인구 50이였으며 고성군의 속현인 안창현은 호수 46에 인구 134이며 준양의 속현인 화천(和川)현은 호수 19에 인구 30, 문등(文登)현은 호수 14에 인구 28, 람곡(藍谷)현은 호수 11에 인구 46이였다. 이처럼 작은 속현이 도시로 될수 없었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다음으로 속현소재지들을 도시로 볼수 없는 근거는 그것들이 해당지역의 행정군사적중심지를 이루지 못한데 있다. 아직 순수 경제도시가 발생하기전에 중세도시는 행정군사적중심지가 아니고서는 도시를 이룰수 없었다.

중세기의 조건에서 정부의 강권이 없이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에 많이 모여 살수 없었다. 농업을 위주로 하는 자급자족적인 자연경제가 지배하는 조건에서 사람들은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초보적으로나마 해결하자면 일정한 넓이의 경작지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주민지구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한곳에 많은 주민을 모여 살게하자고 하면 경작지의 군현소속을 조절하여야 하였는데 그것은 봉건국가의 강권에 의하여서만 해결될수 있었다.

그런데 속현들에는 주민들을 통치하는 정부에서 파견된 고을관리가 없었으며 말단행정군사기구로서는 호장(戶長)들의 향청(鄕廳)이 있었을뿐 고을주민들을 강력하게 통치할만한 정치군사적힘이 없었다.

속현들에는 봉건정부에서 파견한 관리들의 책임하에 편성된 통치기구나 군사기구가 없었다. 따라서 속현소재지들은 정부의 강권이 없이는 지방의 행정군사중심지로 될수 없었다.

다음으로 속현소재지들은 중세도시로 볼수 없는 근거는 그것들이 경제면에서도 자급자족할수 없는 행정단위였다는데 있다. 고을 단위로 생활에 필요한 거의 그것을 자체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시의 조건에서 속현들은 주현에 붙지 않고서는 모든것을 해결할수 없었다. 속현들은 농촌에 영향을 줄만한 봉건문화기관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조건으로 하여 속현소재지들은 해당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될수 없었다. 속현이하의 지역단위에서 도시가 발생할수 있은것은 수공업과 상업이 급속히 발전한 리조후기의 일이다.

그러면 15세기에 들어와서 속현이 주현으로 발전할수 있었던것은 어디에 있었던가.

첫째로, 그것은 무엇보다도 봉건국가의 중앙집권이 종전보다 더 한층 강화되여 국가권력의 지방에 대한 지배간섭이 더욱 강화된데 있었었으며,

둘째로, 또한 사회적생산의 장성에 따라 농업에서 분리하여 도시에 모여든 주민들을 먹여 살릴수 있는 생산과 상품류통의 장성을 전제로 하는것이였다.

먼저 국가의 중앙집권의 강화에 대하여 보겠다.

우리 나라의 봉건국가는 그 초기부터 중앙집권제에 기초를 둔 권력기구였다. 그것은 분권적인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구라파봉건국가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것이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력대봉건국가가 중앙집권적이였던것은 사실이지만 그 강약정도는 매 시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리왕조 창조초기에는 국가의 중앙집권이 강하였으나 중앙집권에 맞서는 대토지소유가 성장하고 지방봉건세력이 강화되는데 따라 약화되였다.

선행한 고려왕조시기를 보면 11세기이후 대토지소유가 크게 장성하는데 따라 귀족들의 지방할거가 심화되여갔으며 나라의 중앙집권이 점차 약화되여갔으며 나라의 중앙집권이 점차 약화되여갔다.

고려왕권은 중앙에 도사리고있는 귀족할거세력의 반항도 짓누를수 없었으며 따라서 지방행정군사기구들에 대한 장악을 거의 할수 없게 되였다. 국왕과 중앙정부는 지방관에 대한 정상적인 임명을 할수 없었을뿐아나라 지방관을 통한 해당지방의 조세와 공물도 제대로 거두어들일수 없었으며 지방인민들을 병역과 부역에도 제대로 동원시킬수 없었다.

그러나 리조통치자들은 고려의 왕권을 탈취한후 원심적작용을 하는 할거적세력을 큰 규모에서 제거하고 저들의 심복들을 각지방관으로 임명하여 새 왕권의 지방인민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리조시기에 들어와서 봉건국가는 중앙집권을 강화하여 지방인민들에 대한 통치를 강화할수 있었으며 지방에 대한 통제장악을 강화하여 조세, 공물, 부역 등 수탈체제를 정비강화할수 있었다.

봉건국가는 경제발전을 정상화하여 속현을 주현으로 개편할수 있는 정치, 경제적조건을 조성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봉건국가는 작은 규모의 속현소재지에 많은 인구를 집결시킬수 있게 되였을뿐아니라 그들의 의식주 조건도 보장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실로 15세기에 들어와서 봉건국가의 중앙집권이 강화되여감으로써 속현소재지에 국가의 권력을 배경으로하여 많은 주민을 이주시켜 살게할수 있게 되였으며 그곳 주민에 대한 정치적지배와 통제를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토지와 인민에 대한 지배가 강화된것은 량전(量田)사업과 국용전의 제정, 호구조사와 호패법[3]의 실시, 사원정리와 노비변정사업[4]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리조봉건국가는 기본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장악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려말에 실시한 사전(私田)정리와 과전법의 성과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량전사업을 진행하여 주로 대토지소유자들이 비법적으로 차지하고 조세를 물지 않으면서 숨겨둔 은결(隱結), 여결(余結)을 조사장악하였으며 그것을 량안(量案)에 등록하였다.

그러나 리조초기에는 아직도 왕권이 미약하며 은결, 여결을 모조리 장악할수 없었으며 왜구의 침입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남해와 서해 바다가의 많은 논밭을 량전할수 없었다. 량전사업이 전국적규모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것은 나라의 정치정세가 비교적 안정되고 왜구의 침입이 얼마간 즘즘하여진 15세기초부터였다.

봉건정부는 1401년부터 본격적으로 량전사업을 시작하여 1404년에는 93만결의 논밭을 조세수탈대상으로 장악할수 있게 되였다. 그후 1405년, 1413년, 1420년에 량전사업을 진행하여 170여만결의 농경지를 장악하게[5] 되였다.

봉건국가는 조세, 공물, 부역 등의 수탈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중앙집권적통치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물질적토대를 마련하였다. 리조봉건국가는 중앙집권적통치체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전국토지를 조사장악한데 기초하여 15세기중엽에는 착취제도로서의 공법(貢法)조세제도를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리조봉건정부는 1445년에 토지류형에 따라 전세액이 서로 다르고 각 관청호상간의 거래관계가 복잡하였던 각족수조지(收租地)들을 페지하고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용전을 설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실로 국용전이 제정됨으로써 토지에 대한 봉건국가의 강력한 지배체계가 확립되였으며 이로써 리조봉건국가의 중앙집권제의 물질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리조봉건정부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와 공부, 병역을 부과할수 있는 공민을 더 많이 장악하는데 많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리하여 실시된것은 호구조사사업과 호패법이였다. 봉건국가가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량전사업과 함께 호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은 전세, 부역 등을 전결단위로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결국 호구를 통하여 진행되기때문이였다.

봉건정부는 호구수를 늘리고 그것을 강하게 지배통제할 목적에서 호구조사사업을 계속강화하는 동시에 호패법실시를 서둘었다. 그리하여 리조봉건국가는 15세기 30년대에 22만 6310의 과호와 여기에 망라된 70만 2870명의 장정(壯丁)을 장악하여 군역과 병역 등을 부과할수 있게 되였다.

리조봉건통치자들은 토지와 인민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확립하고 과호를 많이 장악하는것과 함께 당시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있던 사원을 정리하고 노비소송문제의 처리를 통하여 공민(公民)수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였다.

1388년인 고려말에 사전개혁에 의하여 사전(寺田)이 많이 몰수되였으나 리조시기에 들어와서도 사전은 4～5만결이나 되였으며 사원노비는 10여만이나 되였다.[6] 그러나 사전과 사원노비를 몰수하는 사원정리사업은 리왕조성립직후에는 아직 할수 없었다.

15세기에 들어와서 왕권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후에야 사원정리가 진행되여 1424년에 기본적으로 끝났다.

봉건통치자들은 사원정리에 의하여 수많은 공노비를 얻어내는데 머무르지 않고 이 시기 계속 제기되였던 노비변정사업을 통하여서도 노비수를 계속 확보해나갔다.

봉건정부는 1435년 이후 네번에 걸쳐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고 노비소송문제를 처리하였다. 이 시기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난 노비소송을 주로는 노비소유주사이의 노비쟁탈전이 있었으나 그것은 동시에 노비농민들이 본래의 량인신분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였다. 리조국왕은 전제군주였기때문에 자기의 의사를 인민들과 관료들에게 강요할수 있었으며 인민들이야 어떻게 되였든지간에 자기의 정권유지와 호화방탕한 생활에 요구되는것이라면 일반인민들의 의사는 물론 관리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마구 내려먹이는 독재정치를 실시하였다. 국왕의 명령은 시비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법적성격을 띠였다. 국왕은 최고통치자로서 중앙과 지방에 각급 통치기구를 설치해놓고 관리들을 통하여 제멋대로 정권을 행사하는 절대적인 권력자였다. 따라서 국왕은 나라의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통치기구도 그에 부합되게 편성하였다.

1400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페지되고 의정부가 설치됨으로써 관리들은 저들의 의사를 집체적으로 대변하던 기구를 가지지 못하게 되였다. 이에 따라 국왕의 전제권력을 제약할수 있는 요소들은 제도상 소멸되였다.

의정부의 설치로하여 그전에 여러개의 관청이 최고통치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던 복잡한 일은 없어지게 되였다.[7] 의정부설치후에도 국왕의 전제권을 제약하는 일이 종종 나타났으므로 국왕은 의정부산하의 6조(曹)가 국왕에게 직계(상전)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리조시기 왕들인 태종과 세조가 6조를 직접 관할하고 정부서사(署事)를 페지한것은 국왕의 전제권을 침범할수 있는 의정대신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것이였다. 그후 리조의 국왕들은 모든 계기를 리용하여 통치기구를 오로지 자신의 전제적권력을 집행하는데 복종할수 있도록 재편성하였다.

국왕은 최고통치기구인 의정대신들의 실권을 잡지 못하도록 여러모로 제한하는 한편 복심자들을 령사 또는 제조(堤調)로 임명하여 해당 중앙관청의 장관직 또는 중요관직을 겸임시키거나 고문으로 임명하여 여러개의 작은 중앙관청들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관료기구를 편성하였다.

리조의 국왕은 국가무력기구도 자신의 전제권유지에 적합하게 편성하였다. 이렇듯 리조 봉건국가는 고려의 중앙관제를 계승하면서도 중앙집권적 봉건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중앙의 모든 정치제도, 군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수도에는 교육문화제기관도 있었다. 유교의 최고교육기관인 성균관이 있었으며 수도의 각부에는 학당이 있었다. 또한 제사 및 종교기관으로서는 사직서(社稷署), 종묘서, 관왕묘와 불교사원 등이 있었다.

리조의 봉건통치자들은 전국인민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통치기구와 함께

지방도관찰사를 두었다. 그들은 읍의 장관을 임명하는 권한까지 가지고있었으나 그후 그것은 모두 국왕의 권한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넘어갔다.

리조봉건정부는 15세기 30년대이후 국가권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착잡하였던 지방행정단위들을 상당한 정도로 정리하고 통일적인 군현(郡縣)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리조봉건정부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통치기구를 국왕의 전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재편성하였다. 이처럼 리조전기에 중앙집권적정치기구가 확립됨으로써 리조정부는 거의 모든 속현을 주현으로 승격시킬수 있었다.

다음으로 속현을 주현으로 승격시켜 많은 행정군사도시를 형성할수 있었던 전제로 된것은 사회적생산과 상품류통관계의 확대발전이였다.

봉건국가가 중앙집권의 강화만으로써는 속현을 모두 주현으로 승격시킬수 없었다. 도시라고 하면 적어도 수천명의 인구가 집중되여야 하는것만큼 일정한 지점에 모여든 수천명이상의 주민을 먹여살리고 그들의 의식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농업과 수공업이 일정한 정도로 발전하고 상품류통관계가 발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리조전기의 행정군사도시의 확대발전의 요인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의 발전면에 대하여서도 주의를 돌리지 않을수 없다.

15세기에 들어와서 농업생산에서 상당한 정도의 발전이 이룩되였다. 이 시기 농업생산령역에서 일어난 전진은 개간사업과 역전(易田, 공로자, 분여지)의 불역전으로의 전화를 들수 있다.

15세기초부터 왜구의 침략으로 황무지로 되였던 그전날의 경작지가 다시 개간되여 농경지로 리용되였다. 해변뿐아니라 내륙지방의 땅들도 적지 않게 개간되여 경지로 리용되였다.

15세기 전기에는 주로 나라의 중부이남지역에서, 후기에는 중부이북지역에서 큰 규모의 개간사업이 진행되였다. 1460년경부터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지방에서 개간사업이 큰 규모에서 진행되였다. 재녕강 상류류역지대인 삼지평과 그 일대의 황무지가 새로 개간된것도 이때의 일이다.

개간사업에 의하여 새로운 전답을 얻어내는것과 함께 역전을 불역전으로 만드는 사업도 널리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전국의 농경지가 170만결이상으로 증가하였다.[8] 또한 수전농사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저수지들이 건설되였다. 그리하여 영농법개선에서도 상당한 전진이 있었다. 엇바꾸어 경작하는 륜작법이 적용되고 경종법에서도 전진이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공예작물재배와 잠업도 발전하였다.

농업과 함께 수공업생산도 확대발전하였다. 이 시기 관청수공업과 함께 민간수공업도 발전하였다. 15세기 관청수공업에서 분업도 상당히 세분화되였다. 광업과 제련, 제철, 제강업도 발전하였으며 수산업과 목축업도 발전하였다. 이처럼 사회적생산의 제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자 이에 따라 교통운수가 확대되고 새로운 점포와 장시들이 나타나고

대외무역도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봉건국가에서는 속현소재지에 주현을 설치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리조봉건국가는 의식주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경제적조건을 구비한 속현소재지에 국가권력으로 하급관리들과 군인 그리고 일반주민을 많이 이동시켜 행정군사도시들을 건설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행정군사중심지로 등장한 행정단위는 속현으로부터 주현으로 승격하였다. 속현이 주현으로 승격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주민의 의식주를 보장할만한 경제적조건이 갖추어져있을뿐아니라 봉건국가에서 주현설치에 필요한 인민들을 배치할만큼 중앙집권력이 강화되여있어야 한다.

속현이 주현으로 승격되여 행정군사도시로 된 실례로서 홍원(洪源)현을 들겠다.

홍원현은 1433년 함흥부의 임내(任內)인 속현으로부터 주현으로 승격되였다. 홍원현에는 4300의 호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현소재지에 적어도 그 4분의 1내지 5분의 1정도의 주민이 거주하였던것으로 보인다. 홍원에는 주현으로 된후 전날에는 없던 읍성과 관청 및 종교관계건물들이 배치되였다.[9]

홍원읍지에 의하면 읍성은 둘레 860보였고 거기에 치성(稚城) 24개가 달려있었다. 성의 동서남북 4면에는 성문이 있었는데 남문은 2층루였다. 성안에는 현감이 집무하는 아사와 아전들이 집무하는 작청(作厅), 좌수(座首), 별감이 집무하는 향소(鄕所) 그리고 군인들이 사는 병사가 있었으며 그밖의 읍의 관청, 창고인 읍창과 환상곡(곡식)을 보관관리하는 창고 등이 있었다.

또한 동문외 산기슭에는 향교와 교생들의 숙사와 후방시설들이 있었고 성외의 산록에는 상황당과 잡귀신을 제사지내는 만제당, 토지와 곡식신(神)을 제사하는 사직당 등이 있었다.

이처럼 홍원현소재지에 지방행정군사통치기관건물들을 비롯한 공공건물만 하여 100개가까이 있었다. 거기에는 그곳에 다니는 관속과 군인들이 사는 가옥까지 합치면 홍원현소재지안에는 비농업적인구와 관련된 건물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것이다. 그러나 전날 속현으로 있을 때 홍원에는 호장을 비롯한 겨우 수천명 안팎의 아전이 있었을뿐 따라서 군인들과 향교의 교생도 없었다.

홍원현이 주현으로 된후 이곳에는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현감과 아전과 향리, 군인, 교생 등이 모이게 되였다. 또한 홍원읍지에 의하면 홍원읍에는 40명의 아전과 30명의 관노, 20명의 사령, 20명의 병로가 있었고 향소에는 좌수 1명과 별감 1명이 있었다. 홍원현에 속한 군인으로서는 보군 60초와 마군 1초가 있었고 이밖에 522명이 군안에 올라있었다.[10]

향교에는 유교교육을 담당한 훈도와 30명의 교생이 속해있었다.

홍원환창에는 5000석의 미곡과 그밖에 잡곡이 보관되여있어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향리들이 배속되여있었다. 그리고 홍원에는 9개의 사(社,面)가 있었으며 읍내에는 사에 관한 련락임무를 수행하는 9～10명 정도의 면주인이 항시적으로 주재해있었다.[11]

이렇게 보면 주현으로 승격된후에 홍원에는 수백명의 하급관리와 군인들이 살고있은것으로 된다. 여기에 그들의 가족과 도시주민에 대한 의식주공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까지 합치면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의 인구가 집중되여있은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많은 공공건물과 일반주민 그리고 가옥이 조밀하게 늘어선 홍원읍가는 하나의 주민거주구역을 형성하였다. 여기에는 관리들이 모여사는 행정중심지로 수백명의 군인들이 집결한 군사중심지로, 상인들이 사는 지방경제중심지로, 향교를 비롯한 종교문화기관들이 배치된 봉건문화의 지방중심지로 되였다.

이것이 실로 15세기에 들어와서 리조봉건정부의 중앙집권력이 강화되고 홍원읍이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전화됨으로써만 가능하였다.

2.당시의 대표적인 행정군사도시의 면모에 대하여

리조전시기의 행정군사도시로서는 수도 한성과 도소재지 및 각급 읍소재지를 들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몇도시만 들겠다.

수도인 한성(서울)에 대하여.

한성은 1394년부터 1910년까지 리조봉건국가의 수도였다. 1399년부터 1404년까지 수도를 개경(개성)에 옮긴 일이 있었으나 그밖의 전기간 한성이였다.

한성은 중앙집권적인 리조봉건정부의 수도였던만큼 구라파의 분권적인 봉건국가의 수도와는 달리 큰 규모로 발전하였으며 당대 세계유수의 대도시의 하나였다.

음모적방법으로 고려의 집권을 탈취한 리성계를 두목으로 하는 리조의 집권자들은 반대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강화하였다.

리조통치자들은 한성을 중앙집권적봉건국가의 수도로서 손색이 없게 꾸리기 위하여 큰 규모에서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단시일내에 도성과 궁성 그리고 종묘 등이 건설되였다.

한성은 둘레 9975보,[12] 즉 40리나 되는 큰 성으로서 북쪽성벽은 북악(北岳)을 두르고 남쪽 성벽은 남산, 동쪽은 락타산, 서쪽은 인왕산을 둘렀다. 한성(도성)축조사업은 1396년부터 시작되였다. 1422년 개수시에는 전날 흙으로 쌓은 부분까지 모두 돌로 쌓았다. 이 공사에는 연 32만 2400명의 인민들이 동원되였는데 공사기간에 희생된 사람만 하여도 872명이나 되였다고 한다.[13]

1704~1711년에 개수한 도성에는 동서남북에 4개의 큰 문과 작은 간문이 있었다. 4개 정문에 해당하는 문들인 남대문은 숭례문, 동대문은 흥인지문, 서대문은 돈의문, 북문은 숙청문이다. 그가운데서 도성의 정문이라고 할수 있는것은 남대문인데 이 문은 높은 축대우에 5칸(22.58m), 2칸(7.78m)의 우진각지붕으로 되여있다.

리조의 통치자들은 한성도시를 건설하면서 하수도용 개천공사도 진행하였으며 고려의 수

도였던 개성도성에 비하여 방어에 유리하게 건설하였다. 그리고 한성의 남쪽을 흐르는 한강에는 각도의 조세를 실어다 집결시키는 경창(京倉)이 있었다. 경상도와 충청도, 강원도의 조세미를 한강을 통하여 경창까지 운반하였다.

특히 경상도의 조세미는 락동강을 거슬러올라와 상주의 락동리에서 하선하여 륙로로 한성의 경창에 운반하였다.[14] 리조집권자들은 조세미를 수도에 운반하는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궁성, 궁벌과 중앙각 궁청을 건설하였다.

리조왕의 통치자들이 궁성을 화려웅대하게 꾸린것은 왕권의 위용을 과시하자는데 있었다. 리조의 집권자들은 이와 함께 관료기구를 편성하여 관리들을 배치하였으며 그들의 집무소인 각 관청을 수도의 요소요소에 건설하였다.

이처럼 수도 한성부는 행정중심지였을뿐아니라 군사중심지이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수도 한성에는 중앙통치기구운영에 필요한 문무관과 아전과 병사등이 집중하여 거주하고있었다. 그들 수만명은 이 봉건국가를 지탱하여 나가는 국가행정군사적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였다.

수도에는 10만주민의 식량을 비롯한 생활자료를 보급하는 수만명의 상인들도 살고있었다. 이러한 제반 기구들은 도시의 면모를 돋구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외국무역상인들도 살고있었다. 이러한 상업지구는 하나의 상업도시를 방불케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수도 한성을 상업도시로 볼수는 없었다. 그러한 상업지구는 행정군사도시에 혹처럼 붙은 하나의 경제구역에 지나지 않았다.

리조집권자들은 도시의 구획을 정하는데서도 엄격한 봉건적신분차별을 두어 궁벌이 자리잡은 북부지대에는 량반들이 살게하였으며 경복궁 남쪽에는 중앙각관청이 자리잡았다.

이처럼 수도 한성은 리조시기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행정군사도시였다. 리조후기에 들어와서 한성은 경제적기능이 전에 비할바 없이 강화되였지만 여전히 중세도시로서의 행정군사적기능을 유지하고있었다.

지방행정군사도시로서는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 도호부, 군, 현소재지 등이 있었다. 부로서는 한성부, 평양부, 함흥부, 전주부, 경주부가 있었는데 한성부는 수도이며 나머지 4부는 각각 도소재지였다.

평양부에 대하여.

평양은 단군조선과 고구려의 수도였으며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시된 지방이였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여온 력사의 도시 평양은 리조시기에 들어와서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도시로 웅장한 모습을 보였다.

리조시기에도 평양에는 내성과 외성이 있었는데 내성은 석성이며 외성은 토성이였다. 15세기 20년대말에 평양부에는 시위군 736명, 익군 2951명, 석군 437명, 수성군 145명이[15] 배치되여있었다.

이처럼 리조시기 평양은 서북지방의 행정중심지였을뿐아니라 군사중심지이기도 하였다.

또한 함흥부, 경주부, 전주부와 기타 많은 지방행정도시, 군사도시로서의 형성과정과 그 발전전모에 대하여서는 다른 기회에 언급할것이다.

15~16세기는 우리 나라 중세의 행정군사도로망이 완성된 시기이다. 그것은 모든 군현들이 이웃한 군현으로 통하는 도로망을 가지게 되였으며 전국적범위에서 북남방향, 동서방향의 행정군사도시의 발생발전과 함께 도로들이 고르롭게 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당시 봉건국가에 의하여 리용된 행정군사도로망의 분포만으로써도 중세 우리 나라 도시형성이 높은 발전수준에 이르렀다는것을 충분히 알수 있다.

3. 도시와 도시를 련결하는 도로

도시도로가운데는 도시안의 도로와 그것이 외부에 연장되여 린접한 다른 도시에 이어지는 도로가 있었으며 따라서 군현도시는 도로에 의하여 이웃한 군현도시에 련락되여있었다.

그것은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15세기의 《지리지》의 군현사방경계리수에 대한 기사만으로서도 명백히 알수 있다. 실례로 황해도 토산현의 기사에 《동쪽은 경기의 삭녕경계까지 16리, 남쪽은 같은 군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24리, 서쪽은 우봉현경계에 이르기까지 33리, 신계경계에 이르기까지 69리, 북쪽은 강원도 안협경계에 이르기까지 19리이며 경도(한성)에서 230리 떨어져있다.》고 하였다.[16]

이처럼 린접한 군현경계까지의 거리와 수도(한성)에 이르는 리수가 밝혀져있다. 이는 또한 린접한 군현도시에 통하는 도로들을 개척한 조건에서만 가능하였던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5세기에 도로의 리정을 정확히 계산할수 있는 기구가 창안되여 거리측정에 리용되였다.

이처럼 리조전기에 이르러 모든 군현도시들이 이웃한 군현도시에 통하는 도로들을 개척하였다. 15~16세기는 나라의 중앙집권이 강하게 작용되고있었던 시기인것만큼 매개 군현도시는 4면에서 이웃하고 모든 군현도시에 통하는 도로들을 가지고있었다.

선행한 고려시기까지만 하여도 태백산맥을 정복하는데서 제한성이 많았기때문에 령서의 모든 군현도시들이 태백산맥의 동쪽에 위치한 이웃한 군현도시에 직통도로를 통하여 련결되지 못하였다. 이때문에 고려때만하여도 관서지방 군현은 안변 등지까지 가서 해안을 따라 관동남쪽의 여러 읍에 이르렀는데 15세기에 들어와서 이 산맥에 령동서군현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통할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전국 군현도시들이 이웃한 군현도시에 직통하는 도로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리조전시기는 후기에 비하여 사회적생산과 상품류통관계의 장성에서 제한성이 적지 않았으므로 매개 군현도시는 경계를 직접 접하고있는 도시와 그렇지 못한 군현도시도 있었다. 그러한 편향을 극복하고 모든 군현도시가 사통팔달하는 도로를 가지게 된것은 리조후반기에 들어와서만 처음으로 볼수 있는 일이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나라 중세기도시의 성격변화는 임진조국전쟁이후 일정한 시일이 지난 다음부터 사회적생산이 복구되고 상품화페관계가 발전하면서 이에 따라 중세기의 행정군사도시의 성격에서는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리조후기에 들어와 행정군사적성격이 강하였던 전날의 중세도시들이 변모되여갔다. 전날의 행정군사도시의 경우에도 경제적기능이 전혀 없었던것은 아니였지만 그것은 행정군사적기능에 대비하여볼 때 미미한것이였다. 그러나 리조후기에 들어와서 중세도시들이 경제적기능을 많이 가지게 되였다. 따라서 리조후기의 도시가 전기의 도시에 비하여 경제적기능면이 비할바 없이 확대강화되였다. 그러므로 행정군사적기능이 역시 주되는것이였다.

리조전기의 행정군사도시의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로 수공업생산과 상품류통을 진행한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행정군사적기능에 비하면 매우 부차적인것이였으며 그것으로하여 도시의 성격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수는 없었다. 그때의 수공업과 상업은 봉건관청과 관리들에게 예속되여있었으며 철저히 봉건통치에 요구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주〉

(1)《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말씀 발취집》 조선로동당 출판사 178페지

(2)《世宗実録》地理志, 慶州条, 安康, 杞溪, 神光, 慈任

(3)《호패법》(戶牌法)

리조봉건국가에서 로동인구를 토지에 얽어매두기 위하여 16살이상 남자들에게 강제로 채우던 패쪽. 이때 제정된 규정에 의하여 호패의 길이는 3치7푼, 너비는 1치3푼, 두터이는 2푼이였고 거기에 써넣는 내용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

1413년 (태종13년)

(4)《노비변정사업》(奴婢辯正事業)

리조초에 봉건국가에서 인민들에 대한 억압,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노비문제를 정리하는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노비변정사업은 통치배들의 권력기관이였던만큼 노비소유문제를 저들의 계급적립장에서 처리한데 불과하였다.

(5)《世宗実録》地理志

(6)리조봉건통치계급이 유교를 통치도구로 하여 불교는 매우 쇠퇴하여갔다.

1406년에 불교사원들이 가지고있던 땅과 노비들을 빼앗는 한편 사원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절간만을 남겨두었다. 이 과정에서 절간이 가진 땅은 대체로 4 ~ 5 만결부터 1 만결이하로 줄어들었다.(력사사전) 1, 704페지

(7)《의정부》(議政府)
리조봉건정부의 반인민적인 최고통치기관.
1400년(정종 2 년)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의정부로 고쳤다.

(8)《世宗実録》地理志

(9)《洪原邑誌》地理誌

(10)洪原邑에 4 名의 衛前, 30名의 官奴, 20名의 使令, 20名의 軍牢, 鄕所에 座首 1 名, 別監 1 名, 軍人一步軍60哨, 軍馬 1 哨
《洪原邑誌》地理誌

(11)《洪原邑誌》地理誌

(12)《東国輿地勝覧》巻 1, 京都(上)

(13)《世宗実録》巻 1 5, 4 年 2 月 庚戌

(14)《経国大典》巻 2, 戸典, 漕転

(15)《世宗実録》地理志

(16)《東国輿地勝覧》巻 4 2, 黄海道, 兎山県条

아메노히보꼬와 나니와의 히메꼬소사신

고 관 민

앞말

新羅의 아메노히보꼬(天日槍. 天日桙)倭地渡来에 대하여서는《古事記》(以下, 記)·《日本書紀》(以下, 紀)·《播磨国風土記》에 특서되고 이채를 띠고있다. 그것은 고대조일관계사상의 한 력사적사건이기는 하나 그 所伝은 쯔누가아라시또와 나니와(難波)의 히메꼬소사신과도 관련하여 異伝이 많을뿐아니라 내용이 설화적이기때문에 사실로서 무엇을 추출할수 있는가 하면 당장에는 대답하기 힘드는것이 현상이다.

우선 天日槍의 渡来, 定着에 대하여서는 결론적으로 말하여《播磨国風土記》의 所伝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所伝은 神話的이기는 하나 土俗的伝承에 의거하고있고 또한 揖保川河口로부터 상류에로의 이동, 그리고 但馬에서의 定住이라는 흐름은 론리적으로 납득할수 있기때문이다.

즉 揖保郡揖保里粒丘条에서는 天日槍가 韓国에서 건너와서 宇頭川(揖保川)河口에 도착하고 거기서 国神인 葦原志挙呼命에게 숙박을 청하여 海中을 허가받았는데 그때 客神인 天日槍는 칼을 가지고 바다물을 휘저었기때문에 国神은 그 위세에 겁을 먹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역시 天日槍의 첫 도착지가 揖保川河口였다는것과 그 세력이 이만저만하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는것이다. 계속하여 揖保川中流인 宍禾郡에서는 川音村·庭音村奪谷·高家里·柏野里伊奈加川·波加村·御方里 등에 関連伝承이 있고 奪谷와 伊奈加川·御方里에서는 葦原志挙乎命와, 波加村에서는 伊和大神와 토지쟁탈전을 벌리였다고 전하고있다. 특히 御方里에서는 天日槍와 葦原志挙乎命가 각각 黒葛 세줄을 던지였는데 天日槍의 黒葛는 다 但馬国에 떨어졌기때문에 天日槍는 但馬의 出石에서 살게 되였다고 하였다.

물론 揖保川류역에서 떨어진 神前郡에도 天日槍관련기사가 있기때문에 단순하지는 않지만 대세적으로는 역시 天日槍는 揖保川를 거슬러올라가 但馬의 出石에 정착하였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記紀는《播磨国風土記》와는 다른 내용을 전하고있는데 그것은 비판적으로 검토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하에 그것을 시도해보는바이다.

1. 垂仁紀의 天日槍

(1) 三年春三月에 新羅王子天日槍가 来帰하엿다. 将来物은 羽太玉一箇·足高玉一箇·鵜鹿々赤石玉一箇·出石小刀一口·出石桙一枝·日鏡一面·熊神籬一具이며 합쳐서 七物이였다. 그것을 但馬国에서 보관하였는데 항상 神物로 삼았다.

(2) ((1)의 分注)一云, 처음에 天日槍는 艇을 타고 播磨国에 泊하고 宍粟邑에 있었다. 때에 天皇이 三輪君祖인 大友主와 倭直祖인 長尾市를 播磨에 파견하여 天日槍에게 너는 누구이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물었다. 天日槍가 대답하기를 나는 新羅国主의 아들인데 일본국에 聖皇이 계신다고 듣고 나라를 동생 知古에게 주고 여기에 化帰하였다고 하고 물건을 바치였다. 그것은 葉細珠·足高珠·鵜鹿々赤石珠·出石刀子·出石槍·日鏡·熊神籬·胆狭浅大刀인데 모두 八物이였다.

天皇이 天日槍에게 너는 播磨国宍粟邑나 淡路島出浅邑나 마음대로 있도록 해라고 하였는데 天日槍는 자기는 諸国을 친히 歴視하고나서 사는데를 정하고싶다고 하였다.

天皇이 허가하자 天日槍는 菟道河(宇治川)를 거슬러올라 北으로 近江国吾名邑에서 暫住하고 또다시 近江에서 若狭国를 거쳐서 西로 但馬国에 이르러 거기에서 定住하였다. 以是로 近江国鏡村谷陶人은 바로 天日槍의 従人이다. 天日槍는 但馬国出嶋人, 太耳의 딸인 麻多烏를 娶하고 但馬諸助를 낳고, 諸諸는 但馬日楢杵를 낳고, 日楢杵는 清彦를 낳고, 清彦는 田道間守를 낳았다.

(3) (A) 八八年秋七月에 天皇이 群卿에게 말하기를 新羅王子 天日槍가 처음 왔을 때 가져온 宝物는 지금 但馬에 있으면서 神宝로 되여있는데 朕는 그것을 보고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즉시로 사자를 天日槍의 曽孫인 清彦에게 보내고 그것을 바치게 하였다. 清彦는 몸소 와서 羽太玉一箇·足高玉一箇·鵜鹿々赤石玉一箇·日鏡一面·熊神籬一具를 바치였는데 出石刀子 하나만은 포속에 감추었다. 그러나 天皇이 술을 권하는 바람에 그것이 드러나고 결국 전부 바치게 되였다. 神宝는 神府에 보관되였는데 어느새 出石刀子만은 없어졌다. 그래서 또 清彦에게 사람을 보내고 물어보니 清彦가 대답하기를 昨夕 刀子는 자연히 우리 집에 왔는데 明旦에 없어졌다고 하였다. 天皇은 겁이 나서 그 이상 찾지 않았다. 出石刀子는 自然히 淡路嶋에 왔는데 嶋人이 神으로 생각하고 祠를 세우고 모시였다.「是於今所祠也」.

(B) 옛날에 一人이 있었다. 艇을 타고 但馬国에 泊하였다.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물어본즉 新羅王子 天日槍라고 대답하였다. 天日槍는 但馬에 머무르고 但馬의 前津耳(分注. 一云, 前津見. 一云, 太耳)의 딸 麻陀能烏를 娶하여 但馬諸助를 낳았

는데 이것이 清彦의 祖父이다.

(4) 九十年春二月에 天皇이 田道間守를 常世国에 파견하여 非時香菓를 구하게 하였다.

(5) 九九年에 天皇이 죽었는데 그 다음해에 田道間守가 〈非時香菓八竿八縵〉를 가지고 常世国에서부터 귀국하였다. 田道間守는 天皇이 죽었다고 듣고 天皇陵앞에서 울다가 自死하였다. 〈田道間守, 是三宅連之始祖也〉.

(2)는 (1)의 分注異伝이기때문에 일련의 기사에는 적어도 2개의 原本이 있었다. (1)와 (2)를 비교하면 (1)는 天日槍의 神宝를 〈七物〉이라고 하고 (2)는 〈八物〉이라고 하고 있다. (2)에 있는 胆狹浅大刀가 (1)에 없는것이 류의된다. 그리고 (1)는 神宝가 但馬에 보관되였다고 하는데 대하여 (2)는 天日槍가 도착직후에 天皇에 바치였다고 하고있다. 用字도 細部的으로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原本의 성격에 대하여 언급해놓을 필요가 있다. (2)는 〈一云〉라고 하면서 서술하고있기때문에 기본적으로 原本의 引用文이라고 말할수 있는데 거기에는 播磨·淡路·近江·但馬 등의 국명표기가 있다. 이것들은 記에서는 針間·淡道·淡海·多遲麻라고 표기되여있는데 紀의 표기가 정해진것은 大宝四年 (704)인것이다.[1] 紀의 国名表記와 日本·天皇의 어구의 존재로부터 보면 原本은 原史料 그대로인것이 아니라 그것은 紀편찬의 제1단계로서 704년이후에 紀편자가 原史料에 손질하면서 만들어낸것이라고 할수 있다. 다만 田道間守의 田道間는 但馬라고 쓰지 않았는데 그것은 原史料가 아버지를 그저 清彦라고만 썼기때문에 田道間守전부를 名만이라고 생각하고 原史料의 표기를 그대로 살렸기때문인것이다.

일련의 기사에서 (1)·(3)는 同一原本에 의거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1)에서 神宝가 但馬国에 보관되였다고 하고 (3)에서 天日槍 曽孫인 清彦의 代에 와서 天皇이 그것을 바치게 하였다고 하고있기때문에 일련의 이야기로서 그대로 리해되며 用字도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치하고있기때문이다. 다만 神宝의 내용에서 (3)에는 〈出石桙一枝〉가 없는데에 문제가 남는다. 이것을 出石桙만은 바치지 않았다고 해석할수도 있으나 그것은 아마 적당하지 않을것이다. 왜냐하면 후술하는바와 같이 記에 기록된 出石神社神宝에는 出石桙가 없으므로 出石桙도 역시 바친것으로 볼수 있기때문이다. (3)의 原本에는 〈出石桙一枝〉가 있었으나 그것은 루락된것으로 생각할수 밖에 없다.

한편 (1)의 〈新羅王子天日槍来帰焉〉는 (3)(B)의 〈昔有一人, 乗艇而泊于但馬国〉와 天日槍渡来기사이란 뜻에서는 중복되면서 (1)은 (3)(B)의 요약기사이라는 관계에 있다. (1)과 (3)(A)가 神宝名을 렬거하고있는것도 중복이다. (3)(A)를 보더라도 原本에 충실한것은 (3)일것이기때문에 (1)은 原本에 충실한 문장이 아니라는것으로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성립될것이다. 紀는 編年体史書이기때문에 原本에서는 시대가 명확치 않는 일련의 天日槍도래기사와 神宝献上기사를 분리하여 年次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原本을 참고로 하여 일단 本文을 쓴 稿本단계에서 三年条로서 (1)을

새로 만들었기때문에 기사의 중복 혹은 요약이란 현상이 일어났던것이다. (1)·(3)에 대하여서는 결국 (3)만이 검토대상으로 되는것인데 다만 神宝내용에 대해서는 (1)이 보다 정확하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3)은 天日槍로부터 曽孫인 清彦까지의 계보를 전하고 그 清彦가 神宝를 바치였는데 出石刀子만은 스스로 빠져나가서 淡路嶋에서 神으로 모셔졌다고 하였다.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는 出石刀子霊験譚 혹은 (3)(B)의 〈其嶋人為神, 而為刀子立祠, 是於今所祠也〉에 의하면 이 祠의 縁起譚인것이다. 이 祠의 소재지는 異伝의 (2)에 天皇이 天日槍에게 播磨国宍粟邑와 淡路島出浅邑을 주었다고 씌여져있는것으로부터 미루어 淡路島出浅邑라고 말하수 있을것이다.

(2)는 또하나의 原本에 의거한 기사이다. 그 내용은 天日槍渡来와 但馬定着기사, 그리고 天日槍의 子孫系譜로써 이루어지고있는데 그 계보는 田道間守로서 마치고있다. (4)·(5)은 그 田道間守의 활약을 전하는 기사이기때문에 (2)·(4)·(5)은 同一本에 의거한것으로 리해된다. 그리고 (5)가 〈田道間守, 是三宅連之始祖也〉로서 끝을 맺고있기때문에 그 原本은 三宅連氏家記를 原史料로 한것으로 판단된다.

《新撰姓氏録》摂津国諸蕃部에

三宅連, 新羅国王子天日桙命之後也.

라고 한데에 의하면 天日槍후예인 三宅連氏는 摂津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8세기에는 同族의 三宅忌寸氏가 西成郡의 郡領으로서 활약하고있다. 한편 安閑紀元年10月条에 의하면 6세기에 설치된 難波屯倉(三宅)도 西成郡에 있었다. 三宅連氏는 그 氏名으로부터 보더라도 難波屯倉의 관리 그것도 특히 難波津와 해상교통의 관리에 관여한것으로 추측할수 있다.[2]

三宅連氏는 天武12年(684) 이전에는 三宅吉士氏였다. 吉士는 倭王権의 외교관으로서 활약하였다는것은 주지하는바이다.

이로써도 三宅吉士氏가 難波津에서 주로 수상교통을 관장하였다는것이 방증된다. 6세기 이후의 難波津의 발전은 難波堀江의 開削에 의한것이다.[3] 이것으로써 難波에 닿은 배는 그대로 堀江을 지나서 大和川 혹은 淀川에 들어가 강을 거슬러올라가면서 大和·河内·山城에 들어갈수 있게 되였다. 難波津을 관장한다는것은 해상교통뿐만아니라 大和川·淀川水系의 하천교통에도 관여하는것으로 되였다. 그리고 6세기후반기에 이르러 高句麗使가 北陸에 래착하게 되면서 淀川—宇治川—近江의 琵琶湖에로 혹은 淀川에서 木津川에로 통하는 水運이 더욱 중요시되였다. 欽明31年(570)에 첫 高句麗使가 래착하였을 때 許勢臣猿와 吉士赤鳩가 難波津를 배로 출발하여 近江의 北山에서 高句麗使를 마중하고 宇治川, 木津川을 통하여 高句麗使를 南山城의 相楽까지 인도한 사실이 그것을 증시한다. 難波津의 관장은 畿内뿐만아니라 北陸에서의 水運까지도 시야에 넣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播磨国風土記》와 전혀 다른 (2)의 天日槍巡行路는 아마 難波津의 水運 즉 難波津—淀川—宇治川—琵琶湖의 수상로를 념두로 한것으로서 사실로서의 순행로는 아닐것이다. 이러한 天日槍巡行

路를 상정할수 있었던것은 難波堀江 開削후 難波津을 관장한 天日槍자손인 三宅吉士氏 이외에는 없을것이며 그 순행로는 말하자면 三宅吉士氏가 難波에서 본래의 근거지인 但馬에 향한다면 그렇게 간다는 뜻일것이다. (2)는 처음에 〈初天日槍, 乘艇泊于播磨国, 在於宍粟邑〉라고 하고있는데 이것은 天日槍가 처음에 揖保川하구에 래착하고 揖保郡·宍禾(粟)郡을 거쳐 但馬에 들어갔다고 한 《播磨国風土記》의 내용과 일치된다. 天皇이 天日槍에게 播磨国宍粟邑와 淡路島出浅邑에서 살라고 말하였다는것은 宍粟와 出浅가 天日槍族의 중요거점이였다는것을 시사하는것이며 天日槍가 처음에 바다가운데서 묵었다고 하는 《播磨国風土記》의 〈海中〉이란 바로 淡路島出浅邑을 가리킨것일것이다. 이와 같이 淡路島에서 宍粟까지 온 天日槍가 또다시 難波에서 琵琶湖를 거쳐 但馬에 들어갔다고 하는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며 그것은 三宅吉士氏의 현실적역할을 빼고는 나올리 없는 이야기라고 말할수 있다. (3)에서 〈昔有一人, 乘艇而泊于但馬国〉라고 한것은 또 다른 경로를 말하는것으로도 보이나 (3)은 주제가 出石刀子霊験譚이기때문에 그것은 但馬定住에 이르는 구체적과정을 생략한 표현이라고 말할수 있다.

여기서 남은 문제는 (2)에 天日槍가 近江国吾名邑에 暫住했다고 한것과 近江国鏡村谷陶人이 天日槍의 従人이라고 한것이다. 사실 湖東의 鏡山동록에는 鏡山窯址가 존재하고 부근의 蒲生郡龍王町의 鏡神社는 天日槍를 祭神으로 삼고있고, 또 湖南의 草津市穴村町의 安羅神社도 祭神이 天日槍란 사실은 (2)의 所伝과 관계되는것 같이 보인다.

(2)의 吾名邑의 후보지로서는 우선 《倭名抄》의 坂田郡阿那郷(坂田郡近江町箕浦부근)를 올릴수 있는데 근접한 米原町三吉에는 宮毛의 地名이 있는것이 주의된다. 또 安羅神社가 있는 草津市穴村町도 무시할수 없다. 근접지인 守山市三宅町 그리고 守山市芦原町일대는 安閑紀의 芦浦屯倉로 비정되여있다.[4] 坂田郡近江町도 草津市穴村町도 그것은 6세기이후 琵琶湖岸에 설치된 屯倉의 일부라고 생각되는것이다. 吾名邑가 어느쪽인가는 둘째 두고 三宅吉士氏는 이들의 屯倉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것, 그리고 鏡村谷陶人가 그 屯倉에 須恵器를 공급한 사실을 반영한것으로 생각할수 있다. 吾名·安羅의 이름으로부터 보면 그 지방에는 그 이전에 벌써 加耶계주민이 거주하고있었거나 혹은 三宅吉士氏가 屯倉설치와 관련하여 但馬에서 加耶계주민을 이주시킨것으로 생각된다. 天日槍가 奉祀된 出石郡出石町의 式内名神 出石神社는 出石川류역에 있는데 出石川는 가다가 円山川에 류입하고 北海에 이른다. 円山川하구부근의 豊岡市는 대체로 《倭名抄》의 気多郡賀陽郷에 해당되고 賀陽의 이름은 加耶계주민에 유래하는것일것이기때문에 三宅吉士氏가 이들 加耶계주민들을 조직하여 屯倉설치에 동원하였다는것도 생각할수 있는것이다.

天日槍의 후손이 倭王権밑에서 屯倉開発을 하게 된것은 후술하는바와 같이 5세기후반~6세기전반기의 일로 볼수 있다. 그 시작은 出石神社에 北接하는 豊岡市三宅일것이고 다음으로 奈良盆地중앙부의 磯城郡(옛 城下郡)에서의 일일것이다. 磯城郡川西町結崎에는 式内社糸井神社가 존재하는데 奉祀者의 糸井造氏는 《新撰姓氏録》大和国諸蕃条의 〈三宅連同祖.

新羅国人天日槍命之後也〉에 의하면 天日槍후손인것이 판명된다. 川西町에 南接하여 三宅町가 있고 同郡田原本町에도 三宅·犬飼의 지명이 남아있다. 주목되는것은 三宅町에 但馬의 지명이 존재하는것인데 이것은 但馬에서 온 糸井造氏에 의하여 이 일대에서 屯倉가 개발되였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다.

城上郡 式内社 穴師坐兵主神社·穴師大兵主神社는 〈日矛〉를 神体로 하고있는데 그것은 역시 糸井造氏에 의하여 처음 奉祀된것으로 볼수 있다. (2)에 天皇이 三輪君祖大友主와 倭直祖長尾市를 天日槍에게 파견하였다고 있는것은 穴師兵主神社가 三輪君氏가 奉祀하는 三輪神社와 倭直氏가 奉祀하는 大倭神社의 사이에 개재하고 그리고 兵主神가 본래는 日矛인 사실을 전제로 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5] 다만 日矛를 兵主神라고 한것은 반드시 糸井造氏라고 단정할수 없다. 田原本町일대에는 秦氏의 開発伝承도 많기때문에[6] 그것은 秦氏의 所作일 가능성도 크다. 하여튼 大和와 但馬·播磨 등 널리 분포하는 兵主神社는 天日槍族이나 秦氏의 동향과 관련하는것으로 생각된다. 이 磯城郡의 屯倉開発에 이어 糸井造氏의 일부가 6세기에 三宅吉士로서 難波에 파견된것으로 판단할수 있다. 그리하여 三宅吉士氏는 糸井造氏의 所伝도 참고로 하여 吉士로서의 자기의 활동을 반영시켜 새로운 天日槍巡行路를 설정한것으로 추측할수 있다.

2. 応神記의 天日槍와 難波의 히메꼬소社神

天日槍(天之日矛)에 대하여서는 応神記에도 옛날 일이라고 하여 기록되여있다. 그 개략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 新羅国 阿具沼가에서 어떤 녀자가 日精을 맞고 赤玉을 낳았다. 어떤 남자가 그것을 얻어서 소에 짐을 싣고 산간밭에 들어갔을 때 新羅王子인 天日槍와 맞다들게 되였다. 天日槍는 그 남자가 소를 잡아먹을것이라고 생트집을 잡아서 협박하면서 赤玉을 빼앗았다. 天日槍가 빼앗은 赤玉을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赤玉은 美麗嬢子로 화하였다. 天日槍는 嬢子를 嫡妻로 삼고 잘 지내였으나 점점 거만하게 되고 자주 처를 꾸짖게 되였다. 그렇기때문에 처는 도망가고 難波에 이르러 難波의 히메꼬소社神으로 되였다. 처를 쫓아온 天日槍는 難波의 渡神이 막았기때문에 難波에 들어오지 못하고 드디여 但馬国에서 살게 되였다.

応神記는 이어 天日槍子孫系譜와 天日槍将来物 8物의 내용을 밝히고 그것은 〈伊豆志(出石)之八前大神〉라고 注記하였다.

記의 天日槍기사의 특징은 그 내용이 出石神社縁起로도 되고 難波의 히메꼬소社神縁起로도 되고있는 점인데 후자에 대하여서는 의문이 있다. 天日槍는 揖保川를 소급하여 但馬에 들어간것이 사실이기때문에 天日槍와 히메꼬소社神는 본래 관계가 없는것이다. 難波의 渡神이 막았기때문에 天日槍가 難波에 못들어갔다는것은 본래 무관계한 天日槍에 히메꼬소社神을 억지로 결합시키기 위한 삽입문일것이다. 히메꼬소社神이 新羅에서 태여났다고 한것

도 여기서 나온것이며 原伝承에서는 반드시 新羅였다고는 말할수 없다.

히메꼬소社神縁起의 본래의 모습은 高句麗朱蒙神話와 같은 日光感精卵生型이였으나 그것이 倭에서 赤玉化生型으로 변용하였다고 지적되고있다.[7] 그것은 더 말하면 日精을 맞은 물가의 녀성이 卵을 낳아 그 卵에서 化生한 聖処女가 본국의 압박을 받아 倭地에 도래하였다는것이여서 朱蒙神話와 거의 같은 내용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비슷한 이야기는 応神記를 참고로 하였다고 판단되는 《摂津国風土記》逸文에도 있는데 그에는 女神이 처음에 筑紫国伊波比의 比売島(国東半島北方海上祝灘의 姫島)에 머무르다가 후에 難波의 比売島松原에 왔다는 記에는 없는 서술도 있다. 이 難波와 祝灘의 姫島의 位置로부터 보고 히메꼬소社神은 航海神, 그것도 특히 朝鮮과의 왕래에 관계하는 항해신이였다고 생각할수 있다.[8] 朝鮮과의 왕래와 관련하여 그 항해신을 難波에 모시고 그 연기로서 朱蒙神話를 활용한것은 吉士集団을 내놓고는 따로 생각할수 없다.

吉士集団은 거의 다가 朝鮮出身이며 6세기이후 외교사절로서 조선의 여러 나라에 빈번히 왕래하였다. 吉士集団의 중심적존재는 難波吉士氏였는데 그 이름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難波는 吉士集団의 최중요거점이였고 8세기에도 東成郡·西成郡의 郡領은 吉士가 독점하다싶이 하였다. 이러한 吉士集団이 항해신으로서 히메꼬소社神을 難波에 奉祀하고 朱蒙神話型의 그 縁起를 전하였다고 생각되는것이다. 朱蒙型으로 된것은 히메꼬소社神이 바다를 건너왔다는것과 朱蒙이 奄利大水(広開土王碑)를 거북의 도움을 받아서 건너 忽本에서 건국하였다는 그 海河를 건넜다는 일치성과 관련되는것이다.

이 히메꼬소社神과 天日槍를 결합시킨것은 역시 三宅吉士氏를 비롯한 難波의 吉士集団일것이다. 량자를 결합시키기 위하여 天日槍가 赤玉을 가지고있었던 남자를 소를 잡아먹을것이라고 협박하였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소 이야기가 된것은 難波의 大隅嶋와 媛島松原에서 放牛가 실시된것(安閑紀2年9月条)과 관계가 있다. 이 媛嶋松原란 틀림없이 《摂津国風土記》의 比売島松原이며 히메꼬소社神이 奉祀된 그 땅에서 放牛가 실시된것이 그 발상의 계기가 된것이다. 이렇게 吉士集団속에서 성립한 天日槍와 히메꼬소社神이야기가 三宅吉士氏를 통하여 出石神社에 전해진것으로 볼수 있다. 다만 三宅吉士氏자신은 이 이야기가 그리 명예스러운것이 아니였기때문에 후에 天日槍의 琵琶湖巡航譚을 새로 만들어낸것이라고 상상되는것이다. 記는 天日槍将来物을 珠二貫·振浪比礼·切浪比礼·振風比礼·切風比礼·奥津鏡·辺津鏡의 8種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1), (2)의 紀와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대개 다음과 같은 추측이 성립될것이다.

天日槍에게는 본래 따로 実名이 있었는데 三宅氏의 始祖로서 神格化되였기때문에 出石神社의 主神名이 바로 始祖名으로 전환된것일것이다. 그렇기때문에 出石槍(桙)가 포함된 紀의 所伝이 본래의 神宝이며 그것도 (2)의 〈八物〉이 원초적인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이 胆狭浅大刀가 없어지고 (1)에서 〈七物〉로 되고있는것은 神宝献上以前에 그것이 他所에 分祀되였기때문일것이다. 그 타소란 円山川하구인 豊岡市気比의 式内気比神社이며 福井県

敦賀市의 式内名神気比神社로서 그 祭神인 去来紗(이사사)和気命야말로 이 胆狹浅(이사사)大刀인것이다.[9] 그리고(3) 에 의하면 天日槍曽孫인 清彦代에 와서 出石刀子가 또다시 淡路出浅邑에 分祀되고 남은 六物이 献上되였다는것으로 된다. 그러면 記의 〈八物〉은 본래 神宝 〈八物〉에 수를 맞추어 새로 出石神社의 祭神으로 정해진 물건으로 될것이다.

남은 중요문제는 天日槍의 渡来時期와 그 력사적의의이다. 전자에 대하여 応神記에는 옛날 일이라고 하고 紀는 垂仁代라고 하고있으나 물론 이것은 허구한 소리이다.

天日槍의 但馬渡来는 적어도 但馬지방에 무엇인가 새로운 문화적발전을 가져온것으로 생각할수 있다. 그 점에서 간과할수 없는것은 出石町의 入佐山3号墳이다. 入佐山3号墳은 내부에 장대한 箱型木棺을 안치한 方形土拡墓인데 鉄製의 武器와 工具·方銘四獸鏡 등이 출토하였다. 특히 遺体頭部 주변에 약 150그람정도의 砂鉄이 뿌려져있었는데 4세기후반~5세기전반으로 짐작되는 이 례는 이제까지 알려진 砂鉄의 가장 이른 례라고 한다.[10] 但馬에서의 이 새로운 製鉄文化개시는 天日槍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天日槍의 도래시기는 入佐山3号墳보다 좀 앞서는 시기로 볼수 있을것이다.

記와 紀에 실린 天日槍계보에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記에 의하면 清彦와 田道間守는 같은 天日槍4世孫, 紀에 의하면 清彦은 3世孫이고 田道間守는 4世孫이다. 정확한 사실은 이제 알수 없으나 清彦와 田道間守는 대체로 5세기후반~6세기전반의 인물로 잡아볼수 있다.

清彦에 이르기까지 天日槍族은 但馬에서 독립적세력을 이루고 気比神社로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北陸지방에 많이 진출한것으로 생각된다. 清彦때의 神宝献上이후 天日槍후손은 倭王権밑에서 屯倉開発과 外交에서 활약하였고 그들이 전한 이야기는 三宅氏家記·出石神社縁起 등을 통하여 記紀에 어느 정도 반영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맺는말

신라의 天日槍는 播磨를 거쳐 但馬의 出石에 定着하였다. 그 시기는 대체로 400년전후의 것으로 짐작된다. 天日槍집단은 선진적인 제철기술을 가지고있었기때문에 倭国의 력사에서 긍정적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구체적양상에 대하여서는 앞으로의 고고학적조사를 기다려야 하는 점이 많다.

天日槍와 관련하여서는 蘇那葛叱智와 쯔누가아리시또 등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여야 하겠으나 길어지기때문에 따로 一文을 작성하였다.[11] 아울러 읽어주기를 바라는바이다.

주

1) 鎌田元一〈律令制国名表記의 成立〉(門脇禎二編《日本古代国家의 展開》上, 思文閣出版, 1

995年)

2) 直木孝次郎〈難波의 屯倉〉(同《難波宮와 難波津의 研究》吉川弘文館, 1994年)

3) 積山洋, 南秀雄〈두개의 大倉庫群〉(直木孝次郎・小笠原好彦編《구라와 古代王権》미네르바書房, 1991年)은 上町台地北端에서 발굴된 法円坂大倉庫群을 5세기후반기의것으로 보고 이쯤에는 難波堀江가 어느 정도 그 면모를 갖추었다고 보고있다.

4) 屯倉관계의 지명에 대하여서는 千田稔〈아가따와 미야께〉(同《古代日本의 歴史地理学的研究》岩波書店, 1991年)

5) 黛弘道〈延喜神名式雑考〉(同《律令国家成立史의 研究》吉川弘文館, 1982年)

6)和田萃〈鏡と神仙思想〉(同《日本古代의 儀礼와 祭祀・神仰》中, 塙書房, 1995年)

7) 三品彰英《日本書紀朝鮮関係記事考証》上, 吉川弘文館, 1962年, 42페지

8) 松前健〈記紀의 히메꼬소縁起의 成立〉(《大阪成蹊女子短期大学研究紀要》27, 1990年)

9) 粟田寛《神祇志料付考》에 소개된 水戸彰孝館의 豊田亮〈気比神考〉

10) 出石町史編纂委員会《出石町史》4, 1993年, 11～15페지

11) 拙稿〈쯔누가아라시또와 히메꼬소神〉近刊

지방의 자연지리적조건과 공업기지의 창설(2)

사 공 준

우리 나라에서 지방의 종합적공업생산기지의 창설은 일반적으로 동부 및 서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였다. 이 글에는 서부지역의 도의 종합적인 공업생산기지창설을 자연지리적조건과 결부하여 검토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지방행정단위에서 군이 종합적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도는 중앙과 군사이에서 중간다리의 역할을 합니다.》(《김일성저작집》 27권 198페지)

우리 나라의 행정단위는 중앙, 도, 군이 있으나 도는 중앙과 군의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고있다.

도는 행정단위인 동시에 경제조직단위의 하나로 되여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과 군의 중간다리의 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도에 종합적공업생산기지를 창설하였다고 볼수 있다. 도의 종합적인 공업생산기지를 창설할 때의 구성요소는 국가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앙공업(기업소)과 지방적인 의의를 가지는 지방공업(기업소)의 두가지를 들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원료생산으로부터 가공, 생산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공업생산순환체계를 구성하여 진행된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의 종합적공업생산기지의 창설은 해방후 당시의 사정으로 동부 및 서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유리한 자연조건이 있었기때문이다. 동부와 서부 지역에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도들이 위치하고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원료, 자원이 있고 공업생산기지를 다방면적으로 배치할수 있었기때문이다.

Ⅰ. 평안남도, 남포시

자연지리적조건을 보면 평안남도에는 무연탄매장량이 전국의 80%를 비롯하여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대동강의 물을 리용할수 있다. 또한 주변의 산지에는 풍부한 산림자원이 있다. 서해안일대에서는 소금이 생산되기때문에 서부지역에서도 이 지역이 먼저 종합적공업생산기지가 창설되였다.

무연탄과 석회석에 기초한 공업기지의 창설

서부지역에는 탄광이 많다. 신의주탄광, 개천지구탄광, 덕천지구탄광, 구장지구탄광, 안주지구탄광, 순천지구대탄광, 북창지구탄광, 강동지구탄광, 대동탄전, 사리원탄광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매장량도 많다. 례컨대 순천탄광의 매장량은 7억 7,300만 t 이다.

또한 평양남도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은 전국의 여러 공업부문의 원료로 리용되여있다.

석회석의 채굴량은 년산 800만 t 정도이며 주요산지는 순천~성산, 부산, 오봉, 개천~대각, 광음 등이다.

이와 같은 무연탄과 석회석을 리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장, 기업소가 창설되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덕천탄광기계공장
신성천탄광콩크리트동발공장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개천탄광콩크리트동발공장	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순천탄광콩크리트동발공장	탄광설비부속품공장
서부지구탐사설비부속품공장	조양영예탄부공장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카바이트생산기지창설
순천비날론공업기지창설	세멘트공업기지창설

당면 점판암확보매장량(만 t)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23,000
2.8 세멘트련합기업소	2,000
승호리세멘트공장	1,500
천내리세멘트련합기업소	4,000
구장세멘트공장	600

카바이트생산

2.8비날론공장	36%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34
청수화학공장	30

갈탄에 기초한 공업기지의 창설

서부지구의 청남구, 문덕, 숙천, 평원, 그리고 청천강과 온천의 앞바다에는 우리 나라 유연탄의 대부분이 매장되여있다. 이곳에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가 위치한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생산량 : 년산 7,000~1억 t)에는 다음과 같은 탄광이 있다. 립석, 태향, 룡림, 삼천포, 신리창동, 철리, 서사, 서호, 연풍청년, 광천, 청남, 7월 12일, 화풍 등이다. 주지구탄광의 석탄을 리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장, 기업소들이 배치되여있다. 콩크리트동발공장, 전기수리공장, 소공구공장, 생활필수품공장, 설비보수사업소, 영예탄부공장, 자동차운수대 등이다.

당면 석탄확보매장량(천 t)

안변지구	1,061	전천탄광	18,700	마동지구	125,000
덕천지구	790,069	개천지구	753,118	순천지구	631,958
구장지구	164,174	고원지구	191,993	강동지구	290,547
북창지구	137,401	삼신지구	10,166	강서지구	22,900
문천탄광	8,440	천내탄광	11,420		

당면 석탄확보매장량(천 t)

신의주탄광	4,976	안주지구	8,055,483
사리원탄광	7,134	함북도지구	451,046
금야청년탄광	21,250	회양초무연탄탄광	72,000

(표준연료 29,300KJ/Kg 로 환산)

북창탄전의 석탄을 리용한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전력은 서부지구의 전력수요와 이 지역의 알루미니움공업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당면한 전망은 이 발전소의 전력을 리용하는 새로운 기계기지의 창설, 새 알루미니움공장건설을 원만히 보장하며 다음에 올리는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이다.

—저열탄을 리용한 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다.

—안주지구탄광의 석탄과 청천강화력련합기업소의 전력을 리용한 유연탄화학공장을 건설한다.

—합성고무공장은 이 지구의 석탄과 화력발전소의 전력을 리용하여 건설, 발전시킨다.

—새로운 탄광설비생산기지의 창설.

—녀성로력을 많이 리용한 화학원료가공기지의 창설, 방직공장의 창설, 이 외에도 앞으로 안주석유화학과 결부된 공업기지의 신설이 제기되여있다. 그리고 개천지구에 공업기지를 신설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청천강하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공업지구가 창설된다.

금속광물에 기초한 공업기지의 창설

평안남도에는 무연탄과 석회석이 풍부히 매장되여있기때문에 금속생산기지의 창설에 유리하다. 그것은 대용량저열탄화력발전소의 전력을 리용한 유색금속생산기지의 창설이 가능하기때문이다.

자원	매장지
갈철광	개천
릉철광	안주(1 억 1500 만 t : 수송편리)
금, 은, 동	성흥광산(회창)
연～아연	성천광산(성천)
연	룡흥광산(성천)

대동강하류지구 야금생산순위는 ①황해제철련합기업소 ②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③4월13일제철소이다.

전망

이 지역에서 기존 금속생산기지와의 련계속에서 새로운 공업기지를 창설할 때는 남포의 금속공업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공장을 건설할 때는 그러하다. 그것은 알루미니움공장(북창), 유색금속가공공장(덕천) 등이다. 기존 금속생산기지와의 련계와 새로운 공업기지의 창설을 잘하면 정밀기계공업의 창설이 가능하게 된다.

이 지역의 주요 중소금속공장들은 희천강철공장, 강계강철공장, 평양강철공장, 강계압연공장, 강서금속공구공장, 함흥강철공장, 강서강철공장, 문천강철공장, 해주강철공장 등이다.

그리고 서부지구 유색금속생산순위는 ①남포제련련합기업소 ②평북제련소 ③평양유색금속공장 ④개천실루민공장이다. 이 지구의 공업발전에 없어서는 안되는 소금생산기지는 표와 같다.

남포제련련합기업소의 생산능력

생산물	생산능력
과린산석회	40%
규소비료	26
류산	16
전기아연	8
아연제품	6
전기동	4

주요 제염소

제염소	면적(ha)	제염소	면적(ha)
귀성	1,548	광량만	1,092
금성	567	남양	1,648
남시	483	연백	1,300
남포	529		

지방원료에 기초한 공업기지의 창설

1982년현재 평안남도내의 국가적인 종합적공업기지에서 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도공업총생산액의 21.7%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지방원료의 37.8%를 리용하고있는 셈이다.

지방원료에 기초한 공업의 대표적인것으로 곡산공장을 들수 있다. 주요 곡산공장에는 평양곡산공장, 북창곡산공장, 의주곡산공장, 강계곡산공장, 해주곡산공장, 사리원곡산공장, 원산곡산공장, 함흥곡산공장, 회령곡산공장 등이 있다.

군공업기지뿐아니라 도적의의를 가지는 공장, 기업소의 원료도 지방원료에 의거하고 있다. 특히 농업의 발전은 원료문제 해결에 중요하다. 다음에 몇가지 례를 올린다.

북창곡산공장은 평양곡산공장 다음에 가는 규모의 공장이다. 1982년현재 강냉이처리능력은 10만t이다. 평원식료공장은 1,500t의 과일처리능력을 가진다. 9.25지게차공장(순천)은 소형뜨락또르공장건설에 유리한 토대를 가지고있는 공장이다. 기타 1월3일련결차공장(온천), 9월28일공장(신안주) 등이 있으며 방직공장은 국가적인 의의를 가진 공장들이 많다.

평양의 일용품공장

철제일용품공장	화장품공장
도자기공장	가구공장
법랑철기공장	유리공장
화학일용품공장	모피공장
완구공장	연필공장
학용품공장	안경공장
수지일용품공장	

화학공업이 집중된 도시는 평양, 남포이다. 참고로 해주도 올렸다.

평양…평양제약공장, 대동강축전지공장, 철도축전지공장, 평양고무공장, 평양칠감공장

남포…남포염료공장, 남포제약공장, 남포어린이약공장, 강서화학공장
해주…해주화학공장, 해주판지공장, 해주린비료공장

Ⅱ.평안북도

평안북도공업의 전국공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10%이다. 자연지리적조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공업기지가 창설되였다. 표에서 몇가지 례를 올린 부문에서는 국가적인 규모의 공업기지, 도적인 공업기지들이 건설되였다.

자연지리적조건은 매우 다양하다. 그것을 표로 하였다.

자원 등	비 고
모나즈석	철산표사광산
티탄	철산표사광산
화강석	석제원료
석회석	세멘트원료
원유가공기지	석유화학제품
모래자원	건재원료
산림자원	종이, 팔프
방직공장	국가로부터 원료공급을 받는 공장
전력자원	압록강, 청천강 등, 큰 락차와 석탄자원
지하자원	철, 금, 석탄, 석회석, 모나즈, 린회석, 티탄
건재	모래
화학건재자원	회망초
건재자원	화강암
비단섬	갈
누에고치	견직공장원료
산림자원	경제림면적의 확대
원유가공기지	기존공장이 위치
물자원	풍부

유색금속생산기지의 창설

평북제련소(정읍)는 ①가까이에 중소광산이 위치, 특히 금(동창, 운산), 모나즈석과 티탄이 보장된다. ②가까이에 수력발전소가 위치 ③류산생산기지가 접근하고있으므로 이를 리용한다.

정주과린산석회비료공장은 린회석은 풍년광산(삭주), 평북제련소에서 생산되는 류산과 풍년광산의 린회석을 리용하고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초산(楚山)의 철광석을 더욱 합리적으로 잘 리용하기 위하여 청수~수진리(의주)에 철도를 신설하는것이다. 초산~수풍간의 선박, 9월제철련합기업소(덕현) 등이 있으며 원료철광은 9,000만t(덕현), 새로 발견된 초산의 매장량은 2억t 등 원료가 보장된다.

주요 발전소(1,000kw:1984)

서부지역	동부지역
수력……수풍발전소… 700	장진강발전소…346.8
장자강발전소… 81	부전강발전소…202.3
운봉발전소… 400	허천강발전소…354.6
대동강발전소… 20	3월17일발전소…455.0
강계청년발전소… 224.2	부령발전소… 36
미림갑문발전소… 32	[금강산발전소…건설중(810)]
화력…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1600	3월17일화력발전소…200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500	청천강화력발전소…200

국가적인 기계공장에는 락원기계공장, 8월1일공장, 4월3일공장, 8월8일공장, 7월13일공장, 8월28일공장이 있다.

갈밭면적과 갈생산량

지 점	갈밭면적 (ha)	생산량 (만t)
비단섬	4,627	7.0
서 호	1,400	0.7
정 주	600	0.3

신의주화학섬유공장(1983)

생산물	생산량
스 프	3%
종 이	54
판 지	37
가성소다	2
류 산	1
점결제	3

전망은 도로를 리용하여 철광운반을 보다 원만이 해결하는것이다. 생산규모를 강철 20~50만t으로 하여 이 지역의 수요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데 있다. 다음으로 갈을 원료로 한

화학공업기지를 더욱 정비확대하는것이다. 평안북도에서는 이러한 갈을 리용한 공업이 창설되였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공장은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방직기계공장이다. 화학건재의 자원인 회망초(石灰茫酸)가 새로 15억 t 발견되여 이를 리용한 공업이 발전하게 되였다.

또한 이 지역의 화학공업의 기본원료는 무연탄과 석회석이다. 이것을 리용한 주되는 공장은 청수화학공장이다. 청수화학공장은 ①수력발전소가 접근 ②물자원의 확보 ③조국해방전쟁시 창설된 기술적토대가 있다. 이 공장의 주요 생산물은 다음과 같다. 용성린비료 15만 t, 카바이드 12만 t, 석회질소비료 16만 6,000 t 이다.

그러나 위치상 무연탄과 석회석의 반입에는 불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수지구의 화학공업은 카바이트, 석회질소비료생산을 중심에 두게 되였다.

구장지구에는 무연탄이 많다. 매장량 1억5,000만 t, 석회석의 생산도 300만 t 있다.

이것에 기초하여 평안북도에서 요구되는 무연탄과 석회석을 원만히 보장하고 또한 세멘트를 생산하고있다. 구장지구의 탄광은 평안북도의 석탄수요의 기본연료기지가 된다. 구장세멘트공장은 평북의 기본 세멘트기지이다. 지방의 중소세멘트공장수는 170여개이고 총생산액은 66만 t (1983)이다.

구장지구 주요탄광 매장량

탄광	매장량(천 t)
룡등탄광	146,987
룡문탄광	27,780
룡수탄광	18,379
계	193,146

대규모세멘트공장수

평양……1	황해북도……2
평안남도……2	량강도
평안북도……1	함경북도……1
자강도……1	함경남도……1
황해남도……1	강원도……1
	계 11

당산지구에 유연탄의 매장량이 600만 t 있다. 이것으로 신의주의 수요의 일부를 충당하고있다.

화강석 및 석회석

석회석광상의 확보매장량(만 t)

순 천 24,000	청 룡 20,000
승호리 14,000	신 덕 600
천내리 13,000	고무산 5,000
구 장 5,000	

모래자원

지 방	채사장	지 방	채사장
평양	2	강원도	4
평안남도	3	함경남도	4
평안북도	6	함경북도	4
자강도	4	량강도	4
황해남도	3		
황해북도	1	계	35

종이생산의 국가적인 공장은 신의주팔프공장, 도적인것은 정주제지공장이 있다.

기타 도적인 공장으로 신의주만년필공장, 구성자전거공장, 신의주시계공장, 운전도자기공장, 신의주전구공장들이 건설되였다.

신의주의 지방일용품공장

철제일용품공장	학용품공장
목제일용품공장	완구공장
가구품공장	안경공장
유리품공장	

원유가공기지

국가적인 공장에는 봉화화학공장이 있다.

지방원료에 의거한 지방공업생산을 보면 1982년현재 평안북도의 지방적공업생산액이 도공업총생산액의 27.6%, 지방적공업생에서 필요하는 원료의 44.9%를 보장하고있다. 지방원료의 대부분은 농산물이다. 그리고 농업의 발전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이 있는 다른 공업부문이 배치되여있다.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강냉이(생산량 전국 1 위)는 의주를 중심으로 한 중간지대에서 생산된다. 의주곡산공장(강냉이처리종합공장)의 강냉이처리는 4만 t 이다.

②농업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공업생산기지가 창설되여있다. 주되는 공장은 정주뜨락또르공장, 곽산련결농기계공장이다.

방직공장 :

—국가적인 공장 : 신의주법랑철기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주요 견직공장 : 안주견직공장, 팔원견직공장, 박천견직공장, 금야견직공장, 녕변견직공장

—중앙으로부터 원료의 공급을 받는 공장

신의주모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박천견직공장 녕변견직공장

—지방적의의를 가진 공장은 룡천양말공장, 구성양말공장

Ⅲ.황해북도

황해북도의 특징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가 우리 나라 공업의 발전에서 놀게 되는 역할, 송림시의 지리적위치 등과 관련하여 황해남도보다 먼저 종합적인 공업기지가 꾸려진데 있다.

이 지역에 황해제철련합기업가 창설된 리유는 다음과 같다.

송림시의 지리적위치는 수도 평양의 공업위성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이 할수 있다는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이 있었기때문이다. 황해제철련합기업(당시는 황해제철소)는 1950년대말에 기초가 구축되였다. 1958년 5월 1일 용광로가 조업을 시작, 1950년대말에는 평로, 혼성로, 제강직장, 조괴직장, 후판직장, 박판직장이 창설되고 선철, 강철, 강재, 콕스 생산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관련 공장, 기업소가 주변에 건설되여 련합기업소가 되였다.

우리 나라 림산사업소 및 작업소(1982)

	사업소 (개)	작업소 (개)
량강도	13	64
자강도	16	64
함경남도	9	24
함경북도	9	35
평안남도	5	20
평안북도	6	22
강원도	2	16
황해북도	1	5
계	61	250

지리적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석회석 : 서부지역의 봉산을 중심으로 년산 송림이 40만 t , 서흥이 100만 t , 봉산이 300만 t 이다. 석회석은 황해제철련합기업의 보조재료, 세멘트공장의 원료(전국적의의)로 리용된다.

중석(철망간중석) : 만년광산에는 우리 나라 매장량의 약 53.5 %가 매장되여있다.

석회석의 매장량(천 t)

석회석	매장량	석회석	매장량
평 양	8,010	자강도	3,400
남 포	2,000	량강도	1,600
평안남도	16,500	함경북도	9,200
평안북도	5,100	함경남도	15,700
황해남도	21,100	강원도	3,300
황해북도	11,700	개 성	280

연～아연(연산광산), 휘수연, 석재, 초무연탄, 금, 은, 동(연산광산), 동(평산), 류화철(남천), 형석(평산광산), 석고(홀동광산)

철도와 도로망이 발달되여있다. 평부선(평양～개성)이 전기화되고 사리원～해주선이 광궤화되였다. 평산～세포간이 신설되였다. 도로는 평양～개성, 신평～곡산～신계, 연산～수안～신계～평산 간을 통과하고있다.

이 도의 공업생산액은 1982년현재 전국 공업총생산액의 3.8 %를 차지한다. 도공업생산액에서 지방공업이 차지하는 비률은 47.2 %이고(전국 1 위) 지방원료를 46.7 % 리용하고 있다.

국가적인 공장은 사리원광산기계공장, 사리원방직공장, 사리원방직기계공장, 홀동광산(연산), 2.8 세멘트련합기업소(봉산), 은파주름판지공장, 은파광산, 만년광산(신평), 수안광산 등이 있다.

도적인 공장에는 사리원압연공장, 사리원화학공장, 사리원신문종이공장, 사리원견직공장, 사리원곡산공장, 사리원전구공장, 사리원연필공장, 서흥기계공장, 봉산가성소다공장, 송림판유리공장, 송림자전거공장, 송림일용품공장 등이 있다.

지방원료의 중심은 농산물이다. 례컨대 사리원곡산공장의 강냉이처리능력은 3만 t (1982)이다.

지방원료의 다른 하나는 제철공장에서 나오는 강철폐설물이다. 이것을 리용한 공장은 사리원철제일용품공장, 송림철제일용품공장이다.

Ⅳ.황해남도

황해남도는 처음에는 농업～공업, 점차적으로 공업～농업이 발전한 도이다.

자연지리적조건을 보면 다음가 같다.

—기후가 온화하다.

—평야가 넓다.

—철(은률, 재령, 태탄), 금, 은, 동, 연, 몰리브덴 매장량이 많다. 은률광산의 철매장량은 재령과 태탄을 합한것보다 많다. 여기의 광석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4월14일제철소의 원료로 리용된다. 재령광산(금산로동자구)에는 광산설비공장이 있다. 태탄광산은 신설된것이다.

유색금속에 의거한 공업기지의 창설

11월8일광산은 이 지역 최대의 광산이다. 락원광산(장연)은 연～아연, 은, 카드미움의 매장량이 많다. 용진광산(금, 은, 동, 연～아연), 은봉광산(배천봉량로동자구), 부포광산(강령), 멱미광산, 은봉광산, 삼천광산, 성천광산, 승창광산, 장강광산, 구곡광산(용진), 장연광산기계공장이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해주제련소에 린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포함시킨 새로운 유색금속공장이 신설되게 된다.

도공업총생산액에서 지방공업이 차지하는 비률은 41.1%이며 원료의 42.7%를 지방원료에 의거하고있다. 례컨대 해주곡산공장의 강냉이처리능력은 년 3만t이다. 과일가공공장(과일군)등이 있다.

해주련결농기계공장의 도 뜨락또르소유수 약 1만대, 자동차수 약 1,900대이다.

조선서해 물고기생산(순위)

순위	1941	1960	1970	1980
1	조기	조기	멸치	멸치
2	까나리	까나리	맥개	맥개
3	칼치	칼치	전어	까나리
4	강달어	반지	까나리	빈즈미
5	반지	복어	삼치	전어

개성의 지방일용품공장

철제일용품공장	유리공장
목제일용품공장	모피공장
수지일용품공장	연필공장
도자기공장	학용품공장
화장품공장	완구공장
가구공장	수예품공장

우리 나라 양어사업(1983: h a)

지구	양어장 (개)	인공못	저수지 강하천
서해	60	214	29,280
동해	21	29	8,670
내륙	11		6,330

사 회 과 학 론 문 집 (제 8 호)

편집발행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112 東京都文京区白山 4 －33－14
TEL 및 FAX 03 (3816) 4335

발행날자 1 9 9 7년 2월 1일